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이형우 외 30명 지음
한영태 감수

장보고 대사님은 당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유민을 모아 땅의 남측 해안부터 대운하 유역과 산둥반도 연해에 걸쳐 자치 조직인 신라방, 신라소를 설치하여 대중국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제당 신라인과 일본 그리고 통일신라를 한데 묶어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백의민족, 단일민족'임을 내세우며 자랑스러워하였으나 요즘 들어서 그 말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사회를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은 1,200년 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적산풍경 명승구에서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장보고 대사님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바다를 지배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해양 강국 건설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한·중 해양 실크로드에서 만난 스승〉 중에서

21세기는 세계화, 해양화의 시대로 바다의 개발과 관리는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동안 천혜의 해양 조건을 바탕으로 진화·발전해 온 해양국가로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은 이러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주변국은 물론 세계와의 우호적인 협력과 당당한 경쟁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양 전략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의 해양력을 두루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은 우리나라 해양을 대표하는 공익 법인으로서 우리나라 해양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 해양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해양 문화와 해양 정책은 물론 과학기술과 해양 산업 등 해양 각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 발전하여 교육과 연구 그리고 관련 핵심 기술과 정책 개발의 중심이자 정점이 되어 초일류 해양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발행처 |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
발행인 | 이부식
지은이 | 이형우 외 30명 지음
감수자 | 한영태
발행일 | 2014년 12월 25일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12) CCMM빌딩 6층
전화 | 02)741-5278
팩스 | 02)3673-3312
이메일 | maritimekorea@hanmail.net
홈페이지 | www.koreamariitimefoundation.or.kr
공급처 | 도서출판 책장

ISBN | 979-11-954189-0-9 (03910)

비매품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이형우 외 30명 지음
한영태 감수



발간사

해상왕 장보고는 일찍이 동북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한중일 삼국 무역을 주도하며, 한반도를 국제 무역과 물류의 중심으로 일으켜 세운 대표적인 해상 위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장보고의 위상과 해양 개척정신을 교육 현장에 널리 알리고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진행된 본 사업은 현재까지 총 3,4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고, 올해에도 200여 명의 교사들이 장보고의 업적과 의의를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그 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고 청소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답사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탐방기를 모집, 그 중에서 31편의 우수작을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는 답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해양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에게 배포하여 선생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생생한 지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책을 통해 장보고는 역사 속 인물이 아닌 교육 현장과 생활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친근한 위인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답사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답사단의 강의를 맡아 주신 교수님들과 (사)해향회, 그리고 (재)한국해양전략연구소 등 함께해주신 해양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재)한국해양재단 이사장 이 부 식



차 례

- 01 | 장보고 대사의 DNA를 계승하자
화흥중학교 / 이형우(대상) · 9
- 02 | 사랑하는 딸들에게 보내는 「나의 중국 문화 유적지 답사기」
주석초등학교 / 성혜숙(최우수상) · 43
- 03 | 21세기에 만난 해상왕 장보고
예일여자중학교 / 임효순(우수상) · 64
- 04 | 장보고 답사, 무채색 지도를 충전연색으로 바꾸다
부산 운송초등학교 / 정명숙(우수상) · 89
- 05 |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진성고등학교 / 성홍주(우수상) · 107
- 06 |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대평중학교 / 박세옥(장려상) · 125
- 07 | 해상왕 장보고를 만나다!
부명고등학교 / 공선미(장려상) · 146
- 08 | 한·중 해양 실크로드에서 만난 스승
안양 귀인초등학교 / 박화순(장려상) · 159
- 09 | 동북아 무역왕 장보고! - 중국인의 마음에 우뚝 서다
인천 남동초등학교 / 김동위(장려상) · 178
- 10 | 해상왕 장보고, 세계 속에 미래 한국을 보다
인천 초은중학교 / 구수옥(장려상) · 195
- 11 | 21세기는 해양의 시대 - 미래의 개척자 장보고의 정신을 배우다
인천 학산초등학교 / 김효수(장려상) · 209

- 12 | 2014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경덕중학교 / 전돈수(가작) · 233
- 13 | 영터리 선생의 뜻 깊은 여행담
고양한내초등학교 / 양정모(가작) · 248
- 14 |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보고서
광양고등학교 / 전보현(가작) · 261
- 15 | 역사의 현장을 다녀와서
부산 금정초등학교 / 박명자(가작) · 269
- 16 | 바다를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
서울 대방중학교 / 최명숙(가작) · 283
- 17 | 사랑하는 아들아! 바다를 너의 가슴에 품어라!
덕신초등학교 / 장원기(가작) · 302
- 18 | 서라벌에서 페르시아까지
- 그대의 거친 숨결 넘실대는 파도를 따라
부산 가평초등학교 / 남경숙(가작) · 319
- 19 | 장보고, 내 마음에 우뚝 서다
인천 새말초등학교 / 조민자(가작) · 343
- 20 | 석도항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서울공업고등학교 / 윤병남(가작) · 363
- 21 |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찾아
-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후기
성남초등학교 / 강순해(가작) · 376

22 | 한여름의 시간 여행

성덕여자중학교 / 이석민(가작) · 390

23 | 2014 해상왕 장보고 -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신계초등학교 / 최장선(가작) · 407

24 | 장보고의 숨결을 따라

산의초등학교 / 하주봉(가작) · 416

25 | 동북아 글로벌 경제의 선구자! -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삼척 임원초등학교 / 박기태(가작) · 427

26 | 장보고를 알고 계시나요?

주천초등학교 / 이재영(가작) · 445

27 | 해신 장보고의 발자취를 찾아서

서울 진관초등학교 / 김동중(가작) · 454

28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보고서

풍양중학교 / 윤순자(가작) · 462

29 |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호성초등학교 / 최순(가작) · 483

30 | 중국 속 한국을 걷다. -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서

화곡고등학교 / 정광진(가작) · 499

31 | 해양 강대국으로 가는 길, 해양 위인 장보고와 마주하기

속지고등학교 / 김라미(가작) · 515

참가자 및 인솔자 명단 · 531

INDEX · 538

01 장보고 대사의 DNA를 계승하자!

미래의 개척자 장보고의 정신을 배우다

화홍중학교 / 이형우(대상)



외교관을 꿈꾸는 흥에게

2014년 7월 23일 오후 8시, 붉고 둥근 해가 함지(陷地)로 빠져든 밤, 이름도 정다운 화동휘리는 인천항을 떠나 중국 산둥성 석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다. 서해라고 말하는 저 바다……. 그런데 왜 황해라는 별칭이 있을까? 유사 이래 중국 황하에서 내려온 누런 물이 서해로 흘러들어 바다색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중국도 이를 인정한다. 그들도 황해라 부르지 않는가! 결국 서해의 별칭 황해가 중국에서도 불리니 황하의 누런 물로 인해 바다 이름 때문에 중국과 다투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다. 일본이 무턱대고 동해를 일본해라 우기는 것은, 최현배 선생의 주장대로 알팍한 섬나라 종자(?)들의 근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 서해에서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 660년 이후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대병이 건너온 일이 아닐까? 신라는 외세 당나라를 불러들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소위 나당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멸망시켰다. 백제인들은 혈투를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말았다. 계백 장군의 분투는 비장하기까지 하다. 백제인들은 종묘사직을 잃자 망국의 한을 품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섬나라 일본. 일본의 가장 오랜 역사서는 『고사기(古事記)』이다. 이는 백제 유민 오오노 아소미 야스마로(太朝臣安麻呂)가 썼다고 하는데 특히 상권을 보면 고향, 곧 백제를 그리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일본 오사카 도래인(渡來人)의 후손들은 '앗소'라는 축제를 해마

다 별이다. 일본어로 '시텐노지 왓소'라 하는데 고대의 한반도와의 교류 모습을 재현하는 화려한 축제이다. 먼저 건너온 유민들이 이제 망국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왓소?'라 하면서 환영했고, 이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축제로 정착되었다.

나당 연합군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고구려로 진격하였다. 수나라와 당나라를 여러 차례 위협했던 강대국 고구려는 그러나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미국의 종교철학자 에머슨은 이러한 아포리즘을 남겼다.

“어떤 나라도 자살 이외의 방법으로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다, 고구려는 자살한 것이다. 형제들 간의 처절한 골육상쟁으로 그토록 허망하게.

멸망 이후 고구려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중국의 기록을 보면 당나라는 2차례에 걸쳐 주요 인물 20만 명을 수도 장안(長安:지금의 西安)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망국의 설움을 이기고 나라를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계속해서 기의(起義)한다. 중국은 이들의 기의를 막고자 중국 남부 오지로 나누어 분산시킨다. 그 결과 송나라 때부터 중국 남부에는 먀오족(苗族)이라는 소수민족이 등장한다. '먀오(苗)'라는 말은 '사납다'는 뜻으로 사상이 주희가 붙인 말이라고 한다. 김인희 교수가 쓴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에 잘 나타나 있다.

나당연합군에 의한 삼국통일, 이는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



국역사』에서 말한 바, 한국 역사에서 천고의 한을 남긴 불행한 사건이었다.

평양에서 또는 목포·군산·평택·남양 등지에서 보내는 공물을 운반한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세금으로 바치는 곡물이나 진상품이 이곳을 거쳐 한강으로 올라가 한양 조정 또는 권세가의 비밀창고로 들어갔다. 특히 1800년대 초반부터 억울하게 빼앗기거나 뇌물로 바쳐진 물건이 얼마나 많았을까? 민중의 한과 눈물이 배어 있는 바다이다.

1866년 8월 병인양요, 1871년 4월 신미양요도 있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는 무슨 전리품처럼 강화도 외규장각을 강탈하여 자국으로 가져갔다. 이른바 <조선 의궤>이다. 이는 2011년 4월, 영구임대 형식으로 145년 만에 귀환하였다. 외교관 유복렬이 쓴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1894년 7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청일전쟁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아산만 풍도를 필두로 성환, 평양 등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쟁탈을 위해 벌인 전쟁으로 한반도는 초토화되었고 국운은 완전히 쇠락하였다. 이는 뒤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이번 답사의 목적이기도 한 장보고 대사의 족적도 여기에 뚜렷이 있다. 장 대사는 이곳을 통해 당나라로 가서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고, 귀국하여 무역왕의 위치에 올라 신라라는 국격(國格)을 한층 높였다. 이 글을 쓰는 중요한 이유이다. 너는 외교관을 꿈꾸기에 장 대사가 주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라. 장 대사는 과거의 인물을 넘어 현재의 위인이며 미래의 표상이다.



답사 2일(7월 24일)

약간 비가 뿌리는 가운데 위하이(威海) 앞 바다에서 배를 타고 20분을 가니 뤼쿵다오(劉孔島)에 도착한다. 1894년 청일전쟁(중국 식 표현은 갑오중일전쟁)의 최후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중국 현대사의 선각자 량치차오(梁啓超)는 청일전쟁을 이렇게 말한다.

“喚起千年之大變 實自甲午一役始也.”

곧 ‘중국 천 년의 큰 변란을 환기한다면 진실로 갑오전쟁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치욕적인 사건이다. 그들에게 일본은 교화도 불가능한 야만족이 사는 나라거늘, 중화질서 하에서 변방에 조차 속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완패했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리라.

1894년에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이 발생하자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종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한다. 여기에 일본도 텐진 조약(天津條約)을 근거로 파병한다. 두 나라에 조선은 손쉬운 사냥감에 지나지 않았다. 아산만 풍도 전투로 시작하여 뤼쿵다오 전투를 끝으로 청나라는 두 손을 들고 만다. 그 결과 맺은 치욕적인 조약이 시모노세키조약이다. 여기에서 청나라의 운명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2억 냥이라는 전쟁 배상금은 중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조약의 당사자 리홍창은 한동안 중국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

외세끼리의 전투가 한반도에서 벌어졌으니 약한 자의 슬픔은 이



를 두고 한 말인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이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가 무참히도 죽은 것이다. 중국이며, 일본이며,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할 꿈도 꾸지 말라. 어떤 경우든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 통일 문제에도 나서지 말라.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현재 한국은 120년 전 조선과 전혀 다르니 착각은 금물이다. 너희들은 역사의 진리를 모르는가? 거대한 로마제국이 1,200년 간 지속되었거늘 어느 날 갑자기 희미한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이유를.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남을 침략하여 괴롭힌다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조령(祖靈)들과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신'이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당시 청나라의 전력은 일본보다 7배쯤 앞섰다고 한다. 그러면 왜 졌을까? 서태후의 전횡이 그 원인이다. 남편 9대 함풍제, 아들 10대 동치제, 조카 11대 광서제를 차례로 섭정하면서 권력을 움켜쥔 서태후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황제 별장 이허위안(頤和園)을 재건한다. 이허위안은 1859~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일명 애로우전쟁) 당시 영불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함께 파괴되었던 위안밍위안(圓明園)의 재건은 제쳐두고 여기를 대폭 확장하여 복원하였다. 참고로 당시 영불연합군은 자금성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소식을 접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를 격렬히 비난하였고, 이에 영불연합군은 자금성을 포기하고 이허위안과 위안밍위안을 폐허로 만들었다. 서태후는 이허위안의 복원을 위해 당시 청나라 해군의 7년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니, 패배는 어찌면 당연

한 일이 아닌가!

청일전쟁이 발발한 날은 1894년 7월 25일로, 우리 일행이 간 날은 하필 청일전쟁 120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치욕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기념식 준비로 분주하였다. 복원된 기념물은 청일전쟁의 처절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해군공부(海軍公府)에 들어서니 각종 전시물이 보인다. 당시 청나라 해군은 독일에서 수입한 우수한 성능의 어뢰와 대포가 매우 많았다. 일본의 포격으로 이것들은 힘없이 수장(水葬)되어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1988년 건져내 복원하여 전시해 놓고 있다.

북양해군제독처(北洋海軍提督處)라는 표지판이 있다. 청나라를 지휘했던 북양함대사령관 덩려창(丁汝昌)의 집무처로 전쟁에 지자 책임을 지고 아편을 마셔 생을 마감한 곳이다. 현대에 들어 중국은 덩려창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박물관 진열관 위 높은 언덕에 덩려창의 거대한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덩려창 제독이여, 너무 상심하거나 자괴감을 갖지 말라. 패배는 결코 제독의 책임이 아니지 않은가. 패배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서태후거 실상은 그녀가 자진(自盡)했어야 하지 않는가? 서태후가 자진했더라면, 영어로 대화할 정도로 영민(英敏)했다는 광서제가 통치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을…….

박물관에는 서태후, 광서제의 초상화도 걸려 있다. 중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물 리홍창, 량치차오, 캉유웨이, 쑨원 등의 사진도 있다. 중간에 낯익은 사진이 하나 보인다.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이다. 설명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조선 청년이라고만 소개해 놓고 이



름이 없다. 중국이라는 제국주의의 민낯을 여기에서도 드러낸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기만 하다.

금주곡씨정(金州曲氏井)이라는 우물이 재현되어 있다. 1894년 11월 6일, 일본군의 만행을 피하기 위해 곡씨 가족이 투신한 우물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1896년 왕지수라는 사람이 지은 ‘곡씨정제영(曲氏井題詠)’이라는 노래 가사도 소개되어 있다. 요동으로 진출한 일본군은 뽕순을 점령하면서 중국인 2만여 명을 학살하였고 이를 ‘뽕순 대학살’이라 부른다. 곡씨 가족의 비극은 이때에 일어났다. 일본의 만행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시구가 하나 있다. 1919년 4월, 화성 ‘제암리교회사건’이 일어나자 동경여대 학장 사이토 이사모(齋藤勇)는 〈어떤 살육 사건〉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조국을 이렇게 비난했다.

“만에 하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저주 받지 않을까 동해의 작은 섬나라...”

답사 3일(7월 25일)

아침부터 비가 온다. 산동성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는데 비가 온다. 그토록 올라가 보고 싶은 태산을 향하는데 비가 세차게 내린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오르지 못한다는데 걱정이 앞선다. 차는 태산을 향해 질주한다. 고속도로 양 옆은 온통 옥수수

밭이다. 끝이 없다. 비가 많지 않아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 한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한민족이 일찍이 진출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분명히 논을 일구고 벼를 심어 쌀을 주식으로 했겠지……. 도로변에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호수(저수지)가 연이어 보인다. 한민족이라면 충분히 논농사를 지었을 거라고 말하니, 옆에 앉아있는 부산에서 온 김 선생도 동의를 표한다.

만주에 진출한 조선족과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1937년 10월, 고려인들은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는데, 이들은 척박한 그곳에서도 논을 일구어 쌀을 생산해 냈다. 후손들은 그 문화에 흡수되었지만 쌀을 주식으로 한 식생활은 변함이 없다. 한민족의 연면(連綿)한, 쌀이 주식이라는 근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 반짝 겹다. 태산에 오를 수 있다고 모두들 좋아한다. 조선족 안내인 최성국 군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태산 입구에서 내렸다. 초입 계단에 12개의 조각 기둥이 양 옆으로 6개씩 서서 이방인들을 반긴다. 기둥에는 중국의 상징 용(龍)이 조각되어 있다. 기둥은 순전한 옥이다. 중국은 땅이 넓기도 하지만 물자가 워낙 풍부하다보니 양질의 옥도 많이 생산되어 옥으로 조각한 상징물이 곳곳에 보인다. 우리 고전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곤륜산의 옥으로 조각한 것은 아닐까?

『맹자』에는 태산과 관련한 유명한 공자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 해석하면 ‘공자가 노나라 동산(東山)에 올라보니 노나라가 작게 여기고, 태산(泰山)에 올라 천하



를 작다고 여겼다.’는 뜻이다. 공자를 사모한 조선조의 송강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毗盧峰(비로봉) 上上頭(상상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시고. 東山(동산) 泰山(태산)이 어느냐 높듯던고. 魯國(노국) 조본 줄도 우리는 모
르거든, 넓거나 넓은 天下(천하) 엇씨허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허거니 느려가미 고이힐가.”

태산은 1,545m의 높이로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산이다. 공자의 이 말은 중국인 특유의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는가? 공자를 성인으로 찬양한 송강은 공자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했으나, 만약 정철이 이 산에 올라 보았다면 공자를 이렇게까지 추앙하지도 않았으며 <관동별곡>의 이 간절한 표현도 없었으리라.

태산은 무엇보다 중국 황제들이 ‘봉선의식’을 행한 곳으로 유명하다. 봉선의식은 황제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 황제의 권위를 하늘에서 부여받았다고 과시하는 의식이다. 신하들도 자신이 섬기는 황제가 행하는 봉선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겼다고 한다. 모두 72황제가 봉선의식을 행하였는데 가장 먼저 의식을 행한 황제는 진시황이었다.

태산 봉선의식의 대명사는 한무제이다. 도교에 심취했던 그는 기념비를 남김으로 후대 황제가 기념비를 세우는 선례를 남겨놓았다. 한무제의 기념비를 흔히 무자비(無字碑)라 부르니, 글자를 새기지 않은 비석이다. 자신의 업적을 글로는 표현할 수 없어 후대인들



이 판단하라는 의미일까? 실상 그는 중국의 영토를 대폭 확장시켰다. 그만큼 주위 약소국을 많이 침략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한무제 유철은 한국 역사의 원수라 할 수 있다.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그가 바로 한무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의 영토를 더욱 확장시켜 현재의 국경으로 확정한 황제는 청나라 4대 강희제이다.

참고로 ‘무자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또 하나 있다. 당나라 때의 측천무후이다. 그녀는 실질적인 황제였다. 중국의 260여 황제 중 유일한 여황제이다. ‘주’라는 나라를 15년 간 다스렸다. 수도는 뤼양(洛陽)이다. 그녀는 남편 고종이 죽자 친자를 포함한 네 아들을 죽이거나 폐위시키고 황제가 되었다. 죽음에 이르러 아들을 죽인 과오가 매우 괴로웠던지 그 결과 무자비를 세우게 하였다.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15년 치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봉선의식을 가장 많이 행한 황제는 청나라 6대 건륭제이다. 모두 11번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긴 64년을 재위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당시 태평성대라는 자신감의 과시로 봉선의식을 그렇게 행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 7대 가경제가 즉위하면서 백련교도의 난이 일어나 중국 전역이 혼란에 빠지고, 8대 도광제에 이르러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급격히 몰락해 가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리무진에서 내린 일행은 케이블카 기착지를 향해 열심히 걸었다. 모두가 태산에 오른다는 희망에 부푼 표정으로. 안내인이 일행을





모아놓고 말한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단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케이블카가 오를 수 없다고. 대신 여기에서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되기에 일정상 20분 정도 오르다가 내려오란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입구에서부터 걸어 오르면 8시간이 걸린다니 다음에 이에 도전하리라 마음 먹으면서 안내인이 말한 곳까지 오른다.

길 옆 바위에는 예외 없이 글이 새겨져 있다. 글 끝에는 연대가 새겨져 있으니 함풍제, 광서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청나라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르고 글을 새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자연의 파괴에 다름 아니다. 파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일원이 된다고 하니 이 많은 글씨도 이제 자연의 일원이 되었다고 자위(自慰)할 수밖에 없다.

泉清自潔(천청자결)이라 새겨진, 자그마한 폭포에 도착했다. ‘샘은 맑고 스스로 깨끗하다.’는 뜻이니 태산 높은 곳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물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을 찍느라고 북적댄다. 삼켜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갈하게 쓰인 두 자가 보인다. ‘飛泉(비천)’, 곧 ‘나는 샘물’이라는 뜻이다. 글을 새긴 때가 ‘光緒 丁酉 秋’이니 청나라 11대 광서제, 곧 1897년 가을이다. 이때는 광서제가 서태후에 의해 감금되기 1년 전이었다. 안내인의 호각소리가 들린다. 내려가자고. 어차피 오르지 못하는데 이쯤해서 내려갈 수밖에…….

점심이 꿀맛이다. 이제 중국 방문이 10번째이니 중국 음식에 익숙하다. 웬만한 음식은 다 먹는다. 향이 지겹다고 하지만 이제 향냄새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흔히 하는 말, ‘한옥에서 일본 여자

와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 할 정도로 중국 음식은 정평이 나 있지 않은가. 더구나 중국은 워낙 넓다 보니 지역마다 음식이 다르고 특징이 있다. 북경요리, 산동요리, 광둥요리, 사천요리 등등.

4시간을 다시 달려 찾아간 곳은 곡부에 있는 공자의 사당(孔廟)과 공자 후손의 고택(孔府), 공자의 무덤(公墓)이다.

공묘(孔廟)에는 모두 466개의 건물이 있다. 중국인들이 얼마나 공자를 추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나라 6대 건륭제는 남달랐다. 자신의 손녀를 공자의 후손에게 시집보내어 인연을 짚게 맺었다. 건륭제는 대성전(大成殿) 앞에 10개의 기둥을 세웠으며 용을 조각해 놓았다. 중국에서 용은 황제를 상징하거늘 공자도 황제로 대접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기둥은 모두 빨간 비단으로 감아놓았고 그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륭제는 사당 앞에 모두 6개의 문도 만들었는데 전조의 황제들이 세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모두 없애고 새로 세웠다고 한다.

공묘 앞은 온통 향나무이다. 가히 향나무 군락(群落)이라 할 만하다. 목조 건물은 벌레들이 들끓어 갇아먹거늘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나무가 향나무이기 때문이란다. 도중에 희귀하게 생긴 향나무가 두 그루 있다. 하나는 용의 모양이고 옆에는 하필 봉황과 흡사한 향나무가 있다. 중국인들은 황제(용)와 황후(봉황)를 상징한다고 여긴다. 중국은 땅이 워낙 넓다보니 경치도 뛰어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희귀한 모양의 나무와 돌 등이 매우 많다. 그러니 그 많은 전설이 생겨날 수밖에………….





공묘에 있는 공자상은 대폭 복원한 것이다. 1966년 6월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대혁명 시기, 이곳은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다. 광기로 가득 찬 어린 홍위병들은 무슨 원한에 사무쳤는지 폐허로 만들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죽고,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1966년 8월, 천안문광장에서 마오쩌둥에게 홍위병 완장을 채워주어 문화대혁명의 불길을 당긴 여중생 송빈빈은 현재 미국에서 과학자로 살고 있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1990년대에 모교에 와서 사과하였다고 한다.

공묘는 원래 공자 종손에게 연성공(衍聖公)이란 작위를 수여한 송나라 인종이 건립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되었고 청나라 옹정제가 복원하였으며, 8천만 냥의 금이 들어갔다고 하니 중국인들의 공자 추모 열기를 알 수 있다.

사당 맨 위에 ‘萬世師表’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그의 유교사상은 중국, 한국을 오랫동안 지배하였고 지금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아포리즘이 실감난다.

공부(孔府)는 한 마디로 공자 후손의 저택이다. 물론 공자가 살던 집터이다. 한나라 이후 공자는 성인으로 추앙받아 역대 왕조는 후손들을 융숭하게 대우했다. 특히 송나라 때에는 이곳을 성부(聖府)라 불렀다. 그만큼 공자를 숭상했다는 증거이다. 한 건물에 ‘壽(수)’라는 잘 쓴 글씨가 보인다. 청나라의 종말을 고한 서태후의 친필이다. 표현대로 서태후는 장수하였다. 청나라의 영욕(榮辱)을 한 몸에 안고 73세까지 살았으니…….

맨 뒤 후당루(后堂樓)에 갔다. 공자의 77대손 연성공 공덕성이 혼례를 치른 곳이다. 공덕성은 1948년 장제스가 철수할 때에 타이완으로 따라갔고 현재는 80대손 공우인이 연성공의 대를 잇고 있다. 그는 한국에 여러 번 다녀갔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9월 28일, 공자의 생일에 석존대제(釋尊大祭)를 지내는데 이를 참관하기 위해서이다. 공자의 후손이 한국에서 지내는 공자의 제사를 참관하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각설(却說)하고, 공덕성이 만약 공부에서 문화대혁명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죽지 않았으면 불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마오쩌둥이 공덕성을 보호해 주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여튼 공자의 종손이 공부에 거주하지 않고 타이완에 있다는 사실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뭐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둘인가…….

후당루 왼쪽의 후동루는 여자 노비들이, 오른쪽의 후서루는 부인의 친정 식구들이 왔을 때에 거쳐하는 곳이다.

폐관 시간이 다 되었기에 바삐 몸을 움직여 도착한 곳은 지성림(至聖林)이라는 공묘(公墓)이다. 중국에서 ‘林’은 황제나 황후가 아닌 성인의 무덤을 말하는데 딱 들만을 지칭한다. 공림과 관운장의 무덤, 관림(關林. 중국에 5곳이 있다.)이 그것이다. 세계 최대의 가족묘로 10만여 명의 공자 후손들이 잠들고 있는 공묘. 공자는 죽어가면서 이러한 거대한 가족묘가 있을 거라 상상했을까? 아들 곧 부계만 매장된다니 철저한 남존여비의 표본이다.

공묘 앞에는 ‘大成至聖文書王’이라는 비석이 서있다. 역시 건륭제





의 글씨란다. 원래는 ‘皇聖墓’였는데 그 앞에 세웠다. 화환도 여러 개 있고 향을 피우면서 추도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물론 중국의 역대 황제에 비하여는 초라한 공자다운 무덤이다. 무덤 왼쪽에는 ‘子貢廬墓處’가 있다. 자공은 스승의 임종을 보지 못하였고 이에 남보다 배를 더한 6년이나 시묘살이를 한 곳이다. 그는 공자의 10제자 중 유일하게 말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특이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그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사기』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열전>의 마지막 70편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무릇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골고루 알려진 것은 실상 자공이 공자를 모시고 따라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자공을 일러 ‘以文促商 以商養文’, 즉 학문으로 상업을 일으키고 상업으로 다시 학식을 일으킨 전형적인 모범으로 높게 평가하여, 이러한 사람을 유상(儒商)이라고 부른다.

공자는 죽어서 아들과 손자를 품에 안았다. 공묘 오른쪽에는 독자 공리(孔鯉)가 누워있다. ‘鯉’는 ‘잉어’라는 뜻이니, 공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노나라 왕은 축하 선물로 여자들의 산후 조리에 가장 좋다는 잉어를 하사했다. 여기에 감읍한 공자는 아들의 이름을 잉어(鯉)라 지었다고 하여 현재도 이곳 사람들은 잉어를 먹지 않는다.

공묘 앞에는 공리의 아들인 손자 자사(子思)의 무덤이 있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상을 계승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맹자이다. 곧 공자의 인(仁) 사상은 손자 자사를 통하여 맹자에게 계승되었고 맹자는 공자의 인 사상을 성선설(性善說)로 발전시켰다.

답사 4일(7월 26일)

일정에 여유가 있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아침 맛은 언제나 꿀맛이다. 함께 식사하는 김혁수 제독에게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처럼, 저녁은 걸인처럼’이라 말하니 동의를 표한다. 일생을 군인으로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그가 첫날 배안에서 했던 바다에 대한 특강은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간간이 나눈 대화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공감되었다. 여교사들은 내가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왕성한 식욕은 건강의 원천(源泉) 아닌가.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치박이다. 치박은 치산(淄山)과 박천(博川)이 1945년에 합쳐진 도시로, 원래 이곳은 임치로 불리었다. 『열국지』에 자주 등장하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수도이다.

산둥반도는 매우 넓어서 고대에 동쪽으로는 제나라요, 서쪽으로는 노나라였다. BC 770년 황실 주나라가 약화되면서 중국은 세계 역사에 없는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든다. 20개가 넘는 나라가 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을 벌였고, 학자들은 특히 패권을 다투었던 춘추오패와 전국칠웅을 말한다. 춘추오패는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왕 합려, 월나라 왕 구천을, 전국칠웅은 연(燕), 위(魏), 제(齊), 조(趙), 진(秦), 초(楚), 한(韓) 나라를 거론한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노나라는 산둥반도 서쪽을 지배하여 동쪽의 제나라와 마주하고 있었다. 춘추시대 말기 공자는 역사책을 편찬했고, 책 제목 『춘추』 그대로 시대 이름이 되었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노나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 부국강병책





을 쓰지 않았다. 이것은 전국시대의 일반적인 정서에 어긋난다. 결국 인근 제나라에 망하고 말았다. 제나라에는 환공이라는 걸출한 왕이 있었다.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관중과 포숙아가 섬겼던 그 제환공이다. 이름은 소백으로 제희공의 아들이며 제양공의 형이다. 포숙아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 왕이 되었고, 관중의 견마지로의 보필로 위인의 반열에 섰다. 그러나 사후 아들끼리의 권력 다툼으로 2달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치욕을 겪기도 하였다. 그 제나라이다. 적어도 550년의 역사를 지녔기에 유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먼저 간 곳은 齊國歷史博物館으로 3세대 주자 장쩌민(姜澤民)이 쓴 간판이 현저하다. 중국의 두 번째 나라라는 상(은)나라 때부터 전국시대까지의 발굴된 각종 수레(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나라의 도자기와 각종 그릇도 보인다. 2마리가 끄는,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있다. 코끼리가 끄는 마차도 있다. 당시에는 코끼리가 살았던 모양이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고대에는 이곳이 아열대였을 수도 있다. 보통 역사에서는 전국시대에 철기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철을 조련하여 농기구를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 무기와 전차를 제조하였음이 분명하다. 제갈량이 제작했다는 목우(木牛)를 한참동안 쳐다보았다. 오늘날 일종의 소형 리어카인데 소 모형의 나무로 제작한 수레로 식량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중국 안내인이 리어카 끄는 시늉을 내기에 함께 웃었다.

제국고성유지박물관에는 제나라의 유적이 전시되어 있다. 제나

라의 시조라는 강태공과 제환공, 관중, 전단, 사상가 안영(안자), 전략가 손빈의 초상화가 보인다. 제나라의 악기와 함께 축구공과 비슷한 공이 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자신들이 처음 축구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임치동주묘순마갱은 말을 순장한 곳으로 고속도로 공사 중 발굴되어 전시한, 시안의 진시황병마용 같은 곳이다. 순마(殉馬)란 무엇인가? ‘말을 순장하였다’는 뜻이니, 사람을 죽여 묻는 순장(殉葬), 종교적 신념의 순교(殉教), 나라를 위해 죽은 순국(殉國)과 같은 의미이다.

제경공이 죽으면서 전쟁에 사용한 228마리의 수말을 순장한 곳이다. 말은 무기로, 또는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죽여 이렇게 묻었다고 한다. 말이 누워있는 자세가 똑같다. 인간의 잔인성이 이에서 더할 수 있을까? 제경공은 죽으면 말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판단했던 말인가? 옆에 누워있는 처첩, 하인 또는 말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씩씩한 마음으로 박물관을 나왔다.

적산대주점 옆 대형 음식점의 저녁은 그야말로 만찬이었다. 푸짐한 해산물의 샤브샤브.(‘샤브샤브’의 순 우리말은 ‘살랑살랑’이다.) 중국에서 이러한 식사는 처음이었다. 건배 구호는 ‘나가자, 나가자’였다. 그렇다, 나가야 한다. 세계로, 미래로. 장보고 대사처럼 말이다.



답사 5일(7월 27일)

우리의 목적지, 장보고 대사 유적지 답사의 날이다. 적산(赤山)은 ‘붉은 산’, 곧 비가 오면 온통 산에 있는 바위가 붉은 색으로 변하는 산이다. 적산법화원에 들어서니 정만적산(情滿赤山)이라는 정다운 글귀가 우리를 맞이한다. 그러나 세로로 세워진 두 현수막의 문장이 심히 눈에 거슬린다. ‘駿馬奔騰民族風 雄獅競舞中華志’, ‘빼어난 말같이 분주히 민족의 풍속을 뛰어 오르게 하고, 웅건한 사자처럼 중국의 뜻을 다투어 춤추게 하라.’는 뜻이니 장 대사 유적지에 이 글귀가 왜 있어야 하는가? 덩샤오핑의 ‘도광양희(韜光養晦)’,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에 이어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은 중화제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글귀가 이것들을 뜻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역사 속에서 중국에게 그 많은 피해를 받은 사실이 떠올라 우울해졌다.

장보고기념관 입구에 2005년 청소년연맹총재가 세운 ‘해신을 꿈꾸며’라는 장보고해상기행방문비가 우리를 반긴다. ‘장보고세계해상 무역제패기념비’라는 이름의 장보고 기념탑에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이유진 교수 강의는 정말로 유익했다. 단체사진도 찍었다. 장보고 기념관 ‘무령종군(武寧從軍)’ 마당에는 대사의 전신상이, 안에는 좌상이 설치되어 있다. 사원 터 곧 대응보전 앞에는 ‘청해진장보고 대사공적비’와 후손 한성 장씨 종친회장의 기념비가 있다.

장보고 대사는 누구인가?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보인다. <신라본기 제10>을 보면 흥덕왕 3년에 이러한 기사가 등장한다.

4월에 청해대사 공복, 성은 장씨니 일찍이 당의 서주(강소성 동산현)에 건너가 군중 소장이 되었다가 후에 귀국하여 왕에 진알(進謁)하고 병졸 만 명으로 청해를 진수(鎭守)하게 되었다.

민애왕 원년에는 이러한 기사가 나온다.

2월에 김양은 군사를 모집하여 청해진으로 들어가 우징 아찬을 배알하였다. 우징은 청해진에서 김명(민애왕)의 찬위를 듣고 청해진의 대사 공복에게 말하기를 “김명은 사람을 죽이고 자립하였고 이 흥도 군(君)·부(父)를 죽였으니 하늘을 공대(共戴)하지 못할 원수이다. 원컨대 장군의 병력에 의하여 군·부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 하였다. 공복이 말하기를, “고인의 말에 의하면 의분(義憤)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무용(無勇)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내 비록 용렬하나 명령을 복종하겠다.”하고, 드디어 군사 5천 명을 내어 그의 친구인 정년에게 주어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면 화란(禍亂)을 평정치 못한다.” 하였다.

신무왕 조에는 이러한 기사가 보인다.

청해진 대사 공복을 봉하여 감의군사를 삼는 동시에 식읍 2천 호



를 봉하여 주었다.

『삼국사기』를 번역한 사학자 이병도 박사는 신라에서 궁복(弓福) 또는 궁파(弓巴)라는 이름이 중국에 가서 중국식 장보고로 지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장(張)씨는 원명 중 ‘궁(弓)’을, 보고(保阜)는 ‘福’ 또는 ‘巴’를 전이(轉移)한 것이라 말한다.

한편 일연은 승려답게 『삼국유사』에서 장보고에 대한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싣고 있다. 신라 45대 신무왕조에 이렇게 나온다.

제45대 신무대왕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협사(俠士) 궁파(장보고)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讐)가 있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제거해 주면 내가 대위(大位)를 차지한 후 네 딸에게 장가를 들어 비(妃)로 삼겠다.”라 하였다. 궁파가 허락하고 협심동력(協心同力)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서울을 침범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 이미 왕위를 찬탈하고 궁파의 딸을 비로 삼으려 하니, 여러 신하들이 지극히 간하기를, “궁파는 미천한데, 상(上)께서 그의 딸을 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 하므로 왕이 따랐다. 이때 궁파가 청해진(전남 완도)에 있으면서 국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약속을 어긴 것을 원망하여 반역을 꾀하려고 하였다. 이때 장군 염장(閻長)이 듣고 아뢰기를 “궁파가 장차 불충을 저지르려고 하니 소신이 청컨대 제거하고자 합니다.”하자 왕이 기꺼이 허락하였다.

염장이 왕명을 받고 청해진으로 가서 알자(謁者)를 통하여 전달하



기를, “저는 국왕에게 작은 원망이 있어서 명공(明公)께 몸을 바쳐 신명을 지키고자 합니다.”라 하니, 공파가 듣고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왕에게 간하여 내 딸을 비로 삼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라 하였다. 염장이 다시 전하기를, “이는 백관(百官)들이 간한 바이지 나는 그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명공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라 하였다.

공파가 듣고 청사(廳事)로 불러들여 말하기를, “경은 무슨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라 하니, 염장이 말하기를 “왕의 뜻에 거스른 바가 있어 막하(幕下)에 투항하여 해를 모면하고자 합니다.”라 하였다. 공파가 다행한 일이라고 여겨 술자리를 마련하고 매우 기뻐하였는데, 염장이 공파의 장검(長劍)을 가져다가 죽였다. 그러자 휘하의 군사가 놀라고 두려워하며 모두 땅에 엎드렸다. 염장이 그들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와서 복명(復命)하기를, “이미 공파를 죽였습니다.”라 하자, 왕이 기뻐하고 상을 주고 아간(阿干)을 제수하였다.



여기에서 신무왕에게 원수라 함은 46대 민애왕 김명으로, 김명은 신무왕의 부친 김균정을 죽인 바 있다.

참고로 신라의 왕위 찬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38대 원성왕(본명은 김경신으로, 내물왕(奈勿王)의 12세손이다.)은 장남 인겸, 차남 의영, 삼남 예영 등 세 아들을 낳았다. 원성왕이 죽은 뒤 인겸의 장남이 계승하여 39대 소성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이어서 40대 애장왕이 되었다. 인겸의 차남 언승이 애장왕을 죽이고 왕이 되니 41대 헌덕왕이다. 그가 죽고 인겸의 삼남 경휘가 뒤를 이



으니 그가 42대 흥덕왕이다. 바로 장보고가 귀국했을 때의 왕이다.

흥덕왕이 죽자 사촌들 간의 골육상쟁(骨肉相爭)이 시작되었다. 원성왕의 삼남 예영의 차남 균정과 장남 현정의 아들 제룡이 맞섰다. 제룡이 이겨 43대 희강왕이 되었는데 이를 다시 장남 인겸의 사남 충공의 아들 김명이 궁중으로 쳐들어가자 희강왕은 목을 매 자살하였다. 김명이 즉위하여 44대 민애왕이 되었다. 이를 다시 삼남 예영의 차남 균정의 장남 우징이 궁중에 난입하여 민애왕을 해하고 왕이 되니 그가 45대 신무왕이다. 바로 장 대사는 민애왕 김명을 죽이고 신무왕이 즉위하는 데에 일등공신이 된 것이다. 마치 위진남북조 시기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서진)의 피붙이들이 왕위를 둘러싸고 벌였던 팔왕의 난(八王之亂)을 보는 듯하다.

장 대사는 당나라에서 신라인들을 이끌고 하나의 교포사회를 만들고 신라인 보호망을 형성하였다. 일본의 승려 엔닌(圓仁)이 쓴 『入唐求法巡禮行記』〈唐 開成 4년(신라 신무왕 원년 6월조)〉를 보면 이러한 기사가 나온다.

‘文登縣(山東省) 淸寧鄉赤山村山裏有寺 名赤山法花院本張保高(皐) 初建也, 張有庄田以充粥 其庄田 一年得五百石米.’

곤 대사의 회사에 의하여 적산법화원이란 신라 거류민의 사원이 창설되었던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신라 말로 진행된 법화경연에는 250명 내외의 남녀가 모였다고 하니 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이후 844년 당나라 희종의 사찰 철폐령으로 폐허가 되

었고, 1972년 터가 발견되어 1989년 복원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평론가 윌리 스콧은 역사 소설을 “당대 사람이 과거의 옷을 입고 추는 무도회”라 정의하고 있다. 곧 역사 소설은 현대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과거의 사건 또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장 대사를 현대 무도회에 처음 등장시킨 소설가는 고려대 교수 정한숙이었다. 소설의 제목은 거룩하기도 한 『바다의 왕자』이다. 1960년부터 1년 동안 경향신문에 연재한 이 소설은 사료의 정확함보다는 인물의 재창조에 역점을 뒀으로써 바다를 중심으로 한 장쾌한 서술뿐 아니라, 장 대사를 비롯한 주변인물의 감정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흔히 해양 소설의 효시라는 찬사를 받으며, 2008년 평론가 최영호 교수가 『바다의 왕자-장보고』라고 제목을 약간 바꾸었다.

이보다 사료를 철저히 고증하여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장 대사를 부활시킨 사람은 1970년대 청년문화를 선도한 소설가 최인호이다. 그는 1984년, 백제의 멸망과 일본의 정착을 배경으로 한 『잃어버린 왕국』을 필두로 한국 고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정판이 장 대사를 등장시킨 2002년의 『해신』이다.

한일교류사의 전문가 정재정 교수의 『교토에서 본 한일통사(韓日通史)』를 보면 <일본의 지성이 흠모한 신라의 걸물(傑物)>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일본 교토에서 약간 떨어진 히에이잔 기슭에 미이데라(三井寺)라



는 고찰(古刹)이 있다. 오토모라는 백제계의 도래인이 686년에 창건한 절인데 일본의 고승 엔친(圓珍)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866년에 재건했다. 여기에 신라명신이 안치되어 있다.

847년 엔친이 당에서 귀국할 때 항로가 험악했는데 갑자기 노웅이 나타나 신라명신을 칭하며 그대를 위해 불법(佛法)을 수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엔친은 신라명신의 가호로 무사히 귀국했고, 신의 안내로 미이데라를 재건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신라명신을 이 절에 안치했다. 신라명신은 2폭짜리 화상인에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미이데라의 경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신라선신당(新羅善神堂)이라는 사원이 있다.

이곳은 헤이안시대 말기의 무장(武將) 미나모토노 요시미쓰(源義光)가 이 신상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고 신라사부로(新羅三郎)으로 개명한 장소로 유명하다. 그는 왜 신라선신당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고 신라사부로로 개명했을까? 또 엔친은 왜 신라명신을 이곳에 모셨을까? 선신(善神)으로서 영원히 존송(尊崇)하겠다는 뜻을 담아, 그 명신을 예닌은 적산대명신으로, 엔친은 신라명신으로 각각 다르게 칭했지만, 모두 중국 산둥성의 적산법화원에서 신라인이 모시던 신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미나모토노 요시미쓰를 비롯한 일본의 무장들은 왜 신라명신을 수호신으로 삼았을까? 최인호는 『해신』에서 신라명신이 바로 장보고라고 설정하고 풀어나간 것이다.

정재정 교수는 매우 기발한 발상으로, 장보고가 궁복(弓福)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활에 능하고 무예가 출중했다니 미



나모토노 요시미쓰가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싶어 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해신』을 보면 최인호는 미이데라에 편지를 보내 신라명신을 보여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이 소원이 이루어져 일반인으로 특별히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 화상을 보았다. 화상을 보고 치밀하게 조사하고 취재한 끝에 신라명신이 장보고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신』을 썼다.

『해신』 1권(127~128쪽)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 당시 장보고는 바다의 영웅이었다. 바다를 지배하던 바다의 신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확신에 가득 차서 소리 내어 증언거렸다.

폭풍우를 만나 기도를 하던 엔친 앞에 나타난 신라명신의 실체가 누구인가는 자명해진 것이다.

물론 장보고는 841년에 비참하게 죽었다. 엔친이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는 858년 6월, 17년의 시차가 있지만 이미 장보고는 죽음으로써 해신이 되어 바다의 신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치 선묘가 죽어서 해룡이 되어 여신으로 부활할 수 있었듯이.

그렇다. 장보고야말로 신라명신,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엔친 앞에 나타나서 ‘나는 명신이다. 앞으로 나는 너의 불법을 호지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신라명신은 바로 장보고의 현신이 것이다. 그러



므로 내가 방금 미이데라의 금당에서 외부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친견하였던 그 신라명신의 모습은 바로 1천 2백 년 전에 죽은 장보고의 초상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타임머신을 타고 1천 2백 년 전의 3차 원 세계로 들어가 장보고의 얼굴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해신』이 선보였고 낙양(洛陽)의 지가(紙價)를 올렸으며, 장보고라는 인물이 우리 앞에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었다. ‘해신(海神)’, 곧 장보고는 바다의 신이라는 뜻이다. 『해신』 서문에 서 밝혔듯이 장보고 한·중·일의 바다를 국경 없이 다스렸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단 한 사람의 세계인이었다. 중국 적산포와 일본 하카타(博多, 현재의 후쿠오카)에 무역 근거지를 두었던 대 무역 상인이었다. 지중해가 청동의 발굽과 황금의 갈기가 휘날리는 명마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리는 포세이돈을 낚았다면 우리의 다도해(多島海)는 장보고를 낚았다는 작가의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록이 미미하여 장 대사가 왜 중국으로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 중국에서의 활동은 그야말로 종횡무진, 전천후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입당한 것은 810년 경, 20세로 추정된다. 의형제를 맺은 정년과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때는 이미 삼국통일을 이룬 지 150년이나 지났는데 당과 신라 두 나라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싸운 인연으로 신라인들은 자유자재로 당나라를 오갈 수 있었다. 대운하 변에는 신라인들이 대거 거주하여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였다. 이곳을 보통 신라방(新羅坊)이라 부르는데 일종의 신라인 자치구라 할



수 있다.

신라방은 경덕왕 때인 750년 이후 형성되었는데 산둥반도 남쪽의 해안 일대와 화이허강(淮河) 하류에 이르는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다. 신라방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했고, 일부는 그와 관계된 수부(水夫)나 공인(工人)으로 생활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을 활발히 전개했는데, 양저우(揚州) 등지를 중심으로 아랍·페르시아 상인들과도 교역했고, 일본과 신라 본국을 왕래하면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다. 장 대사는 처음에는 장사를 하였지만 본래의 이름답게 공사(弓師)로 이름을 날리었다. 이를 두고 미국의 걸출한 동아시아학자 라이샤워는 <당나라에서의 엔닌 여행기>라는 논문에서 장 대사를 일러 '상업제국(Commercial Empire)을 건설하였던 위대한 무역왕(Merchant Prince)'라 칭송하고 있다.

유달리 조국의식이 강했던 고구려 유민 이희옥은 평로지칭이란 번진을 세웠는데 일종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다. 그 손자 이사도 때에 당나라 조정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당나라 11대 헌종은 평로지칭을 토벌하고자 하였다. 이를 중국역사에서는 '번진의 난'이라 부른다. 이사도는 군사를 이끌고 조정이 갖고 있던 최고의 물자 창고 '하음전운원' 창고에 불을 지르고 게릴라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여기에 토벌군을 모집하자 장 대사는 의형제 정년과 참여하여 대승을 거두는 데 눈부신 활약을 한다.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사실은 동족 고구려 유민을 죽인 결과



를 낳았지만) 장 대사는 군문을 나와야 했다. 이민족으로 일종의 용병(傭兵)이기에 진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리라. 군문을 나와 본래대로 장사의 길로 나섰다. 양주, 소주 등지에서 사온 특산품들을 신라는 물론 일본, 파사국(페르시아), 점파국(태국) 등지로 수출하여 거상의 명성을 얻었다. 6년 만에 당나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큰 거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귀국한 후에는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 대사의 직함을 받았다.

장 대사의 중국에서의 행적은 의외로 당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시인 두목(杜牧)이 쓴 『번천문집(樊川文集)』에 실려 전한다. 두목은 시성 두보의 후손으로 조상 두보를 노두(老杜)로 부르는데 비하여 소두(少杜)로 불리는 뛰어난 시인이다. 그는 834년 회남절도사의 직함으로 양저우에 부임한다. 어느 날 그는 기녀들의 노래를 듣다가 가사 중 장보고와 정년이라는 낯선 이름을 듣게 된다. 번진의 난 때에 특출한 공을 세운 천하의 영웅이기에 유행가 가사에 삽입된 것이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왕정이라는 신라 상인을 만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이후 두 사람의 족적을 면밀히 추적하였다. 자신의 문집 『번천문집(樊川文集)』에 〈장보고·정년전(長保臯·鄭年傳)〉을 수록함으로써 장 대사의 행적이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답사를 마감하며

ㅎ야! 잘 읽었겠지. 장보고 대사, 그는 비록 신라 45대 신무왕의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비명에 갔지만 최인호의 표현대로 패자부활전을 통해 영웅으로 재탄생하였다. 대사는 세 가지의 어려움을 이겨낸 준결에 다름 아니다. 먼저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백제유민은 지역적 천대를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대사는 백제유민이라는 지역적 신분을 이겨냈다. 지금도 어부들을 뱃놈이라고 비하한다. 『삼국사기』에도 이 표현은 등장한다. 대사는 완도의 해도인(海島人) 곧 섬사람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극복해 냈다. 당나라에서 신라인들이 차별받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사가 뛰어난 궁사로, 또 전술로 변신의 난을 진압하여 당나라에서 장군으로 이름을 빛냈으니 국제적 신분을 초월한 준결 중 준결이었다. 이를 두고 두목이 “누가 동이(東夷, 곧 신라)에 사람이 없다 하느냐?”하는 표현이 이를 증명해 준다.

ㅎ야, 외교관이 되면 장 대사처럼 교민 보호에 힘써 다오. 장 대사는 산둥성에 진출해 있던 신라인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법화원을 건립하여 구심점을 삼았다. 신라방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유진 교수는 장 대사가 청해진에서 당나라 신라방과 일본 다자이후의 한반도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너도 근무하는 나라에서 본국과 교민을 연결하는 일에 열심을 해다오. 현재 세계 180여 국에 교민들이 나가 살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들은 코리아를 빛내며 조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을 돕는 일을 해다오, 장 대사가 신라인들을 보호한 것처럼. 그가 청해진에서 해적들을 소탕함으로 잡혀가는 신라인이 없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796년 9월 17일, <아메리칸 데일리 어드버타이저>이라는 신문



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가 실렸다. 보통 워싱턴의 고별연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신문에 실린 글이다. 여기에 일부를 소개하겠다.

“일부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항구적이고도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반면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열적인 애착심을 갖는 것을 배제하고 대신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우호적인 소회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번역)

외교관계는 이래야 하거늘,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시종일관 이와 반대의 외교정책을 펼쳤다. 일본에게는 항구적이고도 완고한 혐오감을, 중국에게는 정열적인 애착심을 갖는 정책으로 초지일관하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다. 현재도 중국은 암암리에 한국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실을 상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약소국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인은 조국의 이익을 다하므로 지구촌에 알려지고 세계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명칭이라는 것을 새겨 다오. 장 대사 처럼 말이다. 고별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외국에 대한 우리 행동의 대원칙은 우리가 상업관계를 확대하면서 되도록 최소한의 정치적 관련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맺어놓은 계약들에 한해서는 완전한 신의를 지키고 그 계약

들을 존행합시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국제 관계의 대원칙은 상업관계의 확대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에 무역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고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대 초,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동서냉전이 신냉전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나라 간의 치열한 무역전쟁에 다름 아니다. 무역은 먹고 사는 문제이니 나라의 존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관들의 임무가 중요하다. 우리의 기업들이 활발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다. 무역량이 세계 8위라면 책임도 막중하다. 일방적으로 수출만 할 수는 없다. FTA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과 같은 국수주의(國粹主義)는 21세기에 걸맞지 않는다.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ㅎ야,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일은 남북한이 합친다는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난도 방정식이다.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가 외교관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된다면 문제가 덜 하겠지만 통일을 눈앞에 두고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야말로 사활을 건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다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당시 독일 콜 수상은 러시아로 날아가 고르바초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에게까지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침략국이라는 독일의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었고, 마침내 러시아와 강대국들의 동의하에 1년 뒤 전 세계인



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위대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한 외교적 능력을 갖추어 다오. 주지하다시피 장 대사는 일본에서 신이 되어 신사에 안치되어 있다. 일본에서조차 신이 될 정도로 추앙받는 장 대사처럼 전천후의 능력을 갖춘 외교관이 되어 다오. 그가 거래한 신라의 물품은 중국, 일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아라비아, 터키에까지 수출되었고, 그 나라의 수입된 물품이 신라에서 사용되어 유물이 남아 있다.

장보고 대사의 DNA는 분명히 한민족에게 유전으로 전할 것이다. 이를 발휘해 다오. 부디 위대한 한민족의 저력을 드높이기 바라면서…….



02

사랑하는 딸들에게 보내는

「나의 중국 문화 · 유적지 답사기」

주석초등학교 / 성혜숙(최우수상)



사랑하는 딸들에게

안녕,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겠지? “엄마, Bye~! Bye!”하며 손 흔드는 가운데와 달리 눈물을 흘리며 꿈꾸니를 따라오던 민슬이 때문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구나. 너희들을 두고 엄마 혼자 답사(여행)를 떠나게 되어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고마운지 모른다.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이 편지에 담아 너희들에게 엄마가 자세히 답사 이야기를 해줄게.

이 답사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 인물인 ‘해상왕 장보고’의 활동과 중국에서 그의 행적을 살펴보고 중국 문화 및 유적지를 답사하는 거란다. 아직 너희들은 ‘장보고’에 대해 잘 모르지? 장보고는 신라시대의 인물로 어릴 때는 활을 잘 쏘아 궁복, 활보라고 불렸지만 귀족이 아닌 미천한 출신이라 그가 원하는 장군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신분차별이 비교적 적은 당나라로 건너가 여러 공을 세우고 무령군 소장이 되었어. 하나의 꿈을 이룬 장보고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그곳에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 곳곳에 신라방을 만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는 장군이라는 꿈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 바다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 근거지로 적산포에 법화원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갔단다. 장보고는 역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고향이 그리워 신라 사람들이 해적에게 잡혀와 당나라에 노예로 팔리는 것에 충격을 받아 귀국하였단다. 신라 흥덕왕에게 해적 소탕의 의지

를 전하여 청해진 대사가 되어 해적을 소탕하면서 청해진을 거점으로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항로를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해상교통권을 장악하여 해상 무역의 왕이 된단다. 어때? 아빠처럼 멋지지!

이제 본격적으로 답사 이야기를 해줄게. 중국에는 ‘화동훼리’라는 큰 배를 타고 떠났단다. 7월 30일 첫째 날, 4시에 인천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모였어. 한국해양재단에서 도움을 주시는 스태프들이 멋진 모자랑 여행도구와 선물까지 주셨단다. 김해에서 올라오면서 무척 힘들고 아는 사람도 없어 마음이 뒤숭숭 했는데 이것저것 선물을 주시니 금세 마음이 즐거워졌어. 엄마 마음이 너무 가볍지? ^^

40분의 여유시간이 생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눠준 여행책자와 청일전쟁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었단다. 여행지와 관련 정보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웬지 박식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어.

4시 40분, 90여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각자의 이름표와 선박표를 받고 ‘화동훼리’ 큰 배로 향했어. 와~! 배가 엄청 났어. 유람선, 낚시 고깃배랑 달리 튼튼하고 엄청 큰 것이 보기만 해도 든든했단다. 배에 타는 사람들은 중국인 반, 우리나라 사람 반 정도 되었어. 중국어를 하면 중국 사람, 우리나라 말을 하면 한국 사람이구나 싶게 중국 사람들은 우리랑 많이 닮았더라. 엄마가 하루 목을 방은 4명이 함께 사용하는데, 2층 침대가 양쪽으로 놓여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화장실, 아담한 소파도 하나 있었지. 룸메이트가 된 선생





님들과 인사를 했어. 하얀 피부를 가진 손 선생님, 여러 운동을 좋아해서 보기만 해도 탄탄하신 염 선생님, 친절하고 재밌게 말씀하시는 박 선생님. 세 분의 선생님을 보니 혼자라는 마음이 싹 가셨어.

침대를 정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우리 장보고 팀(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2팀 줄여 부름)은 선박 선실에 모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식사를 했단다. 저녁 식사는 한국식, 중국식 반반이 섞여 있는 식사였어. 여행을 떠나면 김치가 제일 맛있더니 역시 여기서도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 식사 후 배의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 보았단다. 더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확 뚫리고 시원한 바람에 기분까지 상쾌해졌어. 그리고 저녁노을이 얼마나 예쁘던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노을은 처음 본 것 같아. 배를 따라 오는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집어 손을 뻗으니 갈매기 떼가 다가와, 한 마리씩 새우깡을 물어 갔단다. 처음에는 갈매기가 손을 쫓을까 겁이 났는데, 1~2번 성공하고 나니 재미있어 졌어. 너 만한 중국 여자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며 엄마에게 물려들었어. 엄마의 인기 때문이 아니라 새우깡을 달라고 모여들었지. 새우깡 인심으로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어.’라고 엄마 혼자 뿌듯해하며 답사 연수를 들으러 다시 선실로 갔단다.

중국 및 장보고 그리고 해양관련 전문가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어. 첫 번째 교수님은 장보고라는 인물과 그의 업적에 대해 알려 주셨단다. 왜 장보고가 해상 무역왕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였어. 교수님의 강의를 정리해보면, 장보고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움직인 선각자라고 해.

동북아 일대의 해상에서 해적이 활개를 치는 상황의 혼란을 파악하여 해상을 장악하고, 신라 상인은 물론 중국과 일본 상인들이 안전하게 무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단다. 이를 통해 그는 동북아 해상을 장악한 해상 무역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갔다고 해. 또 다른 한 분의 교수님은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지 얘기해 주셨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세계 1위의 조선업과 5위의 해운업을 앞세워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 시대에 필요한 각종 천연자원의 보고이고 미개척지인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셨단다. 우리 장보고 팀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여행에 참여해야 하는지 마음가짐을 돈독히 하는 시간이었어. 10시가 훨씬 넘어 숙소로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워 바다의 흔들림을 느꼈어. 작은 배는 배 멀미가 심하지만 오히려 큰 배는 큰 흔들림 없단다. 그래서인지 요람 위치럼 편하게 잠을 잤어.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

배는 안개 속에 있었어. 8시 30분에 도착하기로 한 석도항을 40분 여 남겨놓고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서 배는 제자리걸음을 했단다. 안개가 언제 걷힐지 몰라 무작정 시간을 보냈어. 다행히 가져온 책을 읽고 아버지가 저장해준 음악도 듣고 같은 방 선생님들과 수다도



떨고 간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계획에 없던 점심 식사도 배에서 하게 되었지.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었어.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이러다 내일이나 하선해야 되는 건 아닌지, 바다는 계속 고요할지……. 이렇게 크고 튼튼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두려워지는데, ‘옛 신라인 장보고는 이 바닷길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냈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 다행히 ‘부~웅’하는 뱃고동 소리가 들리고 배가 석도항으로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 두려웠던 마음이 싹 가시며 ‘이제 중국 땅을 밟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기 시작했단다.

3시 30분에 하선하여, 원래 계획과 달리 마지막 일정이었던 적산법화원으로 먼저 향했어. 앞에서 얘기했던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절로, 불교 대승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에서 그 이름을 따왔단다. 그 경전에는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려 할 때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적혀있어. 누구보다 바다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는 상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절 이름이 아닌가 싶어. 신라 사람들과 교역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절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역활동의 근거지가 되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절은 당나라 무종 때 불교 탄압으로 파괴되었다가 1998년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외교를 위해 무너진 절을 복원하였다고 해. 적산법화원에는 장보고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동상을 보는 순간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감이 들 정도로 크고 위풍당당하더라. 딱 엄마 스타일이었어. 법화원 주변에는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 그

리고 그를 주인공으로 다룬 드라마 ‘해신’의 장면까지 정리해 둔 <장보고전기관>이 있어.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기념관이 있다니, 얼마나 장보고라는 인물이 대단한지 다시 한 번 느꼈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다. ^^

장보고전기관 가까운 위쪽에는 거대한 ‘적산명신상’이 있단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안개 속에 가려 명확히 보이지 않아 더욱 신비로워보였어. 『입당구법순례기행기』의 저자인 일본의 엔닌 승려는 당나라에서 신라 사람의 도움과 특히 장보고의 놀라운 능력과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어. 그는 유언으로 교토에 적산선원을 세워 명신을 모시라고 했는데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재신으로 알려진 이 신은 장보고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단다.

적산법화원을 떠나 3시간 버스를 타고 늦은 저녁을 먹을 정도로 향했어. 청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였고 세계 3대 맥주로 유명한 ‘칭타오 맥주’의 생산지란다. 9시 청도에 도착했는데 그 쪽 상가에는 중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 간판도 즐비했어. <경복궁>이라 이름 붙은 식당으로 갔지. 식당에 들어가니 “안녕하세요?”하며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 마치 다시 한국에 온 기분이 들었어. 배가 등가죽에 붙어 있었는데 얼큰한 김치찌개와 잡채, 전, 한국식 밑반찬에 엄마의 손가락은 거의 중국 무술을 하듯 바삐 움직였단다. 배도 부르고 시원한 ‘청도 맥주’를 한 잔 쪽~욱 들이켜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구나. 식당 앞에서는 작은 과일 난전이 있었어. 무게를 정확히 재어 팔더라.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망고랑 두리안 망고스킨도 팔았어. 환전한 돈을 쓰고 싶어 엄마는 10위안을 주



고 자두 6~7개를 구입했단다. 10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1700원쯤 된다니 저렴하게 잘 샀지? 그런데 우리나라 자두만큼 달달하지는 않았어.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가 있는 치박으로 향했어. 배불리 먹어서 그런지 잠이 쏟아지더라. 3시간 남짓 잠을 청하고 나니 치박에 있는 호텔 '만호대주점'에 도착했어. 12시가 약간 넘은 시간이었는데 내일 기상시간은 6시, 6시 30분에 식사를 하고 7시까지 차를 타라는 안내를 받고 호텔로 들어갔어. 와~ 호텔은 정말 깨끗하고 넓었어. 호텔의 등급을 나타내는 별이 다섯 개 붙은 최고급 호텔이었어. 최고급 호텔답게 와이파이까지 잡히니 그동안 못했던 인터넷 검색에 카톡까지…….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먼저 씻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단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아오자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버스에 올라탔어. 오늘 일정이 제일 빠박한 날이야. 태산을 등반하고 점심 식사 후 곡부를 견학할 거란다. 약 1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갔단다. 태안은 산동성 중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관광도시 가운데 하나로, 산동성의 주산인 태산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태산은 중국의 5대 명산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치악산과는 비슷하고 설악산보다는 낮다고, 동행하며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중국 사람들은 태산을 ‘만물의 시작이고 음양의 교대가 일어난 곳’으로 여겼어. 진시황이 등근 제단과 사각형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봉선의식 이후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하고서는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자신의 즉위를 하늘에 알렸다고 해 (한국해양재단, 2014).

참, 우리나라 서예가 양사언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뵈만 높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선비가 태산보다 높은 기개를 가질 것을 소망한 시조를 썼는데 이 시조에 나오는 태산이 엄마가 간 태산이란단다. 그냥 큰 산의 의미로 태산인줄 알았는데 정말 태산이 있다니 반갑고 신기했어. ‘태산은 아주 높아서 어찌 등반하리.’하며 걱정했는데 이런 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 케이블카가 준비되어 있더라. 여섯 명이 타는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으로 출발.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태산은 온통 초록물결이었던단다. 사람이 타는 케이블카 바로 옆에 짐을 옮기는 짐 케이블카가 있어 신기했어. 케이블카에 내려 남천문에 닿았어. 남천문을 지나면 하늘거리란 ‘천가’가 나온단다. 거리의 왼쪽에는 가게와 식당, 숙소가 줄지어 있고 오른쪽은 절벽이야. 때마침 자욱한 안개가 드리웠어 하늘 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름 위를 걷듯 아름다웠단다. 태산을 오르면서 신기했던 건 좌우 어디에든 석각이 있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절벽마다 비문을 새겨 1,800여 군데의 석각이 마치 석각 전시장에 온 듯 새겨져 있었던단다. 그 중 당 현종이 세운 ‘기태산명비’와 한무제의 ‘무자비’가 유명하지. 석각을 구경하며 평안문을 지나 옥황정으로 향했





어. 계단을 계속 올라 옥황상제께 제사 지내는 곳인 옥황묘를 향하다 보니, 옥황묘 표지석 이곳에 한무제의 ‘무자비’가 서있었어. 한나라 무제는 태산의 절경에 너무나 감탄하여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다고 하여 아무 글도 새기지 않은 ‘무자비’를 세웠어. 현란한 금색과 붉은 색으로 적혀있던 석각과 달리 약 6m의 무자비는 정말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더라. 안개로 한무제가 보았다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안개가 자욱해서 오히려 태산이 신선의 세상 같이 신비로웠단다. 옥황정 대문을 들어서니 향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주변에는 적색 리본과 자물쇠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 우리나라 남산에 연인들이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하길 기원하며 채운 자물쇠처럼 그곳에 온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세계의 평안을 기원하며 리본과 자물쇠를 채웠겠지. 옥황묘에 있는 태산 신령상에 엄마도 우리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바라며 작은 기도를 올렸단다. 30분 만에 하산하여야 해서 급하게 내려갔단다. 태산은 7,412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려가기가 어렵지 않았어.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을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가 내려올 때는 더욱 발걸음이 가볍더라. 천가의 식당을 지날 때 우리나라 호떡처럼 고소한 향을 내뿜는 것을 팔았어. 너무나 신기해서 10위안을 주고 사 먹었지. 확 깨물었는데 달콤한 설탕물이 아니라 잘게 썬 대파가 나왔어. 파의 양이 엄청났단다. 호떡에 비해 맛이 덜했지만 파전을 먹는 기분으로 싹 해치웠지.

다시 우리의 장보고 애마버스를 타고 곡부로 향했어. 곡부는 산동성 제녕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야. 이곳은 공자의 고향으로 유명

하단다.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지만 유교의 발생지라는 역사성을 간직한 곳이야. 삼공 중 공묘를 먼저 가보자꾸나. 공묘는 공자를 기리는 사당으로 공자 사후 1년 만에 세운 것으로 중국 3대 건축물의 하나란다. 한고조 유방이 공묘에 제물을 올리고 제례를 실시한 후 중국 역대 12명의 황제가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단다. 초기에 3칸 방이 증축을 하여 지금은 방만 466칸에 이른다는구나. 정면에 세워진 금성 옥진방을 지나면 여러 가지 문이 있고 동문문 뒤에는 3층 목조건물인 규문각이 있어. 이곳에는 황제들이 하사한 서적이 나 글씨 등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문화혁명시기에 한낱 불쏘시개로 소실되었다더라. 역사의 한 순간이 또 다른 역사에 의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 공묘에서 가장 큰 문을 지나면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수하던 행단이 나온단다. 행단 북쪽 대성전은 황색 유리 기와로 지붕을 장식하였고 정면 돌기둥에는 화려한 용문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황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황색과 용을 사용한 걸 보면 공자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었어.

공묘 동쪽에 위치한 공부는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 겸 관공서란다. 현재 공자의 자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대만으로 이주하였고 공부는 관광지로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어. 공부의 건물은 전원과 후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원은 삼당과 육청 등의 관서가 있던 곳으로 대당은 역대 연성공(공자의 후손의 칭호)이 공무를 처리하던 곳이란단다. 후원은 연성공의 사저로서 공가의 질서나 서열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 공간이 구분되어 연장자는 중앙에 큰 3채의 건물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 서열부터 동쪽의 건물에 거주하





였다고 해. 또 여성의 공간과 남성의 공간이 따로 있어 남자 7세 이상은 여성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여성의 공간에 음식과 음료는 벽 사이에 나있는 물구덩이 같은 곳으로 주고받았다는 얘길 들으니 공자라는 분이야 그 훌륭함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남녀유별’이 너무 강해 여성들은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공가의 자손들은 엄하게 교육을 받아, 잘못을 했을 때에는 돌로 만든 빨래판에 같은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반성을 했다더라. 엄마도 살짝 앉아 보았는데 1분을 버티기가 힘들 정도였어.

5시 30분에 문을 닫아 버린다는 공림을 향해 우리 일행은 발걸음을 빨리했다. 공림은 공자와 그 일족의 묘소로 10만이 넘는 공자의 자손들의 묘비가 숲처럼 산재해 있는 곳이란다. 공림은 공묘에서 약 15~20분 떨어져 있었는데, 열심히 열심히 걷고 타고 다시 걷고 했지만 7분이 늦어버렸다. 많은 인원이 갔으니 혹 열리지 않을까 싶어 한참을 기다렸는데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 내 눈으로 기원전 550~470년 춘추시대의 정치가 사상가 교육자인 공자와 마주한다는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공자의 사상과 공자의 생애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였어. 집에 돌아가면 공자의 『논어』를 다시 읽어보아야겠어.

가까운 곳에 저녁을 먹기 위해 ‘공부가연’으로 갔단다. 중국식 테이블에 우리 조원 10명이 둘러앉았어. 수박 껍질에 ‘논어’라고 적힌 글자를 보니 재밌기도 하고 특색 있기도 했어. 깔끔한 중국 요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 새로운 음식임에도 두려움 없이 입속으로 쓱쓱. 중국 음식들은 넉넉함이 있는 것 같아. 10명이 먹고

도 많은 음식이 남아, 아까운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남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는 중국인의 음식문화는 아마도 옆 사람의 눈치 없이 넉넉히 마음 편하게 먹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배려가 아닐까 싶어. 오늘 일정이 끝나 어제 묵은 치박에 있는 ‘만호대주점’ 호텔로 갔다. 도착하니 11시였어. 씻고 5성급 호텔이 주는 아늑함과 호사스러움을 누리며 달콤한 꿈을 꾸었다.

넷째 날, 아침이 역시 밝았어

폭 자서 그런지 아침 공기가 달리 느껴지더라. 아침 식사를 여유 있게 하고 가까운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향했어. 첫날부터 함께해주셨던 해양재단 이사장님은 바쁜 일정으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시며 떠나셨어. 인상이 정말 인자하셔서 우리 민승, 가윤이가 봤으면 ‘할아버지’하며 졸졸 따라 다녔을 거야. 함께 있는 동안 배가 고플까봐 힘들어 할까봐 혹은 길을 잃을까 걱정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재밌는 농담도 해주시곤 했는데……. 그래서 룸메이트 선생님이랑 함께 이사장님이랑 사진 한 장 찍었지. 엄마가 가서 사진 보여줄게.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제나라의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제나라 옛 황성 유적지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박물관의 입구는 제나라 장성을 본 따 옛 성의 큰 성벽과 작은 성벽을 이은 모양으로 건립되어 있어. 춘추전국시대의 패권을 다투었던 일곱



나라 가운데 하나인 제나라의 형성·발전·흥망을 보여주는 300여 점의 유물과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그 중 삼다리 굽을 가진 도자기는 우리나라의 빗살무늬토기와 다르게 토기 자체로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그 모양과 지혜가 돋보였어. 그리고 제나라와 연나라의 ‘화우진’을 이용한 전쟁 모형은 엄마의 관심을 끌었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기 위해 1,000여 마리의 소를 모아 소의 꼬리에 기름에 담근 짚을 묶어 불을 붙여 연나라 진영으로 돌진하도록 했어. 어떻게 되었겠니? 무방비 상태에 있던 연군은 허겁지겁 제군에 맞서 싸웠지만 시커먼 연기와 번쩍이는 빛 속에서 보이는 것 이라고는 꼬리에 불을 매달고 달리는 알 수 없는 형체였다. 이 기습전으로 연군은 제군의 창에 찔려 죽거나 소들에게 밟혀 크게 다쳤어. 연군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제나라는 빼앗겼던 성읍 70여 곳을 전부 되찾았다고 해(양쓰강, 2009). 대단한 지략이지 않니? 그리고 축구의 기원은 중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옛 축구공의 모습과 흔 적도 새로웠어.

다음은 중국의 고차박물관이야. 박물관만 다녀서 지루하겠나 고? 아니 박물관마다 특색이 있어 보는 곳마다 다른 느낌이었다.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대규모의 순장 마차들이 있는 봉분을 발견하여 만들었다고 해. 두 개의 전시관 중 ‘춘추 차마 전시관’에는 전쟁에서 사용하였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는데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면서 장식이 매우 화려하여 중국 최고로 손꼽힌데, 말의 뼈와 마차의 바퀴나 형태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 산동성의 경제적·군사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어. ‘중국고



차진열관'에는 전국에서 출토된 여러 고대 차량의 복원 모형이 진열되어 있어. 4마리의 말이 마차 한 대를 끄는 '일승' 규모의 마차뿐만 아니라 코끼리, 낙타가 끄는 마차도 진열되어 있었어. 함께 한 교수님은 마차 바퀴를 이루고 있는 바퀴살을 계속 세고 계셨는데 18개는 일반적인 마차의 바퀴살이고 23개가 가장 이상적인 바퀴살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 때부터 바퀴살을 세어봤는데 엄마가 세어 본 건 모두 18개더라.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순마갱'으로 향했어.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란다. 처음 발굴하였을 때, 두 줄로 늘어서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채로 매장된 228필의 순장된 말이 발견되었는데. 이 말들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로 모두 6~7세의 수말이고 발굴된 면적과 순마의 밀도를 고려하며 이곳에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데. 순마갱을 통해 춘추전국시대에 산동성 일대를 지배하였던 세력의 규모와 강력한 왕권을 추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들은 어떻게 산 채로 순장되었을까? 교수님은 기절을 시켜 순장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살아있는 말을 그것도 600필이나 되는 말을 순장했다니 정말 대단하면서도 놀랍지 않니? 팬스레 왕 하나 때문에 죽은 600필의 말들이 불쌍하더라. 그런데 다른 박물관에 비해 순마갱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지 105필의 순마를 전시하고 있는 유리에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아 있어 좀 아쉽더라.

점심을 먹고 약 30분간의 여유가 생겼단다. 룸메이트 선생님이랑 식당에 머물기 보다는 잠시라도 가까운 곳의 중국 거리를 걸어보





기로 했어. 조금 걸으니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고 사람들이 여러 음식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해 그 구멍 속으로 사 고팔더라.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사먹나 봐. 그리고 꽃집이 있었는데 꽃집 안 꽃바구니와 꽃다발은 신기하게도 꽃보다 여러 가지 인형들이 다발로 묶여있었어. 요즘 중국에서는 프리포즈나 선물을 할 때 인형다발을 선물하나봐. 우리 민솔이 가운데가 너무나 좋아하겠다 싶어 하나 구입하고 싶었지만 커서 가져가기가 곤란해 사고 싶은 마음을 눌렀단다. 마트에 들러 중국 과자며 과일을 구경하고 애플망고와 망고스킨을 조금 사서 돌아왔어. 중국하면 지저분하고 산만할 것 같았는데 거리는 깨끗하고 넓어 우리가 사는 김해보다 더 발전되어 보이더라.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중국을 무시한다더니 정말 그러고 있었나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구나. 곧 미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국가, 강대국가가 될 것 같아서인가봐.

마지막 장소인 석도로 출발. 장시간을 가야하니 다시 잠을 청해야겠다. 한 참 자고 일어나니 석도의 바다가 보이더라. 숙소 가까운 곳의 해산물 샵브샵브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 지금까지 식사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이곳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엄마가 워낙에 해물을 좋아하잖니? 그런데 그곳은 여러 가지 조개며 꽃게, 새우, 다양한 면과 오뎅이 즐비했단다. 해산물 샵브샵브 뷔페 같은 곳이라 개인 샵브샵브 냄비에 무한대로 싱싱한 해산물을 가져와 먹을 수 있단다. 같이 식사하는 우리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본 모습 중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구나. 행복한 하루하루였는데 더욱 더

행복해지는 밤이었어. 즐거운 저녁 식사 후 바다를 보러갔어. 파도가 제법 세어보였어. 내일 배가 출항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한국에는 태풍이 온다는데 괜찮을까 조금씩 걱정이 되기도 했어. 조금 뒤 바로 옆 '적산대주점' 숙소로 들어갔어. 이 호텔도 역시 깔끔하고 직원들이 친절하더라. 호텔에 짐을 풀고 씻고나니,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구나!' 싶은 생각에 왜 이리 아쉬운지. 벌써 중국이 그림고 함께 여행한 선생님들과 정이 들었나봐.

다섯째 날, 날이 밝았어

간단히 호텔 뷔페를 먹고 마지막 목적지인 위해로 갔단다. 위해는 산둥성 동북쪽 끝에 자리한 항구도시야. 원래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방적·유지·주조·기계공업 및 선박 수리 공장이 들어선 상업 항구이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여 한국 관련 상점이 많이 들어섰고 한류가 크게 유행하는 곳이란단다. 한국 음식점이 많고 간판들이 많았고 한국인들에 의해 집값이 너무나 올랐으며 부동산 열기가 엄청난 곳이라고 우리 중국 가이드가 얘기해 주더라.

산둥성 위해에 속한 섬인 유공도를 가기위해 배를 탔단다. 유공도는 위해 항구의 입구에 위치하여 동쪽 연해를 지키는 중요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었기에 명나라와 청나라 때 특히 중시되었어. 청나라 때는 북양함대를 창설하여 군항을 설치하고 유공도에 훈련소를 두어 해군을 양성하였다고 해. 또한 나무와 바다, 그리고 그곳의



집들이 너무나 잘 어울려 있고 깨끗한 거리를 보며, 중국인들이 '세상 밖의 무릉도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

유공도 안에는 우리의 역사와 관계가 깊은 '갑오전쟁박물관'이 있단다. 중국에서의 갑오전쟁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일전쟁이라 부르지. 청나라와 일본이 치열하게 바다와 육지에서 벌인 전쟁이란다.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이 발단이 되었어. 1894년 우리나라 조선은 서양 문물의 개항 후 해결해야 했던 과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세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를 참다못해 고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란다. 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보국안민’의 깃발을 높이 들고 고부 관아를 점령했어. 농민군이 일어섰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은 관군을 보냈지만 관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지. 그러자 조정은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일본도 급히 군대를 보낸 거야. 본격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 다툼이 계속 일어났고 이러한 상황은 1894~1895년에 청일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었어. 1895년 2월 일본 해군은 청나라 북양함대의 중심인 위해와 군사요새인 유공도를 공격하여 북양함대를 전멸시켜 일본의 승리로 끝났단다. 중국의 패배 원인은 중국 조정의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 군대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래. 청일전쟁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고수하려는 청나라,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편제하는 일본, 두 나라의 군사적 대결이었지만 싸움의 주 무대는 우리 한반도 일대였단다. 당연히 조선은 두 나라의 전쟁에서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러한 청일전쟁은 청나라는 물론 조선을 망국의 소용돌이에 깊이 넣어버린 참으로 원통한 사건이란다.

‘갑오전쟁박물관’에는 패배한 전쟁이지만 그 때의 사건을 다양한 모형으로 전시하고 군함 속에 있던 화포며 군함의 일부들을 전시해 두었어.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 깊어서 그런지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전시물을 설명해 두었더라.


박물관 마지막 출구에 있던 글이 깊은 생각을 하게 했어.

“갑오전쟁에서 패전한 굴욕적인 역사는 ‘낙후되면 곧 당하게 된다.’는 도리를 다시 입증하였다. 오늘 중국의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300만 평방킬로미터 해양 국토의 안전은 강대국 해양 방위력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대비한 해상 강철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갑오전쟁박물관’은 패배의 아픔을 덮어버리기 보다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미를 되새기는 곳인 것 같아. 우리 또한 아픈 역사를 아프다고 봉대로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상처를 씻어내고 도려내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중국의 ‘갑오전쟁박물관’을 마지막으로 중국문화답사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다시 석도항을 향했어. 돌아가는 배는





올 때와 같은 ‘화동훼리’란다. 룸메이트 선생님들도 그리고 방도 똑 같았어. 3시 30분쯤 배를 탔지만 배는 9시가 넘도록 출발하지 않았어. 빨리 출발해도 우리나라 해안에서 기다려야 한다니 올 때의 기다림보다는 걱정되지 않더라. 배에서 중국식 춤을 춘다기에 룸메이트 선생님들과 가서 함께 추었다. 동작이 생각보다 쉬워서 따라 하기도 좋았고 재미있었어. 춤도 추고 가져온 책도 마저 읽고, 룸메이트 선생님들과 이 여행이 얼마나 뜻 깊고 즐거웠는지에 대해 얘기 나누면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여섯째 날 아침, 한국 땅이 보였어

무사하게 돌아온 것이 기쁘고 우리 이쁜 딸들을 만난다니 신이 났어. 하지만 그 동안 함께 했던 한국해양재단 스탭들과 현대아산 가이드 분, 중국 여행을 감칠맛 나게 했던 중국역사 문화 전문가 교수님, 룸메이트 선생님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나 아쉽더라.

나에게 이런 행운을 이런 기쁨을, 그리고 바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역사에 대한 앎의 욕구를 주신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어. 다음에 우리 딸들이 조금 더 커면 함께 이곳을 다시 답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다. 이 여행을 통해 너희들도 바다에는 무한한 자원이 무한한 도전이 그리고 무한한 경제력과 강한 기운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학교에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무한한 바다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

심과 장보고의 기상과 개척·도전 정신을 본받도록 열심히 연구하여 가르쳐야겠어.

몇 시간 후면 너희들을 만난다니 새로운 마음으로 멋져지고, 힐링 받아 온 엄마를 기대하렴. 엄마를 만나면, 달려와 안겨줄 거지? 사랑한다.

2014년 8월 4일 멋져진 엄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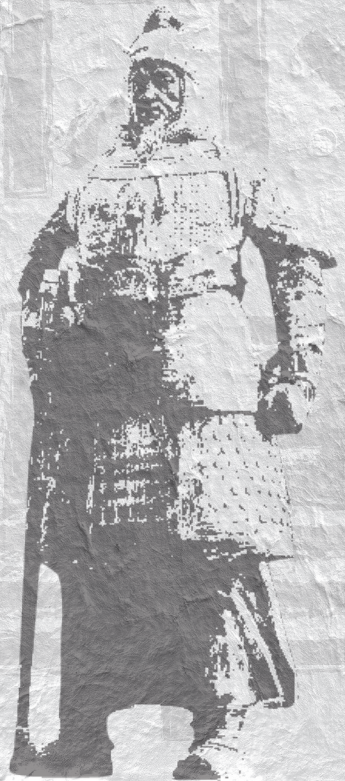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 조혜진(2012). 「해상왕장보고, 바다 실크로드에서 활약하다」. 아카넷주니어
한국해양재단(2014).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한국해양재단
양쯔강(2009). 「천추흥망」. 따뜻한손
박은봉(2012). 「한국사편지」. 책과함께어린이

03

21세기에 만난 해상왕 장보고

예일여자중학교 / 임효순(우수상)



장보고와의 만남

‘2014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공문을 접하고 내용을 읽어보니 답사 일정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답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피어올랐다.

제출 기한 내에 지원 신청을 하고 발표 예정일에 결과를 확인하려 했으나 공지사항에 지원자가 워낙 많아 발표가 이틀이나 연기되었다는 내용이 떴다.

온 정성을 기울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냈지만 ‘내가 선발이 될 수 있을까?’하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다. 발표 당일이 되어 명단에서 내 이름이 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니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되었다는 뿌듯함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장보고 관련 답사 내용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앞섰다.

그런데 답사 중에 총괄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올해는 4주간이 아니라 2주간 동안만 지원을 받았는데도 210명 정원에 지원자가 1,500명이나 돼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전에 텔런트 ‘최수종’이 ‘장보고’ 역할을 맡아 열연했던 드라마 ‘해신’이 방영될 때에는 지원자가 무려 6,000명이나 돼서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답사는 여름방학 중 3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내가 속한 1차 일정에는 65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에 듣고 보니 한두 번씩 지원했던 선생님들이 많았고 무려 네 번씩이나 지원했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한 번에 선정된 것은 큰 행운인 셈이었다. 나는 처음 지원하였고 심혈을 기울여 지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책에만 갇혀있는 지식에서 벗어나 현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중국으로 가는 첫 날 화동궈리호에서 선상 세미나를 하면서 1박을 하고, 제2일에는 유공도의 청일갑오전쟁박물관을 둘러보고 제나라 수도였던 치박으로 가서 1박, 제3일에는 태산등정과 곡부견학을 하고 다시 치박에서 1박, 제4일에는 고차박물관, 제나라역사박물관, 순마갱을 보고 석도로 가서 1박, 제5일인 27일에는 적산법화원, 장보고전기관을 둘러서 석도항으로 가서 다시 화동궈리호를 타고 1박, 제6일인 28일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귀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답사일정이다.

제1일(2014.7.23. 맑음)

중국으로 답사 떠나는 날이 마침 우리 학교의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다행이었다. 휴가 나와 있던 아들이 신도림역까지 가방을 들어다 주고 갔다.

4시까지 제1국제여객터미널내 명진약국 왼쪽으로 집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에서 오후 1시경에 지하철 6호선 구산역을 출발하여 합정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고 신도림역에서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1호선에 탑승하여 동인천역까지 가서 24번 버스를 타

고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명진약국이 있는 곳까지 걸어 들어가기니 조금 이른 시간인 3시 20분이었다.

홀에 있는 대기석에서 중국 석도항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한 수속 절차를 기다리며 보니, 그곳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인들의 이용이 활발하여 중국인과 중국어가 더 많이 보이고 들려 ‘한국 속의 중국’인 듯 느껴졌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국인 일행들은 연신 얼굴에 붙이는 한국산 미용 제품인 마스크팩의 겉 포장지를 벗겨내고 내용물만 꺼내 간편하고 부피가 작게 만들어 자신들의 큰 보따리에 꾸러 넣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한국해양재단에서 제작한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책자, 이름표와 모자, 휴대폰 충전지, 욕실 용품 세트 등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속한 조는 4조인데 여교사 5명에 남교사 3명, 모두 8명이었다(근무지는 각각 의정부 1명, 서울 2명, 동인천 1명, 수원 1명, 대전 1명, 부산 2명).

오후 6시경 배에 탑승했는데 4인실, 313호에 배정되었다. 대진 용남중학교 역사과 이경미 선생님, 동인천중학교 도덕과 이기순 선생님, 부산 동현중학교 국어과 정미숙 선생님이 룸메이트가 되었다.

우리가 승선한 배는 화동훼리호인데 18시 30분경 중국 산둥반도의 석도항을 향해 출발하였다.

저녁 식사는 7시부터 진행되었다. 식당에서 배식이 진행되고 있





을 때 일몰 구경을 지금 해야 한다며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 오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우리 일행은 단체라서 그런지 먼저 식사를 하게 해줬고 중국인 개별 이용객들이 뒤를 이었다. 식사 후 8시에 다시 식당에 모여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되어 1년에 4번 실시되던 것이 월 4회로 늘어났다며 지금 배를 이용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기획했다는 한국해양재단의 김성호 총괄팀장의 인사가 있었고 선상강의가 시작되었다.

김창겸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옛 정신문화연구원)가 해상왕 장보고에 대하여, 김혁수 전 해군제독은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하셨다. 선생님들이 오늘 전국각지에서 인천으로 모인느라고 피곤했던 것 같다. 많이들 피곤해하여 강의가 길게 이어질 수 없었다.

각자의 숙소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다. 화동훼리호는 시속 22노트의 속도로 14시간 동안 운행하여 다음 날 아침 석도항에 도착하게 된다. 바다가 잔잔하여 순항하였다.

제2일(2014.7.24. 흐림)

선상 객실에서 1박을 하고 중국 시간으로(중국 시간이 우리보다 1시간 앞선다) 5시경에 일어났다. 식사하기 전에 바다를 보고 싶어

갑판으로 나갔는데 중국 연안인 듯했다.

엿저녁에 강의를 담당하셨던 김혁수 제독(이분은 공적인 경례를 할 때 꼭 ‘충성!’이 아닌 ‘필승!’으로 하였다.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 군인은 어떤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필승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행 분들이 서있었다. 바다에 넓게 퍼져있는 녹조를 보면서 황하에서 오염된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한국 같았으면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라는 얘기들을 하였다.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범위가 너무 넓었다. 우리나라까지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식당과 연결되는 층의 곳곳을 돌아보니 복도를 따라 14인실 정도의 방들이 많았고 그곳에는 침대가 아닌 침구류 등으로 구분하여 군인들의 숙소처럼 승객이 나란히 누워 잘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물품을 담은 상자들과 복도에 넣어놓은 빨래들로 가득하였다. 중앙 홀에는 안내 데스크, 편의점, 음료와 커피 자판기, Skin Food 화장품점 등이 있었다.

숙소에서 짐을 꾸리고 9시에 하선 및 중국 입국 수속을 하고 석도항에 도착하였다. 10시경에 석도항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우리를 태워갈 연계버스가 길을 잘 몰라 12분 정도 늦게 도착하였다. 베이징올림픽 때 사용됐던 리무진 버스였다는데 나는 2호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버스에서 3박 4일 동안 우리를 안내해 줄 가이드를 소개받았다. 조선족이면서 교포 3세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성국씨였다. 그는 운전기사님을 소개하면서 한족 출신이며 ‘맹 따거(大哥)’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큰데 엄청난 부자가 약 5,000만 명쯤 된다. 우리 남한 인구보다도 많다니……. 그는 또 중국에는 기초 질서가 부족해 ‘빵빵대’와 ‘들이대’라는 대학 2개를 나와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산동성은 옛 노나라 땅이며 한국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고 인구는 2배에 이른다고 한다.

2모작이 가능한 곳이며 1년에 약 600mm 정도로 비가 적어 벼농사가 어렵고 옥수수과 밀 생산이 많고 주식은 빵이며 중국 전체 채소의 80% 정도를 제공하는 지역이라 한다. 창밖에는 녹색의 옥수수 평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 옥수수들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에 더 정겹고 푸근하며 풍요로운 느낌이 들었다. 중국에는 아직 커피 문화가 없으며 뜨거운 물이나 차를 마시고 맥주도 차갑지 않은 것으로 마신다고 한다.

90분간을 이동하여 인구 270만 명의 위해시로 가서 12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중식으로 점심 식사를 한 후, 배타고 15시 5분에 유공도에 도착하였다. 유공도에서 청일갑오전쟁박물관으로 갔는데 건물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한 남자가 긴 망원경으로 먼 곳을 주시하는 모습이 건물 꼭대기에 얹혀있는데, 그 주인공은 산동반도를 지키던 북양해군총사령관으로 청일전쟁에서 대패하여 자살했던 정여창으로,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중국에서는 청일전쟁을 갑오전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청일전쟁 당시 우리나라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사진 등이 가득하였다. 이것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지식들이며 생생한 현지의 자료들이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던 시기와 일치하는 때에, 한국일보 베이징 특파원 박일근 기자가 청일갑오전쟁 120주년을 기하여 취재한 좋은 글을 발견하여 인용한다.

『중국인이 기억하는 아산 앞바다와 평양』

[글로벌 리포트 | 중국] 박일근 한국일보 베이징 특파원

‘풍도(豊島)에서 북양해군을 기습하며 한반도에서 전쟁 도발’.

지난 23일 청일전쟁(중일갑오전쟁) 120주년 취재 차 찾은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류궁다오(劉公島)의 갑오전쟁박물관은 청일전쟁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1894년 7월25일 우리나라 아산만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함선에 기습 공격을 해, 전쟁이 촉발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구 아래에는 고종을 ‘조선국왕 이희(李熙)’로 표기한 사진과 동학 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의 사진도 있었다. ‘1894년 봄 동학당 농민 운동이 발생한 후 조선은 중국의 원조를 요청했다. 일본은 천진조약



에 따라 주한 대사관과 상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군대를 조선에 진출시켰고 이후 선전포고도 없이 갑오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안 내문의 골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청일전쟁의 무대는 우리나라 산하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발길을 옮기자 평양전투의 상황이 소개돼 있었다. 평양에 주둔해 있던 청나라 군대는 1894년 9월 15일 일본군의 공격에 2,000여 명이 숨지고 3,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패를 당했다. 이어 9월 17일 압록강 하구에서 벌어진 황해해전에서도 청나라 군함이 5척이나 침몰됐다. 황해해전은 증기 동력 전투함이 만들어진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규모의 해전이였다. 이를 계기로 제해권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갔다. 아시아의 판도가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바뀐 순간이다.

일본은 10월 25일에는 압록강 전투에서도 승리, 청의 방어선을 뚫고 중국 땅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났다. 이후 일본은 랴오둥(遼東)반도의 뤄순(旅順)과 다롄(大連)을 정복한 뒤 1895년 2월에는 청나라 북양해군 사령부가 있던 류궁다오까지 공격, 북양해군을 전멸시키면서 전쟁에서 완승했다.

청일전쟁 120주년을 취재하며 류궁다오의 갑오전쟁박물관에서 풍도, 평양, 황해, 압록강 등 우리의 산하가 양국 군대에 짓밟힌 모습을 들



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다. 그러나 누구도 그 피해자를 기억하는 이는 없다. 당시 우린 청일전쟁의 의미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이후에도 이 전쟁을 잊고 지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은 남의 나라 땅까지 가 치른 전쟁의 굴욕과 교훈을 잊지 않겠으며 당시 전멸했던 북양해군 사령부에 박물관을 세워 기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린 우리 땅에서 벌어진 전쟁조차 기억하지 않고 있다. 남의 나라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와,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삼아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우린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반성도 안 보인다.

더구나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장악력이 열강들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일전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 대사건이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제 병탄한 것은 1910년이지만 일본은 이미 그 16년 전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를 수중에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청일전쟁을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남의 나라 군대에게 우리의 산하를 싸움터로 내 줬던 비극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로 가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 굴욕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청일전쟁 120주년을 맞아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 3개월 간 이례적인 실전 군사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120년 전 동학농민운동을 핑계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낸 일본이 이젠 북한 핵을 빌미로 해 한반도로 다시 진출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결하고 있다. 양국 비행기가 분쟁 해역 상공에서 위협 비행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120년 전 우리 지도층은 외세에 의존해 내부의 문제를 풀려다가 결국 나라를 다른 나라들의 전장으로 내 쫓고 결국은 국가까지 빼앗겼다.

지금도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는 대신 외부의 힘과 사대주의를 신봉하는 듯한 지도층 인사가 적잖다. 미국이니 중국이니 눈치 보며 줄타기 외교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120년 전 청일전쟁이 주는 교훈이다.

나는 청일전쟁박물관을 돌아보고 마음이 아팠다. 지금도 박물관에 있었던 전시 자료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모두 우리와 관련된




아픈 역사가 아닌가? 그럼에도 기자가 취재하여 쓴 글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수치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역사임을 우리는 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박물관까지 지어놓고 국가가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며 국민들을 계몽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유공도에서 나와 16시에 버스가 출발하였는데 우리가 묵을 호텔까지는 거리가 멀어 중간 지역인 청도시에 있는 '경복궁'이라는 유명한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시 버스를 7시간 타고 제나라의 수도였던 치박의 만호대주점이라는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12시였다. 동인천중학교의 도덕과 이기순 선생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재미있고 유쾌하고 멋스러운 50대 중반의 여선생님이다. 씻고 좀 얘기하다가 1시에 잠들었다.



제3일(2014.07.25. 비가 내리고 안개 낄)

6시 30분부터 식사하고 7시 30분경 버스로 두 시간 반 거리의 높이 1,545m의 태산을 등정하기 위하여 태안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날씨가 꺾어 태산에 오르는 케이블카를 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10시 30분에 태산 입구에 다다르니 날씨가 개어있었다.



11시경에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올라갔다. 그런데 막상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갔으나 그곳에서 태풍 온다는 소식에 케이블카를 운행할 수 없다고 했단다. 어이없었다. 그럴 거면 아래에서부터 운행할 수 없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셔틀 버스요금 다 내고 올라오도록 설명도 없이 놔두다니……. 한국 같았으면 항의하고 소란했을 텐데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고 그뿐이란다. 사실 우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만큼이라도 올라와 보는 것이 좋을 것이긴 하다. 케이블카 운행이 안 되니까 가이드가 아이디어를 내서 20분간 더 올라가 폭포가 있는 쪽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태산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태산 등정은 못했지만 태산 입구나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았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즉위할 때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받고 땅에 알리는 봉선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니 여타 산들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이다.

태산이라는 이름은 시조로 인해 학창시절부터 우리에게 친근하게 여겨졌던 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뫄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뫄만 높다 하더라.’

그러나 태산은 생각만큼 높은 산이 아니다. 태산이 높다기보다는 태산이 위치하고 있는 산동 지역의 지형이 워낙 평지이다 보니

1,545m 정도인 태산이 오르기 험한, 하늘 아래 유일한 산처럼 여겨져 온 것 같다.

12시 23분에 태산 아래로 내려가는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입구에 하차하니 12시 45분이 되었다.

12시 55분에 리무진 버스에 탑승하여 점심 식사는 15분 가량 걸리는 Taishan International Hotel로 이동하여 13시 10분경 현지식으로 식사를 하고 13시 58분 출발하여 공자의 고향인 곡부로 이동하였다. 중국에서는 산으로는 황제의 봉선의식이 행해졌던 태산을, 성인으로는 공자를 최고로 꼽고 있는데 태산도 공자의 고향도 모두 산동성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동성은 중국의 여러 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곳이라고 한다.

버스 속에서 DVD를 보여주는데 내용은 대국굴기 '포르투갈과 스페인 해양시대를 열다'였다. 로마의 문장가 키케로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대륙을 지배한다.'고 했단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전에서 패한 나라는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해양 진출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도 요즈음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 가서 공자의 72대 후손이 살았던 공부(공자가문의 공묘나 공림을 관리하는 공자 후예의 집)와 공묘(공자의 사당), 공림(공자와 후예들의 무덤이 있는 수풀)을 관람하였다.

장개석은 대만으로 갈 때 공자의 77대 후손인 공덕성 씨를 데리고 갔는데 공덕성씨는 대만에서 60년을 살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공자는 중국에서 거의 황제 급의 대우를 받는 듯이 느껴졌다. 공묘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7개까지 세울 수 있다고 한다. 그 문기둥에 황제나 사용할 수 있는 용무늬 문양을 새겨놓은 것과 함께, 청나라 건륭제가 다른 황제들은 공묘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독점적으로 7개의 출입문을 모두 세웠다는 이야기도 공자가 중국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2010년에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할 때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한자’와 ‘책’과 함께 ‘공자’를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기억이 선하다.

공자묘 안의 대성전은 북경의 자금성, 태산 경내의 천황전과 함께 중국 3대 전각으로 꼽힌다.

중국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90% 이상 화장을 하지만 공자의 후손들은 화장하지 않고, 곡부의 공립(공씨의 공동묘지)에 매장한다고 한다. 공립에는 공자 이후 공씨 일가의 무덤이 10만기 이상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자도 타도 대상이 되었던 문화대혁명 이후 유교가 쇠퇴되어 공자의 후손들은 장례나 제례의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 한국인들에게 자문한다는 것이다. 공자의 무덤 앞에는 공자의 아들 공리의 무덤이 있고 그 앞에는 손자인 자사의 무덤이 있다. 공묘에는 공자의 제자 12명을 비롯하여 72명의 제자들이 봉안되어 있다고 한다. 공자 가문의 묘역을 둘러보고 나니 뜬 구름 잡는 것만 같았던 춘추전국시대 이래의 중국문화의 실체를 붙잡고,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6시에 공부가연(공자 가문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던 음식들)으로 저녁 식사를 한 후 7시에 출발하여 3시간 45분 걸려 밤 11시 가까이 묵고 있던 치박 만호대주점에 돌아왔다.

연일 하루 7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니 피곤하여 씻지도 못하고 누워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씻고 메모도 하다가 다시 잠을 청했다.

제4일(2014.7.26. 맑음)

치박의 고차박물관, 제나라 역사박물관, 순마궐을 관람하고 석도로 이동하는 날이다. 치박의 인구는 500만 명이고 그 중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수도였던 임치의 인구는 170만 명 정도이다. 8시 34분 호텔을 출발하여 9시부터 45분간 고차박물관을 관람하였다. 고차박물관에는 고속도로 공사 중에 발견됐던 옛 수레나 전차와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고 잘 설명해 놓았다. 한일교류사를 연구하는 송실대 이유진 교수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위진남북조시대 유목민족이 침입하면서 중국에도 등자가 유입되고 수나라 이후 등자를 사용해 마상에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경민족에게 철기의 사용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 양자강의 늪지대 경작이 가능해졌고 심경법의 발달로 생산량



이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유목민족은 철기의 사용으로 등자를 만들어, 마상에서 말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게 되어 기마술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강태공이 낚시를 했다던 태공호를 지나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갔다. 강태공은 천문, 지리, 정치, 군사 등 다방면에 능했으나 빈 낚시만 하며 때를 기다리다 결국 문왕(서백)을 만나 주나라 건국의 일등공신이 되어 건국 후 제나라 제후로 책봉되었고 제나라 초대 왕이 된 인물이며 139세까지 살다가 도교의 신이 되어 하늘로 날아가서 그의 묘가 어딘지는 모른다고 한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산둥성에서 산둥성 박물관 다음으로 중요하다.

다음은 10시50분경에 순마갱으로 향했다. 순마갱은 ‘제경공순마갱’이라고 불리는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이다. 순장된 말들 84마리를 전시해 놓았고 전체 숫자는 600마리라고 한다. 말들이 가지런히 문혀서 화석이 된 모습이고 뼈들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말을 산 채로 묻었다면 이렇게 가지런할 수가 있을까? 이 유진 교수는 산 채로 묻었다면 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로 폭발했을 거라며 죽인 후에 묻었을 거라는 의견이었다.

순마갱은 춘추전국시대 산둥성 일대를 지배하였던 지배 세력의 규모를 보여 주는 유적이다.



순마갱 관람 후 11시 20분에 버스에 탑승하여 제도대주점으로 가서 현지 식으로 식사를 하고 12시 45분경에 석도의 적산대주점으로 이동하였다.

적산대주점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경관이 아름다우며 주변은 넓고 잘 꾸며진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다. 바닷바람도 상쾌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원래는 이곳에 우리 일행의 숙박을 예약했었으나 공산당 측에서 이곳을 사용한다며 예약되어 있던 객실을 가져 버렸다는 것이다. 헐~~

나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반공소년 이승복이 했다는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적산대주점에서의 저녁 만찬은 이번 유적지 답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음식은 해산물 샐러드였는데 약간 실망이었다. 해산물이 깨끗하지 않았고 육수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1인 냄비에 맹물이 부어져 있고 재료를 스스로 가져다 넣고 끓여 먹는 것이어서 한국에서 경험한 맛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국의 최고급 호텔인데……. 친절하기는 하나 한국과는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위기는 고조되고 다함께 축배를 들고 즐거워하였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인 것이다.

식사 때마다 식탁에는 유명하다는 산동지역의 청도 맥주가 놓여 있었다. 산동 지역은 과거 독일의 조차지였기에 독일인들에 의해 맥주 생산 시설이 갖춰졌고 그로 인해 청도 맥주가 유명해진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Shidao Hotel로 옮겨가서 1박을 하였다. 이곳도 시



설은 훌륭한 호텔이다.

제5일(2014.7.27. 맑음)

아침 식사 후 호텔 밖으로 나가 바닷가를 산책하였다. 맞은편으로 한참 걷다보니 중국에 온 첫 날 입항 후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던 석도항 터미널이 코앞에 나타났다.

아! 그날 석도항 터미널에서 현대아산 직원이 설명하기를 맞은편 저 호텔에서든 목을 거라고 했었지! 맞아, 바로 그 호텔이 이 호텔이야~^^

오히려 이 호텔에 목계 돼서 새로운 것도 더 알게 되고, 호텔 아래 바닷가에서 돌로 된 원형 탁자에서 룸메이트인 이기순 선생님과 찍은 사진이 좋은 배경과 구도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사진이 되었다.

호텔로 돌아와 가방을 챙겨 버스에 올라 적산명신, 적산법화원과 장보고전기관으로 향하였다. 다음은 그곳의 장보고전기관에서 보고 적은 내용들이다.

● 법화원 건립 - 적산포는 당나라시대 중요한 무역항구 중 하나로 장보고는 이곳에 해상 무역의 근거지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법화원을 건립하여 불교를 통한 민심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해상 무역의 번영을 기원하고 인근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삼게 하였다.

장보고는 적산법화원을 건립하는 동시에 매년 곡식을 5백석을 수확할 만큼의 많은 장전을 마련하여 스님 공양과 손님들을 대접하였다. 또한 창고를 설치하여 수확한 양식 채소를 저장하였다가 사찰의 일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매년 한가위에는 신라인들이 사월에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

법화원은 본전과 요사채, 종각, 강경당, 식당 등의 부속 건물로 이루어졌으며, 상주하는 스님이 최대 40여 명에 달하였다. 겨울에는 법화경을 강독하고 여름에는 금광명경을 강독하였으며, 일 년 내내 경전을 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한 강경법회 때에는 참여하는 신도가 250여 명에 달하는 등 산동반도 일대에 그 영향이 지대하였고 한다.

● 장보고와 엔닌 - 838년에 일본 스님 엔닌 일행이 구법차 입당하여 이곳의 관리와 신라인들 그리고 법화원의 많은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오대산과 장안에서 구법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구당신라 소는 재당 신라인들을 관리하는 관청의 이름으로 엔닌은 입당구법기



간 중 문등현에서 신라인인 구당신라소의 장영과 압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엔닌은 적산법화원에 세 차례에 걸쳐 2년 9개월이나 머물렀다. 그의 여행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그때의 사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장보고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 회창법난 - 그러나 당무종 회창 연간에 조정은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였다.

842년~846년 무종은 전국의 사원을 해체시켜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사원 소유의 재물과 토지 등 모든 재산을 관청으로 귀속하라는 명을 내렸다(회창법난). 이에 따라 적산법화원도 훼멸 당했다.

● 법화원 복원 - 1980년대 일본이 '엔닌의 절'이라 하여 복원하려 했던 것을, 한국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신라의 장보고임을 중국정부에 알렸고 1994년 법화원에 각계의 성금을 모아 기념탑을 세우고 장보고 대사를 기리고 있으며 2000년대 '해상왕 장보고 기념 사업회'에서 기록과 자료를 제공하여 지금과 같은 적산법화원, 장보고전기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한다.

장보고 동상은 내게 큰 감명을 주었다. 위풍당당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랄까?

힘만 쓰는 무장이 아니라 인격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임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이었다. 신라 말에 창궐하던 해적을 소탕하여 인권을 보호한 휴머니스트, 바다를 지키고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온 경세가, 바다 진출의 기회로 해상 무역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인 선구자이며 개척자……。 장보고의 행적을 살펴볼 때 그의 모습은 아마도 동상으로 표현된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산법화원은 신라원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장보고가 당나라 무령군 소장으로 있을 때 산동반도 적산촌에 세운 창건한 사찰이다.

장보고기념관을 둘러보며 장보고와 아우 정년과의 각별한 우애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적산을 중심으로 무역에 종사하여 큰 부를 축적하고 법화원을 세워 신라인들의 구심점으로 삼아 신라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였음은 그가 넓은 도량을 갖춘 덕이 있는 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하였다.

장보고기념탑에서 사진을 찍고 장보고기념관, 적산명신, 법화원을 둘러본 후 12시 10분에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백화점, 마트에 잠깐씩 들러 쇼핑하고 15시 05분에 석도항으로 출발하였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다시 화동훼리호에 16시경 승선하고 보니 눈에 익은 낙서 자국과 커튼에 남아있는 특징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올 때 탔던 그 배, 바로 그 객실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런데 승선 이후 무려 여섯 시간이 지난 21시 55분경에야 운항이 시작되었다. 배가 고장인 줄 알았다. 무려 여섯 시간이나 배에 갇혀있다니……。 왜 이럴까? 인천에서 석도까지는 14시간, 다시 석도



에서 인천까지 20시간 운항……. 우리 방 샘들이 추측한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석도항 근무자들이 퇴근하느라 퇴근 전에 승객을 모두 배에 실어 놓은 것 같다’, ‘인천항은 정박료를 받으니 화물을 속히 다 싣고 승객을 태우고 떠나는데 중국에선 항구 정박 요금을 안 받아서 이러는 거다~’ 등 무엇이 진실일까?

이후 바다가 잔잔하니 배의 흔들림이 거의 없이 인천으로 순항하였다.

제6일(2014.7.28. 맑음)

화동훼리호의 인천항 도착 시간은 예정보다 30분 늦어 오전 11시 30분경이 되었다.

입국 수속을 끝내고 12시 20분에 입국장을 나오니 점심 먹을 시간이다. 모두들 서둘러 집에 가기 바쁜 듯했다. 하긴 전국각지 먼 곳에서 온 선생님들이 많으니 마음이 분주하겠다. 그래도 지치지 않으려면 지금 식사를 해야 할 텐데……. 어찌할까 망설이다 2명에게 강권하여 여객터미널 지하의 구내식당에서 같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나니 13시가 되었다. 나도 귀가를 서둘렀다.

중국을 가기 위해 며칠 전에 탔던 1호선을 다시 타고 돌아오는 중에 가방을 들어주고 갔던 아들이 소속된 61사단 주변의 송내역을 지나게 되니 지금은 이곳에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감회가 남다르다. 네 시간 후면 독일에 있던 딸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텐데…….



일 년 만에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 오늘이 중복인데 어디 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좋을까 등,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진행된 과거 속으로의 시간 여행이 끝나고, 이제 현실에서 진행되는 일에 머리를 쓴다.

지난 5박 6일 동안 꿈을 꾸다 온 것만 같다.

맺는 말

이번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내게 해상왕 장보고와 그가 활동한 중국 지역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중·일 3국 정부가 인정하는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의 위대한 업적을 되새기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번 답사 여행은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한국해양재단에 감사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이런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잘 전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대학 시절의 지도교수님께서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이미 하셨다며 그때 기록해두신 답사 일지를 이번 답사 여행에 참고하라고 건네주시며 기쁨으로 격려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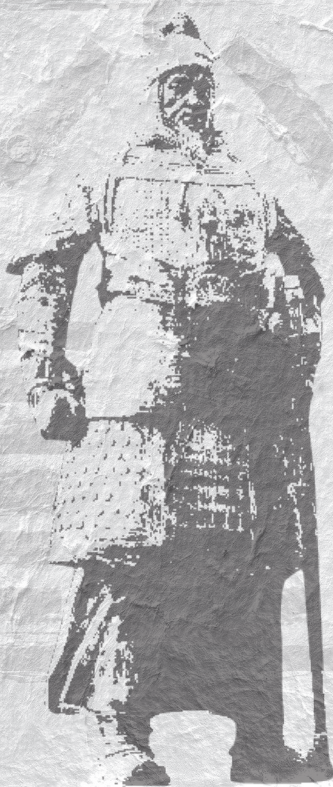
교수님의 일지는 기록이 정확하고 자세하고 꼼꼼하여 기행문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교수님과 나의 사제 지간 답사 기행문에 대하여도 이야기해 줄 것이다.



04

장보고 답사,
무채색 지도를
총천연색으로 바꾸다

부산 운송초등학교 / 정명숙(우수상)



“야호!!! 합격이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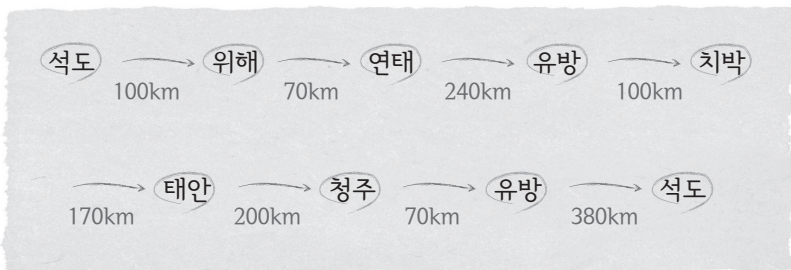
2014년 7월 4일 한 번 연기되었던 합격자 발표, 해양재단 홈페이지에서 내 이름을 발견한 순간 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 동안 3번을 도전했지만 번번이 내 이름이 명단에서 빠지는 슬픔(?)을 경험했던 까닭이다. 나는 이 여행을 많이 고대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다녀오신 선생님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명단을 확인하고 내가 가는 곳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갈 석도, 위해, 곡부, 태안은 중국에서 그다지 유명 관광지에 속하지 않는지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지도에서 우리가 갈 곳은 산동성이다. 그런데 이 지도 중에서 5박 6일 동안 산동성만 보고 온다고?

그래서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다.

‘2013년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경로’



산동성은 중국의 수도인 북경과 중국 최대의 상업 및 문화 중심지인 항구도시 항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육지 면적은 1,567만Km²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3,100km가 넘고 예로부터 인구가 많은 대성으로 꼽혀왔다. 산동성에는 현재 9,0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중국 땅의 그 어마어마함을 실감할 수 없었다.

7월 30일

7월 30일 아침, 부산 고속터미널에서 인천행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니 2시. 안내문에 인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천항까지 약 1시간 걸린다고 했으니 약속 시간인 4시까지 시간은 충분하겠고, 이왕 왔으니 인천 시내버스를 타 보기로 했다. 안내문을 따라 신세계 앞에서 36번을 타니 버스는 만원이었고 캐리어를 든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 이 분들 중 나의 동행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 약간 두려웠던 마음이 어쩐지 든든해지는 느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버스가 인천여객터미널에 닿으니 캐리어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나도 그 사람들을 따라 터미널로 들어





가 약속 장소를 찾아가니 재단 사람들이 이미 나와 모자와 여행 자료를 나눠주고 있었다. 모자를 받아들고 돌아서니 이름표에 바로 내 앞 번호인 3조, 4번이라는 이름표를 가진 선생님이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의 룸메이트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번의 여행 경험으로 미루어 룸메이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기에 얼른 가서 인사를 나누었다. 선생님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다.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번 여행이 즐거울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사실 이번 여행을 오면서 좋은(나하고 맞는) 룸메이트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터였다. 나하고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피차가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시, 드디어 출국 수속을 밟기 시작하였다. 출국장에는 방학을 맞아 한국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는 중국 초등생들로 붐비고 시끄러웠다. 역시 아이들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시끄럽고 호기심 많은 존재들이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내가 탄 배는 화동궈리호, 배정 받은 선실은 612호, 선실에 들어가니 나름 침구가 깨끗해 보여 안도를 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룸메이트가 오지 않는다. 선실은 4인 1실. 머쓱한 상태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키가 큰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다. 잠시 후 아가씨 두 사람이 들어왔다. 아, 저 사람들은 이번 우리 팀을 인솔할 현대아산 가이드였다. 이런 행운이! 우리는 가장 먼저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탈출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다. 확실히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크긴 컸나보다.


저녁을 먹고 밖으로 나오니 저녁노을이 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해상안전교육을 받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생긴 조그마한 변화였다. 이어서 한국해양재단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재단 이사장님의 인사와 교수님들의 강연을 들었다.

강연을 통해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피상적인 장보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1,200년 전에 시대를 앞서 해상을 경영했던 해상 경영의 선구자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들을 소탕하고 한중일 3국을 잇는 동북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또한 교역의 범위를 동남아와 인도, 이슬람 사회까지 무역 활동을 확대하였다. 생각해보니 현대에 사는 나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슬람 지역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 그런데 1,200년 전 그 때의 배로 이슬람 지역까지 갔다고 생각하니 그의 용기와 대단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는 당시 국가 간의 거래에 머무르던 공무역 형식의 조공 무역을 민간 무역으로 바꾸고 이를 활발히 펼쳐나갔다고 하니 새로운 상도와 나라의 국격을 높인 일등공신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이렇게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선도하여 '해상왕 장보고'란 명칭을 얻었던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경제가 60~50km로 속도가 떨어지니 취업은 어렵고 수입이 적어지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요즘 장보고와 같이 장대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인물이 나온다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교수님들의 강의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바다를 자원으





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태까지는 바다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 무역을 하거나 이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바다 자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보고는 바다를 무대삼아 장사를 하고 부를 축적하고 국부를 키웠다면 이제부터는 바다에 묻혀있는 무한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해내고 있고 바다를 양식장으로 삼아 물고기를 키워낼 뿐만 아니라 요즘은 바다 속에서 갖가지의 새로운 광물들을 찾아내고 있다. 바다에는 무한대의 자원이 있고 이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직업의 세계는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우주 공간을 탐사하고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만큼 바다를 개발하는 데 공을 들인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자원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7월 31일

다음날 아침 눈을 떠 밖을 보니 온통 안개로 휩싸여 사방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8시부터 하선 소식을 기다렸으나 가이드 아가씨들로부터 안개 때문에 입항이 늦어질 거라는 소식만 들린다. 이렇게 몇 차례 입항이 연기되어 10시에 해야 할 출국 수속을 2시가 넘어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정 마지막 날 가기로 예정되었던 장보고 기념관과 적산 법화원을 먼저 보게 되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적산명신을 모신 곳이었다. 그런데 과연 큰 대륙답게 버스에 내려서도 작은 버스를 타고 다시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이곳은 적산명신으로 불리는 신라 장보고의 동상이 있는 곳으로 산꼭대기에 눌러 앉아 아래를 지긋이 내려다보는 모습이 어마어마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호령한다기보다 세상을 자비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넉넉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네이버를 검색해 찾아보니 '중국 산둥성(山东省) 석도시(石島市) 적산법화원의 높이 58.8m에 달하는 중국 최대의 해신상'이라고 나와 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적산법화원이었다. 석도 적산 기슭에 위치한 적산법화원은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사찰로 당시 산둥 제일의 규모를 자랑했고 재당 신라인 결속의 중심지였으며, 현재의 적산법화원은 9세기에 파손된 것을 1988년에 중건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적산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 간 왕래 사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기도도량이라고 답사 안내 책자에 나와 있다. 법화원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나라 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우리나라 절은 아담하고 소박하며 정취가 있는 반면 이 곳은 흡사 중국 무림들이 거쳐하는 무림사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저기서 머리를 뽀뽀 깎은 소림사 동자들이 나와 무술을 겨룰 것 같았다. 또 우리나라 절은 부처님의 뒤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반면 여기서는 부처님을 방 중앙에 모셔서 부처님 뒤쪽으로 벽을 따라 돌 수 있게 해 두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눈이 휘둥그레





지는 장면을 발견하였다. 벽 한 면이 불화로 부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재료가 모두 옥이었다. 옥으로 이루어진 불화는 화려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귀국 후 자료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적산법화원이 청나라 시대에 복원되면서 청대 건축물에 일본식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용마루가 직선으로 처리되면서 곡선이 특징인 한국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동아일보 1990년 3월 13일자 19면 기사)는 것이다. 어쩐지 소림사와 일본 추녀 냄새가 나더라니……. 아, 가엾은 자여! 그대 이름은 힘없음이라…….

이 외에도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적산법화원을 찾아보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들이 많이 있었다. 아마 입항 시간이 늦어져 시간이 많이 쫓겨서 그랬으리라. 그러나 역사책으로만 읽고 배웠던 신라방을 법화원이라는 단 하나의 신라원을 보면서 신라방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여기에 살던 우리 신라 사람들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는지 이 적산법화원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그 신라인의 후예라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 왔다. 또 법화원 안 나무나 탑, 기둥이나 난간에 수도 없이 붙어있는 붉은 리본들, 붉은 소원들……. 이것을 보며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간 곳이 장보고전기관이었다. 이곳은 2007년 해양 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중국 영성시와 산동척산수산그룹이 적산 풍경명승구 내에 건립한 시설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총 5개 전시실이 있는데 한

국해양재단에서 전시물 등을 지원했다고 한다. 장보고 동상과 해양 진출로를 개척하는 그림, 당시 사용하던 다양한 기구들, 그리고 장보고의 일대기 등의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장보고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장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정치에 입문해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상인으로, 바다 사람으로 살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장보고 기념탑이었다. 이곳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한 후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저녁은 현지 식이었지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다. 사실 중국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음식 때문에 중국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여행사 측의 배려로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김치까지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저녁을 먹자마자 호텔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석도에서 치박까지 6시간을 간다고 했다. 6시간이라니? 그러면 저녁을 먹고 잠을 자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간단 말이야? 치박 호텔 도착 예정 시간은 12시경. 그러면 다음 일정은? 우리는 걱정 반, 피로 반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간이었고 방을 배정받아 들어가자마자 씻고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다음 날 기상 시간이 6시였으므로…….



8월 1일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몸이 고단하지 않았다. 그래, 즐겁게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고 에너지지. 아침을 먹자마자 8시에 태안으로 향했다. 태안에는 태산이 있다. 그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그 태산. 그러나 태산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그마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태산을 검색해 보았다.

태산은 산둥성(山東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주봉(主峰)의 높이가 1,545m, 총면적 426km²이다. 중국의 5대 명산(名山)의 하나인 동악(東岳)으로 신성하게 여겨졌으며, 역대 황제들이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의식(封禪儀式)을 행했던 곳.

고작 1,545m를 갖고 대국이라는 중국이 이렇게 엄살을 떠나 싶었는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왜 태산을 그렇게 중요하고 신성시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다. 태산은 중국의 오악(五岳)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겼던 산이라고 한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역대 제왕들은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봉선의식을 행했는데 기원전 219년 진나라 시황제를 시작으로 한나라 무제5번, 청나라 건륭제는 11번 등 많은 제왕들이 이곳에서 봉선의식을 치렀다.

이곳을 신성시 하기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태산에 한 번 오를 때마다 10년씩 젊어진다고 하여 누구나 태산 등정을 평생의 숙원으로 삼을 정도였다고 한다. 때문에 이곳을 오르려는 순례자들

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산 정상까지 난 7,412개나 되는 돌계단은 발길에 닿고 닳아 반질반질하고 한다. 솔직히 7,412개의 돌계단을 올라간다면 절반도 오르기 전에 아마 우리 대원들의 절반 이상이 무릎이 나가지 싶다. 오늘따라 케이블카가 더없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것도 유효한가? 그렇다면 나도 내 수명보다 10년은 더 산다는 이야기인데 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 안에 죽을 일은 없을성싶다.

이처럼 신성시되다 보니 태산에는 일찍부터 각종 종교 사원과 사당, 누각들이 들어섰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동악묘(東岳廟)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태산의 신(神)인 태산부군을 모신 사당인데 이곳에서 황제들이 봉선의식을 올렸다고 한다.

산 중턱에는 오송정(五松亭)이 있다. 진시황(시황제)이 태산을 오르다가 폭풍우를 만나자 그 아래서 비를 피했다는 소나무가 있었던 곳이다. 당시 시황제가 고마움의 표시로 소나무에게 오대부(五大夫) 직위를 주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한다. 이외에도 태산에는 절이나 사당처럼 생긴 곳이 많이 있었는데 한자를 잘 몰라 아쉬웠다. 또 산 곳곳의 암벽과 수백 개의 비석에 새겨진 글자와 경문이나 시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태산의 명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바위에 새겨진 글들을 보니 북한 사람들이 바위 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을 새긴 것들이 생각났다. 큰 암벽마다 새겨진 붉은 글자들. 이것들을 여기 태산에 와서 보니 북한이 중국의 이런 점들을 모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솔직히 그 아름다운 바위 위에 붉게 새겨진 문장들이 오히려 기괴하게 보였다. 내가 그 뜻



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태산은 아름다웠다. 등산을 좋아하는 나는 특히 바위가 많은 산을 좋아한다. 밋밋해 보이고 둥그스름한 바위가 많은 산에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고 듬성듬성 힘겹지만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무들이 더없이 아름답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자꾸만 고개가 그 쪽으로 향한다.

다음으로 간 곳은 곡부다. 곡부는 노나라의 도읍이자 공자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이 안에는 공묘와 공부와 공림이 있다. 공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공자의 사당이고 공부는 공자의 자손들이 살았던 집이며 공림은 공자의 묘라고 한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주는데 표 한 장으로 세 곳을 모두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 표를 들고 가니 한 곳을 들어갈 때마다 기계에 넣어 도장을 찍어준다. 그리고 이 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가이드의 말이 들린다.

공자가 살았던 중국 산둥성 곡부(취푸)에는 공자가 탄생한지 2,565년이 지났지만 그의 유적지 공묘, 공부, 공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 공묘, 공부, 공림을 3공이라고 부르며 공묘가 3공 중에서 순서를 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라고 본다. 공묘는 공자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먼저 공묘에 들어갔다. 공묘는 기원전 479년,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세워졌는데 이후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게 파손되고



1499년 화재로 큰 불이 나서 훼손되고 지금 남은 것이 이 두개의 큰 사건을 버텨 살아남은 건물들이라고 한다. 사진에서와 같이 공모는 직사각형 지형이다. 중심에 여러 문을 지나고 11번째 건물이 공자의 사당이 있는 대성전이 있다. 대성전으로 가는 길 좌우에 천 년된 향나무가 들어서 있다. 성문을 지나자 돌로 된 문이 3개가 나온다. 금성옥진은 금 소리가 나고 옥이 진동한다는 뜻으로 이곳을 들어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소리가 들리고, 옥이 진동한다고 하니 금과 옥은 공자의 말씀일 것이다. 공자 상을 모신 대성전이다. 기와도 황제만이 사용하는 황색이고, 돌계단에도 황제를 상징하는 용을 새긴 돌이 있다. 그것도 9마리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 황제가 올 때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 기둥에 붉은 보자기를 들렀다고 한다. 공자는 황제 못지않은 위상이다. 그 대성전 안에 공자의 상이 있었다. 그러나 천에 가려져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공모를 둘러보며 중국 사람들이 공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숭상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이동한 곳은 공부. 이것은 공모의 뒤쪽에 있었는데 중국 명, 청 시기의 황제 궁실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한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이던 것이 공자 후손이 늘어나자 저택도 늘어나 지금의 공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공부는 공모만큼의 위용은 없었지만 우리 시골의 골목길을 가는 것처럼 오목조목 들어가는 셋길의 재미있었다.

이렇게 휘리릭 공부를 보고 짹짜게 공림을 향해 달렸으나 이미 공림의 입장 시간이 넘어버렸다. 5분 지각을 했으니 봐 줄만도 한데



절대로 들여보내 줄 수 없단다. 그 앞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0여 분을 기다렸으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고 우리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가이드 말에 따르면 여기는 사회주의여서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고 한다.

8월 2일



아침을 먹고 오늘은 약간 느긋하게 제나라박물관과 순마갱, 고차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만호대주점에서 하루를 더 자고 오늘은 석도까지 다시 이동을 해야 한다. 먼저 고차박물관을 갔다. 고차라고 하기에 마시는 차인 줄 알았는데 타는 차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 고차박물관 위로는 새로운 도로가 나서 현대의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그 도로 밑에는 이렇게 오래된 차 박물관이 있고 그 지하에는 옛날에 쓰던 마차와 말의 무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쩐지 오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에는 옛날에 동물을 이용해서 끌던 다양한 수레와 바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지하에는 정말 오래된 전차와 동물들의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전차와 말들은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이 전차와 말을 적들에게 빼앗길까봐 일부러 땅을 파고 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순마갱이었다. 순마갱은 춘추전국시대 산동성 일대를 지배하였던 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유적지로 105필의 순마를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순마갱은 1964년부터 1972

년까지 약 84m를 발굴하였는데 순장된 말은 228필이라고 한다. 이 말들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로 현재 발굴된 면적과 그 안에서 나온 순마의 밀도를 고려하면 이곳에는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말 600필을 순장시키다니……. 춘추전국시대에 벌써 이곳은 말을 600필이나 순장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왕권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숙연해진 마음으로 제나라박물관으로 이동을 했다. 이곳에서는 너무 덥고 사람이 많이 관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동행하신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관점을 갖고 집중 관찰을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다만 축구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설명에 새롭고 놀라웠다.

오늘은 다시 석도로 가야한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바로 버스에 올랐다. 장장 8시간을 차를 타야 하는 여정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가는데……. 가는 동안 차 안에서 계속 보여주던 대국굴기라는 비디오를 보았다. 중국에서 9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예전에 EBS에서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보니 새삼스러웠다. 이것을 보다가 밖으로 눈을 돌리니 밖에 보이는 것이 나무는 포플러며 옥수수밭이다. 그리고 3시간을 넘게 달려도 산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광활한 벌판이다. 이런 벌판을 우리나라도 좀 갖고 있었으면……. 하다못해 만주 벌판만이라도 우리나라 땅이라면……. 그도 안 된다면 제발 통일이라도…….



집에 와서 한비아의 중국 여행기를 보니 포플러 나무를 심는 이
유가 방풍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로가에 포플러를 집중해서 심은 걸
보면 차폐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하나 중국을 여행하
면서 본 것은 빈 집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중국인은 1인당 집 보유수는 2채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사
는 집은 많지 않고 비워놓은 집이 더 많고 껌데기만 있고 내장은 하
지 않은 집이 많다고 한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라나?…….

8월 3일

오늘은 첫날 입항이 늦어 보지 못했던 위해를 가 보았다. 가이드
가 위해가 중국 최대의 휴양 도시이며 깨끗한 도시라고 했는데 정
말 가보니 부산 해운대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게다가
해운대보다 조용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유공도를 가기 위
해 배를 타려고 하니 여기도 인산인해였다. 역시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다웠다.

배를 타고 유공도에 들어가 유공도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작은 섬
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넓었다. 갑오전쟁전시관 등 중·일 전쟁
의 기록을 남긴 유적지와 박물관이 대부분이지만 곳곳마다 볼거리
가 있었다. 중국 절의 모양새는 우리의 절과 거의 같다. 입구 옆에
범종이 있는 것과 불상 앞에 탑이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 절에 꽃는
향이 엄청 크다. 그 향을 보니 새삼 '정글만리' 속에 등장하는 향이

생각이 났다.

다음으로 간 곳은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이다. 그 규모는 우리나라 용산 전쟁박물관 정도 될 것 같았다. 중국도 우리와 같이 일본국의 침략으로 망국의 길로 접어든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이다. 박물관 밖에는 청일전쟁 때 반파되었던 함대 모형을 전시해 두었다. 청일전쟁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한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나라 전쟁박물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생함은 훨씬 덜한 느낌이었다. 박물관 안에는 청일전쟁 당시를 재현한 그림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진, 유물이나 수장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속에서 반가운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였다. 그러나 박물관 안은 에어컨이 없어 너무 덥고 사람이 많아서 걸어 다니기조차 힘들었다. 특히 일요일이라 그런지 그 넓은 박물관 안이 사람들로 발 디딜 곳이 없었다.

박물관을 나와 다시 칭나라 군함 제원함에 장착됐다가 일본에 빼앗겼던 독일제 크루프 대포 2문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갔다. 이것을 전시한 목적은 부끄러운 역사도 숨김없이 후세에 전해 거울로 삼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리는 과연 기억하고 있는가? 일제 치하의 그 치욕들을.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오는 배 위에서 다시 한 번 그 말을 되새겨 본다.

“고난의 역사 망각하면 미래도 없다.”



이번 여행은 중국에 관해 무채색이었던 나의 머릿속 지도에 총천연색을 입혀준 값진 여행이었다.



05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진성고등학교 / 성홍주(우수상)



답사를 떠나기 전

고사 임용이 된 2007년부터 쪽 답사를 신청했지만 한 번도 뽑히지 않아서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답사팀 발표 날짜에 한국해양재단에 전화를 하니 이번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발표가 며칠 연기된다고 했다. 아~ 이번에도 또 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와이프한테서 내 이름이 답사팀 명단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 난 답사팀에 뽑힌 것을 알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수업하면서 도 절로 콧노래가 났다.

그럼 중국으로 답사를 떠나기 전 뭐부터 준비할 것인가? 우선 학부 때 읽었던 장보고 관련 역사책을 책장에서 다시 꺼내서 읽었다. 『장보고』¹와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²을 읽고 나니 대략적이거나 장보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중국 지도를 펼친 후 답사 코스를 확인해 보았다. 산둥성(山東省) 석도(石島)에 내려서 곡부(曲阜)까지 갔다가 다시 석도로 돌아오는 1,500km 넘는 생각보다 먼 거리였다. 하기야 이번에 답사하는 산둥성 자체가 남한 면적보다 넓고 인구도 더 많은 곳이니…….

1 강봉룡, 『장보고- 한국사의 미야 해상왕 장보고의 진실』, 한얼미디어, 2004.

2 E.O. 라이샤워, 조성을 옮김,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 라이샤워가 풀어서 쓴 엔닌의 일기』, 한울, 1991.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중국에 살면서, 1년간은 북경(北京)에서 중국어를 배웠고, 나머지 1년간은 천진(天津)에 있는 남개(南開)대학교 역사학과에 교환 학생으로 파견되어 중국 학생들과 함께 역사학 전공 수업을 들었다. 중국 음식도 잘 먹으며 중국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중국 내 수많은 역사 유적지를 답사했지만 이상하게도 산둥성에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서 예전부터 시간이 나면 꼭 산둥성을 가봐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답사팀 발표 후부터 계속 달려만 보면서 출발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다. 물론 단 한 가지 걱정만 하면서……. 답사 떠나는 날 제발 태풍만 불지 말라고…….

첫째 날

드디어 출발일이다. 그러나 하늘이 잔뜩 흐려서 출발 전부터 또 걱정이다. 설마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배가 출항을 못 하는 건 아니겠지……. 동인천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가는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가서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니 현대아산 관계자 분께서 명찰을 비롯한 답사에 필요한 책자와 세면도구 등을 챙겨주셨다. 미팅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착해 있었다. 조금 있다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출국 수속을 한 후 배에 승선하게 되었다. 4인 1실을 배정받아서 선실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시설이 괜찮았다. 같





은 선실을 사용하는 선생님들과 인사를 한 후 잠깐 밖에 나와서 배를 둘러보았다. 매점, 면세점, 화장품 가게, 노래방, 바 등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 배가 인천대교 아래쪽을 지나자 이제야 정말 중국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다. 선실로 돌아와서 짐을 풀 후 조금 쉬다가 식당에 내려가서 장보고 답사팀만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장보고 답사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난 다음 선실에서 쉬면서 한국해양재단에서 만든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안내 책자를 봤는데, 주최 측에서 정말 세심하게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조금 있다가 같이 선실을 사용하는 선생님 세 분이랑 라운지에 가서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했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선실로 돌아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깬다. 조금 있으니 어렴풋이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 드디어 중국에 도착하는 것이다. 석도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니 관광버스 3대가 벌써 도착해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같이 동행한 현대아산 관계자들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45인승 버스를 타다가 올해부터 33인승 우등 버스를 탄다고 했다. 난 3호차에 탔는데, 버스에 선생님들이 다 타고나서 중국 현지 가이드가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답사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했

다. 답사팀은 곧바로 위해(威海)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는다고 한다. 사실 위해 시내가 너무나 깨끗해서 깜짝 놀랐다. 중국에 2년간 살면서 수많은 중국 도시를 가 보았지만 위해만큼 깨끗하고 정비가 잘된 도시는 처음 봤다. 위해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답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유공도(劉公島)로 향했다.

유공도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인데, 선착장에서 유공도까지는 배로 20분 정도 걸렸다. 유공도는 청일전쟁(淸日戰爭)의 마지막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중국갑오전쟁박물관(中國甲午戰爭博物館)으로 향했다. 원래 이곳은 북양해군(北洋海軍)의 사령부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사령부 건물을 예전 형태로 복원해 놓았다. 당시 북양해군 수뇌부들이 회의하던 모습을 재현한 밀랍 인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뒤쪽으로 가보니 청일전쟁 도중 침몰한 전함들의 함포와 어뢰 등을 비롯한 무기들이 바다에서 인양돼 전시 중이었다. 박물관을 나와서 5분 정도 걸어가니 중국갑오전쟁박물관 진열관이 있었다. 진열관에는 청일전쟁의 발발부터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시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사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북양해군 군함들의 모형과 주요 전투 장면을 재현해 놓았는데, 특히 평양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청나라 장군 좌보귀(左寶貴)의 사실적인 조각상이 참 인상적이었다. 청일전쟁 때 일본군은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점령한 후 북양해군의 중심지인 위해로 진격한다.



당시 북양해군의 제독(提督)인 정여창(丁汝昌)은 일본군의 위해 공격에 맞서 싸우다가 유공도에 상륙한 후 패전의 책임을 지고 항복 문서와 함께 모든 군사물자를 일본에 넘기고 음독자살을 한 인물이다. 진열관 밖에서는 정여창의 현손(玄孫) 도장이 찍힌 청일전쟁 관련 책을 팔고 있었다.

청일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결이었다. 비록 청나라는 전쟁에서 패했지만 중국은 유공도에 청일전쟁박물관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생생한 역사 교육 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청일전쟁 패배의 결과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병자호란박물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생생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공도를 본 후 중국에서의 첫날밤을 묵기 위해 청도(靑島)를 거쳐 치박(縑博)으로 향했다. 치박으로 가는 여정은 정말 먼 길이었다.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봤는데, 가끔씩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영상물이어서 참 정겨웠다. 치박에 있는 호텔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다. 씻고 난 후 룸메이트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12시 30분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셋째 날

일정이 빡빡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태산(泰山)을 향해



출발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동승한 교수님께서 공자(孔子)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해주셨다. 강의를 듣고 나서 잠깐 눈을 부치고 일어나니 벌써 버스가 태산에 거의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태산 관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묘(岱廟)는 가지 않고 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대묘는 역대 황제들이 봉선(封禪)과 제사 행사를 주관하던 곳으로서 수많은 고건축물이 있는 곳이다. 특히 북경 자금성의 태화전(太和殿), 곡부의 대성전(大成殿)과 더불어 중국 3대 전각이라고 불리는 천황전(天貺殿)이 있는 곳인데…….

어쨌건 대묘를 못 본 아쉬움을 뒤로한 채 케이블카를 타고 15분 정도 오르니 바로 태산에 도착했다. 태산에 도착해서는 바로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혼자서 천천히 태산 정상으로 향했다. 봉선 의식을 올린 72명의 황제와 공자를 비롯한 수많은 문필가들이 올랐다는 태산을 드디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카에 내려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무 쉬웠는데 길이 평평해서 그냥 산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중에 벽하사(碧霞祠)라는 도교사원이 있는데, 수많은 중국인들이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태산에는 수많은 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석각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너무 아쉬웠다. 석각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정상에 도착하니 옥황묘(玉皇廟)가 있었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향을 피우거나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향을 피우는 건 이해하겠는데, 자물쇠를 채우는 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다. 서울 남산타워에 가면 연인들끼리 헤어





지지 말자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일까? 옥황묘 주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 보니 정말 넓디넓은 산동 평야가 보였는데, 내 마음까지도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에 봉선을 행하러 온 72명의 황제들은 어떤 느낌이였을까? 수도를 비우고 태산까지 왔다 가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소요되었을 것이다. 황제가 수도를 한 달 이상이나 비워도 제국(帝國)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것을 대내외로 과시하기 위한 행차가 아니였을까? 물론 황제가 태산에 한 번 행차할 때마다 그 주변 지역의 백성들이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씩씩하다.

태산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바로 공자의 고향인 곡부(曲阜)로 향했다. 곡부로 향하면서 드디어 중국 내륙(內陸) 지방에 왔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연해(沿海) 지방과의 격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도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주택, 그리고 사람들까지……. 특히 곡부에 도착하니 예전에 북경에 살 때 봐서 익숙한 모습인, 윗옷을 벗고 다니면서 배를 툭툭 치는 남자들이 참 많았다.

곡부는 공자의 고향답게 모든 곳에 공자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우선 공자의 사당인 공묘(孔廟)로 향했다. 공묘 입구부터 구중궁궐처럼 수많은 문(門)이 있었는데, 현지 가이드로부터 각각의 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안쪽으로 이동했다. 중간쯤 가니 비석이 나왔는데, 많은 비석이 깨져서 부서진 걸 다시 이어 놓은 것이 보였다. 한(漢)나라 이후 유교가 국교화 되면서 공자는 신성시 되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난 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공

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공묘 또한 거의 사라질 뻔했다. 문화대혁명 때 공묘의 수많은 건축물과 비석들이 홍위병들에 의해 부서진 것이다. 깨진 비석들은 바로 문화대혁명의 참혹한 흔적이었다. 대묘의 천황전을 못 본 나로서는 자금성의 태화전에 버금간다는 공묘의 대성전(大成殿)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드디어 대성전을 맞닥뜨린 순간 와~ 역시 명불허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금성의 태화전과 거의 비슷했는데 규모만 약간 작은 것 같았다. 황제만이 쓸 수 있다는 황색 유리 지붕을 얹혀 권위를 높였으며, 용 모양을 조각한 운룡석주(雲龍石柱)와 기단마다 배수구가 있었다. 특히 운룡석주는 너무 생동감 있게 잘 조각해 놓았는데, 자금성의 태화전에서도 볼 수 없는 걸작 중의 걸작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성전 기단의 배수구가 거의 다 막혀 있어서 비올 때 자금성 태화전의 배수구처럼 멋지게 빗물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대성전을 보고 난 후 공자 직계 자손들의 주거지이자 관공서였던 공부(孔府)로 향했다.

공부는 공자의 직계 자손이 송(宋)나라 때부터 연성공(衍聖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연성공부(衍聖公府)라고도 한다. 정말 이곳도 공자의 권위만큼이나 엄청난 규모였다. 공부 곳곳에 대해 현지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는데, 청나라 건륭제의 딸이 연성공과 결혼했기 때문에 건륭제가 이곳에 와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는 마지막 연성공인 77대 공덕성(孔德成)이 국공내전(國共內戰) 이후 장개석(蔣介石)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연성공의 대가 끊겼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았다. 계속 대만으로 도망갔다고 하





면서……。 그러나 마지막 연성공이 대륙에 남았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공부 뒤쪽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무와 꽃들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과 경극을 공연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있었다. 특히 정원에 도착하고 조금 있으니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참 볼만 했다. 공부를 보고 난 후 오늘의 마지막 답사지인 공림(孔林)으로 향했다.

공림은 공자를 비롯한 공자 후손들의 가족묘로서 사실 무덤이라기보다는 수목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자묘 앞에는 대성지 성문선왕묘(大成至聖文宣王墓)라는 비석이 있는데, 왕(王) 자가 방패 간(干) 자로 보였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공자묘를 황제들이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혹시나 황제들이 왕(王)자를 보고 불쾌할까봐 교묘하게 답으로 가린 것이라고 한다. 공자묘 옆에는 아들인 공리(孔鯉)의 묘가 있고, 앞에는 손자인 자사(子思)의 묘가 있었다. 공자가 아들은 옆에 끼고 손자는 품고 있는 형태였다. 공자묘를 보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공자 후손들의 무덤을 보면서 천천히 공림을 걸어 나왔다.

공묘, 공부, 공림을 보고 난 후 곡부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이었다. 요리의 종류가 다양했고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웠다. 멋진 요리를 배부르게 먹은 후 다시 치박으로 돌아오니 저녁 10시가 넘었다.

넷째 날

치박 근처 3개의 박물관을 본 후 석도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첫 번째로 중국고차박물관(中國古車博物館)을 방문했다. 1층에는 춘추차마전시관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공사 중에 발굴된 전차 바퀴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었다. 2층에는 복원한 고차(古車)를 보여주는 중국고차진열관이었는데 이곳에는 춘추전국시대부터 명, 청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수레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었다. 말이 끄는 마차를 비롯해 코끼리가 끄는 수레도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곳 박물관의 유물 설명이 간체자가 아닌 번체자로 쓰여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에 건립된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번체자를 쓰고 있는지 의아했다. 여긴 번체자를 쓰는 대만도 아닌데…….

중국고차박물관을 보고 난 후 제국역사박물관(齊國歷史博物館)으로 향했다. 이곳은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에 들어가서 유물을 보던 중 관중(管仲)과 환공(桓公)의 조각상을 볼 수 있었다. 제나라 14대 군주인 양공(襄公)이 피살되어 혼란에 빠지자, 양공의 동생인 규(糾)와 소백(小白), 공자(公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에 관중은 규를 호위하여 노(魯)나라로 망명하고, 포숙(鮑叔)은 소백을 호위하여 거(莒)나라로 망명한다. 그러나 양공을 죽이고 군주가 된 공손무지(公孫無知)도 재위 1년 만에 또 암살됨으로써 제나라는 권력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이때 규와 소백은 서로 먼저 제나라로 돌아가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관중은 소백이 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화살을 쏘아서 명중을 시켰다. 그러나 운 좋게도 화살은 허리띠를 맞아서 소백은 죽지 않았다. 소백이 죽었다고 생각한 관중은 규에게 천천히 제나라에 입성해도 된다고 했다. 6일 후 규가 제나라에 도착했을 때 소백이 이미 즉위한 뒤였다. 결국 소백과의 싸움에서 진 규는 죽게 되고 관중은 제나라로 압송된다. 포숙은 관중을 죽이려는 소백을 설득해서 관중을 재상으로 만들고 자신은 관중의 휘하에 들어갔다.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말도 바로 이 시기에 나온 것이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앉혀 제나라의 부국 강병을 추구한 소백이 바로 춘추오패 중 첫 번째 패자(覇者)가 되는 제 환공이다³. 역시 리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과 포용심이 필요한 것임을 환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에는 이외에도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臨淄)의 모습을 복원한 모형과 당시 전투 모습을 재현해 놓았는데, 평원에서 소꼬리에 불을 붙여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전술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 지역이 중국 신석기 시대 후기 문화가 발달한 용산문화(龍山文化) 지대여서 흑도(黑陶)를 비롯한 많은 도기(陶器)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제국역사박물관을 본 후 근처의 동주순마갱(東周殉馬坑)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현재 발굴된 100필 이상의 순장된 말을 전시하고 있었다. 매장된 말은 모두 수말로 전쟁용이라는데, 이를 통해 제나

3 관중과 포숙 그리고 제 환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공원국, 『춘추전국이야기 1 최초의 경제학자 관중』, 역사의 아침, 2010. 강신주, 『관중과 공자- 패자의 등장과 철학자의 탄생』, 사계절, 2011. 참조

라 통치 계급의 사치와 국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렇게 순장당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서쪽의 진(秦)나라가 국력을 기르면서 천하통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동쪽의 제나라는 멸절할 전쟁용 수말 수백 필을 이렇게 순장하고 있었으니, 진나라가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것이 당연한 순리처럼 느껴졌다.

치박 시내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석도항으로 이동했다. 5시간이 넘게 걸리는 버스 안에서 산동평원의 광활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연 저렇게 많은 옥수수를 누가 다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안에서 소설가 최인호 씨가 장보고의 흔적을 추적하는 재미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었다. 저녁은 뷔페식 해물 샤브샤브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무제한 리필이 되는 술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하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다.



다섯째 날

중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자 답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을 방문하는 날이다. 일정이 적산법화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일정 중 가장 여유로웠다. 호텔에서 적산법화원까지는 버스로 10분 정도 밖에 안 걸렸다. 적산법화



원에 도착해서 우선 장보고기념탑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교수님의 장보고 관련 강의를 듣고 단체사진을 찍은 후 자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선 장보고기념관으로 이동했다. 기념관에 도착하니 늙은 장보고 동상이 서 있었다. 기념관은 장보고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특히 청해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여러 유물과 자료들이 눈에 띄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자료들을 기증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념관을 보고 난 후 위쪽의 적산명신상(赤山明神像)을 보러갔다. 정말 엄청난 규모였는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향을 피우고 있었다. 적산명신상처럼 나 또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전의 장보고도 이곳에서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더 큰 꿈을 키웠을 거라고 생각했다. 날씨가 더워 벤치에 앉아서 조금 쉬다가 옆자리에 있는 중국인 부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들은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에 비하면 관광지 입장료가 너무나 비싸다고 했다. 실제 적산법화원이 포함된 적산풍경구의 입장료는 성인 1인당 135원(한화 약 22,950원)이며, 삼공(공묘, 공부, 공림)의 입장료는 무려 150원(한화 약 25,500원)이었다. 이 부녀의 말에 의하면 요즘 중국인 대학생이 졸업하면 월급으로 3,000원(한화 약 510,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중국내 웬만한 관광지 입장료가 100원(한화 약 17,000원)이 넘으니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싸게 하면 모든 중국인이 다 와서 관광지가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다시 한 번 한국의 관광지 입장료가 저렴한데 감

사할 따름이다.

사실 장보고와의 만남은 한권의 책에서 비롯되었다. 대학 다닐 때 중국사를 전공하기로 마음먹고 닥치는 대로 중국사 관련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우연히 읽은 책이 바로 『중국 증세사회로의 여행』을 라이샤워가 풀어쓴 『엔닌의 일기』였다. 이 책 8장의 제목이 ‘중국의 신라인’인데, 이 8장에 ‘장보고(張寶高)’라는 독립된 장이 따로 존재한다.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장보고라는 인물의 실체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었으며, 적산법화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엔닌 스님은 중국에 머물면서 신라인들에게 입은 신세를 잊지 않아 적산법화원의 신라명신(新羅明神)을 일본으로 모셔왔으며, 엔닌 스님의 사리탑이 있는 교토 연력사(延曆寺)에 가면 장보고기념탑이 있다고 한다⁴. 언젠가 시간이 되면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 일본 교토 연력사에도 꼭 가볼 생각이다.

적산명신상을 보고 난 후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민속관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청말민국(清末民國) 시기의 다양한 생활 문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민속관을 지나니 장보고가 세웠던 적산법화원이 나타났다. 엔닌의 일기에 의하면 적산법화원은 매년 쌀 500석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신라어로 이루어진 『법화경』 법회에는 200명 이상의 대중이 모였다고 하니 상당히 큰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복원된 법화원에는 중앙에 대웅



4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3 교토의 역사』, p 211~222 참조, 창비, 2014.



보전(大雄寶殿)이 있고, 대웅보전 오른쪽에는 장보고 공적비가 서 있었다. 복원된 법화원의 규모는 엔닌의 일기에 나오는 것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인 것 같았다. 적산법화원을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장보고에 대해 생각해 봤다. 오늘날처럼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동아시아 무역을 주름 잡으며 세계인이자 무역왕으로 성장했던 장보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재당 신라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적산법화원을 건립했던 장보고. 1,2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장보고가 있던 곳에 지금 내가 왔다 간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했다.

법화원을 끝으로 점심을 먹은 후 석도 시내에 있는 슈퍼마켓에 잠깐 들렀다. 많은 선생님들이 슈퍼마켓 술 코너에 가서 중국술을 샀다. 점원이 몇 주 전에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와서 거의 이곳에 있는 유명한 술은 다 사갔다고 한다.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죽엽청주는 벌써 다 팔리고 나머지 몇몇 술도 바닥을 드러내자, 점원이 창고에 가서 새로운 술을 꺼내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买一个, 送一个’라고 외친다. 즉 하나 사면 한 병 더 준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술 가격이 20원이라. 즉 한 병당 10원이라는 말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 1,700원 정도다. 교환 학생으로 중국에 있을 때 싼 중국술을 마시면 다음날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나로서는 사실 이 술의 정체가 조금 의심스럽긴 했다. 그러나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 술을 샀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길에서 마신 후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역시 난 안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후 석도항으로 가서 출국 수

속을 마친 후 배에 승선해서 몇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 위에서 선생님들과 맥주 한잔 했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여섯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 아직 육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걸 보니 벌써 한국 영해에 들어왔나 보다. 조금 있으니 작은 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해단식 없이 바로 해산이라고 한다. 몇몇 선생님들께 인사하고 바로 집으로 향하면서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도 끝을 맺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답사를 주최하신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직원들, 현대아산 관계자분, 중국 현지 가이드, 그리고 답사 기간 중 좋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 인연이 되면 일본에 있는 장보고 관련 유적지 답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사 그 후

5박 6일간의 답사가 끝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학생들에

계 장보고 답사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답사 기간 중 찍었던 사진 자료를 정리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답사 일정에 대해 소개했는데 학생들은 우선 엄청난 이동거리에 놀란 것 같았다. 답사 때 참관했던 여러 역사 유적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한 여정에 대해 소개했다. 학생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장보고처럼 도전 정신을 가지라고 했다. 장보고는 1,200년 전 세계로 뻗어나간 선구자였다. 이제는 우리가 장보고의 위대한 도전 정신을 본받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시기다.



06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장보고에게 있어 바다의 의미

대평중학교 / 박세옥(장려상)



2014.08.06. 수요일(1일차)

장보고 답사 여행에 대한 기대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대구 동부 고속터미널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는 인천행 삼화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한국해양재단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장보고 답사 여행]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역사 선생이 아니라 하는 이유로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하여 역사과 선생님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족쇄가 풀리어 야심차게 지원했지만 보기 좋게 미끄러졌었다. 그때 같이 가자며 내가 부추겨 지원했던 다른 학교 친한 선생님만 답사 여행에 당선이 되어 얼마나 부러웠던지. 하지만 미리 다녀오신 그 선생님의 경험을 많이 들으면서 나는 이번 답사 여행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다. 여유가 되면 되도록 많은 여행을 하려고 애썼고, 방학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다양한 여행지의 이야기를 수업에 양념처럼 슬쩍 끼워 넣어서 이야기 하며 현장감을 주곤 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은 배낭여행이어서 이번 답사 여행처럼 대규모로 움직이는 패키지여행은 해본 적이 없으므로 주마간산 식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14시 20분. 버스는 인천 종합터미널에 도착했고 현대아산 여행사에서 친절하게 보내준 안내대로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가는 36번 버스를 타기 위해 신세계백화점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갔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안내도에 36

번 버스도 없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살짝 당황스러웠다. 버스 안내도를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 나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곳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았다. 그제야 주변을 살펴보니 또 다른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이 존재하고 있었다. 인천터미널에서 신세계백화점을 끼고 모퉁이를 돌아 신세계백화점 정문 쪽에서 길을 건너야 하는데 바로 건너는 바람에 버스 정류장을 잘못 찾은 듯하다. 지금 생각하니 말은 안 통하지만 친절하신 외국인 아주머니 덕분에 길을 제대로 찾아 갈 수 있었는데. 내 맘이 급해서 감사인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와서 아쉬웠다. 아무리 급해도 인사는 그때그때 바로 해야겠다. 친절한 외국인 아주머니, Thank you!



이런 소동 덕분에 발견한 좋은 점. 인천에는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었다. 음~~ 멋지네. 대구보다 인천이 좀 더 국제화되어서 그런가? 새로 발견한 교통 문화에 감동하면서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행 버스를 타는 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명진약국 좌측 엘리베이터 앞에 가니 현대아산 직원들과 한국해양재단 직원들, 그리고 같이 여행할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다. 아싸, 제대로 찾아왔네.

17시 30분경 출국 수속을 하고 승선하니 4인 1실의 객실이 배정되어 있었다. 배안에 침대는 물론 있겠거니 했지만 욕조가 딸린 욕

실에다 2인용 소파, TV까지 갖추어진 객실을 보고 또다시 감동~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감사합니다, 한국해양재단~

1번 침대에는 서울내기 교사 김○○, 2번 침대는 광주 교사 박○○, 나는 3번 침대. 4번 침대의 주인공이 안 나타나더니 알고 보니 현대아산 직원이었네. 방년 23세의 풋풋한 사회 새내기 최○○. 방가 방가~

18시 40분경 선내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두 달에 한 번 하던 안전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 및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승무원도 40여 명이 된다고 하니 어디 한번 믿어볼까?

19시경 석식으로 카레, 유산슬 비슷한 것, 김치, 갈비찜, 꽃빵 등이 나왔는데 살짝 중국 향내가 나는 듯했지만 충분히 맛있었다.

20시경 식당에서 장보고에 대한 교육 및 선상 세미나를 가졌는데, 식후에 가진 것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답사 여행의 지원자가 약 2,000여 명 되었는데 그 중 약 200명 정도 선발되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떠졌다. 음, 이런 힘든 기회를 잠으로 날려 버릴 순 없지. 답사 여행에 세분의 교수님이 계신다니, 열심히 따라 다녀서 알찬 답사 여행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선상 세미나가 끝나고 선내 매점에서 칭다오 맥주를 사서 같은 객실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니 모두 좋은 분 같았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밤바다 위를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2014.08.07. 목요일(2일차)

눈을 뜨니 5시 30분, 근데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6시 30분이라고 하신다. 내 휴대폰이 이상한가? 휴대폰을 두 번이나 껐다 켜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 동쪽으로 여행 중이다. 어쨌든 부랴부랴 세수하고, 화장까지 다하고 기다려도 아침 식사하라는 방송이 없다. 알고 보니 다른 분들이 시간을 잘못 아신 것이다. 이제 현지 시계로 6시 30분. 아싸~ 1시간 벌었다~

7시 식사 전 잠시 산책하러 나갔는데, 오 마이 갓~ 사람들이 방송도 안했는데 이미 식사 줄을 길게 서있다. 평생 모범생다운 선생님 근성~

짜장, 김치, 땅콩조림, 고기찜, 유산슬 비슷한 것, 엄청 큰 무가 들어있는 해장을 위한 듯한 명탕국 등을 아침으로 먹었다. 하지만 식후엔 역시 우리나라 커피믹스다.

8시 30분 접안하여 9시경 석도항에 하선 및 입국 수속을 하고 여객터미널을 나오니 3대의 버스가 대기 중이었고, 나는 2호차에 배정되었다.

본인이 ○○여행사 소속이라고 밝힌 한 ○○가이드는 차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여행 총거리 등 여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반드시 생수를 먹고 아이스크림은 먹지 말고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아 슬며시 웃음이 났다.



공기와 물, 거리가 깨끗해서 세계 100대 깨끗한 도시 중 하나라는 위하는 30년간 영국이 점령했던 관계로 도시 전체에서 유럽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중국은 더럽다’는 우리들의 기존 상식을 깨뜨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광명가든호텔에서 중식을 먹었는데, 손님들의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분리된 각 실에서 식사를 하고, 또 각 실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는 점이 특이했다. 청일갑오전쟁박물관이 있는 유공도로의 일정이 빠듯하여 식사 시간이 짧았던 점이 아쉬웠다.

위해항에서 배를 타고 약 2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유공도는 북경으로 가는 자물쇠 역할을 하므로 군사·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고, 섬 전체가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중국 사람들도 관광을 많이 오는 장소라고 하였다. 유공도에 도착하니 바다를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대한 사람 조각과 아름다운 기념관이 눈에 띄었다.

청일전쟁은 1894년 7월 25일 일본군이 선전포고 없이 조선 아산만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함선을 침몰시키면서 시작되었고 이듬해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청일전쟁의 승패로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고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중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며 함께 답사 오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 교수님과 제독님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의 유물이 있는 해전관으로 이동하였다. 옛 중국 해군본부 유적에서 최근에 새로 멋지게 지어진 해전관은 근대 중국 해군의 첫 성립부터 마지막 유공도



패배로 청일전쟁이 최종 패배로 결정되어 시모노세키조약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청일갑오전쟁박물관은 한국말로도 기록되어 있어 관람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으며, 전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갑오전쟁에서 패배한 굴욕적인 역사는 ‘낙후되면 곧 당하게 된다.’는 원리를 다시 입증하였다. 오늘 중국의 해양 국토의 안전은 강대한 해안 방위력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대비한 해상 강철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보니 중국이 이 전쟁을 얼마나 뼈저린 교훈으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입장에서의 청일전쟁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갑오전쟁’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가슴깊이 되새겨 큰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묘하게 닮은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여기 듯 중국은 이 전쟁에서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던 등세창 장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여창을 나라의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후 우리는 ‘치박’의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해양’에 있는 ‘경복궁’이라는 한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여행을 떠나올 때 주변의 여러 분들이 중국 음식에 있는 고유한 향과 기름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가 힘들 것이라며 염려해 주었는데, 이번 중국 여행의 음식은 향도 빠고 기름기도 빠고 해서인지 한국인이 먹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





다. 오히려 현지 음식을 먹어서 이겨보겠다고 단단히 베풀고 왔는데 싸울 기회를 박탈당한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살짝 들었다. 이동하는 도중 차 안에서 가이드로부터 간단한 일상 생활용어를 배웠다. 그 중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쑤콜라~’라는 말이 너무 재밌어서 버스를 오르내릴 때마다 ‘쑤콜라~’하고 외쳐댔다. 우리 차의 가이드가 자주하는 말이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이었는데, 올해 장보고 답사 1, 2, 3차 팀 중에서 우리 3차 팀이 가장 축복받았다고 얘기했다. 1차 팀은 도착하는 첫날 배에서 석도항에 하선하는 시간이 늦어져 1시경 입국했을 뿐 아니라 구름이 끼어 태산을 보지 못했고, 2차 팀은 5분이 늦어 ‘공묘’를 관람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3차 팀은 지금까지 계획된 시간이 잘 지켜졌고 날씨도 너무 좋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재밌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가이드를 만나서인지 우리 3차 팀은 끝까지 좋은 일만 있을 듯했다.

이번 답사 여행의 콘셉트는 ‘일분일초를 아끼자.’인 것 같다. 중국 본토에서 첫날밤을 지낼 ‘만호대주점’에 도착한 시각이 거의 11시경이었는데 내일 7시에 출발할 예정이니 6시 20분에 일어나란다. 으~ 오늘 아침에도 5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어쨌든 내일 태산 등정을 위해 꼭 자야겠다.

2014.08.08. 금요일(3일차)

오늘도 역시 5시 30분에 일어났다. 근데 6시가 되어도 모닝콜이 울리지 않는다. 알고 보니 우리를 조금 더 자라고 배려하는 의미에서 6시 20분에 모닝콜 하기로 했다고……。 아니 이분들이 우리들을 자연 미인으로 아나. 우리 여자들은 준비하는데 적어도 1시간은 걸린다고요! 앞으로는 유념해 주세요! 아침 6시 20분에 씩씩하게 아침을 다 먹고 7시 10분에 태안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외웠던 시조에 등장하는 ‘태산’을 만나기 위해서다. 오늘 일정은 심플하게 오전에 태산을 등정하고 오후에 곡부로 가서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공묘. 공부, 공림에 갔다가 다시 숙소가 있는 치박으로 오는 것이다. 공림은 5시 30분에 티케팅이 끝나므로 반드시 5시 전에 티케팅을 해야 한다고 가이드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발 2차 답사팀처럼 공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빌며 태안으로 향했다. 태안은 기원전 1040년경 노나라 탄생지여서 모든 차량 번호 앞자리가 ‘魯’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차의 앞자리가 ‘魯’로 시작되네~ 공자가 태산에 올라서서 ‘노나라가 작고 천하가 작구나’라고 말했다고 하니 태산은 얼마나 높고 장대할지 기대에 부풀어 태안에 도착했다. 태산에서 좋은 날씨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역시 3차 팀은 운이 좋다며 “축하드립니다.”라는 가이드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태산에 올랐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는 곳까지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거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내려 나머지 부분은 걸어서 올랐다. 숨이 턱에 차도록



오르다보니 어느덧 정상.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걸어서 올리는 정성을 드린다고 한다. 우리는 일정상 셔틀 버스, 케이블카를 이용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산 아래에서부터 차근 차근 태산을 오르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시조를 읊으며 오른다면 진정한 태산의 맛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역대 황제들 중에도 아무나 할 수 없었다던 봉선의식의 현장과 모든 중국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은 와서 사진 찍기를 원한다는 ‘五嶽獨尊’이 새겨진 바위, 그리고 옥황봉(1,545m)까지 이르는 길에는 세계자연유산이면서 세계문화유산답게 1,800개 돌에 새겨진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석각이 즐비했다. 특히 ‘五嶽獨尊’이 새겨진 바위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어 사진 촬영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끈질김으로 앗싸~ 성공. 옆에 계시는 선생님께 자랑하니 그분은 그곳 사진사에게서 20위안을 주고 쉽게 찍었다며 되레 자랑하신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위조의 대국답게 바위와 인물을 합성한 사진이었다. 헐~ 역시 중국~이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개원의 치’를 이루었던 당 현종이 봉선의식 후 새겼다는 황금빛 글씨와 한무제가 세운 무자비(無字碑), 아들을 점지해 준다는 벽하사도 보고, 가장 정상에 있는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원 옥황정에서 기도를 드린 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태산의 높이를 실감하며 한 걸음씩 올랐던 7,400개 계단을 되짚어 내려왔다.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기다리며 태산의 지도가 그려진 부채를 10위안을 주고 득템~.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가이



드에게 오악이 뭘지 물으니 형산, 향산, 승산, 화산. 태산이란다.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감을 넣어서 생생히 전해 줘야지~.

13시 10분 태산을 떠나 해상국제반점에서 점심을 먹은 후 곡부로 향했다. 곡부에는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공묘, 공자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공부, 공자와 그의 가족들의 전용 묘지인 공림이 있다.

곡부는 중국 유가사상의 창시자인 공자의 고향으로 중국의 유가사상은 물론 세계 유교사상의 발원지이므로 ‘동방 성인의 도시’라고 일컫는다. 공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의 하나로 그가 창시한 유교사상은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일찍이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당시의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는 지내고 있는 제사 문화 형식의 근간도 바로 그 유교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원이 되는 곡부를 방문한다니 하늘 위에 떠있는 추상적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유교사상이 땅 위에 현실적으로 내려앉는 기분이다.

공묘는 공자의 옛집을 사당으로 삼고, 황궁의 규격에 맞게 건설되었으며, 중국 3대 고건축물 중의 하나로서 세계 건축물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지 면적이 3백 묘(약 2만 평)로, 형세가 웅장하며, 짜임새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앞뒤로 9개의 전각과 돌이 있고, 제각기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다. 공묘 안에는 13채의 碑亭(비석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자)이 있고, 53개의 거대한 비석을 포함한 총 800여 개에 달하는 비석이 있다고 한다. 사당으로 가는 중간에 난 길은 공자가 다니는 길이며 황제조차도 그 옆길로 드나들었다고 하니 공자에 대한 예의가 신에 버



금간다고 할 수 있겠다.

공부는 공자의 후대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곳의 규모는 웅대하여 누각과 대청이 총 463칸이나 되는 역사상 가장 큰 장원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중국 봉건시대 관청의 전형적인 건축물로 '천하제일의 가옥'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공림은 공자와 그의 가족들의 전용 묘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 묘지이다. 여기에는 무덤이 10만여 개, 역대 石議 85쌍, 묘비 400기, 교목 42,000여 그루가 있으며, 2,400여 년간 재배되고 보호받아 온 송백이 무성하고 고목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인공 원림을 이루고 있었다.

공묘에서 나오며 공자님께 드렸다는 중국의 4대 명주 중의 하나인 공부가주를 구입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에게 맛을 좀 보여 달라 했더니 병뚜껑에다가 맛보기용 술을 조금 따라 주셨는데 그 향이 기가 막힌다. 마침 지나가시던 우리 5조 팀의 선생님들과 함께 20위안에 구입했는데 다른 집에서 가격을 물으니 50위안 이란다. 음~ 역시 나는 쇼핑의 귀재야하며 자화자찬했다. 구입한 공부가주를 점심때 5조 식구들과 나누어 마셨는데 맛과 향이 매우 좋았다. 공자네에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던 음식을 '공부가연'이라 하는데 바로 그 음식을 저녁으로 먹었다. '공부가연'과 함께 '쿵푸자주'를 마시니 마치 내가 공자가 살던 시대에 돌아가 유교문화의 중심부에 있는 듯했다.

3일차의 빡빡했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숙소인 치박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항상 그랬듯이 지도교수님의 특강이 있



었고, KBS에서 방영했던 장보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 주었다. '해신'을 쓴 최인호 작가가 장보고에 대해 추적해가는 과정을 담은, 키케로의 '바다를 지배하는 자, 제국을 지배하리라'라는 말로 시작된 로드다큐 '해신 장보고'라는 5부작 다큐멘터리이다. 평소 다큐보다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나이지만 답사 여행의 주인공을 다루는 이번 다큐는 무척 흥미로웠다. 이번 답사 여행의 주목적이 '장보고 바로 알고가기'인 만큼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어라?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부릅뜨고 보려했지만 비몽사몽이다. 숙소에 도착한 시간은 전날보다 조금은 이른 시간 저녁 10시. 내일은 그래도 8시에 출발한다고 하니 오늘보다는 조금 더 자도 될 듯.



2014.08.09. 토요일(4일차)

6시에 일어나 7시에 밥을 먹고 8시에 출발~

이번 3회차 선생님들은 정말 시간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라고 가이드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그러니 아마 날씨도 도와줄 거라고 덕담까지 곁들였다. 가이드 말대로 우리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에는 살짝 비가 내려 대기를 식혀 주다가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면 비가 멈추었다. 하늘이 우리 편인 듯했다. 오늘 답사할 곳은 제나라박물관, 순마갱, 고차박물관이다.

제나라는 1,30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나라를 다스려 왔고 그 시조가 강태공 여상이라고 한다. 그냥 유유자적 세월을 낚는 선비로

만 알고 있었던 강태공이 제나라의 시조며 정치와 병법에 뛰어나다는 말에 놀랐다. 알고 보니 어제 우리가 묵었던 치박이 제나라의 수도였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존재인 강태공 여상은 139세에 죽었는데 우리나라의 강, 여, 제, 최 등은 강태공의 후손이라 할 수 있고,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 백가지 성씨를 뜻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매우 흥미로웠다.

제나라박물관에 도착하여 지도 교수님께서 박물관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중의 하나가 ‘말등자’란다. ‘말등자’는 말을 전쟁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획기적인 개발품이라고 하셨다. 지금처럼 문물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등자’를 보니 과연 그 역할이 어마어마할 듯하다. 이처럼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조언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축구의 기원이 이 곳이라는 설과 FIFA의 인증서도 흥미로웠다.

이어 순마갱, 고차박물관에 갔다. 순마갱은 제나라 경공의 무덤이라 추정되는 곳으로 600마리 정도의 말이 순장되어 있으며 현재 228마리 정도가 발굴되었다고 했다. 말의 가치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비 값보다 비쌌다고 하는데 그 귀한 말을 600마리나 순장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춘추전국시대 당시 제나라의 국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순장할 말은 가장 전투 능력이 우수한 5~6살의 수놈 말을 골라 산채로 묻는다고 했다. 말들이 마치 상위의 젓가락처럼 나란



히 나란히 누워서 순장되어 있는 모습이 의아해 물어보니 아마 술을 먹었을 거란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작업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그 옛날에 순장으로 매설했던 마차와 말들의 유해물을 그대로 살려 지하 박물관을 만들고 그 위로 도로를 뚫었다고 한다. 시대별로 탈 것에 대한 유적(마차, 가마 등)을 전시해 놓았고, 벽에는 각 시대별로 마구를 소개해 놓았다. 이곳에서 고대 전차가 발견된 것은 황하 유역이 주나라 때부터 춘추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쟁터였고 이 지역의 지세가 넓고 평탄하여 전차전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점심을 먹은 뒤 12시 25분 석도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어제 못다 보았던 ‘해신 장보고’ 다큐멘터리를 흥미 있게 보았다. 우리 차에 같이 타신 지도 교수님의 설명과 곁들여 보는 다큐멘터리는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다. 9세기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무역권 및 제해권을 장악한 세계인으로서의 장보고는 중국과 일본에서의 신격화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어제 너무 졸려 못보고 놓친 부분이 아쉬워 답사 여행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이 다큐멘터리를 꼭 다시 한 번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인호 작가의 ‘해신’도 한 번 읽어 봐야쥐~

석도에 도착하기 전에 휴게소를 들렀는데, 중국에서는 휴게소마다 신선한 과일을 팔고 있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과일들을 사는 모습이 특이해 보였다. 나도 30위안에 배 3개, 사과 4개, 귤 5개를 샀다.

휴게소를 떠난 지 5분쯤 되었을까? 우리 차에 작은 소동이 있었



다. 우리 차의 가이드가 휴게소에 백팩을 두고 온 것이었다. 가이드는 급히 휴게소로 돌아갔는데 끝내 백팩은 찾지 못하였다. 호사다마라고 그동안 내내 일정이 순조로웠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말다니. 그 안에 우리가 맡긴 여권은 없다고 하니 안심은 되었지만 가이드가 속해 있는 여행사 관련 서류 및 적지 않은 금액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석도에 도착하여 7시경 저녁을 먹었는데, 바닷가에 있는 도시담계 해물 샤브샤브다. 해물과 고기를 무한리필을 해 주어 배부르도록 먹었는데, 신선도 면에서 약간 아쉬웠다. 적산대주점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는데, 8,220호라 하여 올라가 보니 2층에 있는 객실이다.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서 2층 방인데도 8자를 앞에 부쳐서 220호를 8,220호라고 한단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어서 8,113호에서 5조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정담을 나누었다. 나는 휴게소에서 산 과일을 내놓았고 다른 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던 안주와 술 등을 추렴해서 이번 답사 여행에서의 일화 등으로 밤늦도록 얘기꽃을 피웠다.

2014.08.10. 일요일(5일차)

드디어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호텔 출발 시간이 9시라서 느지막이 일어나도 되는데 어김없이 아침 5시 30분 기상하여 짐을 싸고 나니 식사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다. 공기도 상

쾌하고 호텔 주변 조경도 볼거리가 많아서 룸메이트와 ‘적산대주점’ 주변과 해변을 8시까지 산책하였다. 아침 식사를 한 뒤 9시경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호텔 측에서 어떤 객실에 있던 컵이 없어졌다고 출발을 못하게 했다. 알고 보니 그 객실에 묵었던 선생님께서 우리가 어제 모였던 8,113호에 컵을 가져가서 쓰고는 다시 객실에 갖다 놓지 않아서였다. 아유~ 철저하기도 하셔라~

어제 백팩을 찾으러 휴게소에 되돌아갔던 가이드도 차에 탑승하였는데, 우리들에게 밝은 얼굴로 더 큰 사고가 예방된 것이라며 괜찮다고, 돈은 또 별면 되지만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디냐며 안심시켰다. 초 긍정맨 가이드님, 나중에라도 백팩을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러저러한 일을 뒤로 하고 9시 10분, 적산법화원으로 출발하였다. 적산법화원은 통일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張保臯)가 신라인 집단 거주지였던 산동반도 적산촌(赤山村)에 세운 사찰로서 ‘신라원’ 중 가장 유명하였다고 한다. 장보고는 재당 시절, 적산 지방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적산법화원을 창건하였다(832년). 이 사찰은 1년 곡식 수확량이 500섬이나 되는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건립된 것으로, 장보고는 이를 통해 향후 무역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어제 우리가 묵었던 ‘적산대주점’의 주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당시 당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신앙 거점인 동시에 향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처였으며, 신라와의 연락 기관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당나라로 건너가는 신라의 승려는 물론 일본의 승려들도 이곳을 거쳐 가며 많은 도움



을 받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승려가 일본의 엔닌이다.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승려 엔닌(圓仁)이 이 절에 머물렀을 당시 25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같이 설법을 들었다고 했다.

당 군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828년 귀국한 장보고는 신라 백성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을 보고 해적을 소탕하겠다는 목적으로 흥덕왕에게 1만의 군사를 받아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대사’로 임명되었다.

‘신라명신’으로 알려진 장보고의 남부사단 항로는 완도 흑산도 상해, 영파를 잇는 길로 해상을 장악하여 터키 이스탄불 그랜드 바자르, 보스포러스 해협까지 그 무역길이 이어진다고 여겨진다. 장보고의 무역 상품은 도기, 자기, 붓, 약재, 자단목, 침향, 공작의 깃털 등이었다고 여겨질 만한 증거가 일본 관서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 장보고의 해상 전략상품은 해무리굽 도자기였는데,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던 해무리굽 도자기를 해남 강진에서 직접 만듦으로써 청자가 만들어지게 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서남해안 일대의 해적을 소탕하며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재당·재일 신라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무역 체제와 10,000명이 넘는 군사를 갖춘 장보고는 신라왕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고, 841년 염창에게 살해당하였다.

현재 영성(榮成)시 석도진(石道鎭) 적산(赤山)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적산법화원에는 장보고기념관, 장보고전기관, 장보고기념탑, 엔닌기념관 등이 있다.

일단 장보고기념탑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12시 30분까지 자유롭게 관광한 뒤 주차장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장보고기념관에 있는 거대한 장보고 동상은 신라, 당나라, 일본 뿐 아니라 동아시아 향로 전체를, 아니 전 세계 바다를 모두 장악하겠다는 웅혼한 기상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았다. 11시에 하는 관음보살 분수 쇼를 보고, 새로 복원된 법화원에서 헌향과 기도를 한 뒤, 관음전, 장보고전기관을 관람하였다. 엔닌기념관과 민속관에 가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이기로 한 주차장으로 가면서 적산의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했다. 장보고가 당시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엄청난 규모로 신라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된 절을 건립할 정도의 대단한 세력을 가진 인물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14시까지 중국 본토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여행의 백미인 쇼핑을 하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갔다. 쇼핑족인 우리에게 1시간이란 시간은 너무 짧기만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기념품을 골랐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아 웃지 못 할 일 한 가지. 20위안하는 공부가주를 마트에서 원플러스원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모르는 어느 선생님께 마트 직원이 손가락 2개를 내보이자 그 선생님은 굳이 한 개만 사겠다고 해서 한 개만 들고 왔단다. 와보니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20위안에 공부가주를 2개씩. 아~ 빨리 중국어도 배워야겠다.

16시경에 석도항에 도착하니 승선 수속을 위해 대기하란다. 삼



삼오오 그늘진 곳을 찾아 앉아 잡담을 나누다보니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가는 듯한 중국인들 한 무리가 눈에 보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가씨, 무지무지 예뻐요~”, “비싸요~” 아마도 한국에서 쇼핑하면서 사용할 말들을 가르치고 있는 듯. 우리끼리 그 이야기를 들으며 출국할 때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며 웃었다.

18시경 출국 수속을 하여 19시경 저녁을 먹고 갑판 위에 올라 마지막으로 석도항을 바라보며 이별을 고했다. 갈매기들도 우리 주변을 맴돌며 잘 가라고 인사를 한다. 남은 과자를 갈매기들에게 던져 주며 놀다가 선실로 돌아와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배가 바다로 나왔다. 선실에는 맨 처음 한국에서 출항할 때의 선실 멤버 4명이 모두 모여서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2캔의 칭다오 맥주를 나눠 마시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며칠간 부대끼며 지낼 기회는 더욱 없었는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다른 지역 학교 이야기, 수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장보고의 원대한 기상과 해양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예와 인,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자의 가르침에 고개가 숙여졌으며, 태산의 정상에서 천하가 작음을 느껴 봤고, 춘추전국시대 산동성에 위치한 제나라의 유적들도 흥미로웠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이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번 답사를 통해 내가 느끼고 만나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내가



막연히 알고 있던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남아 있는 모든 기록들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살았던 한 인물의 고뇌와 노력, 깨달음, 자신감 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나의 고민은 지금 이 느낌과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우리 아이들 수업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소설 『해신』을 읽어보고, 로드다큐 5부작 ‘해신 장보고’를 처음부터 찬찬히 시청하고, 완도에 있는 ‘장도 청해진 유적지’를 가봐야 할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소설을 읽든, 다크를 보든, 혹은 장도에 가든 그것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수년 전에 본 청해진이 내게 아무 의미 없이 다가왔다면 이번 답사 이후에 가서 보게 되는 청해진은 폴포기 하나, 돌 하나 마저도 소중한게 느껴지리라 생각된다.

나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준 한국해양재단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3회차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더불어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준 하늘에게도 감사드린다. 2호차 가이드님도 고마워요. 백팩 꼭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다시 한 번 소리 높여 외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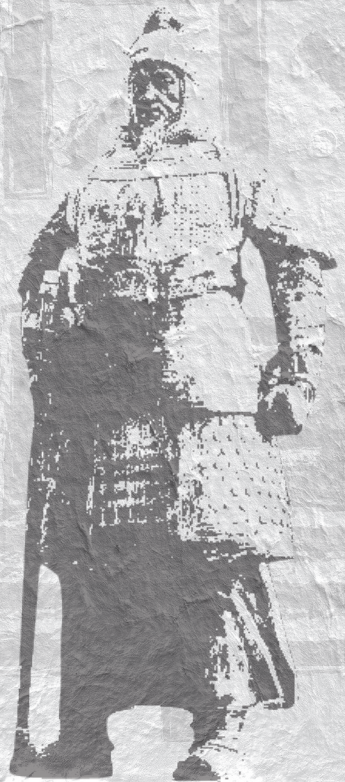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07

해상왕 장보고를 만나다!

부명고등학교 / 공선미(장려상)



2014년 7월 28일, 나는 다시 대한민국 인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을 기다린다.

후덥지근한 바닷바람이 적산과 인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 여기저기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니 여기가 우리나라라는 것에 느리게 젖어들며 기분 좋은 노곤함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5일 전 약간은 들떠서 여행 준비를 하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해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앉아서 출항을 기다리던 어색한 기억이 벌써 추억이 되어 흘러 가버린 것이다.

여름이 오는 문턱에서 한국해양재단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 날, 만사 제치고 부지런히 접수를 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발표를 기다렸다. 다행히 맘 조린 보람이 있어 내 이름을 발견한 순간 기쁨에 넘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미 출국일인 듯 마음만은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바쁜 학기말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다.

그 때는 솔직히 장보고 유적 답사라는 타이틀보다 중국 여행을 간다는 단순하고 말초적인 생각에만 집중하며 5박 6일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던 것 같다.

처음 배를 타기 위해 수속을 할 때는 단지 배 멀미약을 먹는 문제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걱정스러움 등……. 단순한 여행자의 입장에서 내 신변에 대한 사소한 걱정꺼리들과 처음 만난 주위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낯설음으로 장보고의 궤적을 따라 간다는 생각은 뒷전으로 저만치 밀려나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





안에서는 신기하게도 갈 때와는 사뭇 느낌이 달랐다.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길었던 5박 6일의 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장보고라는 인물에 가까워졌던 걸까? 이번 답사의 기억이 단지 길었던 버스 탑승 시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보다. 나도 모르게 장보고에 대한 뿌듯함과 그 자랑스러움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장보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지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였고, 돌아오는 뱃길은 또 다른 역사 여행으로의 출발인 듯 느껴졌다.

1,2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

교과서에서만 만났던 그 이름, 해상왕 장보고!

드디어 그를 만나기 위한 행로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곳은 적산이었다.

석도항의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으며 중국에 입국했는데, 제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출입국 업무에 열중하는 공안을 보니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입국장 내에 있는 상점에서는 한글로 쓰인 상품 소개 글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커다랗게 적힌 ‘비아그라 판매’ 문구를 보고 씩씩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출국장을 나서니 바닷가 해변의 멋진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탑승할 버스는 아직 오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중국의 만만디(慢慢的)와의 첫 대면인가? 생각하며 기다리는 동안 서로들 인사를 나누며 무료함을 달랬다.

다행히 그리 오래지 않아 버스가 도착했는데 리무진 버스라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으로 인한 피곤함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 주는 듯했다.

우리의 첫 번째 답사지는 위해에 있는 유공도였다.

‘청일갑오전쟁박물관’

한 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내려 또다시 배를 타고 잠시 들어가니 유공도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중국 최고의 관광지를 의미하는 다섯 개의 A가 표시된 곳이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도 무관치 않은 관광지이기에 중국의 시각은 어떨까 몹시 궁금했다.

가이드를 따라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니 주로 양무운동과 관련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결국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실패했음이 입증된 전쟁이었으나 그 무기들이 주인공으로 전시되어 있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정여창이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영웅화하며 사람들의 시각을 돌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이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역사의 교훈을 얻었을까? 아님 분노를 느꼈을까?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사진 찍으랴, 가이드의 설명 들으랴 바삐 움직이며 다음에 둘러본 곳은 박물관이었다.

청일갑오박물관은 우리나라 박물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구조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청일전쟁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이 중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불편한 시각의 전시물들이 꽤나 많이 눈에 띄었다. 역시 중국도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주 일부분 우리나라 개화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전시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 온 김옥균 등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다.

같은 시기 동아시아 3국의 근대화에 관한 비교인 듯하다.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관련하여 후쿠자와 유키지 등 일본 근대화의 중심인물들의 사진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웠다.

결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나라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이 시기 우리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은 박물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고, 자국의 시각에서 전쟁 그 자체에 집중하고,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입게 된 피해와 결과적으로 일본의 침탈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분개하고 있는 모습에 불편한 마음을 가득 안고 박물관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박물관을 나서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들처럼 조별로 두 줄 서기를 하고 기다렸다. 가이드를 따라 나서



는 우리들의 모양새가 어딘가 모르게 코믹한 느낌이 들어 실소를 자 아내게 하였는데, 우리를 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은 일본 단체 관광객들을 답답하고 놀랍게 바라보던 나의 그것과 같은 시각일까? 궁금했다.

다시 처음의 출발지에 도착하였는데 어디든 버스가 정차하면 ‘짜 내더라도 화장실을 다녀오라’는 가이드의 당부를 기억하며 화장실 줄에 나도 보태 보았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줄을 서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기들 볼 일을 보곤 해서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버스 근처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좌판을 벌인 상인들이 체리 등 제철 과일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웬지 중국에서는 과일도 함부로 사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호기심은 있었으나 망설이고 있는 사이 벌써 체리나 무화과를 사서 맛보고 있는 용기(?)있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체리는 맛있게 먹었으니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참 소심하기 그지없다.

식사 시간에는 그래도 배에서부터 먹어본 경험으로 별반 거부감 없이 중국 음식을 맛보았으나 역시 양껏 먹은 것은 밥과 김치 그리고 칭다오 맥주뿐이었다. 술이라고는 막걸리 한 잔 정도가 고작인 내가 맥주를 그리 맛있게 먹어 보기는 처음이었고, 내가 그렇게 맥주를 잘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적이 놀랐다. ‘귀국할 때 꼭 이 맥주를 사가지고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후 매번 식사할 때마다 맥주를 한 잔씩 마셔댔다. 중국 음식이 느끼하고 밍밍하여 맥주를 마시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저녁은 한국



음식점 ‘경복궁’에서 김치찌개와 잡채를 먹을 수 있어 좋았는데 그 맛이 중국화한 한국음식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약 5시간 가까이 달려 첫 숙박지인 ‘치박 만호대주점’이라는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던 것 같다. 시설이 좋은 호텔을 숙소로 정해주셔서 여러모로 편안했고 주 최 측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했다. 피곤했던 탓인지 잠깐 눈을 붙인 느낌이었는데 불현듯 울리는 알람 소리에 새벽잠을 깨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중국에서의 첫 아침을 맞았다.

서둘러 씻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니 벌써 부지런한 선생님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다.

맛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터라 다양한 음식이 있는 뷔페식 호텔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것 같지 않은 빵과 과일 중심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드디어 이 여행에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 태안의 ‘태산’으로 향했다. 양사언의 시구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뒀이로다.’ 때문에 나름 익숙한 태산! 그 정상에 올라 황허의 한 자락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안고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도 개의치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태안에 도착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흐렸던 날씨는 다행히 태산 입구로 가는 도중에는 안개가 걷히면서 맑게 개어 다들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케이블카를 타기위해 다시 입구에서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약 20분 동안 태산의 맑고 청량한 모습은 내 마음속 깊이 상큼하게 씻어 주는 듯 했고, 구불거리는 길과 노후



한 버스의 불편한 승차감은 아랑곳없이 이미 태산 정상에 오른 듯 들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러나 아뵘싸! 강풍 때문에 케이블카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천벽력과도 같은 가이드의 설명에 일행은 일순간 실망으로 술렁거렸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걸어서라도 등반하면 어떨겠냐는 의견들도 나왔지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다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하여 태산 초입까지만 올라갔다 오기로 결정을 하였다. 한 20~30분 정도 태산 입구 운출교까지만 올라가서 태산의 맛만 보고 돌아서야 했는데 참 아쉬운 기억이 되었다. 태산을 오르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바치고 그 대신 답사 다니기 좋은 선선한 날씨를 얻었다고 위안 삼으며 산을 내려왔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되돌아 나와 세 번째 답사지인 곡부로 향했다.

세 번째 답사지 '곡부'. 곡부는 나에게 특별한 답사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곡부 공씨'인 관계로 조상의 유적지를 생각지도 못하게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곡부의 공자 유적지는 한 눈에 보아도 아주 특별하게 관리되는 듯 보였다. 규모도 그렇거니와 깨끗한 경내가 여느 관광지와는 다르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웬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다.

사실 이 유적지는 출입도 엄격하게 관리되어 소지품이라든가 몸 검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공묘, 공부, 공림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규모도 꽤 크고 볼



거리도 많아서 이 유적지를 돌아보는데 오후 일정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고, 중국 가이드들의 설명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가이드의 목소리가 묻혀버려 집중하지 않으면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더 특별한 감흥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는데 나의 조상이 여기서 발원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비슷한 특징들을 가진 건축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둘러보고 가려는데 마침 버스에 동승하셨던 교수님께서 조상님께 인사는 하고 가라고 권유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쑥스러운 마음으로 참배객들 뒤에서 흥내만 내는 절을 하고는 돌아왔는데 뒤통수가 몹시 민망했다.

고려 말에 평장사로 와서 우리나라에 가문을 열고 뿌리를 내렸다는 옛 조상들이 새삼스럽게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지자 내가 언제부터 그리 조상과 가문에 관심을 가졌는지 쓴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도 공립에 묻힌 사람들 중에서 황녀인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여자는 묻힐 수 없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서운함이 느껴지는 건 왜였을까?

다시 버스에 탑승하여 치박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피곤함 속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긴밀성을 되새겨 보며,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관계를 위한 올바른 시각은 현재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얽혀 있는 과거의 역사로부터도 풀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면서 잠에 빠져들었던 것 같다.



다음날, 이젠 중국 시간에도 적응이 되었는지 호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뜨였다.

네 번째 답사지인 제나라박물관과 고차박물관, 순마갱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버스에 올랐다.

고차박물관과 순마갱!

고차박물관에서 말이 끄는 마차나 전차보다 내 관심을 끈 것은 전시된 무기들이었다. 발포차라든가 운제, 충차 등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시뮬레이션으로 설명했던 그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 좋겠다는 호사로운 생각을 하며, 사진을 찍어대니 옆 지기 선생님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며 함께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박물관 지하에 전시된 순마들을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며 돌아보았는데 순마갱을 가보니 고차박물관 전시실의 순마는 ‘鳥足之血’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순마갱의 줄줄이 누워있는 순마들(마치 가게에 상품을 진열하듯)을 보며 경이로움마저 들었는데 미처 다 발굴도 되지 않았고 1/6 정도만 발굴되었다는 설명에 한 번 더 놀랐다. 자그마치 600필 그러니까 2,400마리의 말이 순장되었다니 그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다. 역시 중국의 스케일이 크긴 큰 모양이다. 하긴 사람을 순장하는 규모도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으니 우리나라가 더 인간적이었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대륙의 규모만큼은 참으로 알아줘야 할 듯하다.



마지막 날 드디어 적산법화원!

이제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적산법화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저 멀리 보이는 장보고로 추정되는 적산명신의 거대 석상이 눈앞에 들어왔다.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저술한 일본의 승려 엔닌을 도와준 인연으로 일본에도 장보고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남아 있고 장보고를 신으로까지 추앙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참으로 장보고는 해상왕으로 일컬을 만한 국제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법화원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거대한 장보고 동상과 (재)한국해양재단에서 건립했다는 거대한 법화우의 보정이 있었는데 그 규모만으로도 인상적이었다. 역시 중국에서도 장보고의 위용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며, 전기관(전시관)을 돌아보고, 거대한 적산명신의 석상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 적산 시내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에 자리 잡고 멀리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장보고의 현신, 적산명신의 거상은 정말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자부심이 솟아오르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장보고라는 인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새삼 실감하며, 이 답사에 참가한 보람마저 느끼는 순간이었다. 관음사 뜰에서 보기 드문 분수 쇼가 있다는 공지를 들었음에도 이 거상을 보기위해 시간을 너무 소요해서 분수 쇼의 거대하고 화려함이 특별했다는 다른 선생님들의 감회만을 듣게 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걸으로 보이는 현상들에만 눈이 멀어 적산명신의 거상 안에 99개의 불상들이 있음을 망각하



고 돌아보지 못한 것도 더불어 못내 아쉬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촉박한 시간 때문에 투덜거리며 법화원 계단을 숨이 차도록 뛰어 올라갔다 왔던 기억까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추억이 되어 버렸다. 대신 중국 전통 민속관은 찬찬히 둘러보며 다양한 품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의 행적을 따라가며 잠시나마 그 시기로 되돌아가 새롭게 만나본 역사적 인물, 장보고!

그는 나에게 그 시기 드물게 무역의 귀재로서 자수성가한 대단히 능력 있는, 그리고 남, 서해 바다를 장악했으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애통하게 죽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었다.

게다가 중국에서 장보고하면 떠올려지는 대표적인 유적은 산둥 지역의 법화원 외에는 딱히 떠올려지는 내용이 없는 것처럼 각인되어서 마치 이번 답사의 목적이 오로지 법화원 유적을 다녀오는 것이 다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시작했던 답사였다.

그러나 이 답사를 다니면서 장보고는 이 넓은 중국대륙을 넘나들며 큰 꿈을 펼쳤던 국제적 인물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와 닿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이토록 넓은 중국 대륙과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며, 그 시기 동아시아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국제적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더군다나 그 먼 신라시대에 이러한 국제적 시야와 거시적 안목으로 무역, 더 나아가 생산을 통한 이익 창출로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기여까지 할 수 있었다니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대단한 인물



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현재로 돌아 온 나는 생각해본다.

역사교사로서 나는 아이들에게 ‘장보고’라는 인물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단지 시대의 입지전적인 성공기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랑스럽게 기억해야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공의 나침반이 해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장보고의 피가 흐르는 민족의 현명한 후손으로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유리함을 발판으로 해양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담보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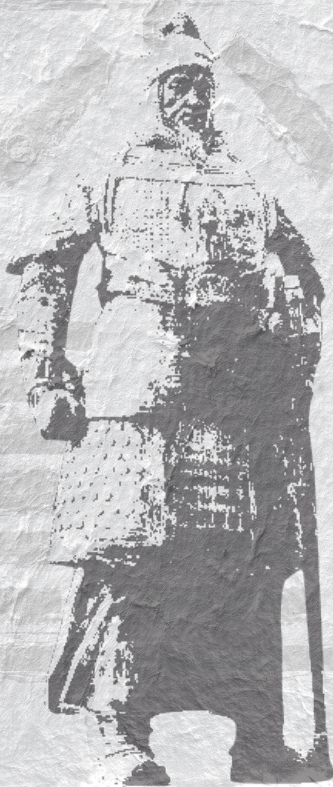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역사교사임에도 무지했던 부족함을 일깨워 준 (재)한국해양재단과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08

한·중 해양
실크로드에서 만난
스승

안양 귀인초등학교 / 박화순(장려상)



설렘과 기대감으로 떠나는 여정

2014년 봄, 우리나라는 세월호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침통함 속에 우울한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그 아픔들이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답사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대한민국이 해양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그 여파로 ‘해양 강국’ 건설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뜨거운 관심 및 열정이 바다에서 멀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21세기 신 해양시대로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¹ 정책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6월 초 학교 공문함을 정리하다가 한국해양재단에서 주최하는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 모집’ 공모를 보고 평소 한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응모하여, 제2차 선발단으로 선정되어 2014년 7월 30일에서 8월 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하늘 길이 아닌 뱃길을 이용하여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이 다녔던 해양 실크로드를 따

1 클러스터는 1990년대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정립한 개념으로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따위를 모아 놓은 지역.

라가는 답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객선을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과 중국은 초행길이라서 중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였습니다. 또 세월호로 인하여 여객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탓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걱정되는 말들이 있긴 하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여 본다면 어느 때보다 여객선 안전을 위해 더 꼼꼼한 시설 점검과 해양 안전교육 등으로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답사를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구입하여 장보고 대사님과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달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조선 기술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배를 제작하는 방법과 배를 다루는 솜씨에서 개인적으로 애환과 혼이 느껴져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그 당시 지금과 같은 좋은 연장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노하우로 배를 만들어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을 것이고 또 돌아와서는 배를 수리하고 보완하여 튼튼한 배를 만들었을 조상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짙하였습니다.

제가 타고 간 화동훼리 여객선은 대중매체에서 본 지중해의 크루즈 여객선의 호화로운 수영장과 실내 악단 그리고 근사한 뷔페는 없지만,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도하고 배의 이곳 저곳을 살펴볼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한 여객선이었습니다.



화동훼리 여객선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 비즈니스맨, 보따리장수,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 중국동포 등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선박 여행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특히 중국 초등학생들의 선물 보따리에는 한국 제품들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처음 보는 제품들이 보여 신기하기도 하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이번 답사 여행에서 선박 여행의 단점인 가고 오는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막상 배를 타보니 비행기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 훨씬 편하고, 선실에 샤워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 선상 위로 올라가면 사방이 탁 트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은 가슴을 뻥 뚫리게 하였습니다.

배 위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쉽게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지배하고 세상을 호령한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을 중국 적산풍경 명승구에서 만나다

답사 이틀째인 7월 31일 아침, 우리가 탄 화동훼리 여객선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안개가 걷히길 기다렸다



가 예정 시간보다 5시간이 지난 후에 중국 석도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만든 문명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지라도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중국 석도항에 도착하여 위해와 치박에 가려고 했던 일정을 변경하여 산둥성 동쪽에 위치한 적산풍경 명승구부터 먼저 가기로 하였습니다.

● 적산풍경 명승구에서 후손들을 반기시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

중국 석도의 옛 이름은 적산포라고 하는데, 산과 바다를 두루 갖춘 영성시 석도는 중국 산둥성 반도 최동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과 가장 가까 곳이라고 합니다. 석도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석도지역 적산 기슭에는 1,200년 전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해상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중국 반군을 제압 소탕하던 자랑스러운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왜 그리 반가운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반가워 인사하고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이곳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의 유적지를 해외에서 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적산법화원에서 본 것은 그 당시 장보고대사님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끼니를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 당나라와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장보고 대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자랑스러운 장보고 대사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적산법화원은 총 다섯 채로 구성된 장보고의 기념관과 높이 8m의 거대한 장보고 동상을 비롯해 장보고 대사님의 생애를 알 수 있는 다섯 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주요 건물로는 석가모니 상이 있는 대웅보전과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는 관음전, 대법당인 삼불전 등이 있으며, 9세기에 파손된 것을 1988년 중국 정부는 한중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적산법화원의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1990년 5월에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에게 배운 불세출(不世出) 정신

제가 답사를 오기 전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을 만난다면 답사 온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 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적산풍경 명승구에 와보니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은 자신의 동상이나 1,200년 전 당시 사용했던 전시 유물, 법화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숭한 과거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바다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 현장인 답사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와 혼을 오감으로 제대로 느껴 온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후손인 학생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동안 한국 역사 속에서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에 관한 기록들이 매우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이후 해양 활동을 경원하는 풍조가 강했기 때문에 장보고 대사님에 대한 인물이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192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에서 장보고 대사님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 이분의 업적과 정신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1,200년 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해양 질서를 재편하고 국제교역을 주도한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의 해양 개척정신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9세기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은 우리나라 역사상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호령한다.”는 세계사의 지배 원리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바닷길을 오고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제2, 제3의 장보고 대사들이 수없이 배출되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역사 속의 장보고 대사님을 21세기의 해상 경영인 장보고 대사님으로 다시 살려 그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은 청해진을 통하여 개방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시대 동아시아 국제 사회에서 필요한 대외 교류와 해상 무역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동북아시아 일대의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장보고 대사님의 조직화된 해상 세력으로 해적선을 소탕하여 연해주민들의 생업 활동을 보장하였고 당, 일본, 페르시아, 상인들로부터 유입된 문물의 유통에 앞장섰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국제무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 무역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장보고 대사님은 청해진을 본거지로 해상 물류망을 구축하고 일본 하카다와 중국적산, 초주, 연수향, 양주, 영파, 광주 등에 신라방, 신라소 등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신라, 당, 일본을 연결하여 중계무역을 하는 등 세계 최초로 민간 주도에 의한 글로벌 무역을 실천한 국제 무역왕이며 세계를 경영한 경제인 이었습니다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한민족 경제 공동체와 글로벌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보고 대사님은 당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유민을 모아 당의 남측 해안부터 대운하 유역과 산둥반도 연해에 걸쳐 자치 조직인 신라방, 신라소를 설치하여 대중국 물류 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재당 신라인과 일본 그리고 통일신라를 한데 묶어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은 1,200년 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함께 어울리는 글로벌 사회’ 모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적산풍경 명승구에서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장보고 대사님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바다를 지배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해양 강국 건설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적산풍경 명승구와 관련하여 좀 아쉬웠던 것은 적산대명신 동상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해신상으로 일명 중국판 포세이돈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를 가이드 해주시는 재중교포² 가이드님께서 적산대명신은 장보고 대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적산대명신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쪽에 새겨진 비문에는 장보고라는 이름은 없고 추측으로 ‘적산대명신=신라대명신=장보고 대사’라는 등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산법화원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해상왕 장보고 대사인데 교묘하게 기술되어 있는 비문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새겨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동북공정을 생각한다면 무심코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2기 1호차를 가이드해 주신 박철 가이드님께서 자기를 조선족으로 부르지 말고 재중교포로 불러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재중교포로 부릅니다.

국민의 민심을 사로잡은 군주와 명신(明臣)

● 태산에서 만난 중국의 역대 황제들

8월 1일, 답사 셋째 날 우리는 중국 산둥성 중부, 태안시의 북쪽에 있는 태산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하여 산에 오르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산은 한 번 오를 때마다 10년씩 젊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정상까지 무려 7,412개의 돌계단 길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생겨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태산을 신성시하는 것은 역대 황제들이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의식³이 행해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봉선의식 속에는 오래전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빌려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뜻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태산은 ‘태산이 높다 하되’라고 해서 엄청 높은 산 같지만 사실은 1,545m로 우리나라 태백산보다 낮고, 정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과 다르게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예전에 주점으로 이용된 곳도 있고 사당도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산 정상으로 가는 동안 갑자기 안개가 끼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져서 우산을 쓰기도 하는 변덕

3 봉선은 천자가 행하는 제사로, 봉은 흙을 쌓아 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며, 선은 땅을 판판하게 닦고 깨끗이 하여 산천에 제사하는 것을 말한다. 후세에는 군주가 국위를 내외에 과시할 목적에서 봉선의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

스러운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일정을 향해 태산을 내려왔습니다.

태산 정상에서 내려가던 중에 식당 아저씨가 감자 껍는 채칼로 국수를 뽑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TV 방송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보니 신기하였습니다.

● 만년지계(萬年之計)를 이룬 춘추시대의 교육자 공자

우리는 태산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자를 만나기 위해 곡부에 도착하였습니다. 곡부는 태산에서 리무진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곡부에는 공부, 공림, 공묘가 있습니다.

공부(孔府)는 공묘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는 1038년에 세워져 152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자의 후손인 연성공 저택으로 관저와 사저를 겸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공자의 자손들은 공부에서 880년을 거주하였다가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대만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묘는 북경의 고궁, 태안의 대묘와 더불어 중국 3대 건축이라 불리며,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 사후 1년에 세운 사당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의 대성전은 그 규모가 정면 9칸, 측면 5칸이며 용 조각을 한 돌기둥의 섬세함은 용이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공림은 공자를 비롯하여 10만 명이 넘는 공자 후손들이 묻힌 세계 최대의 공씨 가족 묘지인데 늦게 도착한 관계로 입구에서 가이드님의 설명으로 대신 하였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에도 동서양에서 특정 이



데올로기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자는 교육을 위해 헌신하였던 교육가로서 평생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혼란스러운 춘추말기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회질서의 회복을 주장하였고,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로 노나라에서 정치를 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도의 가치를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도를 들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도에 심취되었으며 ‘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인 ‘인도’로 『논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군사적 융성함을 보여주는 중국고차박물관과 순마갱

별써 아쉬운 답사 넷째 날입니다.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고 있는지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침에 한국해양재단 이사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 치박만호대주점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하여 산동성 중부 치박(성 쓰보)에 위치한 중국고차박물관에 도착하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아침부터 햇볕이 따갑게 내리 쬐는 것이 무척 덥게 느껴졌습니다.

중국고차박물관은 1994년 9월 9일 설립된 박물관으로 임치구의 제릉진에 있으며 전차전과 중국의 고차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 임치에서 제남을 거쳐 청도로 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 흙으로 된 거대한 봉분을 발견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안에는 대규모의 순장 마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오른쪽에 주차장과 사무실이 있고 고속도로 건너편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건너편 박물관까지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차박물관은 춘추차마전시관과 중국고차진열관으로 나뉘어 있으며 춘추차마전시관에는 전쟁에서 사용하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질서정연한 것이 마치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고차진열관에는 후이차마갱과 임치 지구, 전국에서 출토된 여러 고대 차량들이 복원되어 각 시대별로 진열되어 있었으며, 마차는 4마리의 말 또는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도 있고 말이나 코끼리, 물소 등이 끄는 마차도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전차를 보면서 이 지역이 옛날부터 전차나 수레가 다니기에 좋은 평탄한 지형이며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주요 요충지로 전쟁터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려하고 다양한 전차를 보면서 그 당시 이 지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융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 보였습니다.

1983년에 건립된 순마갱은 제나라 수도였던 옛 성터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진 임치구 제도진 동구 광경에 자리하고 있으며, 시골 농부가 옥수수 들판 가운데서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순마갱은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의 묘지 안에 순장한 말의 묘로 치박시를 흐르는 치구하에 인접해 있는 20여 개의 묘 가운데 제



5호분 주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순마갱은 1964년 순장 묘의 발굴이 시작되면서 제5호분에서 머리를 바깥으로 향해 두 줄로 누운 채로 매장돼 있는 228필의 순장된 말이 발견되는데 이 말들을 모두 6세에서 7세 사이로 전쟁 중에 사용하는 거세된 수말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발굴된 터의 면적과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곳에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장제도가 있었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부여와 고구려 때 순장이 이루어진 기록들이 있으나 불교의 자비정신 확산으로 인하여 신라 지증왕 502년에 순장을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순장은 신분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풍습으로 무덤 주인공이 저승에서 행복하기 위해 따라 죽는 자의 행복은 무시해버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을 위한 풍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 말에 순장 풍습이 사라져갔지만, 조선시대 죽은 남편을 위해 여성에게 자결을 강요하는 것은 변형된 순장 문화이며 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요되는 잘못된 풍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순장에서 나온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청일전쟁의 치욕을 잊지 않는 류궁다오 사람들

- “갑오전쟁 120주년, 류궁다오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중국인의 애국주의를 고양(高揚)하는 성지, 류궁다오

답사 5일째, 오늘은 류궁다오 갑오전쟁박물관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아쉬운 마음 때문인지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 주변 해안가를 룸메이트 선생님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바닷가인데도 바닷가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챙겨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웨이하이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니 여객선터미널 전자 게시판에 ‘갑오개혁 120주년, 류궁다오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객터미널은 류궁다오로 가는 애국 여행객들의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평일에는 1만여 명, 주말에는 1만 5천여 명 정도 류궁다오를 관람하고 간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관심입니다. 저희는 가이드님의 민첩한 움직임으로 서둘러 류궁다오 유람선에 오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류궁다오는 AAAAA(A 5개) 풍경구로 웨이하이시 여객 부두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있어 20여 분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하였습니다.

류궁다오는 명나라 때부터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요새이며, 청나라 때에는 북양함대의 본부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동쪽 연해의 군사 요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청소년 교육기지’, ‘애국주의 교육기지’ 등으로 지정해 애국심 고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궁다오가 청일전쟁의 상흔을 입게 된 것은 1894년 조선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고종이 청나라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자 일



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후, 1884년 7월 25일 아산만 풍도 앞 바다에서 청나라 함선을 침몰시키면서 시작된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쟁 이후 일본은 사실상 한반도의 지배권을 열강들로부터 공인받고 대만까지 할양 받으면서 군국주의 침략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조선은 뿌리 깊은 청나라의 종주권에서는 벗어났으나,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대상으로 바뀌어 인적·물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2014년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두 갑자(甲子)가 지난 지금,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역사 인식과 영유권 분쟁 문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더 복잡하고 고차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 실정인지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는 류궁다오에 침몰한 전함 잔해를 모아 기념관을 세워놓고 청일전쟁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전쟁터로 내주고 나라의 운명을 외세에 맡긴 그때 그 일들을 우리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갑오전쟁 120주년을 개기로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 사실만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당시의 패전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오늘의 교훈으로 삼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여객선터미



널에서 북새통을 이루는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이나 용산 전쟁박물관에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그 넓은 곳이 너무 한산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역사는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기 위한 노력

저는 이번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은 섬 아닌 섬나라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남한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섬 아닌 섬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바다를 등한시하고 바닷길보다 하늘 길을 발달시켜 세계화를 꿈꾸어 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200년 전에 역사에 묻혀있던 해상왕 장보고 대사님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국강변의 방법인 해양 강국 건설을 꿈꾸게 되었고, 태안, 곡부, 치박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군주와 명신(明臣)의 모습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삼강오륜(三綱五倫)과 ‘도’의 사상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요즘 흥행 신기록을 세우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 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의 적도 당해낼 수 있다’라는 대사처럼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길목을 잘 지키는 병사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류궁다오의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영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국민의 단결된 힘과 성숙한 문화를 함께 이루어야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답사 기회를 주신 한국해양재단과 직원 여러분, 한영태 교수님, 재중교포 가이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제2, 제3의 장보고 대사님이 생겨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향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 역사의식 고취를 위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아침 자율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한국사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나) 현장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놀이 중심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역사 중심 프로그램 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역사의식을 고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 사회와 도덕 교과서를 연계하여 해양 강국을 건설한 ‘장보고 대사

님의 개척 정신과 리더십 따라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세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 학기 초 비전교육주간에는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을 조사·연구하여 미래 희망과 진로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마) 해양 교육 및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해양재단 및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바) 답사 내용을 교사 클러스터 활동 및 교직원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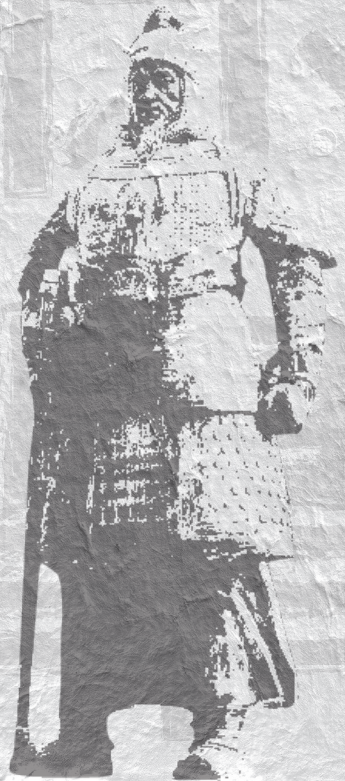


09

동북아 무역왕 장보고!

중국인의 마음에 우뚝 서다

인천 남동초등학교 / 김동위(장려상)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 사정, 집안 사정, 개인 사정 등으로 미루어오다 이번에 답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번 답사에 1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은 것은 둘째치더라도 한 번 신청서 제출로 답사 대상으로 뽑히기는 매우 어렵다 하고, 이번 답사에 참여하셨던 어떤 분은 일곱 번 신청서 제출 만에 대상자가 되셨다 하니, 신청서 제출 한 번 만에 뽑힌 나는 매우 ‘행운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답사는 한국해양재단(KOREA MARITIME FOUNDATION)에서 교사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북아 해상 중심 무역항을 건설하였던 장보고의 유적지를 직접 체험케 하여 우리 해양 역사의 우수성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확산시키는 데 있다. 이처럼 의미 있는 답사에 참여하는 영광스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보고에 대한 단편적인 사전 지식만 가진 게 전부였던 나는 도대체 ‘장보고’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던가? 하는 의문을 품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장보고에 대한 오해’라고나 할까?



장보고에 대한 오해

2014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대상으로 뽑힌 이후 집 근처 도서관에서 지금은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님께서 쓰신 『해신』(전3권) 책을 읽게 되었다.

그 글에서 최인호 선생님은 장보고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소설을 쓴 필자인 나 역시 처음에는 장보고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갖고 있었다. 그의 매력적인 인간상에도 불구하고 장보고가 정치적 야망을 갖고 결국 그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혁명아였다는 점이었다.”

- 『해신』 1권 질풍노도 ‘책머리에’ 中

이 글을 읽은 후 ‘심심상인(心心相印)’이란 말처럼 사람의 생각이란 나이와 시대를 초월하여 정말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보고에 대한 나의 생각 또한 최인호 선생님과 비슷하였으니 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역사 시간을 통하여 알고 있던 내 마음 속의 장보고는 당나라에 가서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고,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잡혀 노예로 팔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흥덕왕에게 건의하여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 꿈의 무역 중심지로 발돋움하였지만, 끝내는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다 귀족들의 첩자인 염장(閻長)에게 살해당한 ‘불운의 반역자’ 정도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번 산동성 석도(石島)에서의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방문은 그에 대한 생생한 모습과 더불어 ‘반역(反逆)’ 이상의 ‘신성(神聖)’과 나의 역사 인식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먼저 장보고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자.



장보고, 그는 어떤 인물인가?

장보고(張保臯)의 원래 이름은 ‘궁복(弓福)’ 또는 ‘궁파(弓巴)’라고 전해진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어릴 때부터 활 쏘고 창 쓰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삼국사기)고 전해진다. 어릴 때 섬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설(삼국유사)이 제일 유력하며 친구인 정년(鄭年)과 함께 일찍이 당나라 서주(徐州)로 건너가게 되었다. 아마도 빼어난 무술 실력과 재능을 갖추었음에도 귀족 출신이 아니면 관직을 얻기 어려운 신라 시대 신분제 현실을 일찍 깨닫고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무예가 뛰어나고 명민하였던 장보고는 이사도의 난 진압 등의 공을 인정받아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을 지낼 수 있었다. 무령군 소장이란 함은 휘하에 천 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지위라고 한다. 그 뒤 당나라에 머무는 신라인들의 신임을 쌓아 재당신라인 조직을 건설하는 기반을 닦고 산동성 석도(石島)에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당나라에서 생활하던 장보고는 신라 사람들이 해적들에게 잡혀와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지만 이를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금할 수 없었다. 당나라 조정은 신라인을 노예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신라 노예 매매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828년 신라로 귀국한 장보고는 흥덕왕에게 간청하여 말한다.



“저는 당나라 무령군 소장으로 있던 장보고라고 합니다. 당에서 보니 해적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울분에 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믿고 군사 얼마를 떼어 주시면 제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적들이 사람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해적들의 노략질에 골치를 앓고 있던 흥덕왕은 그에게 ‘대사’의 관직을 내리고 군사 1만 명을 주었다. 군사 1만 명을 신라에서 근거지를 두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었던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나, 신라 조정에서 내어준 군사와 청해 근처에 살고 있었던 현지 주민을 합하여 1만 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청해에 도착한 장보고는 그 곳에 성을 쌓고 항만 시설을 갖추고 선박도 만들고 군사도 훈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황해에 출몰하는 해적들을 하나 둘씩 소탕하였다. 마침내 어느 정도 해상력을 확보한 장보고는 당과 중국을 잇는 중계 무역에 뛰어들게 된다. 당시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속국(屬國)이나 제후(諸侯)가 종주국(宗主國)에 공물(貢物)을 바침으로써 이루어지는 물물의 교역(交易)인 조공 무역(朝貢貿易)의 시대였으나 장보고의 선박 세력은 당나라와 신라, 일본 삼국에서 모두 국가 조직과 별도로 움직이던 독립 무역선단이었으므로 중계 무역이 가능했을 것이다. 무역 기반이 자리를 잡자 장보고는 단순히 삼국의 특산물을 사고 파는 중계 무역에서 벗어나 멀리 이슬람 상인들이 당나라까지 가져온 서역 물품들을 신라와 일



본에 전했고, 당시에 매우 인기 있었던 자기를 청해진에서 직접 생산하기도 하였다. 바야흐로 장보고 무역의 증흥기를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장보고에게 청해진을 허락했던 흥덕왕이 아들 없이 죽고 말았다. 왕위에 욕심이 있었던 흥덕왕의 사촌 동생인 상대등 김균정과 흥덕왕의 조카인 김제룡이 왕위를 두고 다투었는데, 이 싸움에서 김균정이 죽고 김제룡이 희강왕이 되었다.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를 건의할 때 도움을 주었던 인연으로 가족과 함께 청해진으로 달아나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했다. 이를 통해 왕실의 권력 다툼을 피해 몸을 맡길 만큼 장보고의 청해진은 독립적이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라 왕실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상의 이점도 작용했으리라~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안 되어 김명과 김이흥 등의 반란으로 희강왕이 자결하고 김명이 민애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군사를 빌어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 줄 것을 청했고 장보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838년 청해진의 군사가 신라 왕궁이 있는 왕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장보고는 근거지를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5천 명의 군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정년이었다. 왕경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전투가 있었으나 중앙군은 적수가 되지 못했고, 결국 청해진군은 도망친 민애왕을 죽이고, 김우징이 왕위에 올라 신무왕이 되



었다. 신라 최초의 군사 쿠데타였다. 평민 출신인 장보고가 이끄는 군대가 신라의 왕을 바꾼 것이다.

신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6개월쯤 지나 등창으로 죽자 문성왕이 왕위를 이었다. 문성왕은 장보고에게 진해장군이라는 직책을 주었고,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둘째 왕비로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신라의 귀족들이 섬사람의 딸을 어찌 왕실의 배필로 삼을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또 다른 얘기로는 김우징이 청해진에서 군사를 부탁하며 왕위에 오르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약속했다가, 왕위에 오른 김우징이 약속을 지키려 하자 신하들이 반대했다고도 전한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안 장보고¹는 크게 분노했다. 이후 그가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군사행동을 일으킨 구체적인 정황은 전하는 바 없다. 실제 반란을 일으켰든 그렇지 않든 신라 조정에서는 장보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이때 신라 귀족의 사주를 받아 염장이 나서게 되었는데, 거짓으로 장보고에게 접근한 염장은 술에 취한 장보고를 칼로 찔러 죽였다. 『삼국사기』는 장보고가 846년에 죽었다고 전하지만 엔닌의 기록에 따르면 841년 암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장보고(張保臯)와 관련된 위의 내용은 이번 답사 중 보고 들은 것과 인터넷에 상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장보고의 허망한 죽음 뒤 그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염장이 진압했고, 청해진은 염장의 통제 아래 놓였다. 장보고의 심복들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나고 계속되는 완도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851년 청해진은 폐쇄되었다.


장보고의 기개와 지략, 용맹함에 비하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가까이는 당나라와 일본, 멀리는 이슬람 문화권까지 이름을 떨친 장보고와 청해진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한순간 꿈으로 아쉽게 스러져 가 버렸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발자취는 당나라 활동 무대였던 석도의 적산법화원에 여전히 남아 있다.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서의 장보고의 발자취

적산법화원의 설치와 유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산법화원은 일본 천태종의 효시인 엔닌 대사가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토대로 건립됐다고 한다. 그의 책 제2권 개성사년(開成四年) 유월(六月) (839년 6월 7일) 배를 타고, 적산으로가 적산촌에 있는 적산법화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날의 일기에서 이 절은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





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당나라 때 신라인 장보고가 창립을 기념하여 한중일의 승려들을 모아놓고 법화경(法華經)을 읽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의 일기에서 엔닌대사는 장보고가 건립한 법화원(法華院)의 행사와 모습과 규모 등을 기행문에 상세히 담았고, 그도 귀국 후에도 교토에 적산선원을 세웠다.

1988년 중국정부는 한중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적산 법화원의 복원공사를 시작해 1990년 5월에 개관했고, 1994년 7월 25일 당시의 대통령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보고기념탑에 친필로 '張保暉紀念塔'이라는 글을 남겼다.

적산법화원의 전체적인 모습은 화려함과 웅장함 그 자체였다. 너른 산 위에 단아하게 지어진 장보고 기념관과 절의 모습에 '아름다운은 이런 것'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다. 녹음의 푸름 속에 붉은 벽으로 지어진 장보고 기념관과 대웅전의 조화는 초록과 빨강의 대비만큼 두드러져 보였다. 그리고 지어진 건물 하나하나는 높고 깊이 있는 건축물이었다. '중국에서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그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장보고 기념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장보고 상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른 키의 대 여섯 배는 뒹직한 장보고 상은 절

로 우려름이 생기는 용맹과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위대함이 더 위대해 보인다고나 할까? 입고 있는 갑옷은 당나라 것이라고 하여 다소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인물이 중요할까? 갑옷이 중요할까?

장보고 기념관 내에 있는 당나라 투구와 도자기, 여러 유물들 외에 장보고의 일대기를 밀랍인형과 동양화로 그려 놓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장보고와 어릴 적 모습, 청년이 당나라로 떠나는 모습, 당나라에서 벼슬을 받는 모습, 해적들의 소탕과 이를 인정받는 모습 등 당나라에서 펼쳤던 그의 활약상을 볼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중계 무역을 하는 모습 중 서역 이슬람 문화권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물건 실은 낙타의 모습이 저 멀리 눈에 띄었다.



장보고의 중국에의 영향

● 세계 속의 장보고 - 작은 깨달음

5박 6일의 일정 중 5일째 되는 날은 멀리 곡부로부터 장보고의 유적이 남아 있는 석도를 향해 200km에 달하는 거리를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다소 긴 여정이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데, 숙소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휴게소에 도착하였다. 휴게소 내의 이곳저곳

을 둘러보고 버스를 타기 전 잠시 몸을 풀고 있을 때였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Can you speak English?”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나로서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영어 질문이어서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A little.”

이렇게 대답한 후 대화가 이어졌다. 중국 아저씨가 질문을 이어나갔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cheon, Korea. Do you live near here?”

“Yes, I live near here.”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몇 초간 흐른 후 중국 아저씨가 대화를 이어나갔다.

“I know Korean people who helped us.”

이곳에서 중국인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다는 모양이었다. 이곳

에서 선행을 펼친 사람이 있다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궁금증이 생겨났다. 이름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What's his or her name?”

“His name is JangWeiGui(장웨이꾸이).”

‘장웨이꾸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 이름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선행을 펼친 사람이면 뉴스나 다큐멘터를 통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만도 하건만 ‘장웨이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좀 더 단서를 찾고 싶었다. 많이 현대화가 진행된 중국이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이어서 병을 고쳐주러 온 의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이어갔다.

“Maybe he is a doctor?”

“No……. he is a general.”

‘general? general이 뭐였더라?’ 쉬운 단어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장군’이란 말이 떠올랐다.

‘general은 장군. 그리고 장웨이꾸이……. 아, 그러니까 장웨이꾸이 장군’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장웨이꾸이 장군, 장웨이꾸이 장군, 장웨이꾸이 장군…….’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장웨이꾸이 장군’이 혹시 ‘장보고 장군’을 말하



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서 한국해양재단 측에서 제공해 준 책자의 이름 석 자를 보여 주면서 질문을 이어 나갔다.

“His name is 張保臯(장보고), right?”

“Yes. Yes. Yes.”

중국인 아저씨가 그제야 무릎을 치며 맞다고 응답하였다. 이후 소소한 대화를 마치고, 버스 안에서 중국인 아저씨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사실 장보고 역사 유적지 답사를 오면서 ‘장보고’란 인물이 ‘어느 정도의 위대한 인물일까?’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장보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는 당, 일본, 우리나라 무역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은 역사 고증이나 문헌을 통해 확실히 입증된 것이지만,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나 알겠어?’하는 다소 자조적인 생각이었다. 우리의 위대한 인물…….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 ‘우리만 인정하는 세계 속의 장보고 장군’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연찮은 기회에 얻게 된 중국 아저씨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장보고 장군의 ‘세계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장보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 옛날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장보고 장군은 확실히 척박한 중



국 땅에 와서 우수한 기개로 중국의 장군이 되었고, 중국인들을 도왔고, 청해진을 설치했으며, 동북아 무역을 주름잡는 위대한 장군이었던 것이다.

● 석도의 적산명신(赤山明神) - 신으로까지 추앙된 장보고

적산명신을 그대로 해석하면 ‘적산의 밝은 신신’이라 할 수 있겠다.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과 기념관을 나와 수십여 개의 계단을 오르면 산봉우리만큼 큰 적산명신을 볼 수 있다. 장보고를 신격화하여 만든 것으로 아래에 있는 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은 불교식으로, 신격화된 적산명신은 도교식으로 신격화한 것이 중국인들의 이중적이고 상업적인 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씩씩하였다. 장보고가 세운 절에 일본의 원인대사를 기념하는 절이 있고, 여기에 중국의 토속신앙까지 어우러져 있다니, 단순한 종교나 한 사람만을 추앙하는 순수함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 관광객을 모두 유치하려는 중국인 특유의 상인적 속성이 엿보인다고나 할까?

어쨌든 적산명신이 장보고 장군의 위대성을 신격화하여 제작된 것이라고는 하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였다. 크기에서 뿐 아니라 적산명신 바로 아래 단에는 수많은 불상과 불교적 색채의 정교한 불교화가 있었다. 상업적인 면을 지울 수 없다 하더라도 인물에 대한 존경과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이런 조형물을 짓겠는가? 다시금 중국인들의 장보고 장군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적산명신 아래에는 커다란 재단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고 있었다. 아마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재물의 습득’ 등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이건만 사람들의 소원은 옛 비슷하리라~

나도 장보고 장군을 모신 적산명신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었다. 재단 아래에 있는 매점에서 60위안을 주고 3개가 한 묶음인 향을 사서 멀리 당나라까지 와서 온갖 고난을 극복한 장보고 장군의 기개와 위대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정진을 빌었다.

답사를 마치며

적산법화원을 5일째로 해서 5박 6일간의 ‘2014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의 대장정이 모두 끝났다. 장보고 장군 유적지 외에도 중국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의 현장인 유공도 갑오전쟁기념관,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뒤흠라.’의 태산 등정, 제나라 제후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마갱, 세계 4대 성인의 하나로 꼽히는 공자의 무덤 등 말로만 듣던 중국의 역사적, 지리적으로 주요한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되었다.

이번 답사는 대륙적인 웅장함과 크기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차량에서 예닐곱 시간을 달리면서 끝도 없이 펼쳐진 산동성의 옥수수 밭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멀리 저녁노을을 등지고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과 평야는



정말 장관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사실은 멀리 타국 땅에서 확인하고 체험한 장보고 장군의 발자취이다. 멀리 타국으로 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당나라에서 장보고 장군은 어떻게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노예로 팔리는 신라인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계기로 귀국 후 어떻게 흥덕왕을 설득하여 군사 1만의 청해진까지 설치하게 되었을까? 또한, 백성과 군사를 합하여 1만이라고는 하나 가까이는 당나라와 일본, 멀리는 이슬람 문화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박의 마련과 치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답사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이라곤 오히려 많은 의문점 투성인 것 같다. 타임머신이란 것이 있다면 신라 청해진으로 가서 장보고 장군께 직접 여쭙어 보고 싶은 심정이라고나 할까?

이런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장보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만의 ‘장보고’가 아닌 ‘동북아의 장보고’, ‘세계 속의 장보고’란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산동성 적산에서 보았던 법화원에서의 그의 동상과 적산명신이라는 유적, 유물에서 뿐 아니라 낫선 중국인과의 대화로부터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장보고 장군은 중국인의 눈뿐만 아니라 가슴과 정신 속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누구인가? 위대한 장보고 장군의 후손 아니던가? 장군이 어떤 방법으로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라는 위치까지 올라가셨는가? 섬 촌놈이 어떻게 청해진까지 설치하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이슬람 문화권에 이르는 무역 루트를 개발하였을까? 앞에서도 피력하였듯이 그 질문에 대해선 정확히 알 길이 없지





만,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장군의 술선수범하는 용맹, 포기할 줄 모르는 기개,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 옳은 것은 분별하는 판단력, 끝까지 정진하는 끈기, 힘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와 슬기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과 피는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흐르고 있다. 아마 우리도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민족이기에 수 천 번의 외침에도 꺾이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한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골드만삭스와 같은 외국 금융회사에 의하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2번째의 경제대국인 G2에 진입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바로 장보고 장군이 보여준 역사적 위대성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비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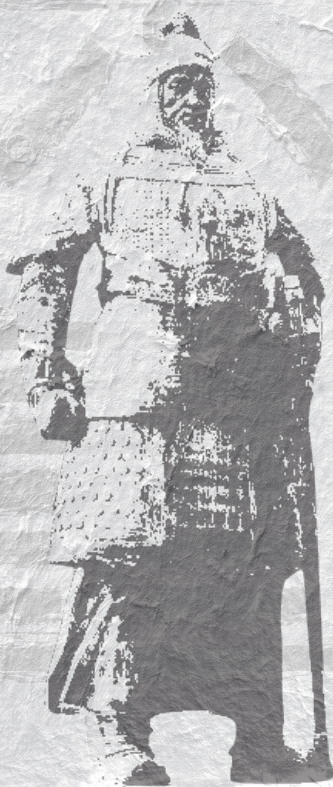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으로서 발돋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발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장보고의 후예인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마지막으로 5박 6일의 기간 동안 사전 준비에서부터 당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친절한 안내, 답사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해양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족하나마 답사 기행문을 마치려 한다.

10

해상왕 장보고,
세계 속에
미래 한국을 보다

인천 초은중학교 / 구수옥(장려상)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신청서를 내며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7년과 2008년, 2년간 교과부 역사탐구교실 연구학교 실행분과장을 맡으면서였다. 당시 국어 교사로서 역사도서 감상문대회, 역사 토론대회, 역사논술 경시대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였다. 그 중, 학생들에게 <내가 역사가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장보고의 삶과 대외 활동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역사논술 경시대회를 주관하면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꼈었다.

또한 2010~2012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최서 북단 백령도 소재, 백령고등학교 청소년단체 한국해양소년단 활동 지도를 하였다. 당시 백령도와 산동반도를 잇는 직항 개설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앞으로 항로가 개설되어 우리의 해양무대가 더 넓혀진다면 장보고가 활약했던 1,200여 년 전, 남북국으로 분단된 발해와 통일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를 자유롭게 누비던 장보고의 후예로서 한국해양소년단 학생들에게 해양 의식을 굳건히 심고 세계로 펼쳐나갈 꿈을 품게 하고 싶었다. 이번 답사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한·중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의 현주소를 확인해보고 혹 거대한 음모, 중국의 동북공정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아울러 현재 세계 1위의 조선업과 5위의 해운업 등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해양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해상왕 장보고를 통하여 확인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

재당 신라인의 활동을 통해서 본 해상왕 장보고

답사 1일차인 2014년 07월 23일 수요일, 16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합,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 인천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로 가는 15시간 화동훼리호의 항로에 몸을 실었다. 석도는 신라인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이다. 장보고 선단의 해상 무역로 중에서도 완도 청해진에서 출발하여 서해안을 따라 북으로 항해하다가 덕적도 근해에서 정서쪽인 황해를 횡단하여 신라인 집단 거주지인 석도항에 다다르는 길이 바로 이번 우리 답사팀이 화동훼리호를 타고 가는 경로라 할 수 있다.

선상에서의 저녁 식사 후, 답사팀은 8시부터 김창겸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해상왕 장보고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김혁수 제독부터 장보고 해양 개척 정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 강국으로서의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전망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장보고, 그는 8세기 말(통일신라시대)에 완도 부근의 한 섬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9세기 초, 세계의 중심국인 중국(당나라)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발군의 재능을 발휘한 장보고는 무령군 군중소장이라는 신라인이 좀처럼 오를 수 없는 지위에 오르게 된





다. 당시 군중소장은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였다. 재당 신라인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외국인으로서 평화적인 시기에 군에서 더 이상 출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보고는 군을 떠난다.

827년부터 8년간 장보고는 재당(在唐) 신라인 자치기구인 신라 소와 신라방의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산동성 석도에 적산법화원을 세우고 중국 각지에 형성된 신라방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 자치영역을 확대하여 교포사회의 중심점으로 삼았다. 828년(흥덕왕 3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권을 장악,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여 동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랍 상인과의 교역하는 등 한민족 최초의 세계인이자 해상상업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당시 재당 신라인들은 주로 서해 해안 쪽, 위해, 양주, 초주·연수현, 산둥 연안 그리고 강남지방에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잡으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장보고가 거느린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선박 제조 및 수리업, 해운업, 목탄 제조 및 유통업, 칼 제조업, 소금생산업 등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막강한 경제력과 조직망을 갖춰 서로 융합하였다. 또 이들은 해상 무역에 진출함으로써 당시 시대 흐름과 함께 당·일·신라 더 멀리 인도양을 건너 페르시아까지 뻗어 나가 세계 무역에 종사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장보고의 정신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해 나간다면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해상 장악력을 갖춘 미래 해양 강국으로서의 그간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강사이신 김혁수 제독님의 강의를 메모하며 의미 있는 몇 가지를 다시 훑어본다면,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다. 육지

자원 개발은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 한계에 다다를 위기가 올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과학자들은 이미 바다 연구를 시작했고 대단 위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바다의 영토를 지배하는 국가가 강대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00년 전 장보고는 이미 세계를 널리 내다보고 해양 개척정신을 실현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장보고가 이미 구상하고 실천했던 동양평화 및 세계평화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그에 걸맞은 미래의 해양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실로 돌아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장보고가 지닌 선견지명과 지혜, 리더로서의 역량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어떻게 내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교사로서 고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욕의 역사를 거울삼아

답사 2일차인 2014년 07월 24일, 11시 30분 석도항에 내려섰다. 위해로 1시간가량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배에 승선하여 유공도를 향했다. 청일(갑오)전쟁박물관을 견학하고 그리고 치박으로 7시간 정도 이동하는 긴 여정이다.

유공도는 청일전쟁 중 일본 연합 함대와 청나라 북양함대가 가강 격전을 벌였던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1984년, 헝진조약이 빌미가 되어 청일 양국 간의 대결로 확대된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연합함대는 총공격을 가하여 중국의 북양함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전함들을 대파했으며, 일본은 이로써 재해권을 확립하였고 전쟁의 국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우리 조선을 망국의 소용돌이에 깊이 몰아넣었다.

위해에서 뱃길로 20분 정도 건너가야 하는 유공도,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이 비운의 섬은 현재 위해시 제일의 관광지로 중국 국내 여행객은 물론 외국관광객들의 관광지로 유명하다. 북양함대 사령관 사무실을 개조하여 건립한 갑오(청일)전쟁박물관과 전쟁에서 전사한 북양함대 군사의 원혼을 달래며 오늘날 중국 해군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건립한 북양해군 충혼비와 함께 중화해단이 있고 옛 포대인 기정산 포대 등도 복원되어 있었다. 중국이나 우리에게 있어 치욕의 현장이건만 역사는 끊임없이 현재에서 피드백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여길 만큼 중국인과 한국인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박물관내에는 문헌과 사진자료, 군인들이 사용하던 유품과 포들이 전시되어있고 북양해군의 선실과 치욕을 이지고 못하고 우물에 투신하는 일가 등을 조형물이 있어 가이드를 따라 관람하였다.

‘EH 카아’에 의하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라고 했다. 치욕스럽고 아픈 역사는 중국이든 우리든 결코 잊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자의 호연지기를 찾아

답사 3일차인 2014년 07월 25일은 태안과 곡부를 답사하는 여정이다. 태안은 중국에서 천하제일의 명산이자 오악 중에 하나인 태산이 있는 곳이고, 곡부는 공묘(공자의 사당)와 공부(공자의 자손이 살던 저택), 공림(공자의 가족묘)이 있는 곳이다.

이번 여정에서 태산은 국어 교사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왜냐하면 조선 문인 정철의 명문 <관동별곡>을 가르치다 보면 금강산 비로봉을 오르다가 마는 대목에서 “공자가 노나라의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았고 천하의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다.”고 하며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하는 부분이 있다. 글로만 대하던 그 태산을 오른다는 설렘을 안고 발을 내딛었다. 태산의 정상엔 중국 역대의 군주마다 황제로 등극하고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자신의 등극을 알리고 하늘의 뜻을 받고 땅에 알리는 봉선의식을 하는 곳이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면서 절벽마다 비문을 새겨 천하제일의 석각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명승지 바위에 글씨를 새기면 범죄시 하는데 중국인들은 자국의 문자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여긴 나머지 명승지 바위에 새긴 서체를 나름의 예술 활동이라 여긴다고 하니 각 나라의 문화와 의식이 이렇게 달랐다. 태산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중턱까지는 버스로 구불구불 오르고 그 다음은 케이블카로 오른 다음, 30~40분 쯤 등정을 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버스



로 오르는 길은 무사히 올랐는데 태풍 영향권에 들어 케이블카 운행이 금지되어 기대했던 태산 등정을 접고 중턱인 운출교까지만 오르고 내려와야 했다. 태풍 때문이기는 하였지만 태산 중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아쉬움을 정철의 가사 <관동별곡>의 그 대목을 읊조리며 하산하였다.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야 높다던고
노국(魯國)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거늘
높으나 높은 천하(天下) 어찌하여 적단 말고
어와! 저 지위를 어찌하여 알 거이고
오르지 못하거늘 내려감이 고이할까

공자의 경지를 흠모하면서 금강산 비로봉 중턱에서 발길을 돌리는 정철의 심정이 그리하였을까.

공묘는 공자를 기리는 사당이다. 중국 3대 건축물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중앙 축을 중심으로 대문을 하나하나 지나서 9개의 안뜰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연 중국답게 우리나라 경복궁에 비하여 규모가 훨씬 컸다. 공부는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이자 관공서이다. 역대 왕조의 보호 속에 관직을 받았던 공자의 자손이 거주했기 때문에 역시 그 우수한 규모를 자랑하는 저택이다. 공자의 자손은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그 본가가 대만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관광지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공림은 공자와 그 일가족의 묘소로 노목이 펼쳐진 묘역에 10



만 명이 넘는 공자의 자손들의 묘비가 숲처럼 산재해 있다. 단일가문의 묘지로서 200만㎡의 세계최대규모 인공원림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 우리의 정신과 생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가의 시조, 공자 유적지 공묘, 공부, 공림을 답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공자는 56세의 나이로 천하를 주유하다가 68세에 뽕나라로 돌아와 죽을 때까지 書經(서경)과 禮記(예기)를 편찬하였으며 詩와 樂을 바로 잡고 周易(주역)을 완전히 이해하려 노력하였으며 3천 명의 제자를 두었고 73세의 나이로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사후, 공묘에는 9중묘당과 5중문과 9칸의 정전(대성전)을 갖추어 황제의 예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훌륭한 정신은 후대에 길이 사표가 되어 전하니 이번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후대에 길이 이어갈 만한 장보고 대외 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품는 계기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이 날 저녁 식사는 공자의 유적지에서 공자일가에서 전래되어 내려 온다는 상다리 휘어질 만한 상차림을 받게 되었다. 객지에서 좋은 음식을 대하니 새삼 박인로의 가사 <선상탄>에서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한다는 구절을 입에 올리며 길 떠난 객수에 살짝 젖어 본다.



부국강병의 꿈을 꾸며

답사 4일차인 2014년 07월 26일은 치박에서 고차박물관, 제경공순마궐, 제나라역사박물관을 관람하고 다시 석도로 5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는 여정이었다.

치박은 2,500년 전인 춘추전국시대에 가장 번영했던 제(齊)나라의 수도로서 문물과 고적이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지하 박물관’이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첫 답사지는 고차박물관(古車博物館). 서안(西安)의 진시황 병마용갱과 비견되는 제나라 유적으로, 1990년 제남-청도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우연히 발굴하였다고 한다. 아래층에는 2,600년 전 춘추시대 때 전쟁에 사용하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화석이 된 채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장군의 무덤을 조성하면서 수레와 함께 말을 순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층에는 다양한 고대의 수레를 복원하여 전시해 놓았다.

이어 제경공순마갱(齊景公殉馬坑)을 관람하였다. 앞서의 고차박물관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규모가 훨씬 컸다. 이 묘는 춘추시대 제나라 제경공의 묘로 600여 필의 순마갱인데 228필이 발견되어 전시실에는 105필의 순마가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 전시되어있다. 이 순마갱은 현재 중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의 말 무덤이라고 한다. 이는 춘추전국시대에 산둥성 일대를 지배했던 세력의 규모를 보여 주는 유적이다. 이토록 많은 말들을 순장한 것은 제나라의 강한 군사력과 산둥성 일대의 넓은 평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기병전의 핵심인 말을 순장할 만큼 강한 왕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나라역사박물관(齊國歷史博物館)이다. 임치에 위치한 제나라 관련 역사박물관으로 당시 수도였던 임치



의 옛 성을 재건한 건축물을 전시관으로 사용했다. 총면적이 2,600㎡로 모형, 조각, 모래로 만든 지형, 벽화, 조명, 전기 장치, 음향, 영화, 텔레비전 등 다양한 장치들로 꾸며져 중국 10대 특이한 박물관 중의 하나로 꼽힌다. 15개 전시실로 나누어 수 백 점의 진귀한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상 치박에서의 답사는 주로 춘추전국시대 가장 부국강병 했던 제나라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일이었다.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활약 역시 칭해진 해적을 소탕할 만큼의 군사력으로 해상권을 장악했던 점,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여 동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랍까지 그 경제력을 키워 나갔던 점, 한 시대의 리더로서 부국강병이 얼마나 국민과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는 가를 돌이켜 보게 되었다.

석도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5시간 장장 KBS 신년특집 5부작 <최인호의 다크로망 해신 장보고>를 내내 시청하였다. 개인적으로 최인호 작가의 소설은 이리저리 여러 권 읽어 본 경험이 있다. <겨울 나그네>처럼 순수소설에서는 젊은 날을 돌아보게 했고 <길 없는 길>에서는 불교의 선종 갈래를 분명하게 인지했고 <몽유도원도>, <상도> 등에서는 그가 소설로 담아내는 역사의식에 깊이 빠졌던 바가 있었다. 다음 날 있을 장보고의 적산법화원 답사에 앞서 배경지식을 담아 두어야 하겠기에 시청하는데 깊이 몰입하며 석도에 다다랐다. 신라 말 선종 불교의 최대 후원자가 장보고라는 사실도 특집극 5부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드디어 해상왕 장보고를 만나다

답사 5일차인 2014년 07월 27일. 적산법화원을 돌아보며 해상왕 장보고의 응혼했던 뜻을 새기고 오후 4시 화동훼리호 귀국길에 올랐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절로서 산동성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버스가 적산법화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멀리 산중턱 적산명신상을 올려다 볼 수가 있었다. 경내에 들어서서 먼저 1994년 세운 장보고기념탑에 오른 우리 1차 답사팀은 탑 그늘에 자리 잡고 앉아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적산법화원은 해상의 안전 운행과 신라인의 정신적 단합의 산실이었고 천태종 불교 교류의 장이자 동아시아 불교 발전의 성지였다고 한다. 명나라 이후 배불정책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원형을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장보고가 크게 활약을 하던 시대에 일본의 고승인 엔닌이 이곳에서 3년간 수도를 닦으면서 장보고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의 유지를 받들어 1980년에 일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현재의 적산법화원이 건립되었다고 하니 우리의 문화와 조상의 숭고한 유산을 스스로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음을 돌이켜 보게 되었다. 법화원은 당시 연간 5백 섬의 알곡식을 수확하는 장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니 큰 절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07년 4월에 개관되었다는 장보고전기관을 둘러보면서 시기별로 장보고 일대기를 잘 정리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적산 상부에 건립된 적산명신상은 해상의 안전을 도와주는 신이라고 했다. 부지런히 그곳에 오

르니 그 규모의 장대함에 놀라웠다. 그리고 적산법화원과 장보고전 기관의 구조를 널리 조망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이어 11시에 행한다는 적산법화원 관음상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옮겼다. 거기서 펼쳐진 20분간의 쇼는 물과 음악과 내뿜는 불 등이 어울려진 회전하는 관음상의 자태는 정말 웅장하고 경이로웠다.

답사 처음 내 머리 속에서 떠올리며 만난 해상왕 장보고의 모습은 해적을 물리치는 용맹한 장수였다. 점차 세계적 경제력을 거머쥔 거상으로 떠오르다가 일정이 끝날 무렵의 장보고는 세계를 적극 개척해 가는 글로벌 리더로서 우뚝 대면하게 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장보고의 탁월한 업적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도 장보고 정신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수 학습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장보고에 대한 진정한 재조명과 평가를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21세기 해양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에필로그

답사 6일차, 2014년 07월 28일.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인천으로 오는 배길이었다. 전날 화동훼리호는 우리 답사팀을 오후 5시에 태우곤 9시에 출항하였다. 출입국 절차가 느슨히 늘어지는 시간 속에 함께 답사에 동행한 여러 지역 동료들과 배전에서 답사후일담을 실

컷 나누었다. 저녁을 먹고 선상 갑판에 올라 한국해양재단 답사 주최단에서 나누어 주신 국민식량 신라면과 부산에서 오신 선생님이 가져온 '좋은데이' 소주와 청도 맥주를 나누며 그 마지막 자리에서 석별을 나누었다. 5박 6일간 뻘뻘하게 아주 알찬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진행해 주신 한국해양재단 답사 주최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또한 답사팀에게 하나라도 더 장보고 관련 해양 의식을 심어주시려고 성심껏 열강해주신 교수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 참고 자료 -

1.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책자
2. 2013,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3. 네이버 지식백과

11

21세기는 해양의 시대

미래의 개척자 장보고의 정신을 배우다

인천 학산초등학교 / 김효수(장려상)





7월 30일, 선발되었다는 기쁨과 모르는 분들과의 여행이라는 약간의 긴장과 떨림을 가슴에 안고 약속된 장소인 인천항 제1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미 그 곳에는 우리들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해양재단과 현대아산 관계자분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말한 후 장보고 답사에 필요한 가이드북, 한국해양재단의 마크가 있는 모자 등의 준비물과 기념품을 받은 후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터미널을 둘러보니 벌써 받은 책을 읽으면서 알찬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여행의 기쁨은 출발의 설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여객터미널의 인증 샷을 찍었다. 하트 머리가 멋지게 나왔다.

드디어 석도를 향한 출발이다. 승선 수속을 밟고 화동훼리를 본 순간 “어머나”라고 소리를 지를 뻔 했다. 무려 1,000명의 여객 정원과 253 TEU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보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불안에 대한 시름을 털어 버리고 여행의 설렘으로 입가에 웃음이 번지며 안전에 대한 걱정은 인천항에 퐁퐁 매어 두었다.

4인 1실의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311호 우리 방 선생님들은 일산, 안양, 대전, 인천에서 7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의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이다. 나는 역시 행운의 여신이 항상 지켜주는 운이 있다. 어린 시절 TV에서 보았던 2층 침대에서 자 보는 것이 소원인 나는 드디어 소망을 이루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 때문인지 강화된 안전교육을 받고 7시에 맛있는 저

떡을 먹었다. 중국 여행이 처음인 나는 음식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 불안했다. 그러나 다행이도 내가 좋아하는 밥과 김치가 나와서 두 그릇을 먹었다. 처음으로 중국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 첫째 잔반 처리를 할 때 분리수거 하지 않고 한 곳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분리수거를 하는 우리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문화의 차이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도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둘째, 질서의식이다.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먼저 보내고 잠시 후에 보호자인 어른이 아이를 찾으러 가는 척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사회적인 약자인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양보를 한 것인데 결과는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는 학습 경험을 하는 계기를 준 것이다.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스승과 제자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 쪽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은 사회적 성숙도인 '문화'라고 한 것처럼 중국이 대국굴기 하려면 예절 정착을 위한 거국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첫 발 내딛기

- 해상 경영의 선구자, 세계적인 영웅인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첫날 역사 기행의 끝 단추는 장보고와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는 해양의 선구자로 정확한 출생연도는 모르지만 역사적 기록에 의해 추정해 보면 790년경 완도의 한 섬에서 출생하여 활을 잘 쏘는 아이로 ‘활복’, ‘궁복’, ‘궁따’로 불리었다. 20세 때(810년) 당나라로 건너가 무령군에 들어가서 평로치정절도사 이정기의 번진을 진압한 공으로 하여 30세에 ‘소장’이라는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 백성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로 팔리는 참상을 보고 828년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고 1만 명의 군사를 얻어 해적을 소탕하여 국왕으로부터 ‘청해진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9세기 전반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상 질서를 이룩하고 신라·당·일본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아라비아·페르시아·동남아시아 세계와의 교역을 주도하여 해상왕국의 무역왕이 되어 재당·재일·신라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세계 최초의 종합무역상사’의 해상 경영의 선각자로 평가 받고 있다(나주 영산포→가거도→상해로 이르는 남부사단 항로와 군산과 당진→백령도→산동에 이르는 중부 횡단 항로 그리고 압록강→요동에 이르는 북부 연안 항로). 또 그는 한·중·일 3국의 정서에 기록된 유일한 인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샤워는 그의 저서에서 장보고를 ‘해상 상업 제국의 무역왕’으로 평가하였고, 앤넌은 『입법구법순당순례행기』에서 “장보



고의 도움으로 구법 활동의 은혜가 태산 같다며 제자들에게 교토에 적산선원을 세우고 적산 대명 산을 모시라” 유언을 하고 장보고를 재신으로 추대하였다. 우리나라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영웅인 을지문덕과 견주어 비교하였고 『동국통감』에 “모반했다는 말만 있고 모반 사실이 없으니 그의 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왕이 살피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됨을 탄식”하고 있다. 결국 그는 841년 염장에게 암살되어 청해진은 폐쇄하게 되었으며 주민은 벽골군(김제)로 강제 이주하여 농사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¹

● 선진국의 주도권이고 도약대이며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

21세기 대국굴기의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해양 강국이 들어간다. 그것은 바다가 첫째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1주일간 해로가 막히면 에너지와 식량이 고갈된다. 둘째 식량 자원으로 6개월 동안 5천 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고 2050년이 되면 바다의 식량자원 개발로 120억 명이 먹을 수 있으며 20,050가지가 대기 중이다. 셋째 독도의 중요성으로 관광 및 수산 그리고 식량,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아직도 일본은 자신의 영토라고 열토당토 한 주장을 하고 있다. 넷째 수송로의 역할로 물동량의 99.7%가 배로 이동한다. 다섯째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기상 변화에 많



1 한국해양재단(2014),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자료집. p5.

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날씨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다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마지막 자원의 보고로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두 발 내딛기

- 안개여 물러나거라! 지루하고 불안한 석도항 입항 허가

단잠을 자고 있던 중 알람 소리에 깨어 일어나 아침을 먹고 드디어 중국 석도항의 입항 허가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 할꼬. 석도항을 100미터 앞에 두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입항 허가가 나지 않아 배는 바다에서 대기하고 승객들은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갑자기 세월호의 사건이 생각났다. ‘우리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으로 가슴이 답답해져서 밖으로 나갔다. 밖은 짙은 안개로 앞에 1미터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고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가 “우리 이러다가 배에서 내려 보지도 못하고 회항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하자 “설마 우리가 7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했는데 그런 불운이 있을 수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해 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기운이 났다. 12시가 넘었는데도 입항 허가는 나지 않고 어김없이 배꼽시계는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무료로 선내식 점심을 먹었다. 입국 수속을 하기로 한 시간보다 5시간째 배에서의 기다림은 지루하기도



하지만 엄습해 오는 불안은 어찌 할 수 없었다. 세월호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가 어떠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참으로 서글픈 사건이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드디어 행운의 여신이 날아왔다. 순식간에 안개도 걷히고 석도항의 입항 허가가 떨어졌다. 2시 30분 입국 수속을 밟고 3시 20분 현지 가이드와 만나 인사를 나눈 후 준비된 리무진 버스에 올랐다. 아, 여기가 중국이구나! 길게 심호흡하며 안도의 숨을 내 뿔었다. 이제부터 새로운 경험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늦게 도착한 관계로 마지막 날 관광하기로 한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전기관을 먼저 보기로 하였다.

● 자연재해에 대한 장보고의 대처

석도는 영성시 위해주로 당나라 때부터 무역항으로 장보고의 대표적인 근거지로 당시에는 적산촌으로 불리었는데 적색의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은 부유한 도시로 주로 양식을 하고 밀수를 하며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불법 어업도 성행한다. 당시에는 고구려 유민이 많았으나 길림성으로 이주하고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노예를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위한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붉은색을 선호한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붉은 벽돌과 기와를 사용한 이유는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차량은 주로 외제차로 번호는 노, 제로 시작한다. 건물의 명칭을 보면 전, 각, 현, 제, 누, 정이고 직선으로 흐르는 것을



‘강’이라 하고 구불구불 하게 흐르는 것을 ‘하’라 한다고 동행하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 관세음 신앙의 보고인 적산법화원

석도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적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당나라 때 소실되어 스님들은 환속하고 국가소유로 된 것을 1897년 복원하였다. 현재의 법화원은 일본인 승려 엔닌의 저술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내용을 근거로 영성현 인민정부는 법화원을 1988년 7월에 증건하고 1989년 5월 1일에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완도의 법화사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대승불교인 법화경을 강의 하던 곳으로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남해와 서해를 지키는 관음보살로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일체의 소원이 만족되고 두려운 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관세음 신앙으로 생명 유지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바다를 지켜주는 해신상인 적산명신상이 석도만을 향해 앉아 있고 대웅보전 오른쪽에는 ‘청해진대사 장보고 공적비’가 있다. 흥덕왕 3년에 신라 국가의 제사를 주관한 청해진의 설치와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장보고의 국가적 위치와 세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적산명신상인은 중국인들이 믿는 바다를 지켜주는 신인데 이 동상은 높이가 58.8m로 산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고 안에는 천연 옥으로 활약상을 설명한 벽화가 있다. 우선 크기로 우리를 압도 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지켜주는 해신과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인 지혜를 보여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을 묶어주



는 구심점이 되었고 불교를 통한 민심 안정 및 해상 무역의 번영을 기원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 세계 해상 무역 제패 장보고전기관

해양 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재)한국해양재단에서 전시물 등을 지원하였다.

장보고전기관 건물 입구에 장보고의 활약상을 큰 벽화로 제시되어 있고 한 번 만지면 10년이 젊어진다는 만수석이 있어 두 손으로 두 번 만졌으니 나는 이제 10살이 된 것 같아 흡족했다.

전시실로 들어가는 앞에는 위업을 자랑하는 장보고 동상과 제단이 설치되어 1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승려들이 예불을 올린다고 한다. 5개로 이루어진 전시실²은 1. 꿈을 좇아 당나라로 가게 된 배경의 소개, 2. 무령군 종군이 되어 소장에 오르는 과정, 3. 적산과의 인연으로 법화원 건립, 4. 신라로 돌아가서 청해진의 흥망성쇠의 역사, 5. 유구한 역사로 장보고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등 연구와 재조명 사업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관람하며 그동안 내가 장보고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해 사람은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저지른 만행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



2 한국해양재단(2014),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자료집. p70-71.



도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장보고는 신라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석도까지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개척자 정신과 도전의 정신을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꼭 많은 것을 알려 준다. 벽찬 감동을 느끼며 전시실을 나와 조그만 오솔길을 지나면 연화봉 정상에 장보고 기념탑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장보고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붉은 벽돌을 정성을 들여 하나씩 사 쌓아 올린 전탑으로 한국과 중국의 두 나라를 상징하며 연결하는 중앙에 ‘장보고 기념탑’이라는 금색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2차 답사 팀은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다. 선생님들 모두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참으로 훌륭한 조상을 둔 자손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큰 꿈을 갖고 생활 하렴.’하는 의지를 마음속에 새겼다.

늦은 도착으로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오늘 청도를 거쳐 치박까지 가야 한다. 차장 밖으로 중국의 광활한 농토와 노을을 바라보며 잠도 얼마나 잤을까? 아직도 청도가 아니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처럼 8시가 넘어도 저녁을 못 먹었다. 물 한금 마시고 또 자면서 얼마를 더 잤을까? 드디어 저녁을 먹기로 한 식당에 도착했다.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치박을 향해 출발했다. 무려 4시간 동안 달려서 1시에 숙소에 도착했다. 치박의 만호대주점에 들어가서 씻고 꿈나라로 향했다.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기쁨과 설렘으로 마무리한 날이었다.

세 발 내딛기 - 불노장생 국태민안

이번 여행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곳을 방문하는 날이라서인지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6시가 되니 눈이 햇살을 맞이했다. 중국하면 아주 오래 전에 본 마지막 황제 부이에서 나왔던 자금성, 우주에서 초록별 지구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만리장성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등반하여야 하는 숙원과 같은 곳인 태산,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논어 강의를 듣고 꼭 한 번은 가고 싶은 곡부를 견학한다.

어제 우리를 안내하는 현지 가이드가 아침 8시에 출발을 해야 하니 시간에 맞추어 달라는 당부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서둘러 준비를 하고 좋아하는 플레인 요구르트와 토스트, 계란, 다양한 과일로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 1,500미터 산행을 하려면 체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당이 떨어지면 중간에 혼자서 하산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 수 때문이다.

조금 걱정하며 차에 올라서 기다리니 가이드가 일정을 설명하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간다는 것이다. 야호! 신난다. 그러면 1시간 정도 걸으면 정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는 올라가다 보면 알겠지만 관광객이 많으므로 개인적 행동을 삼가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니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처럼 눈이 부시도록 파랗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아주 가끔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이 있었다. 전기료가 비싼가?

황하 문명의 발상지인 태안에서 2시간쯤 달리니 태산이 저 멀리





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뒤쪽인 북쪽으로 조금 더 달렸다. 중국인들은 태산을 5대 명산 가운데 으뜸으로 꼽고 있으며 동쪽의 지존이고 신령스러운 산으로 생각하여 7,412개의 계단을 밟으며 정상까지 오르고 하산하면 ‘10년은 장수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중국 최대의 여행지라고 한다. 정말이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조금 올라가니 시끄럽고 끝이 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이 마치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기 위해 한 줄로 때지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정상까지 가는 동안 계속 되었다.

이들은 자신을 ‘염황자손(황족과 염족)’이라 부르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양오행설’이라고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원지방’ 사상으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것으로 집이나 묘의 모양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상생과 상극이 있으며 이것이 사주와 궁합의 기틀이 된다. 그리고 오방은 동, 서, 남, 북, 토이며 각각을 살펴보면 동은 목으로 봄-태산, 만물양생, 청춘, 해를 받아 회춘, 서는 금으로 가을·화산, 재운, 북은 수로 겨울-향산, 지혜, 출생률이 높다, 남은 화로 여름-형산, 토는 중앙-승산. 황하 문명의 중심지, 안양, 상족, 장사, 주나라에 의해 멸망하여 상인이 됨을 나타낸다.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운 진시황은 훈고학을 육성하였다. 천하통일 후 태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며 절벽에 ‘천장지후’라는 비문을 새겼다. 또 이사와 함께 문자와 도량을 통일하고 법전을 만들었으며 이전의 민간인들이 사용한 민간인체(노비체)를 탈바꿈하여 새로운

서체인 예서체로 탄생시켰다. 그 곳에는 공자의 공정암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면서 절벽마다 비문을 새겨 천하제일의 석각 전시장이 되었다. 모두 1,800여 군데 남아 있는데 한나라 무제가 세운 무자비와 당 현종이 세운 기태산명비, 청나라 강희제, 주은래 부인 등영초가 등태산간 조국천하지장려이라는 붉은 색으로 비문을 새겼다. 이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글자 하나를 새기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았을 민초들이 생각났다. 군왕의 생각과 이름을 절벽에 새겨서 후대에 전해야만 했을까? 그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군왕의 리더십인지? 아픔을 이야기 하지 않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는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절벽에 새긴 비문들의 뜻이 위대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 같다.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변하지 않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명산 태산은 황제들이 하늘의 뜻을 받고 땅에 알리는 '봉선'(천신과 지신에게 고함) 의식을 거행한 곳으로 진시황은 직접 '대묘'를 지었고, 한나라 무제는 5번, 당의 현종은 6번이나 올랐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다. 주변의 경치를 볼 수가 없었다. 그 많은 황제들이 올라서일까? 그들을 수행하는 자들이 목을 곳이 필요해서인지 객관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산의 정상이 아니라 꼭 주막집에 온 것 같았다. 정상에서 여러 방향의 경치를 보면서 심신을 단련하려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다. 마음속에서 '이게 뭐지?'라는 소리와 함께 실망스러움이 가슴으로 밀려들어



왔다.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고 둘러보니 당시 나라의 부국강병과 밀접한 출산 장려를 위한 여신 벽하원군을 모신 벽하사, 남쪽 기슭에 대묘가 있는 천황전은 자금성의 태화전과 공자묘의 대성전과 함께 중국 3대 전각으로 꼽힌다. 태산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하산하면서 나도 ‘10년은 더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쁨을 얻었지만 씩씩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연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오르기 전의 태산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산인데 올라보니 절벽에 울긋불긋하게 새겨진 글씨와 여객으로 둘러싸인 정상 모습은 그 동안 갖고 있던 산의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 같다. 나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이었나? 태산 등정은 훼손시키는 인간들에게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는 자연에 대한 큰 감동을 받으며 하산을 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다시 한 번 쳐다 본 태산은 웃으며 잘 가라는 인사로 배웅해주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10여 분쯤 가니 즐거운 점심을 먹기로 한 식당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의 특징은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미리 준비된 음식의 모습은 보았는데 음식을 담은 접시들이 2층, 3층으로 쌓여 있었다. 어머니! 어떤 음식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놓으니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음식을 가져다주는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놓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 던지듯



이 둔탁한 소리가 나게 접시를 놓고 남은 음식을 이것저것 마구 씹어 먹고 싶지 않게 했다. 뭐지? 서비스의 기본이 이런 것이 아닌데?

●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며, 공감의 신 공자

몇 년 전 교육방송에서 동양학의 선봉적인 인기를 몰고 온 김용옥 교수의 논어 강의를 들으며 꼭 한 번 공자의 생가에 가보고 싶었다. 그는 2,500여 년 전의 학자로 오늘날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화의 기본인 대동사상과 공감의 기본인 인(인본주의, 도덕정치의 기본)을 주장 하였다. 이 두 사상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인 상호존중과 협력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 되지 않아 늘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격언 중에 “온고이지신”이라 한 말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곡부는 산동성 제녕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노나라의 도읍지이며 공자의 출생지이고 유교의 발생지라는 역사성을 간직한 도시다. 중국 예교의 중심지로 존경을 받았고 공업이 발전하여 석탄·기계·화학·제주 등과 밀·수수·땅콩 등을 생산한다. 6개의 직업학교와 48개의 중학교의 교육기관이 있고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삼공(공묘, 공부, 공림), 안묘, 주공묘, 소호능이 있다.³

흥분을 감추며 제일 먼저 공자를 기리는 사당인 공묘를 갔다. 중



3 한국해양재단(2014),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자료집. p44.



국 3대 건축물 중 하나로 애공이 공자 사후 1년에 3칸의 방으로 소박한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남북 1km, 총면적 2만km², 방도 466칸이고 역대 12명의 황제가 공자에게 제례를 지내기 위해 곡부를 방문했을 정도로 추앙을 받고 있다. 공자는 노나라 곡부에서 떨어진 창평향 추읍의 숙량홀(70세)이 안징재(13세)를 맞아 낳았으나(기원전 551년 9월 28일) 그들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고 이름은 구, 자는 중니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목장 경영직인 사직 등 말단 관리로 일하였으나 497년 '삼환의 난'이 일어나 나라를 떠나 14년간 수많은 제자들과 천하를 주유하며 주로 살구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강연을 했다고 한다. 일생을 책의 편찬에 힘써 육경(시경, 악경, 예기, 춘추, 서경, 역경)을 완성했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역경(주역)은 50살에 편찬을 시작하여 가죽 띠가 세 번 끊어질 정도로 노력하여 71세에 끝내면서 무척 아쉬워했다. 그의 사상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스승인 자궁,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스승인 자사로 계승 되었고, 사후 500년 후 한 무제 때 오경을 만들고, 당의 훈고학, 송의 성리학, 명의 양명학, 청의 고증학으로 이어져 조선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1966년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공산주의의 평등사상과는 배치되고 지배계급을 옹호하는 봉건 잔재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반공자 운동으로 많이 파괴되었으나 등소평 체제 등장 이후 복원되기 시작하여 정면에 세워진 금성옥진방을 지나면 9개의 안뜰로 구성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인 대성문을 들어가면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수하던 행단, 공묘의 정전인 대성전은 황궁에만 쓸 수 있는 유리기와 지붕으로 장식, 기둥은 화려한 용 조

각이 새겨 있어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의 위용을 알 수 있다. 뒤쪽의 공자의 부인인 살았던 집들은 담장이 아주 높고 길이 좁아 미로처럼 되어 있다. 공묘를 지나서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 겸 관공서인 공부를 갔다. 역대 왕조의 보호 속에 관직을 받아 공자의 자손이 거주했지만 1948년 76대손 공덕송이 본가를 대만으로 이주하여 현재 공부는 관광지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12,470km²의 면적에 463칸의 객방이 있는 152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원의 정원은 수목원을 옮겨 놓은 것처럼 우거지고 아름다웠다. 특히 벼락을 맞아 5개로 쪼개진 나무는 중화민국의 민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공부의 건물은 5분의 2를 점하고 있는 전원인 삼당, 육청 등 관서가 있던 곳으로 대당은 역대 연성공이 공무를 처리하였고 남쪽의 중광문은 양쪽에 벽이 없는 독특한 문으로 칙사를 맞이하거나 공자를 기리는 중요한 의식 등이 있을 때 개방되었다. 후원은 연성공의 사저로 공자의 질서나 서열에 따라 거주지가 구분되어 연장자는 중앙에 큰 3채의 건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 서열부터 동쪽의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음에 대만에 가서 진짜를 보아야겠다.

공부를 나와서 공자와 그 일족의 묘소가 있는 공림(지성림)을 향했다. 가는 도중에 장소와 어울리는 교통수단인 인력거와 마차를 보았다. 과거여행에 딱 맞는 추억을 건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림을 견학하지 못했다. 관람 시간에 맞추어 가지 못해서 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공림은 공자와 그 일족이 묘소로 노목이 펼쳐져 묘역에 10만이 넘는 공자의 자손들의 묘비가 숲처럼 산재해 있다. 공부의 현성 출구에는 공자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 안희의 묘가 있고, 정문인 이림문을 지나 향전 뒤에 공자의 묘가 있으며 왼쪽에는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한 자공노가 있고 근처에는 아들 공리와 공자의 손자이며 ‘중용의 저자’인 자사의 묘도 있다.

곡부는 위대한 인물 공자 때문에 관광지로 후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공자의 사상이 부활하는 이유는 본받을 것이 무척 많다. 그 중에서도 수행사상으로 세상의 이치인 경불은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치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성기, 즉 성실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대동사유가 나온다. 삶을 영위하는 가장 바른 삶의 태도는 바로 성실이다. 교사인 나도 매일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되었다.

네 발 내딛기 - 강한 군사력을 지닌 왕권

정들자 이별이라 했던가? 이틀 동안 묵었던 치박 만호대주점에 안녕을 고하고 산동성 지방의 최강의 국가였던 제나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출발하였다.

중국 최고의 차마 유적으로 1990년 임치에서 제남을 거쳐 청도로 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순장 마차들이 있는 봉분이 발견되면서 1994년 건립했다. 박물관은 전쟁에서 사용하였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 된 춘추차마전시관과 ‘후이치마갱’에서 출토

된 여러 차량과 임치지구, 그리고 전국에서 출토된 고대 차량을 복원한 모형으로 진열된 중국고차진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전차병은 4마리의 말이 마차 한 대를 끄는 ‘일승’(무위 4인, 제위 2~3인, 제갈양이 제작, 수말을 6세~7세 때 거세, 적토마는 흰색)으로 안장이 등장하면서 전쟁은 역동적이고 대형화되었다. 전차병 조건은 3명(신분에 따라 어수, 사수, 방패수)이 탔으며 동작이 민첩하고 41세 이전, 173cm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 제일의 고차박물관으로 물산이 풍부하면서 교류가 활발하였던 산둥성의 경제적·군사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기도 한다.

● 제나라 역사박물관과 환공

제나라의 유물을 보관 전시한 박물관으로 5개 진열실(선제, 서주, 춘추, 전국, 진한)과 2개의 특별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춘추 전국시대의 패권을 다룬 일곱 나라 중 하나로 제나라의 형성·발전·흥망을 보여 준 300여 점의 유물과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금은착양감동존’은 제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기원전 697년 견의맹회에서 환공을 패자로 추대하고 781년 노나라와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쟁 배상금으로 받은 평야를 소를 잘 이용하여 경작했음을 보여준다. 환공을 도와 제나라를 크게 발전 시켰던 관중과 포숙아 등의 활약상을 비롯하여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군사·민속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제나라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를 알아보는 환공의 리더십과 참으로 덕망이 높은 많은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



다. 교육자인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 제나라 경공의 순마갱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로 춘추시대에 활동하였던 ‘최씨’라는 성을 가진 공후의 묘라고도 한다. 치박시를 흐르는 치구 하에 인접한 20여 개의 묘 가운데 제5호분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갑’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묘실 남북 26미터, 동서 23미터로 북쪽과 동쪽, 서쪽에 매장되었다. 두 줄로 늘어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채 순장된 228필의 말이 발견되었다. 이 말들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로 6~7세이고 약 600필이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이들은 넓은 평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활동이 활발히 하였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기병전의 핵심인 말을 순장할 만큼 강한 왕권 국가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순마갱의 말들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밤이면 깨어나 활동하다가 낮이 되면 죽은 척하고 누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동감이 있다. 죽지 않은 600필의 말을 묻으려면 그보다 더 많은 말을 기절시켰을 것을 생각하니 사람의 욕심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인 자연이 되어 흩어지는 것인데 말이다.

현지인이 되어가는 입맛으로 점심을 먹고 중국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석도 적산대주점을 향해 출발했다. 3시간여 쯤 달렸을까? 여기저기서 12호 나크리 태풍이 산동성 지방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금 불안이 엄습해 왔다.

마지막 만찬인 해물 샤브샤브를 먹으려고 차에서 내리니 바닷가

라 그런지 태풍의 전조인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우리 모두는 여행을 위해 애쓰신 한국해양재단 및 관계자 분들과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건배를 하고 흥겨운 식사를 마친 후 노곤한 신체가 실속소로 갔다. 꿈속에서 내일은 평온한 바다가 될 것이라는 소원을 빌어 보았다.

다섯 발 내딛기 - 무망국치 해양 강국

여행 마지막 날 햇살이 창문을 밝게 비추었다. 어제의 태풍 걱정은 오늘 아침의 환한 태양처럼 소멸되어 약속한 날짜에 되돌아가게 되었다. 야호! 다행이다.

바다를 보며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인자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우리 앞에 앉았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는 무척 귀여웠다. 용기를 내어 “위 시 한구어 런”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한구어 런”이라고 되물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아이”라고 대답했다. 짧은 중국어로 말을 건넨 용기가 가상하였는지 함박웃음을 지어보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진을 찍어 추억의 책장에 남겼다.

가방을 차에 실은 후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비상하는 용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번 여행은 용이 물고 있는 금색의 여의주처럼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금보다 귀한 몸과 마음이 성장했으리라 확신한다.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고 항상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다.

중국 정치·경제의 대동맥이자 역사·사상의 발상지이고 ‘한반도



의 서해안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산동성은 화교 대부분의 출신 지역으로 우리가 즐겨먹는 중국 음식 가운데 이곳의 음식이 많다. 아, 그랬구나! 음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청일전쟁의 격전지인 유공도가 있는 위해는 산동성의 동북쪽 끝에 자리한 삼면이 바다인 항구 도시로 4대 청량 도시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여 한국 관련 상점이 많으며 한류가 크게 유행하는 곳이다.

위해 체육로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약 20여 분 정도 가면 ‘세상 밖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유공도에 도착한다. 이곳은 전체 면적의 87%가 삼림으로 구성된 뛰어난 자연환경 때문에 중국 최초의 해상 삼림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위해 시 사람 모두가 나온 것 같았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청나라 때 이홍장이 북양함대를 창설하여 군항을 설치하고 훈련소를 두어 영국과 독일의 군사 전문가를 불러서 해군을 양성하였다. ‘침몰하지 않는 전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해의 요새였지만 유비무환이라고 했던가. 청일전쟁 때 북양수사제독 정여창은 일본군에게 크게 패해 음독자살 하고 요동에서 2만 명의 군사가 학살을 당했다. 1895년 이홍장은 7회에 걸친 담판 끝에 굴욕적인 하관조약을 맺어 거액의 전쟁 배상금과 조선은 완전한 독립국 인정하고 대만을 일본에게 넘겨준다.

섬 안에는 북양함대 사령관 사무실을 개조한 중국갑오전쟁박물관과 갑오전쟁에서 패전한 굴욕적인 역사는 ‘낙후되면 곧 당하게 된



다.’는 도리와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미래를 대비한 강철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모노세키 전쟁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금방 잊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나라의 슬픈 역사를 잊지 말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자는 기성세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슬픈 역사는 미래를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곳을 견학하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실패한 역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역사적 교훈을 찾아 대국굴기를 하려는 그들의 치밀한 준비를 보고 약간의 부러움과 두려움이 다가왔다.



장보고처럼 바라보기 - 하나 보다 나은 우리

4박 5일의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 여행은 끝이 났다. 돌아오는 배에서 바라 본 석양은 출발 때의 모습이 아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은 더 찬란하고 무엇인가 내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00시간(하루 3시간 씩 10년)의 법칙이 있다. 한 분야에서 목표를 정하고 끝장 보기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면 성공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의 도움 없이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한국인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장보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보다 670여 년 앞선 해양의 선



구자이며 미래의 개척자라 부를 수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북한,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옛날부터 동북아의 중심지이며 요충지인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과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해양 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광개토태왕 같은 이지스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도 돌고 돈다.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양 국가로서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21세기는 바다의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대국이 될 수 있다. 1,200여 년 전 장보고는 청해진 완도를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시켜 경제권의 형성과 평화에 기여했던 것과 같다.

글로벌시대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게 과거 선조들의 행적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진취적인 역사 인식을 키워 장보고처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꿈과 야망을 품게 하고 세계를 향해 그 큰 꿈을 펼치며 도전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장보고가 적산법화원을 세워 불심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인본주의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세상에 어떤 제도보다 먼저인 것은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일 것이다. 그것이 문화의 시작이고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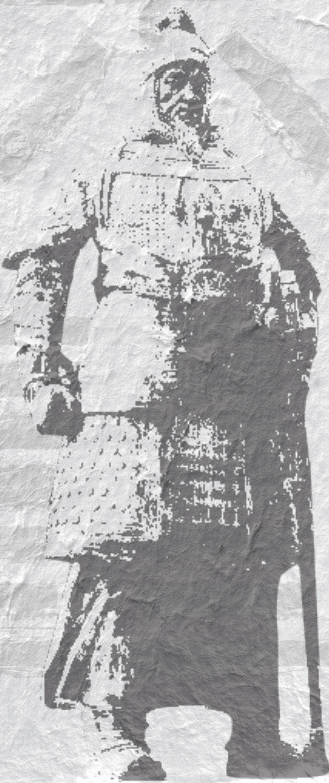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한국해양재단(2014),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자료집. p5.
한국해양재단(2014),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자료집. p70-71.
한국해양재단(2014),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자료집. p44.

12

2014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경덕중학교 / 전돈수(가작)



2014. 7. 30.(수)

● 인천발 중국 석도행 화동훼리에 몸을 싣다

예전부터 참가하고 싶었던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되어 대전을 출발하여 인천버스터미널을 거쳐 인천항 제1국제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중국은 중국어 부전공 이후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으나 배를 이용한 답사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편으로 호기심도 있었고 다소 설레기도 하였다.

조 편성 및 승선 안내에 이르기까지 담당자들이 매우 친절하여 선입감이 매우 좋았고, 같은 조 선생님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며 동료교사처럼 어색함은 거의 없었다. 승선 후 안전교육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항을 출발하며 멀어져가는 우리나라 항구와 섬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아름다웠고, 더욱이 환상적인 석양의 모습에는 한국인, 중국인 할 것 없이 감탄이 연발하고, 사진에 담고 마음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2014. 7. 31.(목)

● 중국 석도항 도착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으나 밝은 안개가 자욱하여 중국 석도항 입항이 늦어지게 되었다. 덕분에 점심은 선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했고, 입항까지는 다섯 시간이나 지체되었다.

● 장보고 유적지를 보고

시대를 앞서간 해상 경영의 선구자, 장보고

1,2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들을 소탕하고 한·중·일 3국을 잇는 동북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면서 교역범 위를 동남아와 인도·이슬람 사회까지 무역 활동을 확대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 국가 간의 거래에 머무르던 공무역 형식의 조공 무역을 민간 무역으로 바꾸고 이를 활발히 펼쳐나가 해양부국을 이루었다.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선도하였던 그를 ‘해상왕 장보고’라 부른다.

장보고의 생애와 활동

장보고는 790년경에 완도의 한 섬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아서 ‘활보’, 또는 ‘궁복(弓福)’, ‘궁파(弓巴)’라고 불렸다. 당시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어서 귀족이 아니면 변변한 벼슬길에 나설 수가 없었다. 때문에 많은 신라 사람들은 신분 차별이 비교적 적은 당나라로 건너가곤 하였다. 장보고도 20대 초반인 810년경에 당나라로 건너가 무령군(武寧軍)에 들어갔다. 그는 당시 산둥을 다스리고 있던 평로치청절도사 이정기(李正己)의 번진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30세에 소장(小將)이라는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신라 백성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을 보고는 울분을 느껴, 828년에 귀국한 뒤 흥



덕왕에게 해적 소탕의 의지를 전하여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고 1만 명의 군사를 받았다. 이때 그는 국왕으로부터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로 임명되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 서남해안 일대의 해적을 소탕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 항로를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당나라 수도 장안과 남중국·북중국을 잇는 교역로와 해상통제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이 왕래하는 동남아·인도 항로를 동아시아 항로와 연결시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동서 무역망을 갖추어 나갔다. 이때문에 장보고의 청해진은 재당·재일 신라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무역 체제와 함께 군사를 갖춘 군상복합체로서 ‘세계 최초의 종합무역상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인물, 장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보고만큼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드물 것이다. 그는 한·중·일 3국의 정사(正史)에 기록된 유일한 인물이다.

미국의 동양학자로 주일대사를 지낸 라이샤워(Reischauer)는 자신의 저서인 『Ennin's Travels in Tang China』에서 장보고를 ‘해상 상업 제국의 무역왕’이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장보고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일본 천태종의 제3대 좌주인 엔닌(圓仁)은 일기 형식으로 쓴 자신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에서 무사히 구법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고



기록하며 “장보고에게 은혜 입은 것은 마치 태산과 같으며, 그 은혜의 깊이는 형용할 바를 모른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일본에 귀국한 뒤 제자들에게 “교토에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우고 적산대명신(赤山大明神)을 모시라.”고 유언을 하였는데,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재신(財神)으로 알려진 이 신은 장보고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일본의 정사(正史)인 육국사(六國史) 가운데 하나인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에는 일본 정부가 장보고 선단과 독자적인 무역 관계를 맺고, 신라·당의 선진 문화와 물품의 공급을 장보고 선단에 의존하였다는 기록도 담겨 있다. 그리고 당나라의 문장가이자 시인인 두목(杜牧)의 문집인 『번천문집(樊川文集)』과 중국 정사의 하나인 『당서(唐書)』, 제도와 문물사에 대한 책인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에서는 무령군 소장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장보고와 청해진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사심을 버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로 진(晉)에는 기해(祁奚)가 있고, 당에는 곽분양(郭汾陽)과 장보고가 있었다. 누가 동이(東夷)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하여 장보고의 위대함을 특별히 기록하였다.



2014. 8. 1.(금)

● 오악독존(五岳獨尊) 태산(泰山)을 가다

대산(岱山)·태악(太岳)으로도 불리는 해발 1,545m의 중국의 명산이다.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제남과 태안 등 4개 지역 사

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악(五岳)’의 하나이다.

중국 사람들은 전국시대 이후에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5곳의 산을 ‘오악’이라고 불렀다. 중악(中岳)은 하남성의 송산(崇山), 북악(北岳)은 산서성의 항산(恒山), 남악(南岳)은 호남성의 형산(衡山), 서악(西岳)은 섬서성의 화산(華山)이며, 태산이 동악(東岳)이다. 이 가운데 특히 태산을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고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그것은 태산이 자리한 황하 하류에서 중국의 문명이 처음 열렸고, 그 뒤 많은 나라가 건국되어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받고 땅에 알리는 ‘봉선(封禪)’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태산을 ‘만물의 시작이고 음양의 교대가 일어나는 곳’으로 여겼다. 곧 태양이 뜨는 태산은 ‘만물을 생성하는 기가 동쪽에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원전 219년에 진시황이 등근 제단과 사각형의 제단을 각각 쌓고 제사를 드린 봉선의식을 거행하고 4년 뒤에는 석각을 새겨 세우기도 하였다. 그 뒤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하고서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자신의 즉위를 하늘에 알렸다. 특히 한나라 무제는 5번, 청나라 건륭제는 11번이나 봉선의식을 올렸다고 전한다. 또한 태산은 황제가 태평세계의 실현을 신에게 보고하는 ‘봉신’의 의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 봉신의식은 진정으로 덕이 있는 황제만이 허락을 받았다고 전하는데, 유사 이래 진시황, 한나라 무제, 당나라 현종 등이 의식을 거행하였다. 현재 옥황묘 옆에 남아 있는 ‘고등봉대(古登



封臺)’는 역대의 제왕들이 봉선을 행하면서 권위와 위상을 강조했던 뜻 깊은 장소이다.

성스러우면서도 경관이 뛰어난 태산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명승고적이 남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면서 절벽마다 비문을 새겨 가히 천하제일의 석각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석각은 모두 1,800여 군데에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한나라 무제가 세운 무자비(無字碑)와 당 현종이 봉선의식을 하면서 세운 기태산명비(紀泰山銘碑)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신령스러운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을 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7,412개의 계단을 오르는 ‘태산 등정’이 숙원이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중국 사람이면 누구나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을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꼽힌다.

태산의 정상은 옥황정(玉皇頂)인데, 옥황정 주변에는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옥황묘(玉皇廟)와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 벽하원군(碧霞元君, 泰山玉女)을 모신 벽하사(碧霞祀, 1008년~1017년 창건)가 자리하고 있다. 산 남쪽 기슭에는 황제들이 봉선의식을 올렸고 진시황의 각 석비가 보관되어 있는 대묘(岱廟)가 위치하고 있는데, 경내의 천황전(天皇殿)은 북경 자금성(紫禁城)의 태화전(太和殿), 곡부(曲阜)에 있는 공자묘 안의 대성전(大成殿)과 함께 중국 3대 전각으로 꼽힌다. 태산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태종 무열왕의 아들로 일찍부터 당나라에 들어가 활동했던 김인문(金仁問)은 666년(문무왕 6년)에 당 고종을 따라 태산에 올라



가 봉선 의식에 참여하고 우효위대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식읍 4백여 호를 받기도 하였다. 오악을 숭상하고 봉선의식을 행하면서 자연히 태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험하면서 위엄 있는 산으로 이해되었다.

더욱이 공자(孔子)가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다.’고 하였고, 조선 시대에 성리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진정 세상을 다스리려면 태산보다 높고 넓은 기개를 가져야 한다.’는 풍조가 일어났다. 조선 전기 4대 서예가의 한 사람인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흘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뒤흘만 높다 고 하더라.’고 하면서 선비가 태산보다 높은 기개를 가질 것을 소망하였다.

● 공자 유적지 곡부에 가다

공묘

공자(孔子)를 기리는 사당인 공묘(孔廟)는 노(魯)나라의 애공(哀公)이 공자 사후 1년(기원전 478)만에 세운 것으로 북경의 고궁, 태산의 대묘와 함께 중국 3대 건축물의 하나로 손꼽힌다.

한 고조 유방이 기원전 205년 공묘에 제물을 올리고 공자를 제사지내는 제례를 실시한 후, 이후의 황제나 고관들도 이러한 전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황제는 즉위한 뒤나 전승 등 중요한 때에 곡부를 방문하였다. 중국 역대 12명의 황제가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직접 곡부를 방문하였으며, 그 외 100여 명의 황제가 제례를 위



해 196회나 대리인을 파견하였다.

초기에는 3칸의 방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공간이었으나 이후 증축을 거듭해 지금은 남북 1km, 총면적 2만㎡, 방도 466칸에 이른다. 가장 큰 비석은 청의 강희제가 북경의 서산에서 운반해 온 것으로 그 무게만 65톤에 이른다. 공묘에서 가장 큰 문인 대성문을 지나면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수하던 행단이 나온다. 행단 북쪽에는 공묘의 정전인 대성전으로 지붕은 황궁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황색 유리 기와로 장식되어 있으며, 정면의 돌기둥에는 화려한 용 조각이 새겨져 있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에 의해 크게 파손되기는 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건물들은 모두 그때 살아남은 것들이다. 대문을 하나하나 지나서 들어가는 9개의 안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축을 중심으로 한 설계는 북경의 자금성과 유사하다.

공부

공묘 동쪽에 위치한 공부(公府)는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 겸 관공서이다. 역대 왕조의 보호 속에 관직을 받았던 공자의 자손이 거주했기 때문에 우수한 규모를 자랑하는 저택이지만,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76대손 공덕성이 공가의 본가를 대만으로 이주한 후 공가는 현재 대만에 거주하고 있고, 공부는 관광지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공부의 건물군은 크게 전원과 후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전원은 삼당, 육청 등의 관서가 있던 곳으로 공부의 약 5분의 2를 점하고 있다. 대당은 역대 연성공이 공무를 처리하던 곳이며, 대당 남쪽에 있는 증광문은 양쪽에 벽이 없는 독특한 문으로 칙사를 맞이하거나 공자를 기리는 중요한 의식 등이 있을 때에만 개방되었다.

2014. 8. 2.(토)

● 제나라 유적지 치박에 가다

중국고차박물관

중국 최고(最古)의 차마유적(車馬遺蹟)으로, 임치구 제릉진에 자리하고 있다. 1990년에 임치에서 제남을 거쳐 청도로 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대규모의 순장 마차들이 있는 흙으로 된 봉분을 발견하였다. 2,8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곳은 당시에는 ‘전국 10대 고고학 발견의 하나’라고 불렸다. 그 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박물관을 건립했다.

박물관은 춘추차마전시관과 중국고차진열관으로 나뉘어 있다. 춘추차마전시관에는 전쟁에서 사용하였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는데,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면서 장식이 매우 화려하여 중국 최고로 손꼽힌다. 중국고차진열관에는 ‘후이차마갱(後李車馬坑)’에서 출토된 여러 차량과 임치 지구에서 출토된 고대 차량을 복원한 차량, 그리고 전국에서 출토된 여러 고대 차량의 복원 모

형이 진열되어 있다.

이 박물관은 임치 주변에서 벌어진 전차전의 모습과 함께 중국 고차의 다양한 모습을 한 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제일의 고차 박물관이다. 또한 물산이 풍부하면서 교류가 활발하였던 산둥성의 경제적·군사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기도 하다.

제나라역사박물관

제나라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제나라 옛 황성 유적지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 건물은 진나라 시황제가 쌓았다고 전하는 만리장성보다 먼저 건립된 제나라 장성을 본 따 옛 성의 큰 성벽과 작은 성벽을 이은 모양으로 건립하였다.

내부는 선제(先齊)·서주(西周)·춘추(春秋)·전국(戰國)·진한(秦漢) 등 5개의 진열실과 2개의 특별 전시실로 이루어진다. 춘추전국시대의 패권을 다투었던 일곱 나라 가운데 하나인 제나라의 형성·발전·흥망을 보여 주는 300여 점의 유물과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특히 춘추 오패(五霸)의 한 사람이었던 제나라 환공(桓公, 재위 기원전 685~643), 환공을 도와 제나라를 크게 발전시켰던 관중(管仲, ?~기원전 645) 등의 활동상을 비롯하여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군사·민속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금은착양감동희존’은 넓은 평야에서 소를 잘 이용했던 제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순마갱

‘제경공순마갱(齊景公殉馬坑)’이라고 불리는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景公)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이다. 이 무덤은 『좌전(左傳)]의 노양공 25년 기록에 의하면 춘추시대에 활동하였던 ‘최씨’라는 성을 가진 공후의 묘라고 하기도 한다.

순마갱은 제나라의 수도였던 옛 성터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진 임치구 제도진 돈구 광경(沌狗 光憬)에 자리하고 있다. 치박시를 흐르는 치구하(淄區河)에 인접해 있는 20여 개의 묘 가운데 제5호분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갑(甲)’자형을 이루고 있는 5호분은 묘실(墓室)의 남북 길이 26m, 동서 너비 23m이며, 남쪽 묘도(墓道)는 길이 18m, 너비 12m로 제법 큰 규모이다. 말이 매장된 곳은 북쪽과 동쪽, 서쪽이다. 순마갱의 동쪽과 서쪽면의 길이는 각각 70m이고 북쪽 면의 길이는 75m이며 너비는 5m이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제5호분의 약 84m를 발굴하였을 때, 두 줄로 늘어서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채로 매장된 228필의 순장된 말이 발견되었다. 이 말들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로, 모두 6~7세 가량의 수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발굴된 면적과 그 안에서 나온 순마의 밀도를 고려하면, 이곳에는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순마갱은 현재 중국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대규모의 말 무덤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 8. 3.(일)

● 청일전쟁(갑오전쟁) 유적지 유공도를 가다

유공도(劉公島)

유공도는 산둥성 위해(威海)에 속한 섬으로, 산둥반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산둥반도 동쪽 해안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동서 길이가 4km로 1.5km의 남북 길이보다 길다. 해안선 길이가 14.95km인 유공도는 전체 면적의 87% 정도가 삼림으로 구성되었다. 1988년에 국가 주요 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세상 밖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자연 환경으로 1992년에는 중국 최초의 해상 삼림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유공도가 역사상 알려진 것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이다. 명나라 조정은 해안을 따라 상륙하여 갓은 약탈을 일삼던 왜적에 대비하기 위해서 1398년에 연태(烟台), 위해를 비롯한 산둥반도의 해안 여러 곳과 유공도에 요새를 세웠다. 유공도는 위해 항구의 입구에 위치하여 동쪽 연해를 지키는 중요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었기에 특히 중시되었다. 때문에 청나라 때 이르러서도 이홍장(李鴻章)은 북양함대(北洋艦隊)를 창설하여 위해에 군항(軍港)을 설치하고 유공도에는 훈련소를 두어 영국과 독일의 군사 전문가를 불러서 해군을 양성하였다. 당시 유공도는 '침몰하지 않는 전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지만, 구체적인 준비 없이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였기에, 해군의 훈련은 허술하였고 구입한 장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1894~1895년 청일전쟁(중일갑오전쟁) 때 유공도에서 치열한 해전이 벌어졌다. 북양함대를 이끌던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丁汝昌)은 사력을 다하여 일본군과 싸웠지만 참패하면서, 유공도는 위해와 함께 일본에 점령되었다. 1898년에 다시 영국이 유공도를 침공하여 점령하고 42년 동안 조차지로 지배하였다. 당시 영국인들은 이 섬에 학교를 비롯하여 교회, 찻집 등을 짓고 영국 해군의 여름 휴양지로 이용하였다.

현재 섬 안에는 북양함대 사령관 사무실을 개조하여 건립한 중일갑오전쟁박물관(中日甲午戰爭博物館)과 영국조차 당시의 문물과 풍경을 소개하는 영조위해위역사박물관(英租威海衛歷史博物館)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에서 전사한 북양함대 군사의 원혼을 달래며 오늘날 중국 해군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립한 북양해군 충혼비와 함께 중화해단(中華海壇)도 있고, 옛 포대인 기정산 포대(旗頂山砲臺) 등도 복원되어 있다. 이 밖에도 국가 삼림공원과 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다. 위해시 체육로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약 20분 정도 바다를 건너면 유공도에 닿는다.

중국 석도발 인천행 화동훼리에 몸을 싣다

점심으로 백반 정식을 맛있게 먹고 석도항으로 이동하여 출국 수속을 밟고 화동훼리에 몸을 실었다. 그동안 정이든 7조 여덟 선생님과 갑판 위에 자리를 잡고,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중국과 교육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2014. 8. 4.(월)

● 인천항 도착

화동훼리가 인천항에 도착하고, 하선과 입국 수속을 마치니 오전 11시가 넘었다. 화동훼리 룸메이트들과 어시장 옆 식당으로 이동하여 전복국수를 맛있게 먹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대전으로 돌렸다.

수업시간 활용 상황

수집된 장보고 및 중국관련 자료와 촬영된 사진을 선별하여 수업(기술가정, 중국어) 및 동아리 활동(문화유산 탐구반) 시간에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3 기술가정 시간에는 장보고의 업적을 바탕으로 21세기 전 세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양 자원의 중요성 및 해양 관련 직업을 통한 진로 탐색에 활용하고, 중2 중국어 및 동아리 활동 시간에는 중국의 현재와 과거에 관한 사진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중국 문화유산에 대한 현실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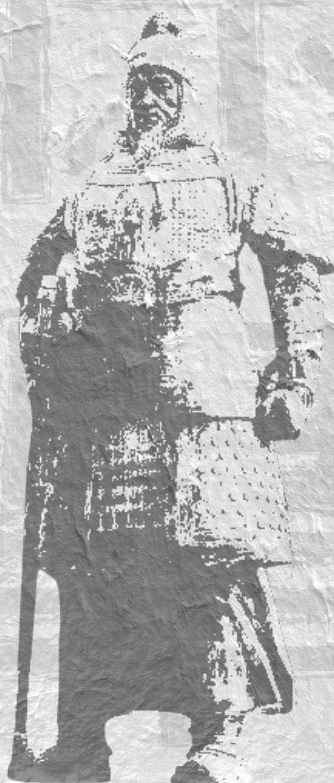
끝으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을 인솔하여 주시고, 작은 부분까지 배려해주신 한국해양재단 및 현대아산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3

영터리 선생의 뜻 깊은 여행담

고양한내초등학교 / 양정모(가작)



‘리밍, 워쓰 한꺀 라오스’

‘쩨터마?’

‘쓰터’

‘한꺀 라오스, 짜이 찌엔!’

‘리밍 짜이 찌엔!’

돌아오는 배편에서 몸이 찌부듯하여 아침 일찍 체조를 하던 내 옆에서 중국어로 말을 걸어와 알게 된 중국인 5학년 학생 리밍양. 한국으로 무용 공연을 하러 가는 리밍양이 어찌나 예쁘고, 말을 하는 도중에 살짝 살짝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귀엽던지 같은 선실의 선생님들에게까지 소개하였다. 하선을 준비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다행히 세관을 통과하고 다시 만나 내가 한국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놀라는 리밍과 그냥 작별하기에 참 섭섭하였지만, 몸 상태가 좋은 얇은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내 생각에 아쉬움을 뒤로 하였다.



‘으어억.’

해상왕 장보고 답사 내내 건강했고 마지막 돌아오는 배편에서도 무사했건만, 5박 6일의 여정 마지막에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귀가행 버스를 타고 인천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던 버스 속에서 어제 선실에서의 일행과 석별의 과음으로 뱃속의 불편한 것을 끝내 차창 밖으로 뱉어내고 말았던,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여행이었다.

원래 중국 길림성(吉林省)과 고양시의 교사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어수선한 시국 때문에 취소되어서 한국해양재단에서 추진하는 장보고 유적지 답사 공문을 보고 땡 대신 답이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였는데, 운 좋게 참여하라는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과연 어떤 여행이 될지 은근히 기대와 흥미가 진진하였다. 더구나 비행기가 아닌 국제선 배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 같다는 기대가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스멀스멀 부풀어 올랐다.

7월 30일 드디어 인천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해서 주최 측에서 나눠준 여행 소지품을 지급 받고 찬찬히 이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니 큰 여행 가방을 한두 개씩 준비한 남녀 보따리상들, 한국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주로 많았다. 최근 韓中間 정치적·문화적 교류가 급증하고 남북통일 시대에 중국의 역할이 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리기에 이 번 여행에서 장보고 유적지를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중간 국가간·민간 교류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떤 역할을 해서 미래 우리 사회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내 나름대로 재어보고 이를 학교 교육현장에서 반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교류 여행 모습은 내게는 유심히 살펴보게 하는 생생한 민간 교류의 장면이었다.

‘칭윈, 씨셔우지엔 자이나알?’

자신감 없는 말투로 처음 보는 중국 사람에게 엉터리 중국어로 화장실을 물어보는 내게, 어라? 그 중국인은 바로 알아듣고 내게 손짓으로 알려주었다. 이는 내게 서툴던 중국어를 본토 여정에서도 스스럼없이 내던지는 대담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같은 답사 여정의 선생님들에게 간혹 한 마디씩 설명도 해주곤 하였지만, 사실 내 중국어 실력은 초급 중국어 교본을 독학으로 조금 공부한 수준일 뿐이다. 아무튼 약 2만 톤급 ‘화동훼리호’에 승선한 나는 4인실에 들어가서 참 좋은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함께 재미있는 여행을 할 마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고, 제공되는 선식도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기분 좋은 여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후 7시경에 출발한 화동훼리호는 예상과 달리 참 안전한 배였고,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유유히 항해하여 모두 만족한 표정이었다.

15시간 후인 다음날 아침 석도항에 예상 도착 시간인 오전 10시경, 바다에 자욱한 해무로 지체된다는 소식에 모두 조금은 실망감을 가졌다. 하지만 사실 추억이 있는 여행을 중시하는 내게는 그리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다. 항상 여행은 변수가 있게 마련이고 상수만 있다면 나중에 그 여행을 반추해 볼 때, 혼자 미소 지을 일이 적기 때문이다.

오후 2시경에 석도항에 도착한 우리 답사팀 일행은 3개의 버스에 분승하였는데, 나는 안내하시는 분의 착오인지 내 착오인지 모르지만 1호차에 탑승해서 한국해양재단 이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잘못 탑승한 것을 깨닫고 부리나케 2호차로 옮겨 타는 실수를 범했



다. 이로 인한 좌석 때문에 다음날까지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여행하면서 생기는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맨 앞좌석의 해양 대학의 海軍 提督 교수님의 유쾌한 해설은 모두를 즐겁게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첫 답사지는 일정 지체로 인하여 위해가 아닌 석도 적산법화원이었다. 법화원 가는 길에 산위 정상 부근에 높이 명신(明神)상이 참인상 깊었는데 장보고 대사가 지은 법화원 사찰, 장보고 대사의 전 시관 및 공적비를 보고 난 후 석도항의 명신은 당시의 동아시아 해양을 지배하고 국가 간 교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장보고 대사로 추정되었다. 위대한 인물을 신격화하기를 잘 하는 중국인들이 신라인 장보고 대사를 서해(황해)를 지키고 바닷길의 안전을 도모하는 신으로 숭배한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다음 날은 두 번째 답사지로 태산과 곡부로 예정되었다. 전날의 답사가 너무 늦어져 아침 식사 후 차 안에서 모두 꾸벅꾸벅 졸았지만 나는 어떤 일인지 정신이 또렷하고 졸리지 않아서 중국 산둥지방의 자연 풍광을 차창 너머로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지대에 낮은 구릉지가 간혹 있을 뿐이고, 간혹 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산둥지방의 강수량이 낮아서 물이 부족해 논이 없고 밭이 대부분이라는 가이드의 말이 와 닿는 경치였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로수가 줄지어 있지만, 여러 겹으로 나무가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활엽수가 가로수이지만 중국은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많다는 점이 특이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골골이 동네가 있고, 항상 산을



등지고 앞에 작은 냇가라도 있으며 앞에 농지가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을 형성이 달랐다. 중국은 마을이 산 밑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농사짓기에 편한 평지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평야가 광활하여 농사 위주로 마을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는 태산을 어서 오르고자 하는 마음에 아랑곳 하지 않아서 조바심을 내기도 하였다.

수 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다가 도착한 태산은 과연 그 이름답게 웅장한 모를 기를 느낄 수 있었다. 6인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일행들과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으니 어느새 태산 중턱에 이르러 내려서 그 곳부터 도보로 태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가이드의 안내대로 태산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주위를 돌아보니 안개가 자욱하여 멀리 보이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러웠지만 중간 저점에 중국의 도교 사찰 등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황제의 글씨 등이 있었다. 태산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니라 황제가 자금성에서 출발해서 공자의 위패가 모셔진 곡부를 가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제를 지내서 태산이라고 칭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태산의 정상에 오르니 옥황상제집이라는 작은 표지석을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다. 또 옥황상제 사당 앞 표지석에는 태산극정(泰山極頂)이 쓰여 있었고 주위에는 수많은 자물쇠들이 매달려 있었다. 아마도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 하늘에 맹세하는 사랑의 표식을 남겨놓은 청춘남녀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리라 여겨졌다. 인간이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



불타올랐을 때 영원히 함께 하기를 염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서로 달리하기를 염원하는 것은 그 얼마나 우습고 추한 일인가. 저렇듯 하늘 아래 제일 높은 곳에 올라 하늘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마음이 지속한다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으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태산을 뒤로 하고 중국 현지 식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산동지역의 점심 식사는 우리나라 음식처럼 어느 정도 담백한 맛이 있어서 식사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다. 그리고 여행 내내 한결같이 주최 측에서 음식상에 김치를 내놓게 하여 현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들까지 배려한 점은 주최 측인 한국해양재단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점심 식사 후 이번 여정의 중요한 답사지인 곡부(曲阜)로 향했다. 곡부(曲阜)는 노나라의 한 지역이고 공자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곡부(曲阜)라는 지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음악(Music)의 언덕’을 뜻하는 것이다. 공자께서 그 옛날 군자는 음악을 알아야 한다. 음악을 모르면 군자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곡부에 도착했다.

곡부의 첫 번째 답사지는 공묘(孔墓)이다. 공묘(孔墓)는 후대에 공자님의 사당을 만들어놓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공묘 입구에서 부터 많은 관광객 무리들이 저마다의 가이드를 뒤따르면서 설명을 듣는 모습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답사팀 앞서 가는 중국 가이드의 목소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찌렁찌렁하여 모두에게 웃음을 주었다. 우리 답사팀원 한 명인 정 선생님은 그 중국 가이드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지만, 나는 우리 가이드를 따라 가다가 어느 덧 그 중국 가이드에게 호감을 느껴 초급 영어로 그 가이드를 칭찬하고 같이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였는데 가이드 할 때와 달리 몹시 수줍어하여 또 웃음이 나왔다.

그 찌렁찌렁한 목소리의 중국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대강 들은 것은 바로 우리가 걷는 이 가운데 돌이 놓인 길이 황제가 걷는 길이라는 것이며, 그 양 옆의 돌이 놓인 길이 관리가 걷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감히 황제의 길을 함부로 마구 걷는 것에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가다보니 어느덧 대성전(大成殿) 앞에 다다랐는데,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대성전 모습이 북경의 자금성과 너무나 흡사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황금색 기와지붕 모습과 그 기둥에 새겨진 용문양의 화려함은 자금성의 그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대성전(大成殿)이라는 명칭은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는 대웅전(大雄殿)에 대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크게 깨우친 큰 사나이란 뜻으로 대웅이라 했는데, 공자님은 크게 인간의 도를 이룬 사람이란 뜻에서 대성전이라 했으리라 짐작해본다. 또한 공자님께서는 중국인들에게 정신적인 면에서는 황제이며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듯 자금성 못지않게 건축했으리라고 짐작해본다.

공묘를 다 보고 공자님의 후손이 살던 공부(孔府)로 향했다. 공부(孔府)에 가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백포괴(五柏抱槐) 나무였다. 다섯 가지를 가진 측백나무가 한 그루의 회화나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불가사의한 모습이였다. 어느 식





물학자에게 “식물들의 세계도 인간 세상 못지않게 적자생존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수령이 500년이라고 하는 다른 종의 두 나무가 서로 몸과 뿌리를 맞대고 그 수백 년을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으로 인간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우리네 사람도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다투고 살고 있는가? 가족끼리 다투고 친구끼리 다투고 직원끼리 다투고, 명예를 위해 다투고, 금전을 위해 다투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다투지 않는가? 공부의 뒤뜰에 살아가고 있는 오백포괴(五柏抱槐) 나무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웃을 살피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 나는 세상을 영터리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제자들 마음을 잘 살피서 교육하지 못하고 학교 선생으로서 교육한답시고 영터리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아마도 공자님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저 오백포괴(五柏抱槐)를 통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가족끼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공부를 벗어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공림(孔林)이었다. 그러나 불과 수분 차이로 공림에 들어가는 입장권 구입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공림(孔林)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버스를 타고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하였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는 곡부(曲阜) 지방에서

그 옛날 노(魯)나라의 공자님께서 드시던 음식을 재현한 것이 테이블에 놓여있었다. 상당히 화려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 옛날 노(魯)나라 시대에 지극히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처한 공자님께서 드신 음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조금 미심쩍기도 했고, 특히 음식 중에서 논어(論語) 책이 올라온 점에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의 창시자인 공자님의 고향을 답사하여 중요한 유적들을 보고 느낀 터라 음식은 입에 더욱 잘 맞았다.

다음 날은 아침 식사를 한 후 치박(緇博)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를 몇 시간 달려서 고차박물관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애초에 고차박물관이라고 해서 중국은 차가 유명하니 아주 옛날 차에 관한 유물들을 발굴하고 수집해서 다양한 차(茶)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고차박물관은 말과 마차에 관한 박물관이어서 혼자 고소를 금치 못했다. 고차박물관은 겉으로 보기에 수수한 외관과 달리 고대 다양한 마차와 중국대륙의 전쟁터에서 활약한 전투용 말과 전차가 발굴된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 답사를 이끄는 가이드는 그 옛날 전쟁하던 말 탄 군인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묻힌 유적지라고 하였다. 이 유적은 중국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발굴한 유적지로써 軍馬를 발굴한 바로 그 곳에 박물관을 만들어 전시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의 전차와 인골이 진품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전쟁의 무서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편으로는 春秋戰國時代의 중국에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이러한 전쟁터에



서 가까운 청춘을 던졌을까? 오늘날 하나의 중국은 이러한 수많은 전쟁과 전투의 결과물일까? 하는 생각에 잠시 머물렀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齊)나라 歷史博物館이었다. 제나라역사 박물관에서는 참 반가운 유물과 인물을 만났다. 제나라역사박물관에서 만난 유물 중에서 편경과 편종이라는 악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세종시대 악기와 매우 흡사하여 우리 악기가 중국 제나라 편경과 편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편으로는 몹시 반가운 인물을 만났으니 바로 강태공(姜太公)이다. 姜太公을 만나서 얼른 악수까지 하고 기념촬영을 하였지만, 곧 실망하게 되었으니 강태공은 은(殷)나라 말기의 인물로서 주나라(周)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주나라 왕조를 세운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는 것을 조각 아래 설명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옛날 삼황오제(三皇五帝) 이후 河나라가 있었고 殷나라는 우리나라 종족인 한민족(韓民族)이 세운 국가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 은나라를 멸망시킨 인물이 강태공이라는 것을 이 박물관에서 알게 되니 반갑고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싸~하고 식어버렸다. 강태공이 은나라 말기의 인물이었다면, 그 또한 우리 한민족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한족(漢族)인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도와서 백의민족을 대륙에서 쫓아내다니 참으로 실망되는 역사적 사실 앞에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어진 답사지인 순마갱에서 제후와 함께 순장된 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말들은 수십 마리의 말들이 유리관으로 보호된 속



에 있었는데 모두 일렬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말들을 순장시킬 때 술을 먹여서 순장시켰다고 한다. 이후 몇 시간에 걸친 버스 여행을 하면서 우리 일행들은 이번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여행하면서 평생 버스 여행할 것을 이번 답사에 다 했다고 말하면서 웃기도 하였다. 드디어 답사에 지친 몸을 이끌고 위해시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해양재단(韓國海洋財團) 주최 측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즐겁게 먹고 여러모로 세세하게 신경 써준 것에 흡족하였으며, 하루를 넉넉하게 마무리하였다.

답사 마지막 날 아침 식사 후 유공도(劉公島)를 보기 위해 한참이나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날은 토요일이라 劉公島로 가는 유람선을 타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이드는 이제 살만한 중국인들이 근래에는 내륙 여행을 많이 다니다보니 유공도 같이 바다에 있는 관광지는 몹시 붐빈다고 하였다. 요란한 중국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유공도에 도착한 우리를 반기는 것은 청일전쟁의 유물들이었다. 당시 청나라 함대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적 유물과 역사적 사실들을 전시한 유공도는 섬 전체가 유적지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유공도 갑오전쟁전시관의 건축물이었다. 이 전시관의 상부는 당시 갑오년 청일전쟁 해전에서 패배한 함장이 바다를 망원경으로 살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니 중국인들이 다시는 외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는 것만 같았다.

점심 식사를 한 후 우리 답사 일행은 버스로 석도항으로 이동하였다. 일행 모두는 답사 여행 내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고 이끌어준 韓國海洋財團 주최 측 인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한국





행 국제선 배편인 화동훼리호를 탈 수 있었다. 돌아오는 화동훼리호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선상의 맨 위로 올라가니 중국의 할머니들 대여섯 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유쾌하였고 팔다리로 온갖 포즈를 다 취하면서 웃고 떠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중국에서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남녀평등의 세상을 살아가고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가이드 말이 생각났다. 이렇듯 아무 거리낌 없는 포즈를 취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은 한국 여성이라면 생각도 못할 정경이었다.

서서히 大韓民國의 섬들이 보였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역시 우리나라 山河가 제일 정겹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 한중간의 이러한 평화로운 바다 여행길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한중간, 한일간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그 바다를 개발하며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바다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나라의 힘을 더 길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기니 어느새 화동훼리호는 인천항에 들어섬을 알리는 뱃고동을 길게 울리고 있었다.

14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보고서

광양고등학교 / 전보현(가작)



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주요 일정	비 고
제1일	인천	인천항 출발	
제2일	석도-위해-위공도-치박	유공도/청일갑오전쟁박물관	
제3일	치박-태안-곡부-치박	태산 등정, 곡부 (공묘, 공부, 공림)	
제4일	치박-석도	제나라박물관, 순마갱, 고차박물관	
제5일	석도	적산법화원, 장보고기념관	
제6일	인천	인천항 도착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보고서

● 제1일차

방학과 동시에 1박 2일 청소년 적십자 캠프를 마치고, 인천항을 향하는 발걸음은 몸은 좀 피곤하였지만 마음만은 한결 편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대중교통으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중압감이 작용해서 일까? 아무튼 무사히 다녀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인천항에 도착했다. 2014년 해상왕 장

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공문을 받고,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도 1학기 동안에 받은 업무 스트레스와 무거웠던 짐을 이번 기회에 내려놓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했다.

전날 많은 비가 내려 선박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떨미가 날까 조금 걱정은 했지만 배를 보니, 안심이 되었다. 인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마음속에는 속 시원하다는 느낌과 바람은 무척 상쾌했다. 저녁 6시쯤 출항하여 점점 인천을 떠날 때, 인천대교를 보기 위해 나는 빠른 식사를 하고 선상 밖으로 나가 인천대교의 사진을 찍기 위해 열심히 몰두하고 있을 때쯤 전화 한 통이 왔다. 모두 모여서 선박 안에서 화동훼리 승조원이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고 참석해 달라는 전화였다. 이후 선상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흔들리는 선박 안에서 세미나가 진행된다니 이 또한 새로운 느낌이지만 음향 시설이 좋지 못해 잘 알아듣기는 힘들었다. 선박 안의 숙소는 생각보다 안락했지만, 선미 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숙소는 조금 불편해 보였다. 숙소 선생님들과 학교 이야기, 답사 이야기를 나누다 피곤한 몸을 누이고 편안한 잠을 청했다.

● 제2일차

중국 산둥반도 석도항에 도착하였다. 입항 시간 8시 30분. 간단하게 입국 수속을 마치고 중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멀게만 느껴졌다. 이동을 해야 하지만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 석도항 주변에서 맴맴 돌고 있었다. 10시쯤 드디어 버스가 도착해 이동할



수 있었으며, 그 막간을 이용하여 1기 8조는 모여서 간단한 자기소개회를 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위해 유공도로 들어갔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교수님께서 위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 때 위해가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유공도는 북양함대의 중요 해군기지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청일전쟁은 1894년 조선에서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청나라와 일본이 군대를 파병하는 과정에서 발발했으며, 그 때의 패배를 후대에 기억하도록 갑오전쟁박물관을 만들어 교육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뼈아픈 과거를 후대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을 많이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유공도 입구에 있는 광고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곳곳에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철자가 틀린 곳이 너무 많아 보는 이가 민망할 정도였다.

위해 유공도를 빠져나와 치박으로 이동하는데, 비가 많이 내려 교통 상황이 좋지 못했고,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석식을 하고 버스로 계속 이동을 했지만 새벽 12시쯤 숙소에 도착했던 것 같다. 씻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제3일차

치박 숙소에서 태안으로 이동을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다. 태안



으로 가면서 일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케이블카를 과연 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태안으로 이동하면서 버스 안에서 볼 때까지만 해도 일기가 좋아 무난히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태풍이 올라오고 강풍이 불어 케이블카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쉬운 마음에 태산 중간까지 걸어서 오르기로 했고, 이 또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천천히 걸어 오르면서 보는 풍경 또한 일품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 정산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걸어 오르면서 느끼는 태산은 또 다른 경험을 나에게 선사해 주었다.

아쉽게도 태산을 오르지 못하고 하산하여 점심을 먹고, 곡부로 이동하였다. 곡부는 노나라의 도움으로 공자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곡부에서는 공묘, 공부, 공림을 견학하였는데, 안내를 해주시는 교수님이나 가이드님께서는 곡부가 덩기로 유명하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시원해서 돌아다니기는 수월했던 것 같다. 공자의 사당인 공묘는 중국 3대 건축물의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공부는 공묘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 겸 그 당시 관공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역대 왕조의 보호 속에서 관직을 받았던 공자의 자손이 거주했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만, 현재는 공자의 자손이 대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관광지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림은 곡부시 북부 일대에 위치한 공자와 그 일족의 묘소로 노목이 펼쳐진 묘역으로 자손들의 묘비가 숲처럼 산재해 있다. 단일가문의 묘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원림이다. 곡부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하였고, 식당에서는 참신기한 것이 있어서 몇 장 찍어 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치박으로 이동했고, 하루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제4일차

치박에서 오전 일정을 시작했다. 우선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대규모의 순장 마차들이 있는 흙으로 된 봉분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곳은 중국 최고의 차마유적으로 임치구 제릉진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면서 장식이 화려하여 중국 최고로 손꼽힌다.

그리고 이어 제나라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제나라 시대의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5개 진열실과 2개의 특별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독 눈에 띈 것이 축구의 기원이 된다고 피파(FIFA)에서 인정을 해준 인증서가 눈에 들어 왔다.

마지막 오전 코스로 순마갱을 견학했다.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로, 당시 강한 군사력을 지닌 왕권 국가였던 제나라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곳이었다. 치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버스로 무려 7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고 석도로 다시 이동했



다. 휴게소를 한 번 둘러 중국 휴게소 문화를 보았으며, 우리나라처럼 휴게소가 잘 꾸며진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 제5일

중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석도, 적산법화원을 위해 오전에 출발하였다.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의 하이라이트. 모든 일정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자긍심과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게 해준 계기가 된 곳이다.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사원으로 정해진 일정으로 다 둘러 볼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기회가 다시 된다면 꼭~! 하루를 이곳에서 보내고 싶어진 곳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적산명신상을 뒷모습만 보았으며, 둘째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본 곳이 없어 사진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적산법화원은 석도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적산(赤山)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장보고기념탑과 장보고기념관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적산법화원 대웅보전(大雄寶殿) 오른쪽에 ‘칭해진대사 장보고공적비’가 있다. 장보고기념탑에서 장보고에 대해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단체사진을 위해 이곳에서 사진 1장을 남겼다. 그리고 11시에 관음상에 맞춰 음악 분수 쇼를 보았으며, 아쉽게도 일정상 많은 곳을 둘러보지 못하였다.

답사 단원으로 선발되어 3박 5일 동안 중국 장보고 역사 답사를 하면서 1,200년 전 동북아 해상을 지배하였고, 무역을 통하여 나





라의 부국을 이루려 한 장보고 대사의 큰 뜻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왕복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한 시간과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비슷하여 조금 아쉽기는 하였지만, 항공기보다 선박을 이용하여 답사 단원끼리 충분히 대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 다시 한 번 2014년 해상왕 장보고 역사 답사 단원으로 선발되어 무사히 일정을 소화하고 2학기 일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사명감이 생긴 것 같아 2학기가 기다려진다. 일정을 준비해 주신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분들과 답사동안 고생하신 현대아산 직원 분들께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18일

15

역사의 현장을
다녀와서

부산 금정초등학교 / 박명자(가작)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안고 답사 길에 올랐다. 중국으로 출발하는 배가 떠나는 항구가 인천항인지라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가려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다. 인천항 국제터미널에 도착하여 여행에 필요한 명찰, 안내서 등을 받아드니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부산에서 같이 올라간 선생님이 계셔서 인천까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다. 또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광주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멀미약까지 챙겨주셔서 연수의 시작이 기분 좋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가 타고 갈 화동훼리호는 길이가 17,450m, 폭 2,680m의 여객선으로 탑승 인원은 1,000명이다. 인천항에서 석도항까지의 거리는 400km(220마일)로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와 비슷하다. 최고 22노트의 속도로 14시간 동안 운항하는 거리이다. 우리는 4인실에 배정 받았는데 선실을 처음 보았을 때 약간 지저분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했으며 화장실도 많이 낡았다. 하지만 우리 방의 세 분 선생님들이 모두 소탈하신 분들이라 선실의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멀미도 걱정되고 세월호 사고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 모든 근심은 저녁을 먹기 전의 해상 훈련으로 모두 없어졌다. 사무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은 승무원의 수가 많고 모두 훈련되어 있으며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 달아나지 않고 배에 있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안전 훈련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서 사고의 염려는 없어졌다.

저녁 식사는 중국식이었는데 정말 먹기가 거북하였다. 이상한 소

스에 음식을 비벼 놓고 먹으라고 하니 먹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 특유의 향은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저녁을 먹고 선실로 돌아와서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모두가 초등학교 교사인지라 이야기가 잘 통하고 재미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또 아침을 먹으라고 한다. 어제 저녁의 음식보다는 나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어제 저녁과 비슷하여 거의 먹지를 못하였다.

드디어 중국 땅, 석도항에 도착……. 한자가 많이 쓰여 있는 입국장에서 절차를 거쳐 버스에 탔다. 나는 2호 차였으며 가이드와의 인사를 거쳐 위해로 이동하였다.

위해는 세계 100대 깨끗한 도시에 선정될 만큼 도시가 정돈되고 거리가 깨끗하였다. 산둥성 동북쪽 끝에 자리한 항구도시로서 원래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으나 명나라 태조 때인 1398년에 일본 해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정책에 따라 군사 기지인 위소를 설치하면서 ‘위해’라고 불렀다고 한다. 중국은 약간은 지저분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없애준 도시였다. 위해 도시를 본 후 점심을 먹었다. 선상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모두들 허기가 져 있었는데 한국식 식당을 안내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하루 만에 정말 입에 딱 맞는 음식을 먹었다. 정말 우리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을 속일 수가 없었다. 든든하게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점심 식사 후 유공도로 이동하였다. 유공도는 산둥 반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청일전쟁 때 치열한 해전이 벌어진 곳이었다. 북양함대를 이끌던 정여창은 사력을 다하여 일본군





과 싸웠지만 참패하면서, 유공도는 위해와 함께 일본에 점령당하였다. 1898년에 다시 영국이 유공도를 침공하여 점령하고서 42년 동안 조차지로 지배하였다. 당시 영국인들은 이 섬에 학교를 비롯하여 교회, 찻집 등을 짓고 영국 해군의 휴양지로 이용하였다. 청일갑오전쟁박물관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 전쟁을 갑오전쟁이라 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1984년이였다. 청일전쟁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고수하려는 청나라,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일본, 두 나라간의 군사적 충돌이였다. 그런데 그 군사적 대결의 시발점은 중국이나 일본 땅이 아닌 한반도 일대였다. 조선은 두 나라의 전쟁 사이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일본은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고, 사회적 혼란과 수탈에 신음하던 조선 백성을 전쟁 후방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진압하였다. 유공도의 박물관은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 중국의 청일갑오전쟁기념관이 모두 일본과 관계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동북아에서 공공의 적이였다고 할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도 일본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시기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우리는 독도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중이다. 일본은 지금도 국수주의 경향을 띠는 정치인들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는 냉랭하다. 세 나라의 협력 하에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을 꾀할 수 있는 방

안이 시급하다 하겠다.

유공도를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의 식당에서 김치찌개가 나와서 한국에서 식사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한 후 치박으로 이동하였는데 거리가 정말 멀었다. 버스를 한없이 타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 선상의 침실에 비하면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 너무 늦게 호텔에 도착하여 이 쾌적함을 많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다음 날(3일차) 조식은 호텔 식사라 깨끗하고 맛있는 것이 제법 있었다. 중국 음식 특유의 향이 나는 음식이 있긴 했지만 뷔페식이라 선택권이 나에게 있으니 안 먹으면 되는 것이라 조금 나았다. 생각건대 선상에서의 식사도 뷔페식이면 버려지는 음식이 많이 없을 것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더 먹을 수 있으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배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호텔에서의 조식은 아주 마음에 들었다. 많이 먹고 싶었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고 중국의 화장실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적당히 먹고 방으로 와서 짐을 챙겼다.

오늘은 태산 등반과 공자 마을을 가는 날이다. 태산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본 산이다. ‘티끌 모아 태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흠라.’ 그 산이 중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실제 존재하는 산인지, 그냥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속담과 시조를 외우고 읽곤 하였는데 그 태산을 등반한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설레고 기대되었다. 태산은 해발 1,545m의 중국 명산으로 산둥성에서 가장 높





은 산이다. 제남과 태안 등 4개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악(五岳)의 하나이다. 중국 사람들은 전국시대 이후에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5곳의 산을 ‘오악’이라고 불었다. 태산은 동악(東岳)으로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고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그것은 태산이 위치하고 있는 황하 하류에서 중국의 문명이 처음 열렸고, 그 뒤 많은 나라가 건국되어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땅에 알리는 봉선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명산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기뻐다. 중턱까지는 차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케이블카로 등산을 한다고 한다. 산 중턱까지 가는 길도 포장도로인데도 차가 많이 덜컹거렸다. 중국에 와서 느낀 점은 운전자들이 막무가내로 운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탄 셔틀버스도 수시로 급정거하고 덜컹하면서 사람을 놀라게 할 때가 많았다. 우리 차를 운전하는 기사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급하게 끼어들고 신호를 무시하는 차들 때문인 것 같았다.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선생님들과 사진을 많이 찍었다. 오늘은 조금 밝은 색의 옷을 입어서 사진이 화사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신나게 찍었다.

드디어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을 올라갔다. 그 절경이 정말 장관이었다. 케이블카가 산을 올라가면서 조금은 무서웠지만 태산의 위용에 무서움도 달아나 버렸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면서 주위의 풍광들을 감상하였다. 오래된 사찰이 많았고 암석이 많았으며 암석마다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중국 태산은 중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며 태산을 한 번 오르면 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

며 하늘을 뚫고 싶은 많은 황제들이 태산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태산의 웅장한 기운을 듬뿍 받고 재빨리 하산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곡부는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빨리 차를 타고 곡부로 향하였다. 우리가 수업 시간이든 일상생활에서든 공자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인용을 한다든지 예의, 공경 등을 배운다고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사람이며 충, 효가 나오면 또 이분의 이름이 떠오른다. 공자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된 유가사상, 즉 유학은 종교라기보다는 위계적인 관계를 정의한 규율에 가까운 것으로 중국의 전통문화 및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에 유학이 전해진 후 왕도정치 사상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정립되었으며, 특히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발전한 성리학은 완전한 통치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기대를 안고 공자 마을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곡부 도시를 소개하자면 중국 산둥성 제녕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노나라의 도읍지였으며 공자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현성내의 중앙에는 공묘(孔廟)가 있어 중국 전역에 남아 있는 수많은 공자묘를 대표한다. 북쪽 1km 지점에는 공자의 무덤인 공림(孔林)이 있다. 또한 공자의 옛집 유적지인 공부(孔府)에는 대규모의 문묘가 세워져있어 예로부터 중국 예교(禮教)의 중심지로서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의 근대화 이후 공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는 쇠퇴하였고, 특히 반공자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문화혁명시기에는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전통문화가 재조명되면서 1986년에 시(市)로 승격되었다. 공묘, 공부, 공림 모두다 입장권 한 장으로 가능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세 곳 모두 들어갈 때 공항을 통과하는 것처럼 소지품과 몸을 검사한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공자를 기리는 공묘에 많은 중국의 황제들이 즉위한 후 다녀갔으며 100명의 황제가 제례를 위해 196명의 대리인을 파견한 것을 보면 공자의 위상을 알 것 같았다. 공자의 무덤의 비석은 윗부분이 깨져 있는 것을 수리한 것을 보니 공자님도 수난을 당하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자님의 충효사상, 인의사상은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사상인데 문화대혁명기에 공자를 폄훼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공씨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은 손질이 되어 있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였다. 누군가 나서서 손질을 해주고 단장을 하면 더 좋으련만……. 무덤의 주인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씁쓸하였다. 공자님으로 인하여 이마을은 관광 수입이 많을 터이니 공자님은 돌아가셔서도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다.

무사히 공자 마을의 견학을 마치고 여유 있게 버스에 올랐다. 태산에서 공자 마을의 입장 시간이 늦을까봐 많이 서두른 보람이 있었다.

넷째 날은 제나라박물관, 순마갱, 고차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이 유적지가 있는 도시가 치박이다. 치박은 산동성 중부에 자리한 연해개방도시로, 예부터 유리 생산이 많아 유리 세공이 활발한 도시이다. 시내의 동쪽에 있는 임치는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의 수

도였다. 동주 때의 유적으로 순마갱과 고차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을 만큼 역사가 길기도 하다. 제나라 시조인 강태공의 사당과 제나라의 옛 성벽이 남아있다.

순마갱을 둘러본 소감은 한 마디로 ‘가슴 아픔’이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군주의 무덤에 순장을 하다니……. 도대체 인간의 헛된 욕망이란 죽음 앞에서도 그치지 않는구나. 순마갱에는 228필의 순장된 말들이 발견되었다는데 모두 전쟁에 사용되었던 6~7세 가량의 수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현재 발굴된 면적과 그 안에서 나온 순마의 밀도를 고려하면, 이곳에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데 더 놀랐다. 대규모의 말 무덤……. 그것도 수명을 다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말을 억지로 죽여서 주인과 같이 순장시킨 것, 일렬로 나란히 누워 있는 말들의 명복을 조용히 빌어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존엄한 것이거늘. 죽어서 무슨 부귀와 영화를 보겠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인간이 어떤 생명체보다도 잔인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나라박물관은 제나라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제나라 옛 황성유적지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 건물은 진나라 시황제가 쌓은 만리장성보다 먼저 건립된 제나라 장성을 흉내 내어 건립하였다. 제나라는 고조선과도 관계를 맺었으며 진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고차박물관은 중국 최고의 치마유적으로 임치구 재릉진에 자리하고 있었다. 박물관은 춘추차마전시관과 중국고차박물관으로 나



누어 있었다. 춘추차마전시관에는 전쟁에 사용되었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는데,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면서 매우 화려하여 중국 최고로 뽑힌다고 한다. 중국고차진열관에는 ‘후이차 마궐’에서 출토된 여러 차량과 임치 지구에 출토된 고대 차량을 복원한 차량, 그리고 전국에서 출토된 여러 고대 차량의 복원 모형이 진열되어 있었다.

5일차 되는 날, 우리 연수의 하이라이트인 적산법화원을 견학하는 날이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에 세운 사찰로, 일본 천태종 제3대 좌주인 엔닌이 지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그 실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법화원은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사찰이었다. 적산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곳이자 장보고의 선단과 나당 간 왕래 사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기도 도량이었다. 우선 장보고와 적산법화원에 관한 강의를 듣고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날씨가 조금 덥기는 했지만 참을만하였다. 장보고 기념관 마당에 우뚝 선 장보고의 동상에서 위엄과 기개를 느낄 수 있었다. 신라에서 천민 출신으로 자라 당나라에 와서 무령소장의 지위에까지 오르고 당시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신라인들을 해적으로 보호해 준 그 리더십과 조국애 등은 본받을 만하고 생각한다. 적산명신의 거대한 동상을 보니 저절로 장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보고전기관에서 장보고가 꿈을 찾아 당나라로 가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었고 장보고가 당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던 주요 활약상을 알 수 있었다. 재당 신라인들을 결속하기 위해 적산법화원을 세웠는데 당시 이국 땅에서 마음 붙일 곳 없이 외로운 신라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의 안식을 얻었는지 충분히 짐작된다. 제4전시실에서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을 설치하고 활동한 것을 보니 장보고의 해상 통제 능력과 해양을 장악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깨달은 개척자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물 쇼 시작 시간을 맞추느라 열심히 뛰어 처음부터 볼 수 있었다. 하루에 세 번 쇼를 한다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꼭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념관에서 시간이 빠듯했지만 땀이 날 정도로 뛰어가서 시작부터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음악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려한 물들의 향연이 벌어졌다. 시간도 꽤 길었으며 음악과 그 광경에 흠뻑 빠져서 구경하였다. 물 쇼가 벌어지는 앞에서 향을 피워 올리며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비록 향을 피우고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우리 연수단이 답사를 마치고 무사히 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적산명신의 동상은 그야말로 거대하고 장엄하였다. 크기부터가 엄청나고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기운이 대단하였다. 적산명신의 발아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적산명신의 기운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적산법화원을 보고 쇼핑에 나섰다. 대형 마트는 아니고 지방의





중간 정도의 마트에서 쇼핑을 하였다. 사실 중국에 와서 지금까지 쓴 돈이라고는 적산법화원에서 절하고 시주함에 넣은 10위안이 전부 다였다.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를 환전해 왔으니 마음껏 써도 되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막상 마트에 들어가니 무슨 물건이 좋은지 혹시 속지는 않는지 걱정되어 살 수가 없었다. 어떤 선생님께서 좋다는 술을 샀는데 윈 플러스윈이라 하여 우리나라 돈 3,500원 정도에 술을 두 병 샀다. 한 병에 1,700원 정도이니 술의 질을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식당에서 먹어보니 중국 대추가 크고 맛도 괜찮아서 어머니도 드릴 껌 몇 봉지 샀다. 그렇게 한 보따리 사도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 되지 않았다.

쇼핑을 마치고 차를 타고 석도항으로 갔다.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

석도항에 도착하여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배에 올랐다. 갈 때와 같은 호실이었고 조원 선생님도 같았다. 그런데 갈 때는 배의 침실이 지저분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들어오니 너무 아늑하고 좋아보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 선생님도 그렇다고 하신다. 일단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다.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식, 한국으로 올 때는 한국식이라고 하더니 정말 반찬이 한국식, 입맛에 딱 맞았다. 아주 맛있게 밥을 먹고 가게에 들러 가족의 선물을 약간 샀다. 점원 아가씨가 한국말을 잘 하여 물어보았더니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 가게 입구에 들어서니 한국말로 인사하여 정감 있게 들렸다. 저녁을 먹고 선상에 나와 떠나는 석도항을 아쉬워하며 선생님들과 사진을 찍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었

다. 밤바다와 항구의 불빛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고 배를 타는 묘미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찬성을 한다면 중국 여행 갈 때 비행기도 좋지만 배도 한 번 정도는 타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비행기 여행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 냄새, 항구의 아름다움, 바다의 느낌을 알게 해주고 싶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배 멀미도 하지 않았고 아침밥도 잘 먹었다. 인천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밟으니 우선 우리나라 말로 하니 속이 시원하고 반가웠다. 석도항에 비해 인천항이 더 넓고 깨끗하였다.

5박 6일 동안 함께 지냈던 선생님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부산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5박 6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으며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분들과 가이드님들의 배려로 전혀 불편함 없이 연수를 마칠 수 있었으며 교수님들의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연수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역사, 해양의 중요성, 장보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하여 학생들과 진지하게 이야기 해보고 싶다. 또한 우리 학교는 해양 학습실을 있어 때문에 장보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편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 드넓은 바다로 꿈을 펼쳐 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장보고의 웅대한 기상과 개척, 도전 정신을 알려주고 싶다.



알찬 연수, 행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한국해양재단, 교수님, 가이드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참고 문헌 -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2014). 한국해양재단

16

바다를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

서울 대방중학교 / 최명숙(가작)



‘명량’ 개봉 00일째 한국영화 최초로 1,500만 관객 돌파라는 소식이 연일 신문지상에 또는 인터넷상에 화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명량’ 영화에서 내가 받은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바다를 잃으면 나라도 잃습니다.”였다. 아마 장보고 답사를 갔다 온 후유증이 아닐까?

이번 장보고 답사 1팀에 운 좋게 뽑혔다. 6월 23일 퇴근 시간이 넘도록 일을 하던 중 공문을 열람하게 되었다. <장보고 대사의 해양 개척정신을 선양하고 해양 문화 탐방으로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자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을 모집 2014.06.2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라는 문서가 눈에 확 들어왔다. 좋은 기회다 싶었다. 개인 여행보다 교직원 단체 여행이 더 알차고 학구적이며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게 많다. 계획서에 따라 자기소개, 지원 동기,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열심히 썼다.

그리고 직접 서류를 가지고 해양재단을 찾아 갔다. 아뿔싸! 친절히 접수하는 직원 의자 옆에 서류봉투가 담긴 상자가 죽 나열되어 있지 않은가? 경쟁률이 10:1이 넘는다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다.

참석자 발표 날이 연기되었다. 공연히 마음을 졸였다. 열심히 썼고 경력도 남보다 많은 터라 될 것이라 어렵짐작 해 보지만 전에 옆에 있던 사회 선생님이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선부른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발표자 명단이 나왔다. 조심스럽게 확인하니 내 이름이 있는 거다. 공연히 마음이 들뜨며 안도의 숨이 나왔다.

7월 23일, 드디어 첫날

작은 짐을 고집하는 나에게 큰 트렁크에 넣어가라는 남편의 말에 이것저것 넣다보니 금세 가방이 불룩하다. ‘비가 오니 우산, 해가 쨍쨍할지 모르니 양산!’하며 챙겨 넣었다.

인천까지 바래다주겠다는 남편을 만류하고 지하철을 타고 동인천역에 내렸다. 시내버스를 탔는데 옆에 멋진 남자분이 앉았다. 행선지를 물었더니 나와 같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회향회 부회장이신 김명기 부회장이셨다.

인천여객터미널, 집합 장소엔 전국에서 모여든 선생님들로 북적였다. 명찰과 모자를 받아 들고 찰칵, 셀카 사진도 찍었다. 화동훼리호에 올랐다. 배정된 방으로 짐을 옮겼다. 4인 1조로 배정된 314호실. 서로 어디서 왔느냐고 인사를 나누었다.

제주도, 대구, 세종시 그리고 서울에서 온 나까지 팔도강산이다. 드디어 석도항으로 출발한다는 기적이 올랐다.

저녁 식사 후. 세월호 사건 이후 더 강화되었다는 안전 교육, 그리고 김창겸 교수님의 장보고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그리고 김



혁수 전 해군 제독님의 강의가 있었다. 특히 제독님 강의 중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며 어머니 같은 존재로 자원의 보고’라는 말씀과 ‘인류 역사는 바다의 역사’,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강대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은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하는 근원적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7월 24일, 둘째 날

이른 아침 갑판에 나왔다가 기이한 바다를 보았다. 온 바다에 파란 풀이 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라는 나에게 이것은 황하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 생긴 녹조현상이라고 했다. 몇 년 전 백두산을 갈 때는 해파리로 뒤덮인 바다를 목격했는데 지금은 녹조현상이라니! 정말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멀리 석도항이 보였다.

수속을 마친 후 투어를 하게 될 버스를 기다렸다. 잠시 각 조별로 모여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 5조에는 우리 호실 4명과 영월, 원주, 광주, 영주에서 오신 선생님이 모였다. 여자 5명과 남자 3명으로 구성된 우리 5조는 앞으로 계속 식사 및 조별 모임 등에서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다.

얼마 후 버스가 도착했다. 북경 올림픽 때 청도에서 조정 경기 선수용으로 썼던 리무진 버스라고. 작년까지 일반 버스였는데 이번 행



사에 처음 사용될 리무진 버스라고 했다.

버스는 산동반도 들판을 달렸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 채소 밭, 끝없는 지평선, 그리고 잘 다듬어진 일직선의 가로수들. 문득 문득 나타나는 건설 중인 고층 빌딩. 새삼 중국의 저력을 실감케 한다. 작년에 갔던 상해의 각양각색의 고층 빌딩과 마천루들. 상전벽해의 변화에 놀라움이 컸던 생각이 났다.

첫 방문지는 위해(威海웨이하이)의 ‘류궁다오’(劉公島)였다. 위에서 배를 타고 ‘류궁다오’로 이동하였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이 청일전쟁 발발 120주년이 되는 해라서 중국은 육해공군이 3개 해역에서 실탄 훈련을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중국은 북해함대는 청일전쟁 당시 중국이 참패했던 다렌, 뤼순 일대에서 훈련을 한다. 동해함대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중인 동중국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인근 해역, 남해함대는 베트남과 충돌 중인 남중국해에서 각각 실탄 훈련을 벌였다고 한다.


일본군은 1894년 11월, 다렌·뤼순을 점령하고 중국 군인과 민간인 2만여 명을 학살했다. 이후 일본군은 다렌 건너편의 청나라 북양함대 사령부(劉公島·류궁다오)를 궤멸시켜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중국 해군 400여 명은 25일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류궁다오에 위치한 ‘중국갑오전쟁박물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갑오국치(청일전쟁 패전)를 가슴에 새기고 강군(強軍)의 꿈을 실현하자”고 외쳤다.

- 2014년 7월 28일자 조선일보 발췌



웨이하이 시의 초청으로 한국 기자단 16명이 현지에서 성화 봉송행사를 취재했습니다.

‘류궁다오’에 있는 <중국갑오전쟁박물관>를 돌아보며 생긴 물음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치욕적인 패배를 왜 웨이하이 시는 한국 기자단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웨이하이 시의 의도는 최근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보여준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시진 핑 주석은 지난 7월 7일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노구교 사건> 77주년을 맞아 현장을 방문했는데 기념사에서 ‘일구’(日寇), 즉 ‘왜놈’이란 표현까지 쓰며 일본의 과거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일본 이름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첨예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갑오년에 일어났고 올해 2014년도 갑오년입니다. <청일전쟁> 120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는 과거의 치욕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연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류궁다오’를 오가는 배안에서까지 ‘류궁다오는 단순히 하나의 섬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라는 내용의 동영상 하루 종일 틀고 있습니다. 최근 ‘류궁다오’를 찾는 중국인들이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한 것도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웨이하이 시가 한국 기자단의 ‘류궁다오’ 행을 그렇게 고집한 것도 바로 이런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저는 중국의 치욕보다는 조선의 치욕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 넓은 박물관에 조선과 관련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청일전쟁>의 주된 전투 장소가 조선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시관 안에 사진이 걸린 인물은 고종, 김옥균, 전봉준 3명에 불과합니다. 고종을 ‘조선국왕 이희’라고 표현하며 ‘서구 열강의 침입과 국내 계급 모순의 격화로 동학항쟁을 유발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김옥균에 대해서는 이름도 표기하지 않고 ‘일본의 책동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고만 적어놓았습니다. 이 전시관에 드러난 조선은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동북공정’ 논란이 말해주듯 중국인들의 역사관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배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치욕적인 과거의 전철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국가 의식, 민족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중국은 왜 스스로 치부를 드러냈을까?
2014.08.21 SBS 권종오 기자 내용 발췌



‘류궁다오’의 갑오박물관을 나오며 나는 그들의 걸어를 읽어 보았다.

갑오전쟁에서 패전한 굴욕적인 역사는 ‘낙후되면 곧 당하게 된다.’
는 도리를 다시 입증하였다! 오늘 중국의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
토와 200만 평방킬로미터 해양 국토의 안전은 강대한 해양 방위력
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대비
한 해양 강철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닐까? 반문해
본다. 위해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멀리 무리지어 찾아오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보며 ‘류궁다오’의 어제와 오늘을 음미해보았다. 그리고
해양 강국을 구축하자는 그들의 암묵적인 모습을 보았다.

7월 25일, 셋째 날

오늘은 태산과 곡부의 공묘, 공부, 공림을 견학하는 날이다. 제10
호 태풍 ‘마트모(MATMO)’가 23일 밤 중국 푸저우 부근으로 상륙
하면서, 태풍이 머금고 있던 다량의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
에 유입될 것으로 뉴스가 나왔다.

중국에 와서 버스를 타면 비가 오고, 내리면 그치고 하여 별 무
리 없이 구경을 잘 하였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흐릿하고 안개가 낀 탓에 조금은 불안하다. 한국해양재단 관계자의
말로는 10번 와서 안 올라가본 적이 없다는 말에 약간 안심은 된다.



태안시에 가까이 오자 쾌청하고 맑은 하늘이 나타난다. 멀리 푸른 하늘 아래 태산이 보인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양사언 시조에 나오는 ‘태산이 높다하되~’의 태산이다.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산동성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제남과 태안 등 4개 지역 사이에 자리하고 중국 사람들은 전국시대 이후에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5곳의 산을 ‘오악’이라고 한다. 특히 태산이 자리한 황하 하류에 중국 문명이 열린 곳으로 진시황, 한 무제, 당 현종, 청의 건륭제 등 역대 황제들이 태평세계의 실현을 하늘의 뜻을 받들고 땅에 알리고자 신에게 보고하는 ‘봉선’ 의식이 거행된 곳이라고 한다. 이곳의 keyword는 <봉선>(封禪)이라고 했다.

작은 미니버스에 조별로 나누어 타고 태산 중턱에 올랐다. 아뿔싸! 태풍으로 인해 케이블카 운행이 안 된다고. 몇 번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태풍 바람으로 인해 운행 중단이라고 단호히 거절이다. 그래서 태산 산행으로 결정이 되었다. 정상 산행은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오른다.’였다.

쌀쌀한 날씨지만 오를수록 몸이 더워졌다. 중국인들은 산에 글씨를 새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정말 여기저기 멋진 글씨가 바위마다 빼곡하다. 자연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과 감회를 적어 놓아 후손들에게 읽을거리를 남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한 컷, 저기에서 한 컷, 사진을 찍다 보니 일행과 멀어진다. 최종 목적지에서 또 사진을 찍으며 태산 정상을 밟아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려왔다.



오후 곡부로 이동하여 공묘, 공부, 공림을 구경하였다. 노나라의
도읍지로 공자의 고향, 즉 유교의 발생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 사
람들은 노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어찌나 강한지 차의 번호판에 노
(魯)를 달고 다니는 것에 무척 자긍심을 갖는다고 한다. 길거리에는
노(魯)의 번호판을 단 차들이 주차장에 즐비하게 서 있었다. 우리나
라 현대 기아차도 눈에 들어왔다.

곡부는 성(城)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도시로서 중앙에 있는 공묘
(孔廟)는 공자를 기리는 사당으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공자(孔子, BC 551~479년)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대사상가요
성인으로 이름이 구(丘)이고 자(字)가 중니(仲尼)라 한다. 어려서부
터 언제나 제기(祭器)를 벌여 놓고 예(禮)를 갖추고 소꿉놀이를 하였
으며, 비록 공자 나이 3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젊은 홀어
머니 밑에서 엄격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공부(孔府)는 공자의 자손이 살았다는 저택 겸 관공소로 문화혁명
때 봉건주의의 상징으로 파괴된 이후 78대손 공덕성이 대만으로 이
주한 후 공부는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예전에는 황제가 즉위
한 뒤나 전쟁에 승리한 후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곳을 방문하
여 제례를 지냈다고 한다. 곳곳을 방문할 때마다 라이터 등의 소지
를 불허하는 몸수색이 대단하였다.

이곳의 향나무는 600년에서 1,000년을 지켜온 나무들로 그 위용
이 실로 장관이었다.



공자 묘비명은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인데, 성인인 공자의 삶을 단아한 황금색 8자로 요약해놓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예서체 묘비명이라 한다. 이 묘비명은 제단 앞에서 보면 하단의 끝 글자가 ‘干’으로 보이는데, 이는 황제들이 참배할 때 王’ 자로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묘 앞에 즐비하기 위해서 있는 화환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저녁은 공부(孔府) 사람들이 손님을 위한 접대음식이라는 공부가연인데 수박으로 조각한 논어 책 모양에 담긴 음식 그리고 옆에 섬세하게 조각한 붓 모양의 무 조각, 종이 책을 말아놓은 것 같은 전병, 복(福)자 모양의 양갱 등이 우리의 식욕을 돋우며 곡부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7월 26일,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제에 이어 오늘 목은 <치박만호대주점>은 5성급 호텔인데 아침 일찍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몇 쌍 눈에 띄었다. 고급 외제차에 들러리까지 그리고 벤츠 등 고급차를 탄 친척들의 행진. 호텔 앞 정문에 엄청난 폭죽을 터뜨리는 것으로 보아 돈 많은 중국인인 것 같았다. 15억 인구 중 1%만 갑부로 꼽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그들, 한국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을 싸쓸이 해 간다는 그들.

그들의 사진 한 장 찍고, “congratulations!”이라 했더니 붉은 망



토 속 신부가 손을 흔든다.

오늘은 고차박물관, 순마갱, 제나라박물관 관람하는 날, 치박에서 또 하루의 일정이다.

차를 타고 강태공이 낚시를 하였다는 호수를 건너 고차박물관에 도착했다.

고차박물관은 임치에서 제남간 고속도로 건설 중 발견된 마차를 전시한 곳이며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전시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차박물관은 수많은 말들이 순장된 것으로 보아 어느 왕의 무덤으로 추정될 뿐이다. 절대 왕권과 순장. 누구를 위한 순장인가? 지금 시대로 본다면 민초는 한낱 권력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람 후 연못에 있는 의자에 앉아 예전 부귀영화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을 그 누군가를 상상해 보았다.

그런데 아침에 호화로운 결혼으로 주변을 시끌벅적하던 고급차 행렬, 그리고 터뜨린 폭죽 무더기를 말없이 묵묵히 쓸어 담던 여자 청소부의 가녀린 팔목과 처연한 눈빛의 모습이 오버랩 되며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다시 부근에 있는 제나라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사진으로는 엄청나게 큰 성곽으로 둘러싸인 박물관 같았는데 규모가 큰 곳을 다니다 보니 생각 밖으로 작다는 느낌이 든다. 민가에 근접하여 박물관이 있었다. 순마갱도 박물관과 근접해있다. 박물관엔 당시의 각종



문화와 주거 형태(계획적인 도시로 배수 시설 등이 갖추어졌다 함), 축구의 기원, 음악, 각종 예술, 위인들의 흉상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자세히 보고 싶었다. 허나 짧은 시간에 주마간산 격으로 둘러보며 한 세대를 풍미한 제나라를 파악하는 것은 역사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상당히 버거웠다.

순마갱은 제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 매장된 말은 약 600여 필인데 발굴되어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하였다. 국력을 위해 말 1필도 귀한 시절 600여 필의 말을 순장한다는 것은 제나라의 국력과 위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식을 한 곳도 매우 근사한 곳이었다. 우리 5조 3분의 남자 선생님, 즉 원주에서 오신 교감 선생님과 곧 명예퇴직을 앞둔 영월 선생님, 그리고 부석사 부근에서 근무하신다는 선생님들의 구수한 입담을 들으며 며칠을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서서히 격이 없어지며 서로를 챙기는 것이 여간 정겨운 것이 아니다. 일찍 중식을 하고 부근을 배회하였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를 못해 보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첫째는 자기나라 음식을 다 먹어보지 못하고 둘째는 자기 나라를 다 구경하지 못하고 셋째는 자신의 나라 글씨를 다 배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한자는 8만 5천자가 넘는데 웬만한 학자라도 배우기 어렵다. 20세기 아큐정전의 작가 루쉰(魯迅)조차 ‘한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중국은 망한다.’라고 했다던가. 지금 쓰는 표준



간체자는 1955년부터 보급되어 사용되는 것이란다. 지금도 글자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 카드 카(카) 자가 시대에 따라 새로 만들어졌는데 上, 下를 붙여 놓은 글씨가 카드 ‘카’ 자라고 한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석도로 향했다.

며칠을 보내며 본 광경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았다. 확실히 본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본 것 같기도 한 어렴풋한 안개 속 풍광들이다. 어찌 이 거대한 나라를 한 번으로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다가올 미래의 이 나라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중화민국(中華民國)이라는 자부심과 온 세계를 made in china로 뒤덮고 있는 지금. 누군가가 중국이 북한보다 더 두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오늘 저녁은 중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저녁으로 해물 샤브샤브로 마음껏 먹도록 되어 있단다. 석도 적산대주점에서의 저녁은 최고의 만찬이었다. 첫날 새내버스 옆자리에 같이 앉았던 김명기 부회장님께서 그동안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하셨다.

저녁. 우리 호실 4명은 그간 우리의 입맛을 돋우어 주었던 ‘칭다오 맥주’로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아쉬워하면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7월 27일, 다섯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적산법화원과 장보고기념관 관람.

아침. 석도항에 있는 호텔을 나와 해변을 걸었다. 덜 여문 무화과 나무 사이로 파아란 바다가 너울거렸다. 마침 같은 버스로 줄곧 함께 했던 선생님과 해변을 거닐며 이런저런 학교 이야기를 나누었다. 늘 선생님들의 화제는 학생들이다. 방학, 그리고 학교를 떠나 있건 만 늘 입에 올리는 화제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투철한 사명 의식 아니면 직업의 발로일까?

차를 타고 적산으로 향한다. 특히 먼 바다에서 기암절벽의 산을 보면 붉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단다. 적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적산명신의 웅장한 동상이 보였다. 중국하면 그동안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거대하다’라는 것이다. 적산명신 또한 ‘거대하다’라는 단어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아래 법화원이 우리가 보고자하는 가장 핵심인 장보고 관련 유적이 있는 곳이다.

법화원 입구에서 장보고기념관이 있는 언덕으로 걸어 올라갔다. 장보고기념탑 부근 그늘에서 송실대 사학과 여자 교수님의 장보고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탑을 배경으로 답사 1팀 전체가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산동성 영성시(榮成市) 석도진(石島鎮) 북부의 적산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 적산법화원은 서기 823년 신라 해상왕 장보고가 당





나라에 머물던 시절에 거액을 들여세운 불교 사찰로 이는 당시 적산 인근에 위치한 신라방, 신라촌에 살던 동포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이국땅에서 신앙의 힘으로 의지력을 북돋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장보고는 일찍이 당에 들어가 무령군 소장(武寧軍小將)을 지냈으나, 귀국한 뒤 흥덕왕에게 청해진(淸海鎭) 설치를 요청하여 대사(大使)로 재임하면서 그곳을 근거지로 신라·당·일본 사이의 무역을 독점했다. 엔닌은 3년여 간 당나라에 머물면서 당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등 여러 방면의 지식을 배우면서 『입당구법순례행기』란 여행기를 썼는데 여행기에 법화원을 상세히 묘사하였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엔닌은 장보고의 적산법화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 이름으로 적산선원을 세웠으며 일본 불교 중종의 3세 좌주에 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엔닌대사는 그의 일기에서 장보고가 건립한 법화원(法華院)의 행사와 모습과 규모 등을 기행문에 상세히 담았고, 적산법화원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토대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 발췌 블로그 적산법화원 포스팅(장보고 유적지)2014.8.4.

장보고기념관을 둘러보고 적산명신상에 올라 내부를 둘러보았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적산 명산상의 거대함은 대국 중국의 위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석상이다. 내부의 옥돌로 만들 부조벽화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크고 호화로웠다.

분수 쇼를 한다는 법화원은 적사명신상 위에서 멀리 바라보아야만 했다.

젠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어서 법화원 분수대 앞에 섰다. 거대한 청동상 조각의 섬세함과 그들의 신앙적 발로에서 만들어진 대웅전과 부속 건물, 수많은 조각품들 그리고 법당의 관음상들을 바라보며 아침 일찍 와서 차분히 둘러보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우리의 탐방 목적이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가 아니던가.

이곳 유적지 관람 입장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도 꽤 큰돈이라고 한다. 시간에 쫓겨 정작 보고 느끼고자 했던 장보고기념관에서 조차 대충 훑어보고 만다는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아침 일찍 해변에서의 시간을 이곳에 더 가졌더라면--.

아쉬움을 뒤로 적산명신을 등지고 다시 어제 저녁을 먹던 적산대 주점에 도착하였다

점심 후 식당 주변의 동상과 아기자기한 곳곳을 둘러보았다. 1시 20분까지 모이라는 말만 믿고 혼자 여기저기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데 멀리 출발 준비를 갖춘 버스가 보였다. 험레벌떡 버스에 오르니 다들 눈총이다. 조금 시간이 당겨진 모양이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몇 시간. 4시 30분, 배에 오르기 전까지 선생님들이 쇼핑에 대한 욕구로 아우성이다. 빈손으로 갈 수 없는 생리



적 욱구라고나 할까.

차는 슈퍼마켓 부근에서 우리를 내려놓았다. 지인들의 선물을 사느라 부산하다. 기웃기웃하며 몇 가지 선물을 산 뒤 나는 쿵쿵거리며 과일가게로 가서 두리안을 샀다. 비닐 몇 겹을 싸고 또 싸고 했지만 냄새를 솔솔 풍겼다. 좀 더 사고 싶었지만 그 냄새 ~~. 옆 사람 들에게 실례라서 ~~

어느 선생님이 ‘이 대추 과자 맛나요.’라고 하자 금세 대추 과자가 동이 났다. 심지어 우리 호실의 대추 농사를 짓는다는 선생님께서도 대추를 샀으니 ~~.

화동훼리호에서의 마지막 날

갑판에서 요가 댄스가 있단다. 우리 호실 3명은 제주 젊은 처녀 체육 선생님을 앞세우고 갔다. 전부 중국 보따리상 아주머니 아저씨들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울동~ 울동~ .

호실에 들어왔는데 우리 5조 남자 선생님들에게 메시지가 왔다. 카페에서 모이자고. 와~!

우리 환상의 5조 쌤들은 즐겁게, 즐겁게 카페에서 담당 아가씨가 시간이 되어 문을 닫겠다고 여러 번 독촉할 때까지 장보고 답사 마지막 저녁 담소를 즐겼다.

장보고 대사님! 덕분에 우리들 즐겁고 유익하게 5박 6일을 보냈습니다.

결어

국어교사는 국어, 국사교사는 국사만 교육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다양한 지식과 체험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복합적 사고와 다면적인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요즘의 수업 형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학교가 ‘자유 학기제 연계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도 점차 타과목과 접목하여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발해사를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한다. 이른바 ‘동북공정’이다. 심지어 장보고라는 역사적 인물까지 중국화하려는 의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진실을 바르게 알고 우리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또한 교사의 의무라 생각한다. 이제 탐사를 통해 알게 된 장보고 대사의 개척정신과 미래 지향적인 해양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이 크고 높은 포부를 가지고 거시적 안목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기 바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이며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물로 ‘장보고’를 제시하여 가르치겠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위해 애써준 해양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한국을 구원할 것인가?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
-육당 최남선



17

사랑하는 아들이!
바다를 너의 가슴에
품어라!

덕신초등학교 / 장원기(가작)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요즘 고3 공부하느라 무척 힘들지? 아빠도 그 시절에 공부는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급하고, 몸은 피곤해서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바로 잠이 들어버렸지. 그러곤 깨어나서 하지 못한 공부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곤 했었어. 딱히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도,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 따라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나름 꿈을 찾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도전한 후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지!

우리 아들도 공부를 하면서 자신만의 꿈을 찾기 위해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꿈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빠가 이번에 여행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내용을 들려줄게. 아빠의 여행을 들으며 1,200년 전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해상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제해권을 장악했던 장보고,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가 가졌던 웅대한 개척정신과 해양 민족의 기상을 너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아빠가 다녀온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내용을 일정과 사진, 아빠의 느낌을 통해 생생히 알려줄게. 따라 오렴!

첫째 날, 충주에서 10시 30분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어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고, 비도 조금씩 내려서 배를 타고





12~14시간을 가야한다는 것에 조금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평소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인지 약간은 설레었어. 마음 같아선 얼른 가고 싶은데 아빠가 탄 시외버스는 얼마나 돌던지! 그래도 답사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3시간 정도 걸려서 드디어 인천종합터미널에 도착했어. 도착한 후 근처 식당에서 오프라이스로 일단 점심을 해결하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가기 위해 여행사에서 보내준 안내서를 보며 인천 시내버스를 탔어. 시내버스는 바로 가지 않고 돌고 돌아 약 50분 정도 소요되어 드디어 인천항 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했어. 아빠는 부산교대를 다니며 인천교대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터미널도 처음이고 국제여객터미널도 처음 경험하는 방문이었어.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지만 처음이라 오히려 즐거운 경험이라 생각했어. 사랑하는 우리 아들도 처음이란 의미가 즐거움이었으면 좋겠구나.

터미널은 낯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둘러보던 중 드디어 반가운 행사 배너를 발견했어. 발견하곤 버스를 타면서 가졌던 혹시 모를 두려움(태풍으로 일정이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아빠의 이름을 얘기하고(이때도 아빠의 이름이 없을까? 하고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 여행사와 주최 측에서 준비한 물품을 받았어.

모자, 세면도구, 답사 안내 책자, 선물(휴대용 휴대폰 충전기) 등이 있었는데 주최 측과 여행사의 배려가 돋보이는 물품이었어. 받은 물품들을 여행 기간 내내 요긴하게 사용했단다. 이처럼 우리 아

들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17시 이후 출국 수속을 마치고 버스로 이동한 후 승선했다. 승선 후 출발하기까지 처음 타보는 큰 배가 마냥 신기해서 배 탐사에 나섰다. 제주도 가는 배, 울릉도 가는 배도 타보았지만 규모면에서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배를 구경했다. 먼저 숙소는 4인 1실이었는데 2층 침대가 2개 있었고, 2인용 소파, TV, 화장실이 있었어. TV에 나오던 호화 유람선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좁기도 하고 4명이 같은 공간에 앉기가 힘들었지만 하루자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안심했다. 밖으로 나가 배의 가장 위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배의 모습도 확인하고 인천항의 모습도 구경했다. 시원하게 뒤로 뻗은 배와 인천항의 생소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배와 인천항 구경을 마치고 선내 안전교육을 위해 식당에 모였다. 선내 안전교육 시간에는 배에 탄 정규 직원이 나와 각종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비디오도 상영하였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배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애처롭게 희생되어 아파도 무척 마음이 아팠다. 우리 아들도 배를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었다는 기억을 떠올리며 아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안전교육



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교육을 대수롭게 여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던다. 교육 중 배가 인천대교를 지나가는 모습이 배의 창을 통해 보였던다. 매번 위로 지나가 보았지만 아래에서 보는 경우는 처음이었던다. 우리 아들도 이처럼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교육이 끝난 후 조금 기다렸다 저녁 식사를 했었다. 저녁 식사는 학교 급식소에서 먹는 음식과 비슷하였으나 맛은 별로였던다. 어떤 반찬은 한국음식인 것 같은데 중국식의 향이 났었다.

저녁을 먹고 잠시 쉬었다 한국해양재단에서 실시하는 선상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먼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전신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오신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는데 장보고는 하층민 출신이라는 것이 통설이고 원성왕 당시에 출생하였으며 그 당시 국제적 인물은 6두품 출신인 최치원(최치원의 호가 해운이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최치원과 관련이 있한다.)과 장보고였으며 최남선이 괴기란 잡지에 장보고에 관한 글을 등재하였고, 조선 중·후기 족보 위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하셨었다. 족보를 위조하는 중에 다른 정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 결국은 인동 장가의 조상도 중국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었다. 아파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족보에서 중국 5대손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모두 조선 중·후기에 위조된 족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

다음으로 해군 제독님의 강의가 있었었다. 해군이기에 이순신은

장군이 아니고 제독이라 호칭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던다. 제독님 말씀에 의하면 장보고는 함선 100척, 10,000명의 군사를 양성하였다고 하니 시대 상황을 볼 때 대단히 많은 함선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당시 잠수함이 처음 등장하였고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셨다. 그 후 장보고 답사를 처음 기획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자 분이 나오셔서 답사의 취지와 경쟁률, 간단한 역대 에피소드, 배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올해는 공고 기간이 짧았음에도 1,500여 명 이상이 신청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임하는 자세를 한 번 더 고쳐 다짐하게 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숙소를 함께 쓰는 선생님들과 조출한 만남의 장을 가졌다. 간단한 소개와 지역을 얘기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과자와 중국에서 유명한 칭다오 맥주를 마셨다. 여행을 하면서 그 국가나 지역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란다. 우리 아들도 그런 즐거움을 많이 느껴보면 좋겠구나.

간단한 만남의 장을 뒤로 하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대해를 향해하는 배의 작은 울림을 느끼며 나뵈대로는 배에서의 첫 잠을 즐겼다.


여행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밤새 흔들린 배 때문인지 하여간 5시에 잠에서 깨어 씻고 배 위에서 망망대해를 감상한 후 아침을 먹었다. 아침은 나뵈 해장을 할 수 있는 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집에서 먹는 밥보다는 못하였었다. 그래도 김치와 함께 맛있게 먹



었다. 여행을 하려면 일단 배는 든든해야 하니까!

둘째 날, 중국 현지 시간 7시 54분

드디어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배의 맨 윗부분에서 중국의 석도항을 구경하였었다. 생각보다는 이국적인 풍경이 텅텅했다. 아무래도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구나. 8시 30분에 석도항에 들어와 9시 하선 후 석도항을 통해 입국했었다. 입국 시에는 아빠가 2조의 맨 첫 번호라 단체 비자 서류를 가지고 조의 선두에 섰었다.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고 잠시 대기한 후 입국 수속을 마치고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았었다. 여권에 중국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섭섭했지만 처음 밟는 중국에 대한 설렘으로 이내 그 마음은 없어지는 것을 느꼈었다. 석포항 입구에서 버스를 기다렸으나 버스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사이에 중국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담쟁이덩굴, 장미, 소나무 등을 관찰했는데 우리나라 것과 다르지 않았었다.

10시 18분, 세 개짜리 의자가 있는 리무진 버스 1열에 탑승하였는데 편안하고 넓었으며 한국해양재단의 배려를 다시 한 번 느꼈었다. 1기 답사 인원 74명 중 초등교사는 12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사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초등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초

등교사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시작되는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탐구할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었던다. 버스 안에서 처음 대면한 가이드 분이 중국 음식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니 차를 많이 마시라는 얘기, 횡단보도 조심, 특히 안전에 주의, 일정 운영에 관한 얘기, 산동성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 생수도 나누어 주셨단다.

가이드 분의 설명을 들으며 식당으로 이동하여 처음으로 중국 음식을 먹었던다. 밥, 굴, 마파두부, 채소, 생선, 깡풍기 비슷한 음식과 간단한 음료수를 함께 먹었어. 특히 아빠가 좋아하는 가리비를 많이 먹었는데 이 지역은 바닷가 지역이라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하더구나.

13시 50분, 비가 조금 내리는 가운데 2층 배를 타고 유공도로 출발했는데 배의 느낌이 충주호 유람선과 비슷해 낯설지 않았어. 유공도에서 청일전쟁박물관을 관람하면서 그 당시 어뢰, 대포도 구경을 했는데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1894~1895년 당시 발달한 무기를 보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씩씩한 기분이 들었던다. 일정이 늦어져 빠른 시간에 구경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는 못했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어.

16시, 유공도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 고속도로 통





행 중 장보고 관련 비디오를 상영했는데 비디오 화면이 너무 작아 뒤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열심히 들었다. 장보고의 일본 내 활동을 추적한 다께다 신겐 가문, 망국의 한을 지닌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진출하여 오오츠 지방에 세운 석탑사, 신라 명신의 성을 따른 신라 사부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비가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끼어 주변이 너무 어두워 비상등을 키고 버스는 달렸어. 엄청나게 넓은 땅에 인가도 별로 없고, 도시 간 거리가 멀었으며 고속도로가 여기저기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신호등 시간을 숫자로 표시해주어 신기했다. 청도에 도착하여 김치찌개, 잡채, 낙지볶음 등을 먹었는데 음식이 전체적으로 달았어. 아빠는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빠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새로운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좋아해. 한국음식은 한국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여행하는 나라의 음식이 좀 입에 맞지 않더라도 실컷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단다. 유공도에서 무려 8시간이 걸려 숙소에 도착한 후 쉬었다.

셋째 날, 7시 30분

번개비가 올 경우

케이블카 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에 내심 불안을 느끼며 태산으로 이동하였단다. 이동하며 반점은 호텔을 의미하고 치박

시는 제나라의 수도이며 3천 년 전 800여 년간 부흥하였고 강태공이 시조이며 제나라가 축구의 원조라는 설명을 들었던다. 태산은 공자로 인해 유명해졌으며 세계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조선 4대 서예가 양사언이 '태산이 높다하되~'라는 시조를 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며 공자는 일반 백성이 존경하기에 역대 중국 황제들도 민심을 얻기 위해 72명이 태산에 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당나라 황제 이세민과 청나라 건륭제가 올랐다고 하더구나.

계속해서 진시황 이야기, 산둥반도의 8신선 사상, 신라 5악, 김인문에 대한 이야기, 장보고 스페셜 대해를 넘어 시청, 태안에는 별장이 많고 석탄이 많이 생산되며 태산으로 먹고 산다는 설명을 들었던다. 10시 40분, 태산행 셔틀버스를 탑승하고 드디어 태산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 있는 곳으로 갔으나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된 것을 알고 심하게 낙담하였었다. 약간의 시간을 내어 태산을 구경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었지만 역시나 허전함은 감출 수가 없었다. 하산하여 태산국제반점에서 점심을 먹고 곡부를 향해 출발했었다. 버스에서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님의 강의를 통해 이 여행의 의의를 들었으며 공모, 공부, 공림을 관람했어. 멀게만 느꼈던 공자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자의 직계는 문화대혁명 시절 대만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구나. 공자 후손 가족이 귀한 손님들에게 대접하던 음식인 공부가연을 저녁으로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었으며 공자님에게 후한 대접을 받는 기분도 들어 좋았었다. 19시, 숙소로 이동하면서 장보고 비디오를 시청하였었다. 권토중래로 유명



한 당나라 시인 두목이 자신의 저서 변천문집에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를 들으며 숙소에 도착한 후 세면을 하고 휴식을 취했다.

넷째 날, 6시 30분

기상하여 7시에 아침을 먹고

7시 50분에 숙소 물품을 점검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 조금 늦게 출발했다. 출발 후 신라 지증왕 3년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불교 영향으로 인간 존중 사상이 발생하여 순장제도가 철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8시 32분 고차박물관으로 출발했다. 여자 여(女)가 붙은 성이 오래된 성씨이며 고집이 세고, 성은 원래 여자 중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중국은 성이 지역명이나 우리나라에 성이 들어오면서 지역명이 아닌 본관이란 것으로 변화되었다는구나. 9시 고차박물관에 도착하여 옛 마차의 다양한 형태를 관람하고, 마차와 말을 함께 순장한 것을 보았다.

9시 45분, 제나라박물관으로 이동하여 10시 02분에 도착하여 관람하였다. 제나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으며 여러 곳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유물들을 관람하였으며 세계축구협회 블래터 회장이 방문하여 제나라를 축구의 시작 나라로 인정한 사진도 구경했다.

10시 51분 제나라박물관 관람 후 순마경으로 출발하였는데 순



마궤는 한참 달릴 짧은 수컷 말 600여 마리를 문었는데 이는 제나라는 힘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더구나. 방문한 한 궤도 안에는 약 280여 마리가 줄을 지어 뼈만 남은 상태로 발굴되어져 있었다. 역시 중국은 모든 면에서 그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단다. 관람 후 제도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6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으며 장보고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였단다. 장보고는 9세기 전반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상 질서를 이룩하고 신라·당·일본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아라비아·페르시아·동남아시아 세계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는 말씀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정사(삼국사기, 중국: 신당서, 일본: 속일본기)에 모두 그 이름이 올라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막연하게 평소 가진 관심을 통해 알고 있던 사실과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보다 더욱 더 활동 범위가 넓었으며 엄청나게 큰 유조선도 바다에 비하면 낙엽에 불과한데 그 시절 그 배들을 타고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장보고의 모습이 눈에 선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단다. 우리 아들도 가능한 많은 다양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원대한 포부를 가슴에 새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구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하여 발전의 바탕으로 삼아 미래를 개척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14시 50분부터는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이 해상 제국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그린 비디오를 시청하였으며, 기나긴 여정동안 신라 경덕왕 때 모든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고 지명도 중국 지명을 모





방하여 한자로 변경하였으며 귀족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왕비 교체 후 만월부인과 결혼하여 해공왕을 얻었고,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석굴암, 불국사 건립 이야기, 신라의 상대는 성골, 중대는 김춘추계 진골, 하대는 해공왕 이후 후손이 끊겨 제일 큰 귀족 중왕으로 추대된 37대 선덕왕, 장보고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8대 원성왕, 흥덕왕이 아들 없이 사망한 후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 귀족 김양이 장보고 청해진으로 몸을 위탁하고 군사를 빌려 중앙으로 진출하였으며 팔공산 전투에서 승리 후 신무왕이 되었으나 6개월 만에 사망하고 아들 문성왕이 장보고 여식을 왕후로 맞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중앙 귀족이 반대하여 장보고는 완도에서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중앙 귀족들이 결국 입장을 보내 장보고를 암살한 얘기, 장보고의 사망 이후 청해진은 폐쇄되고 10년 동안 신라와 당과의 통교·교역에 대한 기록을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 당나귀 귀로 유명한 경문왕, 헌강왕 때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실제로는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인으로 추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식당으로 향했다. 아빠가 원래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교수님의 역사 이야기에 쏙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단다.

6시간 25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식당에 도착한 우리는 해산물 샤브샤브 뷔페를 먹었다. 처음 먹어보는 양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었고 중국 라면은 덜 매웠으며, 해산물 종류가 매우 많았으나 바닥이 미끄러워 위험했다.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 건배 제의를 하고 맛있게 식사를 했다. 식당은 매우 넓어 중국이 영토 크기, 인구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21시 30분에 숙소에 도착하여 세면과 양치만 간단히 한 후 다른 분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싶었으나 장거리 이동으로 피곤해서 바로 취침에 들었다.

다섯째 날, 6시 30분

기상하여 씻은 후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바닷가 전망이 참 좋은 석도의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3호차 몇 명이 안 나와 늦게 출발했다. 버스에서 고구려 후손이며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고 제나라를 건국한 이정기 세력을 진압하여 무령군 소장으로 승진한 장보고 이야기, 당나라 현종과 안록산, 양귀비 이야기, 그 당시에는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민족이란 개념은 근대화의 산물이고 이정기 세력과 장보고 세력의 다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적산법화원으로 향했다. 10시에 장보고기념탑에서 적산법화원 건립 유래, 적산은 붉은 바위산이고 주위가 온통 평지라 바다 쪽에서 보면 지표가 되며, 물을 떨어뜨리면 바위가 더 붉게 보인다는 이야기, 지리상 한반도에 인접하고 더우며, 절에 모인 사람으로 미뤄 적산법화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개방, 승려, 관리들이 거주했기에 그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 산동 일대 재당 신라인은 사원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중국, 일본, 신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820년대 초·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교역의 부를 일종의 사회 환





원 차원에서 법화원을 건립하였다는 이야기, 841년 장보고 암살 이후 삼각무역이 와해되었으나 재당 신라인들은 제1무역상을 유지하고 당, 송상으로 연결되어 당나라, 송나라 상인들의 발전을 주도했다는구나. 다른 나라에서 장보고 상단에 선불을 지불할 정도로 신용도가 높았으며, 중국과 일본의 정사를 통해 장보고 관련 역사를 찾은 이야기, 장보고가 인동 장가의 시조라는 이야기, 법화경을 읽어서 법화원이라 이야기, 엔닌의 영향으로 일본이 법화원을 발굴하고 이후 중국이 건립했다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던다.

이후 드디어 5일 동안 들었던 그 위대한 해상왕 장보고를 만날 수 있는 장보고전기관에 도착하여 치적만큼이나 거대한 장보고의 동상을 관람하고, 장보고의 사진도 관람하였었다.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간 동안 내내 기다렸던 장보고를 마주 대하니 인동 장가인 아빠로서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었다. 벅찬 감동을 뒤로 하고 적산명신을 보기 위해 계단을 걸어 올랐었다. 적산명신이 내려다보는 사방의 장관들을 눈으로 기억하며 적산법화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감상하였었다.

이후 적산법화원의 대응보전, 장보고 공적비, 삼불보전, 관음전, 적산각 등을 관람하였었다. 관람하는 시간이 짧아 무척 아쉬웠지만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었다. 특히 5일 동안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장보고를 만날 수 있어 매우 즐거웠으며 장보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후 만나는 장보고는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아빠에게 다가왔었다.

12시 15분 적산법화원 관람 후 전날 먹었던 적산대주점에서 맛난 점심 식사를 하고 15시 13분 중국 현지의 백화점, 마트 들렀다 석도항에 도착했다. 15시 33분 여권 및 티켓을 배부하였으며 면세점에서 간단한 선물을 구매하고 16시 승선하였다. 18시에 식사를 하고 21시에 출발 예정이었으나 11시에 출발하였다. 배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약간 지루한 면이 있었으나 또 언제 경험할지 모르는 멋진 시간으로 생각하여 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답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서먹한 사이였으나 5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니 친해져서 다음날 새벽까지 친교시간이 이어졌다. 그 때문인지 다음날은 6시 40분 기상하였으나 약간 피곤하였다. 예정 시간보다 늦은 11시 30분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12시 10분에 하선을 완료하고 같이 지냈던 룸메이트와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한 후 인천터미널에 도착하여 15시 50분에 집에 도착하였다.



5박 6일이라는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간 동안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들을 소탕하였으며 한·중·일 삼국을 잇는 동북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면서 동남아와 인도·이슬람 사회까지 무역 활동을 확대한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선도하였던 세계적인 인물인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함을 몸

소 느낄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단다. 또한 한국 내의 장보고 유적지와 일본 내의 장보고 유적지를 두루 살펴보고 싶다는 다짐을 했단다.

고3이라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야! 저 거친 파도를 티끌만큼의 동요도 없이 마음껏 뚫고 세계를 누빈 위대한 장보고의 기상을 생각하며 저 넓은 바다를 너의 가슴에 품어 거칠고 힘든 세상을 마음껏 뚫고 꿈을 펼치는 당찬 아들이 되어주기를 이 아버지는 마음 속 깊이 바란단다.

지금 힘든 여정을 묵묵히 밟아가는 우리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는 너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여행기를 보낸다. 사랑한다. 아들이야!



18

서라벌에서 페르시아까지

그대의 거친 숨결 넘실대는 파도를 따라

부산 가평초등학교 / 남경숙(가작)




제1일 - 황해를 건너 석도항을 향해서

출발 당일 팔월 육일 수요일

오늘은 시아버님 제사가 있는 날!

그리고 한국해양재단의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3차 답사

단 출발일!



나는 종손 덕의 맘머느리,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오후 4시까지 집합해야 하는데. 부산서부 터미널에서는 인천행 고속버스가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하루 세 번 운행되고 있었다. 나는 오전 7시 버스를 타고 인천버스터미널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국제여객터미널에 가야 했다. 집합 시간 오후 4시 이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휴 우---

장보고 유적지 답사 참가 합격 명단, 천여 명이 넘는 지원자와 한국해양재단의 심사숙고, 합격 명단 발표 연기로 조마조마했던 나 날들.

33년간 초등학교 담임으로 재직하며, 과학 교육 기획을 맡아 해양 탐구 프로그램 운영, 글나래관 해양도서 확충, 해양 수산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청소년 단체를 통해 갯벌 체험, 바다 정화 활동 등의 해양 탐구 활동과 해양 자원 보호를 수년간 체험 실천해온 결과 드디어 선정!

그렇지만 행복한 고민…….

어쨌든 시아버님 제사는 꼭 모셔야 하는 것이 이 몸 맘머느리의

위대한 사명.

또한 한국해양재단 주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참가하는 것 또한 수년간 내가 기대하고 기다려온 소중한 현장 체험.

나는 이 두 가지의 미션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

나는 내심 행복한 굳은 결의를 외쳤다.

으샤으샤, 나는 할 수 있다.

제사에 쓸 장을 미리 조금씩 마트와 슈퍼, 시장에서 사두고 나물 거리와 생선도 준비했다.

남편도 같이 고민하며 의논한 결과 새벽 4시에 제사를 모시고,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인천행 7시 고속버스를 타면 인천에 12시 경 도착, 곧장 택시를 타기로 했다.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조금 먼저 기다리는 건 내가 평생 동안 실천해 온 훌륭한 습관이자, 기본 예의죠.

남편과 함께 시아버님 위패를 모시고, 절을 하면서

‘아버님, 이렇게 꼭두새벽에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맡겨 드리 오늘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선발되어 인천까지 가야 하는 관계로 이렇게 이른 새벽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부족하나마 정성으로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가시옵소서.’

제사상에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다. 분명이 아버님이



‘그래, 아가 잘 다녀오너라. 해상왕 장보고 장군 잘 만나고, 교육의 질 향상은 교사의 질 향상에 있으니,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많이 배우고, 유적지 잘 돌아보고 오너라, 나도 맛있게 먹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드디어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도착, 나를 태운 택시 기사가

“한국에 몇 년간 살다가 가세요?”

“기사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난 한국 사람인데!”

기사 아저씨가 당황하며

“아, 나는 아줌마가 조선족인줄 알았어요?”

순간 아, 내가 조선족을 닮았나? 그리고 보면 그 광활한 중국대륙에서 한국의 혼을 묻고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 역시 우리의 형제이며, 가족들이 아닌가! 갑자기 중국이 내 고향이라도 되는 듯 얼른 가보고 싶었다.

인천여객터미널의 풍경은 사뭇 새로웠다. 큰 가방과 짐을 넣은 박스를 든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들, 나이가 좀 든 장사꾼처럼 보이는 남자들, 아줌마들로 붐볐다.



오후 3시

드디어, 3차 답사단 한국해양재단 인솔자와 현대아산 투어 인솔자들이 왔다. 인원 점검이 시작되고, 한국해양재단 로고가 새겨진 편안하게 보이는 밀짚모자와 명찰, 간단한 세면도구를 나누어 주었다.

이어서 화동훼리호 승선, 중국 배인데 우리는 조별로 4인 1실의 객실에 배정되었다. 침대는 나무로 된 이층 침대, 무척 좁고 낮은 침대, 각 침대를 가리는 커튼은 배의 나이를 말해주는 듯 편이 빠지고 낡아 있었다. 아주 좁은 욕조와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객실 안에 있었다. 왕복 24만 원 정도 하는 승선 요금은 그리 싼 편은 아니었는데, 중국식으로 준비된 선상 저녁 식사 메뉴는 닭고기 탕수육, 무국, 큰 풀빵, 흰밥, 김치, 야채볶음, 요구르트로 역시나 중국향이 가득하였으나 매사에 풍덩 뛰어들어 경험하는 나는 맛있게 식사를 마쳤고, 인천 연안을 뒤로 하고 미끄러지듯 잔잔한 바다위로 나아가는 갑판 위에서 황해의 습하고 세찬 바람을 가득 맞으며 출발의 설렘과 기대감을 한껏 즐겼다. 신라인 궁복은 이 넓은 황해를 어떤 마음으로 건넌을까?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아닌 절박한 생존을 위해 당나라로 가야만 했던 길이 아니었을까? 우리 객실 조원들은 느끼하다면서 조금 먹다 말았으나, 여행의 기본은 이국적인 식사를 체험하는 것, 난 그런대로 느끼한 돼지기름 같은 맛을 즐기면서, 흠……. 먹을 만했다.

흔들리는 배에서 먹는 맛도 새로웠다. 장운동이 잘되어 소화가 절로 되려나?



식사 후 답사단의 안전교육, 0416 세월호 참사 이후 매우 강조된 안전교육, 교육 담당자가 이제 절대로 도망가는 선원 관계자는 없을 테니 염려 말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우리는 매우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좀 안쓰럽기도 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하는 안전 점검에 지친 담당자들의 애로가 얼굴에 묻어나고 있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화동훼리호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황해 한 가운데로 이동.

나지막히 코고는 소리가 들리고, 파도소리인가, 낡은 배의 엔진 소리인가?

나는 밤새 온갖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비몽사몽 선잠을 잤다.

한국해양재단!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초중고교 현직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 장보고 대사의 해양 개척정신을 선양하고자 현장의 교사들을 위한 과감하고 소신 있는 전무후무한 체험 프로그램.

이와 더불어, 해양 영토 대장정, 해양 동아리 활동 지원, 각종 해양 교육 워크숍 개최, 해양 문학상 및 글짓기 대회, 전국 해양 사진 대전 등의 해양 관련 활동. 신해양 시대에 임하여 해양 의식의 강화로 해양 강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감겨오는 눈꺼풀 위로 화동휘리호는 긴 밤을 파도 속을 느리게 흔들리며 항해하고 있었다.

이번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 여행이 아니라, 이미 1,200년 전 항로를 개척하여 국제적인 중계무역으로 해양 개척의 업적을 이룬 장보고 정신을 가진 해양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사로서의 진지한 소명을 느끼게 해주었다. 역사적으로 지중해를 석권한 그리스나, 태평양을 지배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세계를 지배한 민족은 바다를 지배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바다 영토 확보와 개척에 집중하여, 해양 활용에 국가 경쟁력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장보고 이후 오랫동안 해상 무역 활동과 해양 통제권을 포기한 우리 역사의 결과는 결국 구한말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긴 지경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한국해양재단은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며 해양 교육으로 해양 인식의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해상왕 장보고의 숨결과 우리 조상들의 해양 정신이 깃든 멀고 거칠었을 항로, 닳이 펄럭이는 소리, 끼억끼억 노를 젓는 소리, 비바람과 폭풍우, 파도 소리들의 흔적을 느끼며, 선잠에 빠져 들었다.



제2일 - 여명! 옥수수 밭, 유공도에서 들리는 그대의 숨소리

객실 창으로 뿌옇게 밝아오는 여명,

밤새 뒤척이며 흔들거리는 파도의 요람 속에서 깨어난 이른 아침. 사방에 펼쳐진 컨테이너 선박들과 석도항의 모습. 인천항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으나, 인천항의 몇 배쯤 되어 보이는 규모의 석도항. 학교에서 배운 산동반도, 산동성, 석도……. 지도에서 헤엄치면 닿을 듯 엄지손가락을 편 듯한, ‘한반도의 서해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 우리나라의 황해 인천항과 너무도 가까워 보이던 그 곳. 1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 중국 4대 문명의 하나인 대문구문화(大文口文化)의 발원지. 중국춘추시대 중국의 지성인 공자(孔子), 묵자(墨子), 맹자(孟子), 손자(孫子) 등의 사상가가 태어나 활동했던 중국의 역사와 사상의 발상지. 한반도와의 인연이 가장 깊은 곳, 감동. 감동이 석도 항구에 부딪히는 웅장하고 묵직한 파도 그 자체였다.

단체 버스 안에서 DVD와 교수님의 부연적인 해설로 최인호의 장보고와 적산법신 스토리, 해신의 배경 이야기를 감명 깊게 시청. 장보고기념관과 유적지, 기념탑, 적산법화원, 그리고 그의 발자취는 마지막 날 석도의 체험이 기다려진다.

장보고에 관한 사료는 정작 있어야 할 신라 본국에는 별로 없는 대신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모반의 혐의를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던 까닭인지. 9세기 전반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해상 질서를 확립하고 신라, 당, 일본 간



의 교역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세계와의 교역도 주도하여 명실 공히 해상 왕국의 무역왕이 된 장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역사는 오랫동안 그늘에 가려진 채 잊고 지내왔다.

교육 현장에서 33년간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 이런 강조는 종종 했으나, ‘해상왕 장보고’라고 강조한 적은 솔직히 없었다. 이제 이번 답사를 통하여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나의 인식은 새로워 질 것이다. 아니 지금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제사 때 말씀하셨지. ‘교사의 질 향상이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해양에 대한 나의 얕은 인식과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나의 무지가 새삼 나를 부끄럽게 했다. 한층 고개를 숙이며 이번 답사를 통하여 습득한 체험과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화동훼리호를 하선하기 위해 줄지어 선 우리 주위에는 가족 단위의 자유 여행객들, 그리고 중소상인처럼 보이는 아줌마, 아저씨들, 할머니들이 북적였다. 한참을 기다려서 모두 하선하고 난 후 우리 해상왕 장보고 3차 답사단은 마지막으로 하선했다.

자신을 조선족이라며 소개한 현지 가이드와 미팅, 유창한 한국말 실력에 가끔씩 묻어나는 조선족의 억양이 아련한 역사의 타임머신을 탄 듯, 우리 민족의 강하고도 고난스러웠던 과거를 스치듯 생각나게 함과 동시에 무척 정겹게 들렸다. 단체 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한 우리 답사단은 제일 먼저 위해로 이동했다.



위해!

산동성 동북쪽 끝에 자리한 항구 도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여 한국 관련 상점이 많이 들어섰고 한류가 크게 유행하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중국 현지 식으로 점심을 먹고 유공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서둘러 이동했다.

유공도행 선착장으로 이동하면서 목격된 중국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거대한 용틀임 그 자체였다. 13억 인구,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 미국에 이어 경제대국 2위에 다가선 나라, 보도매체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였다. 곳곳에 펼쳐진 공사 현장들, 넓은 들판에 수도 없이 우뚝우뚝 심은 듯 솟아오르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거대한 자본의 투자와 그 투자로 인해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미래의 잠재적 번영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활하게 이어지는 옥수수 밭 사이에 원형탈모 자국처럼 자리한 빨간 지붕의 창문도 없는 허술한 집단 농장들은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유람선을 타고 도착한 유공도에서 우리들의 답사에 동행하신 전 해군 제독님께서 유공도는 중국 동쪽 연해를 지키는 중요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중시되었고, '침몰하지 않는 전함'이라 불릴 정도의 천혜의 요새였지만, 허술한 훈련과 장비로 인해 청일갑오전쟁 시에는 일본에게, 이후 1898년에는 42년간 영국에 점령당한 뼈저린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며 우리의 역사 연대와 알기 쉽게 연관 지어 설명해주셨다. 이어서 견학한 중일갑오전쟁박물관과 영조위해역사박물관, 북양해군충혼비에 서린 전훈들



은 열강들의 침략으로 쓰라렸던 우리 역사의 상흔들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교육 현장에서 조국 해양 수호의 중요성을 교육시킬 결연한 의지를 각인시켜 주었다.

유공도는 산동성 위해에 속한 섬으로 산동반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공도는 '세상 밖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1992년 최초의 중국 해상삼림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유민이라는 사람이 바람이 불 때마다 햇불을 밝혀 어부들이 고기를 잘 잡고 조난을 당한 어부들을 구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선행을 기려 유공도라고 불렀다고 했다. 섬의 아름다움과 함께, '침몰하지 않는 전함'이라 불릴 정도의 천혜의 요새로 전쟁과 외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유공도에는 요새의 흔적과 전쟁의 아픈 상흔들의 잔해가 청일갑오전쟁박물관의 전함, 수송선, 어뢰 등에 남아서 전시되어 있었다.

다시 배를 타고 해양 이동 후 우리는 숙소가 있는 치박으로 향했다. 약 6시간의 단체 버스를 이용한 이동, 중간에 한식으로 돼지고기 부대찌개, 콩나물, 오이무침 등으로 저녁을 먹었다. 난 개인적으로 중국 현지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원들 중 몇몇은 맵고 짠 찌개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맛있게 먹고 있었다. '로마에서는 로마사람이 되어라?', '신도불이?', 여행의 참맛이란 낯선 문화에 대한 다가섬이 아니던가요? 중국에서 한국 음식을 고집하지 말고 중국 음식을 즐겼으면…….

밤 11시경, 드디어 치박만호대주점 체크인, 우리가 이틀간 머물





호텔이다. 대충 씻고 누우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었네. 포근하고 깔끔하게 세팅된 침대, 아, 내일의 태산 등정과 공자의 고향 곡부를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렌다. 한국해양재단 인솔자들의 세심한 안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식사와 숙소 등을 챙기며, 배려해주고 챙겨주던 모습이 생각났다. 말씀은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앞과 뒤에 조용히 다니시며, 전체를 눈길로 챙겨주시는 사무총장님, 미남에 호남형인 인솔 책임자 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에궁 눈을 좀 붙여야지.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아련히 펼쳐진다. 보인다. 6시간을 달리고 달려도 계속 펼쳐지던 옥수수 밭, 옥수수 밭, 옥수수 밭, 붉은 지붕의 마을들, 넓고 넓은 평야, 중국! 중국! 중국!, 장보고! 장보고! 장보고!

제3일 -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이다

아침은 군대 기상처럼 정확하게 6시에 모닝콜이 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7시에 버스에 탑승해야 했다. 치박의 5성급 호텔의 맛있는 식사를 살피볼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태안으로 이동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태산 등정과 곡부 견학이었다.

태안은 중국 산둥성 중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관광 도시 가운데 하나로 중국 5대 명산 가운데 으뜸으로 일컬어지는 태산(泰山)

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우리가 등정할 태산(泰山)은 대산, 태악으로도 불리는 해발 1,545m의 중국의 명산이다. 중국 사람들은 태산을 ‘만물의 시작이고 음양의 교대가 일어나는 곳’으로 여기며 기원전 219년에 진시황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봉선의식을 거행한 석각이 남아 있다. 그 뒤 역대의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하고서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자신의 즉위를 하늘에 알렸다. 특히 한나라 무제는 5번, 청나라 건륭제는 11번이나 봉선의식을 올렸다고 전한다.

과연 태산에는 이러한 황제들이 남긴 글귀들이 집채만 한 바위에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현지 가이드가 해석해 주는 글귀에는 황제들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황제의 위엄을 천하에 과시하려는 글귀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중국의 장대한 역사를 투영하고 있는 듯 환영을 보는 듯 했다.

신령스러운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을 장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7,412개의 계단을 오르는 태산 등정이 숙원이었다고 한다. 우리 답사단은 쉼씨 40도가 예상되는 한여름 태양 속에 산 중턱까지 케이블카를 타게 되었다.

조선전기 4대 서예가의 한사람인 양사언은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고 하면서 선비가 태산(泰山)보다 높은 기개를 가질 것을 소망하였다.

또한 공자가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고, 태산(泰山)에 오르니 천하가 작다.’

라고 할 정도로 위엄 있으며, 기기가 있고 선망하는 하늘과 맞닿은 산으로 존승되어 왔다고 한다.

더위에 바쁜 숨을 헉헉거리며 올라간 태산의 정상은 옥황정(玉皇頂)인데, 옥황정 주변에는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옥황묘와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 벽하원군을 모신 벽하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태산(泰山)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중국 역시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태산(泰山)을 보기 위해 올라오고 내려가고 무척이나 복잡했다. 한껏 땀을 낸 중국의 여자들, 그리고 다소 배가 여유 있게 나온 중국 남자들, 학생들, 어린 아이들로 태산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태산 올라가는 계단 주변에는 간단한 기념품과 삶은 옥수수, 핫바, 어묵, 땅콩, 오이 등을 파는 가게들이 보였다.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길 한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복숭아를 어그적 어그적 먹고 있는 중국 사람들,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끝없이 이야기하는 중국 사람들, 외국인인 우리가 무슨 말을 물어도 계속 중국말로만 대답하는 중국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건지 나는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세계를 지배하던 그들의 역사 때문일까? 광활한 대지? 10억 명이 넘는 인구? 급속한 경제성장?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만든 걸까? 촘촘한 태산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진시황제가 봉선의식을 위해 가마를 타고 수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수많은 백성이 노예로 동원되어 옥황상제인 신에게로 가는 계단을 쌓고 제단을 만드는 광경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모자와 양산을 다 동원해도 찌르는 듯한 햇살은 피할 수가 없었다. 잠깐 시원한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중국 공부가연 현지 식으로 먹었다. 공부가연은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공자를 위하여 준비하는 식사라고 했다. 과연 등근 원탁 유리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은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웠다. 새우 살에 튀김가루를 바르고 바삭하게 튀긴 후 달콤한 소스를 올린 게 맛있어서 3개나 먹었다. 두부를 튀긴 것, 큰 생선을 튀겨서 소스를 끼얹은 것, 버섯, 브로컬리 등등 뭐든 다 튀겨서 비슷한 달콤새콤한 소스를 끼얹었네.

모양은 다 다르고 재료는 다 다르지만 소스 맛이 다 비슷했다. 다소 매콤한 것도 있었다.

청자처럼 생긴 다기 주전자에 든 차는 따뜻하고 깔끔했다. 중국의 현지식이 다소 기름지긴 했지만 맛이 신선하고 새로웠다. 난 공부 체험을 기대하면 점심을 든든히 먹어 두기로 했다.

점심 식사 후 공부 이동



공자의 고향, 중국 산둥성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노나라의 도읍지라고 했다. 현재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이지만 유교의 발생지라는 역사성을 간직한 곳이다.

공자를 기리는 사당인 공묘는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 사후 1년 만에 세운 것으로 북경의 고궁, 태산의 대묘와 함께 중국 3대 건축물의 하나로 손꼽힌다. 공묘 동쪽에 위치한 공부(孔府)는 공부는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 겸 관공서이다. 전원과 후원으로 나누어진 공부는 현재 관광지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었다.

공림(孔林)은 곡부시 북부 일대에 위치한 공자와 그 일족의 묘소로 노목이 펼쳐진 묘역에 10만 명이 넘는 공자의 자손들의 묘비가 산재해 있었다. 이 일대는 모두 향나무가 심어져 있어 묘역의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도 한다고 현지 가이드가 설명했다.

공림(孔林)의 정문인 이림문을 지나면 성벽에 둘러싸인 광대한 묘역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공자의 묘. 이하 3,600여 개의 묘비와 10만여 명의 공자의 자손들의 무덤이 남아 있는 공림, 무덤의 상당수는 고위, 고관의 권위의 상징이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는 춘추전국시대 배경의 영화, 주윤발 주연의 공자가 생각났다. 천하통일을 위한 열망으로 전쟁이 난무하던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왕 ‘노정공’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공자’를 등용해 무너져가는 왕권의 부활을 노리고, 뛰어난 지략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수많은 전쟁과 내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노나라를 구하는 공자! 그러나 혼란의 시대, 끝없는 전쟁 속 공자를 탐하는 많은 나라와 그를 시기하는 무리로 인해, 공자는 곤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영화는 나에게 공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였다. 유교를 기반으로 한 이상향의 지도자 공자, 고향인 노나라를 떠나 타향을 전전하며 외로움과 이루지 못한 유교 이상 국가를 염원하던 공자가 생각났다. 조선시대 역시 유교의 영향을 짙게 받은 유교 국가였지 않은가?

뜨겁던 여름 해도 어느덧 잿아들 무렵,

나는 공림(孔林)의 향기를 가슴 깊이 흡입하면서 돌아 나왔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자료와 문헌들을 찾아 꼭 연구하고 공부해볼 것을 다짐하며 단체 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다.



제4일 - 세월을 닦던 강태공에게 기다림의 진수를 배우다

중국에서 2박의 호텔 숙박에서 얻은 사소한 팁 하나. 조식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음식이 금방 동이 났었다. 중국 사람들 정말 많이 먹더라는 것. 오늘은 식당의 문 앞에 일찍 포진했다. 5성급다운 화려한 아침 식사였다. 커피까지 여유 있게 마신 우리는 버스에 올라 부근의 강태공 사당으로 향하였다.

사당 안의 정면에 강태공의 상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아들 정공과 경공의 상이 자리하고 있었고, 사당 오른쪽, 뒤쪽, 왼쪽 벽면에는

강태공의 일대기를 그린 벽화가 있었다. 비록 나이 80세에 이르러 왕이 되었지만 139세까지 장수를 누렸던 강태공이 붉은 옷을 입은 무희들에 둘러싸여 연회를 즐긴 장면은 그가 누렸던 제나라의 부강과 영화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

소낙비가 와도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을 치우지 않고 글만 읽어 곡식을 떠내려 보냈다는 선비의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 설화로만 알았었는데 그 주인공이 강태공이었다니……. 천문, 지리, 정치, 군사 등 여러 방면에 능해 짧은 기간 동안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숭상 받는 군주이기는 하였으나, 훌륭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팔십 평생 세월만 낫던 무능한 남편으로 지내다가 이를 못 견뎌 가출해 버린 아내가 강태공이 왕이 된 후에 찾아와 용서를 빌자, 아내를 화장시킬 지기를 시키며 복수를 했으니 말이다.

오늘의 일정은 강태공 사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물관 견학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강태공 사당에서 버스로 머지않은 곳에 고차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1990년 고속도로 공사 중 대규모의 순장 마차들이 있는 봉분이 발견되었고, 이는 중국 최고의 차마 유적이다. 차마 전시관에 진열된 전차와 32필의 말은 그 규모와 화려함이 중국 최고로 꼽힌다고 한다. 사진을 찍기 위해 전차 손잡이를 잡자,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의 장면들이 살아나는 듯 전율이 온 몸을 타고 전해 왔다. 중국 대륙에서도 지세가 넓고 평탄하며, 주요 전쟁터였던 입차 지구에서는 전차전이 적합하였기에, 이곳이 중국 고차의 다양한 모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중국 제일의 고차박물관이라는 교수님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현재 우리가 있는 치박에서 청주로, 다시 석도까지 가야하는 긴 일정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었다. 한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3만여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중국의 박물관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청주박물관이었다. 교수님의 꼼꼼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은 40분을 넘어가고 있었고, 다시 이동해야 하는 일정 때문에 우리는 12개의 전시실을 달리듯 보아야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으로 잘 터득된 사전 학습 덕분에 일생에 다시는 볼 수 없을 화려한 중국 역사의 현장을 고스란히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사진을 담을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유방으로 향했다.

배고픔과 더위를 잠시 식힌 뒤, 이제 현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석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버스로 대략 6시간. 오늘 저녁은 샤브샤브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는 가이드의 말에 우리는 환호를 질렀고, 더위와 피곤함에 지친 선생님들은 하나둘씩 잠에 빠져들었다.

문득 졸다가 황급히 내린 휴게소 옆에는 흙으로 지은 주택이 두어 채 있었다. 수세미와 조롱박이 울타리를 타고 주렁주렁 매달린 풍경은 우리나라 시골과 다름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아직 수도 시설은 보이지 않았고, 세숫대야에 담긴 시커먼 구정물에 계속 빨래를 넣어 치대는 아낙의 모습과 파리처럼 생긴 열매를 실로 꿰어 팔려고 늘어놓은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60년대를 보는 듯하여 몹시 안쓰러웠다.

졸다가 가다가 마침내 도착한 5성급 호텔 적산대주점(여기서는 호텔을 주점이라 부르더군요) 로비에 짐을 두고, 체크인을 하기 전





에 먼저 만찬회장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해변가에 자리한 식당은 바닷가에 위치한 석도지역답게 해산물로 가득한 뷔페였고, 우리들의 식탁에는 샤프샤프 1인용 냅비에서 육수가 끓고 있었다. 양고기부터 이름 모를 각종 해산물, 과일, 야채……. 그야말로 만찬이었다. 각 호의 테이블마다 부산스런 움직임과 건배 소리가 넘쳤고, 이제 마지막 밤이 될 아쉬움을 잊어버리려는 듯 선생님들의 수다스런 대화기 끊이지 않았다.

오늘 밤을 꼬박 새우자는 우리 팀 4명의 약속은 나의 심한 두통으로 지켜지지 못했다. 청도 맥주도 사 놓았건만……. 하지만 내일 우리 답사의 정점인 적산법화원과 장보고기념관을 가야하는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대신 새벽의 해변을 산책하기로 하고는 일찍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제5일 - 신라인 장보고, 그대의 발자취

새벽 5시에 맞춰놓은 알람 소리에 우리는 석도 해변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호텔을 나섰다. 해변은 유럽의 어느 바닷가를 연상할 만큼 아름다운 조각 공원으로 꾸며져 있었고, 예술적으로 손질된 화단과 동상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안개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을 따라 뉴스에서나 보던 체조를 하는 노인들도 볼 수 있었다. 아침부터 서터를 연방 놀러 가득 담고, 호텔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마지막 일정이자 이번 답

사의 정점인 적산법화원으로 향했다.

적산법화원이 자리한 일대는 ‘적산풍경명승구’라 하여 중국에서 ‘AAAA’급 관광 명승지로 개발한 특별 구역답게 아름다운 산세에 둘러싸여 석도항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있었다. 적산법화원은 삶의 부지를 위해 신라를 떠나온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집결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 간 왕래 사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도량이었다.

제일 먼저 들러 본 ‘장보고기념관’은 (재)한국해양재단에서 전시물을 지원하고 중국 영성시 등에서 해양 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위상을 기리기 위해 2007년에 개관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5개의 전시실에 청해진에서 발굴된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개관 이래 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만큼 중국에서 이름난 곳이라 한다. 한국인이자 신라인인 장보고가 중국 사람들에게 더 높이 추앙받고 있다는, 그리고 그 기념관이 중국의 명소가 되어있다는 현실은 자랑스럽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인으로서의 장보고의 재조명이 늦었던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다섯 개의 전시실에는 장보고가 꿈을 좇아 당나라로 가게 된 배경을 알려주는 제1전시실부터 당에서 무령군중소장으로서의 활약을 그린 제2전시실, 그리고 3전시실에는 재당 신라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세운 적산과의 인연이, 4전시실에는 청해진에서 해상 무역망을 구축하여 번성하다가 염장에 의해 암살당한 비극적인 종말, 마지막 5전시실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보고 관련





활동들이 역사적 순서대로 잘 전시되어 있었다. 법화원의 곳곳에 장보고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마도 신라인의 정체성을 깊은 불심으로서 집결시키려는 그의 의도가 영원한 기원이 되어 아직 이곳 법화원에 서려있음이라.

중국 땅에서 張‘보고’라 한글로 기록된 비석에 씩씩한 여운을 뒤로하며, 11시에만 공연된다는 관음상 주변의 분수 쇼를 보기위해 자리를 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산명신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투어 버스를 탔다. ‘진작 버스를 탈 것일’ 생각하며, 너무 시원하게 우리를 적산명신 앞에 내려놓은 버스를 네 번까지 가고 싶은 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대륙에서 있는 불상이라 할 만큼 거대한 불상 앞에서 찰카! 법화원의 전경과 왼쪽으로 펼쳐진 석도항을 한눈에 가득 담은 후 우리는 집결지로 모였다.

장보고는 선단의 안전한 항해와 활발한 국제적 무역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면서 남중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 일대에서 천태종이 크게 성행한 것은 이곳 적산법화원이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장이자 불교 발전의 성지였으며 장보고는 동아시아 불교 교류를 이끈 선구자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연 그를 대사로 칭하여야만 할 것이다.

해신 장보고의 위업을 중국 땅에서 보아야했고, 또 여기에 그를 남겨두고 떠나야하는 마지막 일정이었기에, 또한 찰떡궁합이었던 우리 팀의 아쉬운 작별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습기로 내려앉은 석도항의 여름 공기만큼 무거웠다. 중국 현지에서의 마지막 점심을 먹은 우리는 터미널로 이동했고, 긴 시간의 기다림 후 다


시 돌아가는 화동훼리호에 승선했다.

출발할 때와 같은 선실은 마치 집에 돌아온 듯 익숙했고, 밤을 새워 황해를 건너면 다시 한 번 이 바다 위를 건널 기회가 있을까? 한국으로 들어가는 배편이라 저녁은 한식으로 제공되었다. 이번에는 합승한 많은 중국인들이 한식을 먹어내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중국 호떡처럼 보이는 음식을 가져와 먹고 있던 옆자리에 앉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에게 몸짓언어로 음식 이름을 묻자,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여 내심 깜짝 놀랐다. 나 또한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영어를 가르치지만, 엄청난 사교육비 속의 영어 교육 열풍에도 불구하고 말더듬이인 우리 학생들의 우려스런 현실과 중국 교육의 가속화된 비상에 일선 교사인 우리의 긴장감이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저녁에는 헤어짐이 아쉬운 몇 분 선생님들과 여행지에서의 일들을 떠올리며 밤이 깊어지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역시 집은 사람이 그리워하는 마지막 종착역. 아침에 일어나 짐을 문 앞에 두고 마지막 막으로 하선하는 우리 팀은 집으로 향하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느라 부산한 시간이 지난 후 하선한 우리는 짧은 포옹을 나누고 삼삼오오 지역이 같은 선생님들끼리 흩어져 집으로 향했다.

연일 불가마 더위를 예보하던 뉴스처럼 한국은 정말 더웠다. 하지만 고향의 더위는 익숙하고 정겨웠다. 휴대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 행복했고, 부산으로 오는 고속버스에서 세분의 선생님이 동승하여 더욱 든든하고 즐거웠다.





이번 ‘해상왕 장보고 중국 답사’를 통해 교사로서 세계적인 무역인 장보고와 같은 해양인을 양성하는 교육과 무한한 자원을 개발하고 타국과의 바다를 통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넓은 의미의 해양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잊혀 있었던 과제임을 깨달았다. 급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경쟁력은 더욱 절실 해졌으며 특히, 국가 간의 무역과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와 더불어 해양 자원, 무역 등 바다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인의 양성은 절실한 과제라 할 것이며, 이미 1,200년 전 항로를 개척하여 국제 무역과 중계 무역의 업적을 이룬 장보고 정신을 가진 해양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해양 개척과 더불어 미래의 탄탄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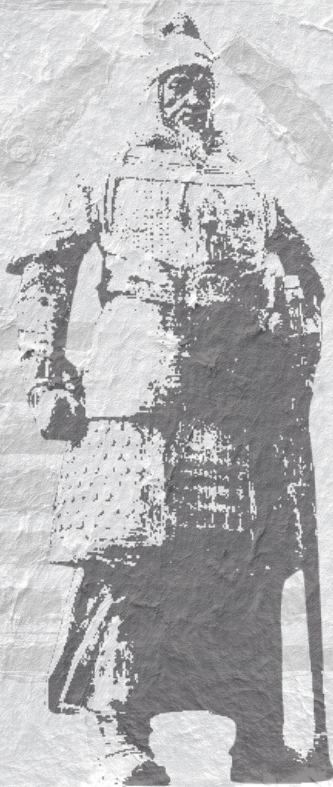
본 답사를 통해 가슴 깊이 느끼고 담아온 지식과 생생한 체험을 살려 초등학생부터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해양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배양하고, 해양뿐만 아니라 미지의 분야에 도전하는 개척정신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정신을 미래의 해양 한국을 주도할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교사로서 이러한 역량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기회를 주신 한국해양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

장보고,
내 마음에 우뚝 서다

인천 새말초등학교/ 조민자(가작)



“얘들아, 선생님은 이번 여름 방학에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다녀올 거다!”

‘은근히 자랑이시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진심인 것을 숨길 수도 없었다. 후배의 추천으로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나서 마음 속에서 요동치던 갈망을 잊지 못한다.

‘가고 싶다……. 정말 가보고 싶다…….’

지원 동기를 나름 소신껏 써서 제출한 이후, 들려오는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뿐이다. 반은 포기하고 있으라는 조언에 끄덕끄덕 동의는 하면서도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까닭은 아마도 작년부터 시작된 내 인생의 역사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3년, 한 해는 정말 소중한 365일이었다. 학습 연구년이란 기회를 부여받아 학교에서도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서도 한 발짝 떨어져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지치도록 보냈다.

연구 주제가 한국의 미를 찾는 것이어서 궁궐 공부부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사 공부로 이어지고 역사 공부를 함께 하는 소모임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답사를 다니느라 대상포진 걸리기 직전까지 달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축포가 터졌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그것은 스스로 신명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을 지피고 스스로



활활 타올랐기 때문 말이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다. 이 신바람을 내가 맡은 학생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국사 공부를 처음 하게 되는 5학년 학생들에게 역사 공부는 이처럼 재미있고 신나는 학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욕심이 조금은 채워진 것인지 한 학기가 끝난 지금 잠시 되돌아본다.

방학 직전 24명 학생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아직도 사회 과목은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잘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에서 나를 위안을 받았다.

이야기가 있는 수업, 유물과 유적을 찾아가는 수업, 위인을 찾아서 토론하는 수업, 그리고 스스로 시대를 정리해보는 수업……. 다양한 패턴의 수업을 구상하고 준비한 수업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학생들의 반짝이는 관심과 집중을 지켜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이 되었다.

역사책을 펼치고 신발 끈을 묶고……. 우리나라 구석구석 유적지를 찾아다니다 보니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동참하고 싶은 갈망을 어찌 숨길 수 있었으랴.

다행히 행운의 기회는 찾아왔고 방학을 맞이하는 기분이 사뭇 달랐으니 장보고 답사를 간다는 설렘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날(7.30)

드디어! 장보고다!

트렁크를 활짝 열어놓고 답사 일정을 살펴보면서 짐을 챙기는 마음이 분주하다. 버스를 타는 시간이 길다고 하니 멀미약도 챙기고, 좀처럼 여행지 음식에 부적응한 적이 없었음에도 혹시나 해서 조미김, 양념 고추장, 깻잎 장아찌까지 챙겨본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서 행여나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5일 동안 입을 옷, 운동화, 샌들을 챙겨도 트렁크 안이 여유로워 좋다. 겨울 여행과 달리 옷이 차지하는 부피가 작은 덕분이다.

역사 스페셜 5권 『미스터리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 중에서 장보고 한 쪽지 읽은 것이 사전 조사의 전부인데 좀 어떨까싶다. 답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이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너무 사전 지식에만 매달리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놓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답사가 유익하다.

일단은 떠나자.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오후 4시까지 집결이다. 동인천행 급행 전철을 타고 택시를 타서인지 한 시간 반이나 일찍 도착했다. 여객터미널 안은 중국으로 가는 중국인들로 북적인다. 관광을 가는 한국인들도 보인다. 빈 의자가 없다. 으레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했던지라 이곳이 꽤나 낯설다. 익숙하지 않은 것, 생경한 것을 쫓아서 떠나는 것이 여행이고, 그래서 여행은 불편하며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 여

행(Travel)의 어원이 고통(Trouble)이라는 것. 일리가 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 드디어 시작이다.

초등학생들이 단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인지 어수선하게 앉아서 끊임없이 종알거린다. 아이들 옆, 빈자리를 겨우 하나 찾아 앉았다. 한국어로 체험 학습을 온 것인가. 궁금하다. 하지만 중국말을 한 마디도 할 수 없으니 물어볼 수가 없다. 우리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떠드는 것처럼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떠든다. 가끔 목청 높여 외치듯 큰 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중국인들이 지나간다.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린다.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이순신편을 듣고 있자니 시간이 무료하지 않다. 이순신의 공적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선조 이야기가 답답하게 한다.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린 영웅으로 민심이 모아지는 상황이 왕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듯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명나라를 부른 것이 가장 큰 치적이라고 정리하는 왕의 결론이 참으로 혀를 차게 한다. 똑같은 무기와 똑같은 군졸로 싸우는데 장군이 원군이냐 이순신이나에 따라 참패냐 완승이냐가 결정되는 기록을 보면서 장군 한 명의 위대함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순신. 바다의 왕. 이제는 장보고를 익히러 간다. 이순신과 장보고가 오버랩 되는 순간 이번 답사에 동행하게 된 후배를 만난다. 좋은 답사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공유한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동료들이 부러워했단다. 나 또한 함께 지원했던 선배와 후배를 생각하며 감사해야지 마음먹는다.



집결지에 선생님들이 모여든다. 모자, 답사 안내 책, 여행용 세면 도구, 휴대용 충전기를 나눠준다. 뭘 또 이런 것까지 하는 마음이다.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 충분한 탓이다.

오후 4시 40분. 공개된 조별 명단에 나온 이름 순서대로 줄지어 서 승선한다. 중국 단체 비자로 열 명 정도 묶여 움직이자니 학생들 수학여행 온 듯하다. 4조 1번인 나는 맨 앞이 자리다. 4조는 여자 선생님 네 분, 남자 선생님 네 분이다. 동지가 되어줄 선생님들의 인상이 꽤나 좋다. 마치 같은 학년 선생님들을 만난 듯 만나자마자 익숙하게 말이 오간다. 벌써 웃음꽃이 만발이다. 나이 탓인가? 무서울 게 없어지는 나이가 도래한 것인가? 하지만 그래서 편해졌다면 나이 드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단점은 아니다. 0조부터 10조까지 차례대로 승선 절차를 받으며 마침내 배에 오른다.

이층 침대가 양쪽으로 벽에 붙어있고 화장실 앞에 2인 소파까지 있다. TV도 있는데 쳐볼 생각까진 못한다. 인천교대 5년 후배가 룸메이트다. 멀미를 잘하는 체질이라고 하니 아래층을 쓰란다. 마음 씩씩이가 고맙다. 동갑내기 언니 둘이 맞은 편 침대를 사이좋게 공유한다.

이렇게 4조 1팀은 6일간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는다.

선상 저녁을 먹고 8시에 식당에 다시 모인다. 답사를 주최한 한국해양재단 소개에 이어 세 분의 교수님들이 해상왕 장보고 강의를 한다. 교원 장보고 답사가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처음이고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인지 경쟁률이 예전 20대 1에서 7



대 1로 다소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새롭다. 7대 1이라고 해도 행운이다. 순간 뿌듯해지던 가슴이 생생하다. 장보고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 장보고의 평가까지 강의를 듣고 나뉘는 장보고의 가치를 되새김질 해본다. 왜 장보고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왜 21세기형 영웅 인지가 명확해진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보고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춰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출중한 능력이 신라의 골품 제도에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버리고 당나라로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고 용기이었을까? 신세계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부딪치면 길이 열리고 공을 얻는다. 장보고는 또한 인간적이다. 동포 신라인들이 해적들에게 붙잡혀 와서 노예로 매매되는 상황을 그냥 놓치지 않는다. 흥덕왕을 만나고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상 왕국을 건설하는 장보고는 역시 큰 사람이다. 그 후의 장보고의 역량은 절로 감탄이 나올 법하다.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무역 활동은 그를 해상왕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살다보면 고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생긴다. 운명처럼 닥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가.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속을 꿰뚫어 살아가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장보고처럼 그 모든 제한적 한계를 뛰어넘어 만인의 위인으로 우뚝 서는 스토리를 읽자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리얼 히스토리가 필요할 때마다 들이델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참 인간형 스토리인데 장보고도 리스트 꼭 대기에 올려놓아 본다.

작년 운현궁을 답사했을 때 흥선대원군의 흥망성쇠를 돌담길 따라 쪽 걸어보면서 참으로 무상하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다. 인간이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인간이 다 이루었다고 오래 버터주는 것도 아니다. 권력욕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탐욕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보면 과연 장보고의 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 나라면 청해진 일대의 해상왕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나 모를 일이다. 841년 11월 염장에게 피살된 이후 와해되어 버리는 청해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든다. 부모를 잃고 천애의 고아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울까? 어쨌거나 그 후로 찬란한 신라인의 해상 활동은 막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역사의 한 편이다.

강의를 들은 후 우리는 각자의 룸으로 돌아가 잠을 청할 수 있었으니, 머리만 대면 잠드는 좋은 생체 리듬 덕분에 바다의 물결 소리도 듣지 못하고 곧히 잠든 첫째 날이다.

둘째 날(7.31)

안개 속 그리고 적산법화원~

예정대로라면 아침 9시에 하선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본격적

인 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배는 30분 정도 더 항해하면 닻을 내릴 거리에서 멈춰버린다.

안개다.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닥칠까하는 짙은 안개가 배를 놓아주지 않는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틈에서 나와 갑판에 나가보니 두렵다.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응시하자니 세상은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이 보인다. 길을 잃고 서서 방황하던 때가 꼭 이랬다. 형체도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었던 두 해 전의 내 모습. 망망대해에서 혼자였다.

구명보트가 보인다. 늠름하다. 마치 등대 같다. 그래. 안개는 안개 일 뿐……. 더 이상의 걱정은 말자. 안개가 우리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개를 놓아버리자.

라운지로 올라간다. 할인 쿠폰으로 커피를 주문하니 옛 다방에서나 볼 수 있는 작고 하얀 커피 잔이 정겹다.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제법 흘러도 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4조라는 이름으로 만난 언니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대화의 주제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교단 일기부터 가족사까지, 건강식품부터 에어로빅까지, 해양 과학부터 손자병법까지, 사회복지부터 패션 트렌드까지……. 어제 만난 사람들 같지 않으니 이것도 예정된 인연인가? 점심 식사도 배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줄지어서 기다리기가 싫어서 서둘러 내려갔더니 이미 식당 앞엔 사람들이 빼곡하다. 언뜻 보이는 식당 주방 안이 무척이나 바쁘다. 예정에 없던 점심이다. 아니나 다를까 밥이 떨어졌다고 30분을 기다리란다. 서



있자니 그렇고 돌아서려니 그렇다. 매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서 먹자니 나쁘진 않다. 김치는 있었으니 말이다.

예정 시간보다 다섯 시간이나 지나서야 배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후 두시 반이 되어서야 출구 앞으로 나선다. 우리나라 같으면 등 대라도 가동해서 안개를 뚫어버렸을 텐데. 어느 선생님의 불멘소리도 일리가 있다. 불도저 같은 한국인이라면 무슨 일을 못할까 만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예민해진 현재로서는 그저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 기다리다 지칠지라도 안전하게 움직이고 싶은지도 모른다.

오전의 일정이 안개에 묶어버린 탓에 답사 일정은 조정된다. 마지막 날에 가기로 한 적산풍경명승구로 출발한다. 리무진 버스다. 외국 나와서 리무진 버스를 타보긴 처음이다. 편하다.

안개는 적산도 가린다. 반쯤 상체가 안개에 젖은 적산명신이 멀리 보이기 시작한다. 장대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근엄하게 앉아 있는 풍채가 입이 딱 벌어지게 한다. 큰 나라, 큰 나라 중국이라더니 이렇게 크기에서 압도당하게 하나 싶다. 우리나라 어디를 다녀도 이토록 큰 동상은 본 적이 없는 듯하다. 해신이다.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엎드려 빌면 지켜주겠노라고 장엄한 목소리로 약속을 굳게 해주실 듯하다. 적산명신에게 오르는 계단은 넓고도 높다. 적산명신 아래 적산대명신을 모신 건물 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옥으로 부조되어 벽을 에운다. 향로엔 타다만 향들이 꽂혀 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전이된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사진을 좀 찍으려면 뛰어야한다. 진정한 패키지여행이 시작된 것인가? 보고, 찍고, 돌아서서, 뛰어, 앞사람 꼬리 밟기. 이번 답사도 아마 그



렇게 흘러가리라. 단체가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다. 개인 사정 다 들어주면 일정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제 답사 시작인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보니 패키지 여행이라는 감이 온다.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유홍준 교수는 답사는 빨리 걸어 많이 봐야한다고 앞서서 뛰어다닌다. 하지만 뒤쫓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다. 내 사정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들리는 설명은 바람처럼 훑날리고 잠깐 서서 관찰한 유물 유적은 가쁜 숨소리에 가물거리다 사진 속에서만 빛난다. 그래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자유롭게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답사가 겁이다. 사전 지식도 준비 못하고 합류했으면서도 호기심은 많고, 사사건건 찬찬히 보고 싶은 욕심 또한 만만찮은 성격을 이번에는 내려놓고 싶다.

한국해양재단이 건립했다는 법화우의보정 뒤에 장보고 장군이 벽화 속에 앉아 있다. 뿔어져 나오는 기세가 위풍당당하다. 예사롭지 않다. 큰 칼 거꾸로 세우고 앉아있는 모습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진다. 장보고전기관으로 들어선다. 장보고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다. 용감했던 어린 시절부터 입당 후 무녕군 군중소장이 된 씩씩한 모습까지. 그리고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어 동아시아 삼국 무역의 중심으로서 찬란한 시대를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절절하게 전시되어 있다. 당시 무역선의 모형도 있고 무역 물품이었던 그릇들도 보인다. 장보고를 해치고자 칼을 품고 기회를 엿보는 염장의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춘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죽음은 비켜갈 수는 없는 법. 신무왕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을 것이고 문성왕이 자객을 보냈을 줄도 몰랐을 것이고 정도전이 이방원의 칼에 무참



히 죽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2호차 현지 가이드는 야무지고 똑 부러진다. 설명도 잘하고 진행도 잘한다. 젊은이가 당차다. 장보고기념탑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 이름표를 목에 걸고 똑같은 모자를 쓴 모습에서 일체감이 느껴진다. 순조롭고 즐거운 답사가 되리라.

드디어 적산법화원에 도착한다. 장보고가 세운 사찰이다.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세웠다는데 청해진 대사 시절의 엄청난 부의 결실로 지어질 수 있었던 듯싶다. 법화경 강회를 듣기 위해 250여 명의 남녀가 모였다니 당시의 규모가 가늠된다. 법화원 입구 앞에 해치 같은 동물상이 양쪽으로 있다. 우리나라 절과는 다르게 일주문도 없다. 현실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의 진입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얀 돌난간이 있는 다리를 건너자 대웅보전이 보인다. 대웅보전 양 옆으로 관음전과 지장전이 있다. 향을 피울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 대웅보전 입구 양옆으로 매달려있는 빨간 목어가 눈에 띈다. 불전 기둥들도 온통 붉은색이다. 금동불상 단 집은 황금 천이다. 강렬한 색들이다. 법회를 알리는 천도 붉은색에 하얀 글씨다. 나무에도 다리 난간에도 온통 소원 리본들이 퐁퐁 뭉여 춤춘다. 빨강 노랑 초록……. 무엇을 염원했을까? 장보고 시절과 현재의 소원은 같을까 다를까? 과연 나는 무엇을 소원하는가? 지붕 위의 치미가 유난히 삐죽해 보이는 대웅보전을 뒤로 하며 걸어 나온다. 당나라 무종의 사찰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72년 터가 발



견되고 1989년 다시 지어졌다는데 마치 우리나라 광화문이 급하게 복원되느라 시멘트로 급조되었던 모습처럼 법화원에서도 시멘트 냄새가 나는 것은 너무 예민한 나의 감각 탓이리라. 적산법화원 내의 청해진대사 장보고 공적비를 보니 아직도 동아시아 해상을 호령하고 있는 장보고의 기상이 느껴지기도 한다.

적산법화원 답사를 마치고 우리는 장장 일곱 시간이 넘는 버스 이동을 거쳐 치박에 도착한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1시다.

셋째 날(8.1)

태산에 오르고, 공자의 고향을 찾다…….

어젯밤 늦게 도착했어도 출발은 7시다. 태산에 간다 해서 운동화를 신는다.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뒤흠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이 없건 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흠로 높다 하더라. 머릿속에서 맴맴 도는 시구에 나오는 그 태산을 간다니 설렌다. 영험한 산이라고 믿어 3,000년 전부터 왕들은 태산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단다. 태산의 신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며 죽은 영혼들은 여기서 생전의 행위의 선과 악을 재판받는다고 하니 중국인들이 7,412개의 돌계단을 오르는 순례 행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좀 이해된다. 그래서 그런지 지팡이를 들고 걷고 있는 중국인들이 떼처럼 몰린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태산을 왔다면 나도 케이블카를 타지 않



고 순전히 걸어서 오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산할 때 암벽이 많아서 무릎이 아파 고생했다는 산행인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번은 산행이 목표가 아니니 그저 편안하게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고 내린다. 또한 목표는 주봉 1,545m 정상에 있는 옥황정에 가는 것이다.

신기하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분명 산꼭대기가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같다. 폭이 넓은 도로가 있고 양옆으로는 상점이 있으며 기와집이 모여 있고 오래 전에 지어졌다는 호텔도 있다. 태산은 태산인가? 정상에 마을이 세워져 있으니 말이다.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마치 만리장성을 걷는 느낌이다. 만리장성에 갔을 때도 그 장성의 폭이 그리도 넓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때로 몰려다녀서 정신을 쏙 빼놓더니 여기 태산의 정상에도 사람들이 한 가득이다.

황금 옷을 입은 옥황대제 앞에는 갖은 제물이 차려져 있다. 물병, 과일, 신발, 대추, 담배, 볼펜……. 순례자들의 정성일까? 또한 옥황정 가운데 기암 주변에는 소원 리본들이 자물쇠로 똑꼭 동여매어져 빼곡하게 둘러쳐져 있다. 빨간 리본에도 글씨, 누런 자물쇠에도 빨간 글씨가 똑꼭 눌러쓴 듯 적혀있는데 내용을 알 수 없다. 그 뿐인가. 태산의 내로라하는 기암 바위에는 왕들이 새긴 글씨로 도배되어 있다. 우리나라 무릉계곡의 넓적 바위에 새겨진 글씨들과는 다르게 이곳의 글씨들은 원색의 색깔을 입어 강한 인상이다. 깊게 새겨 오랫동안 족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가. 한 무제는 태산에 오르니 감개가 무량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비석에 아무 글자도 새기지 못했다는데 오히려 그 쪽으로 눈길이 더 가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하산 시간은 30분. 사람들을 헤치며 내려오는데 가지 못한 길로 호기심이 간다. 설명만 듣고 발을 디더보지 못한 길로 마음이 쏠린다. 쿵닥쿵닥 뛰는 마음처럼 발걸음도 뚱다. 내려가다 왼쪽 길로 삐죽, 내려가다 오른 쪽 길로 삐죽. 우리 반 아이들 마음도 이럴까? 피식 웃음이 난다. 애들과 다를 게 없는 마음이다.

이제는 공자의 고향 곡부로 간다.

솔직히 공자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다. 학생들에게 열공을 부추기고자 복창을 하게하고 암기하게 했던 말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뿐.

버스에서 내리자 공묘 외성 밖 물길 따라 늘어선 우람한 수양버드나무가 바람에 쇠쇠 춤을 춘다. 벽돌로 쌓은 성벽에 홍예문이 있다. 금성옥진방을 지나 7개의 문을 통과해야 대성전이 나온단다. 자 금성을 들어서는 느낌이다. 급하게 걸으니 천여 개의 비석이 지나가고 용이 승천하는 즐거움을 가진 향나무도 지난다. 문화혁명시기에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단청이 세월에 씻긴 모습에서 지난한 흔적들이 느껴진다. 자꾸 성균관의 대성전이 뇌리에 떠오른다. 11월 초에 가야 가장 아름답다는 명륜당 앞 은행나무도 생각난다. 막상 이곳에



는 은행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대성전은 2층 황금 지붕에 전면 8칸 건물이다. 기둥마다 비상하는 용이 강렬하게 새겨져있어 위용이 왕궁을 능가하는 듯하다. ‘만세사표’라는 편액 아래 모셔져 있는 공자는 온통 황금빛으로 빛난다. 세계 4대 성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위대함인가? 대성전에도 경복궁 근정전의 월대가 있다. 궁과 다름없음인가? 성균관 내의 동재와 서재 같은 건물을 따라 걸어 나오며 ‘군자는 자기에게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 구한다.’는 구절을 떠올려본다. 부단히 학습해야 하는 이유인가? 하지만 학습은 표현하기 위한 것. 이제는 그만 배우고 자신을 100프로 다 소진하여 불태우는 데 힘쓰라는 어느 교수님의 열변에 더욱 공감이 간다. 요즘은 더더욱…….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 겸 관공서인 공부를 빠른 속도로 휘리릭 돌아보고 공자의 묘소인 공림으로 달려갔다. 오후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아뵘싸. 내가 도착한 시각은 5시 7분. 5분 늦었다는 1호차 팀 현지 가이드가 끈질기게 사정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절대 NO! 되돌아 설 수밖에. 저녁 식사로 공부가연을 즐기면서 우리는 아쉬움을 잊는다. 호텔 도착 밤 11시. 공림을 갔다면 어젯밤처럼 밤 1시 도착? 공림을 패스한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순마쟁을 목격하다…….

다시 석도로 돌아가야 한다. 일곱 시간의 버스 여행이 기다린다. 청도로 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순장 마차들을 발견했단다. 전국 10대 고고학 발견의 하나라고 불린다는 2,800년 전의 고분은 중국고차박물관이 된다. 박지원이 열하를 방문하여 수레를 보고 경탄을 했다는데……。 수레의 역사는 전쟁과 관련이 있나보다. 제후국들 간의 전쟁이 치열했던 춘추전국시대에서는 전쟁의 필수 도구가 수레가 아니었을까? 고차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수레들은 참 다양하다. 코끼리가 끌고 소가 끌고 낙타가 끌고. 한 마리의 말이 끌기도 하고 네 마리의 말이 끌기도 하고. 차 모양도 그렇다. 서커스단의 구르는 공 같기도 하고 시골집 같기도 하고 황궁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다. 마차와 말들이 화석처럼 굳어있다. 몇 천 년을 썩지도 못하고 묻혀있었던 말인가! 줄지어 나란하게 누워있는 뼈다귀들을 바라보는 것이 편하지 않다. 순마쟁을 보러 가야하나 마나 싶다. 순마쟁 가기 전에 제국역사박물관부터 들른다. 건물이 성벽 모양이다. 제나라로 입성하는 듯하다. 다양한 모양의 그릇과 농기구, 쇠뇌와 갑옷, 명도전과 기와, 마을 모형과 축국 그리고 소, 말, 사람, 마차가 뒤엉켜 싸우고 있는 전쟁의 모형까지. 역시 박물관은 종합상자다. 우리나라 나주에서 발견되어 백제시대의 무덤 형식 중 하나라는 용관을 발견해서 신기하고 우리나라에선 귀해서 그릇으로는 사용하지 못했다는 청동기 그릇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 놀랍다. 명도전



을 10월에 두 개 사서 나오면서 제나라와 고조선의 관계를 꼼꼼이 생각해본다. 한국사를 공부하다보면 중국사와 연결 짓게 되고 더불어 일본의 역사까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구입한 『진시황 강의』 책이 생각난다. 집으로 돌아가면 얼른 읽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나라 군주의 묘로 추정된다는 순마갱으로 향한다. 228필이 순장되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군주였기에 죽어서도 위세인가? 유리벽 아래로 105필의 순마를 보자니 갑자기 언짢아지는 기분이 들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만다.

석도로 가는 동안 재단에서는 대국굴기란 다큐멘터리를 보여준다. 중국 CCTV에서 제작했는데 초강대국이 되고자하는 열망을 담았는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을 포함 9개국의 강대국 등장 과정이 담겨 있다. 졸음을 쫓을 수가 없어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구해서 보고 싶다.

다섯째 날(8.3)

유공도, 중일갑오전쟁기념관에서…….

지난밤에 거세지던 파고는 잦아진 듯하다. 돌아가는 날이다.

태양이 뜨겁다. 배를 타고 유공도로 들어간다. 1894년 청일전쟁. 중국에선 갑오전쟁이라고 한다. 치욕을 되새기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인가? 중국인들이 선착장부터 인산인해다. 앞 사람을 놓칠까 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단체의 상징인 모자들을 주시한다. 중



국민들의 행렬이 줄지 않는다. 유공도에 가는 것인지 박물관에 가는 것인지? '세상 밖의 무릉도원'이라는 청정지구에 거대한 전쟁기념관을 건립한 중국. 과연 서태후의 악령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인가? 역사는 흐른다. 패턴이 비슷하다.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국의 근대사를 생각하며 중국의 갑오전쟁기념관을 걷는다. 청나라와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에서 싸웠다. 두 나라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조선이다. 여전히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운다. 청일전쟁 같은 수치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인들은 과연 여기 중국인들처럼 되새기고 있는가? 치욕의 역사를…….



여섯째 날(8.4)

인천에 돌아오다~

어제 오후 4시에 승선. 그러나 배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태풍의 영향이다. 올 때는 안개에 갇히고 갈 때는 태풍에 갇힌다. 답사하는 동안 정이 든 4조 선생님들이 갑판 위에서 뭉친다. 조각 달 아래 밤 바람이 제법 차다. 해양 동아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 보기로 한다. 인연이 깊다. 장보고 답사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 옆에서 중국 여자애들이 K팝 아이돌 콘서트에 간다고 좋아하며 춤추고 노래한다. 스마트폰이 선생님이다.

4일 오전 11시 반. 안전하게 하선한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

인다고 해서 바다라고 했던가? 멀리 보이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우
뚝 버티고 선 장보고가 호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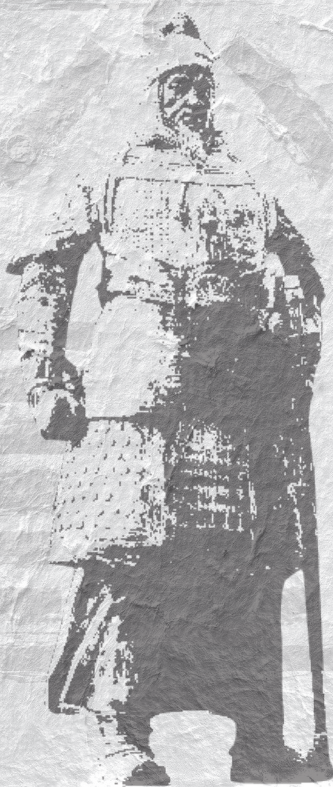
“21세기 동아시아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한국인이다.”
라고…….



20

석도항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서울 공업고등학교/ 윤병남(가작)



교단에 처음 섰을 때, 열정만 있으면 교실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성실과 소명의식을 다해 전달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교사가 되고자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성실함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교직 생활을 수행해 왔습니다.

때에 따라서 학생들과 지내는 학교생활 외에도 밤을 지새우며 산행도 하며 며칠씩 야영 활동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교직 생활 31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도 해 보았으나 결론은 사람을 가르치며 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가장 큰 사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인도와 전도로 시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않는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 교사가 될 것인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사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번뇌하며 생활하던 중 언행일치의 마음으로 먼저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생활한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보고 듣게 하여 느끼게 하는 교육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며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지원했으나 떨어지고 제 스스로가 크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다시 한 번 도전하자는 굳은 다짐을 갖고 있던 중 세월호 참사로 공문이 없어 답사가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문을 접하고 작년 지원 자료를 수정하고 보충하여 답사 공문을 알려 준 방송반 선생님과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설레는 마음과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실망의 마음이 서로 교차하며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공지사항에 답사 명단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원서 작성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이주원 선생님, 임정운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과 저를 정신적으로 지지하며 선생님의 답사 소감을 듣고 싶다고 말하며 응원해 주었던 학급 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확정 명단에 있어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동시에 같이 지원한 선생님께 미안했고 도움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방학 전 점심을 같이하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반 학생들의 응원과 격려 역시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하간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참여한 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많이 보자, 많이 듣자, 그리고 많이 느껴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제 지난 과거에도 석도항에 떠오르던 태양을 바라보며 부국강병과 대양진출의 기상을 꿈꾸었던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려 합니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2014.07.23)

21일 방학을 하고 토목과 선생님들과 1박 2일 연수가 있어 참여하다 보니 답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가 덜 되어 연수가 끝나고 22일 학교에 등교하여 밤늦도록 자료를 준비했다. 자료 준비는 주로 장보고 대사의 활동 무대였던 청해진과 산동성 신라방에 관한 조사를 했다.

23일 아침 7시까지 학교에 등교하여 장보고 대사의 해상 활동 업적과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동아시아에서의 위대성 등을 조사하여 준비했고 13시 30분경 7호선 보라매역을 출발 인천항에 14시 50분경에 도착했다. 모임 장소인 여객터미널 내 명진 약국을 확인하고 터미널 앞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답사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15시 40분경 모임 장소인 약국 앞으로 왔을 때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답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 계신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있었다.

나도 현대아산 여행사 직원들의 따뜻한 안내로 유적지 답사 책자와 한국해양재단에서 준 모자를 받고서야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참가자의 일원이 됨을 느끼게 되었다. 참가자 선생님 중 처음 만난 선생님은 부산 해운대에서 올라온 신도고등학교 황희정 선생님이었다. 밝고 명랑하며 첫인상이 즐겁고 답사에 많은 도움이 될 느낌을 받았다. 여하간 만나는 선생님들은 모두 학생에서 즐겁고 보람된 교직 생활을 하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시라고 생각되었다.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전체 조별 모임을 갖고 답사에 대한



주의 사항과 승선에 관련된 안내를 듣고 승선하기 시작했다.

승선 후 배정받은 306호실을 확인했다. 4인 1실로 같은 조는 아니지만 인천과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새로 만나 반가웠다. 짐 정리 후 18시 30분경 중국 소속 화동훼리 승조원의 진행으로 선내 동영상 비디오를 통한 안전교육을 받고 선상에서 맛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20시 30분에 위대한 장보고 대사의 발자취 및 해양 자원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선상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를 통해 장보고 대사의 위상과 업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활약상을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 해양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이번 답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침실로 왔다. 한양공고 박태연 선생님, 서울공연예술고 김면철 선생님, 인천 선인고 김경수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2일간 오가면서 함께 할 선생님들의 학교생활과 교육관 그리고 답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

갑판으로 올라와 사진 몇 장을 찍고, 침실로 돌아왔다. 흔들리는 배 그리고 낮은 환경, 답사의 목적, 답사 후 활용 계획 등을 생각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막상 잠자리에서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새벽 5시경 조심조심 일어나 석도항을 보려하였으나 아직 석도항은 멀리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석도항(2014.07.24)

갑판 위에서 바라 본 바다와 석도항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항구 같은 느낌을 받았고, 물풀 띠가 먼저 마중을 하였다.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처음으로 석도항에 도착하여 바라보았던 석도항을 상상하며 지금 석도항의 발전 모습과 거대 중국을 생각해 보았다.

하선 및 입국 수속을 하고 현지 교포 가이드 박철 님과 미팅을 하고 답사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3박 4일간 타고 이동할 전용 버스를 30분 정도 기다렸다. 이 버스는 북경 올림픽 때 사용했던 버스라고 한다.

서울, 전주, 대구, 영광, 원주 등 전국 각 시도에서 답사에 참여하신 7조 조원들끼리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누고 석도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기대에 부푼 중국 산둥성에서의 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착한 전용 버스 3호차는 매우 쾌적하고 좋았으며 인솔 책임 담당은 명지대 김덕원 교수님과 국내 박정서 가이드와 현지 교포 박철 가이드가 함께 탑승하여 3박 4일간 도움을 주시기로 하였다. 3호차에 탑승한 답사팀 선생님들의 소개가 돌아가며 진행되었고 버스는 해안을 따라 위해로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으로 바라본 석도항에서 위해까지 대한민국 중소도시를 넘어 대도시 이상으로 높은



빌딩과 아파트, 숲, 깨끗한 거리 등 미관상 모두 질서가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간혹 한글 간판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국의 위상을 확인 할 수도 있었다.

그동안 여행 했던 북경, 황산, 장가계, 윈가계, 연변, 백두산 일대, 항주, 소주 등에 비교했을 때 상상 이상으로 발전상을 느꼈고, 의식주 수준도 몇 단계 향상되었음을 보았다.

산둥 위해에 있는 유공도는 산둥성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고 중국 최초의 해상 산림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위해 항구의 입구에 위치하여 동쪽 연해를 지키는 중요한 지리학적 조건을 갖춘 군사적 요충지로 청나라 이홍장이 북양 함대를 창설하여 침몰하지 않는 전함이라는 요새로 자리하기도 한 곳이다. 그러나 황해 해전을 거쳐 청일전쟁 이후 북양함대의 침몰과 참패로 중국 역사에서 치욕의 장이 된 유공도에서 북양해군 충혼비를 보았고 청일갑오전쟁박물관을 참관하였다. 그 당시 국민들의 시련과 고통!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약자의 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힘을 기르고 강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조선의 역사 또한 일본과 중국이 강국이 되기 전 부국과 강국이 되기 위해 몸 바쳐 노력했던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기상과 미래의 개척정신 등이 이어져 왔었다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선진국이 되어 일본과 중국을 통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역사 속에 위인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세계 속의 위인으로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을 발굴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혼과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느꼈다.



유공도에서 치박으로 긴 시간 이동하면서 김덕원 교수님과 박철가이드에게서 중국 역사와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을 때 마음은 1,2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한 버스 안에서 해상왕 장보고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비록 버스 내에서의 시청이었지만 중국에서 보는 것이라 매우 마음에 와 닿았다.

이동 거리는 길었지만 시간은 짧게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사방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농경지가 마음을 몽클하게 했다. 만약 해상왕 장보고의 미래 개척정신이 계승되었다면 신라인의 농경지가 되었을 것을 아쉽고 원통함을 느끼며 밤 12시경 치박만호대주점에 도착하여 내일을 기대하며 한양공고 박태연 선생님과 2인 1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태안 곡부(2014.07.25)

태안에 있는 중국 5대 명산 중 으뜸으로 일컬어지는 태산을 향해 아침 일찍 들뜬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천하제일의 명산인 태산의 경치는 ‘여유묘오광(麗幽妙奧曠)’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는 빼어난 풍경과 황제가 제사를 드렸던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산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태산 케이블카 입구에 도착해보니 케이블카가 운행될 수 없다는 관리인의 말에 몹시 실망스러웠다. 이유인 즉 태풍으

로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쉬운 발길을 돌려 돌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가다가 돌아오기로 하고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정상까지 가고 싶었으나 단체 생활과 시간문제로 사진촬영을 하고 기대 이하의 아쉬움을 마음에 새기며 하산했다.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 꼭 정상에 도착하여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옥황묘와 출산을 권장하는 여신 벽하원군을 모신 벽하사를 보기로 하고 곡부로 이동하였다.

곡부는 노나라의 수도이자 공자의 고향으로 유교의 발생지라는 역사성을 간직한 곳이다. 공자의 무덤인 공림에서 유교사상에 대한 생각에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곡부에서 공묘, 공부, 공림은 단일 가문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위대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제왕의 정치는 역사의 흐름 뒤 지난 후세인들에 의해 다시 평가되기에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활약 중 국가의 충신에서 역적으로 수모를 당한 원통함을 느껴보았다. 아무튼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 올바른 분별력과 사고력으로 해양 강국으로의 발길을 돌렸으면 한다.



치박(2014.07.26)

아침 식사는 호텔식으로 하고 중국고차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대규모 순장 마차들이 있는 흙으로 된 봉분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중 1990년에 발견되어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춘추차마전시관과 중국고차진열관으로 나뉘어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을 통해 볼 때 전쟁에 사용되었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었으며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면서 장식이 매우 화려하기에 중국 최고로 손꼽힌다고 한다. 또한 전차전의 모습과 함께 중국 고차의 다양한 모습을 한 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제일의 고차박물관을 견학하고 순마궤로 이동하였다. 순마궤는 제나라 군주의 묘로 추정하고 있으며 말을 순장한 묘이다. 당시 말이 군사적으로 소중한 시기였으나 군주의 묘에 약 600필 이상의 말을 순장할 수 있었던 군주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부국 강국이 되기 위한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다음은 제나라역사박물관을 견학했다. 제나라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제나라의 형성 발전 흥망을 보여주는 300여 점의 유물과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치박에서의 답사를 정리하고 석도로 긴 시간 이동하였다. 석도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는 샤브샤브 만찬으로 하였다.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1차 팀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고 숙소인 석도 적산대주점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했다.



석도(2014.07.27)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 5박 6일 중 가장 가까워서 장보고 대사와 접할 수 있는 중국 산둥반도 항구 도시 석도항은 1,200년 전 재당 신라인들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완도 청해진을 출발한 장보고 대사와 선단이 항로를 이용해서 중국 대륙의 거점으로 삼았던 포구이기도 하다.

석도항 적산 기슭에는 불법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에 왔다가 고난의 시간 속에 처하게 된 일본 스님 엔닌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마다 신라인 장보고 선단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 것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여 오늘날의 장보고를 알게 한 인물 중의 한 분으로 일본 천태종의 3대 교주가 된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신라인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그 당시 산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불교사원은 적산법화원이었다고 한다.

장보고 대사는 당나라 무령군에 입대하여 이사도 변진의 토벌에 공헌하여 무령군 소장으로 진급한 이후 무령군에서 나와 석도항을 거점으로 재당 신라인들을 결집시켰고 그 후 무역 활동을 하면서 해상 무역이 번성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적산 기슭에 법화원을 창건하게 되었다고 한다. 타지에서 여러 고난을 겪고 있는 재당 신라인들을 위해 종교적 신앙심을 갖고 마음의 안식처로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장소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보고 대사는 법화원에서 매년 곡식 500석을 수확해 스님과



신도들에게 접대했다고 한다. 또한 매년 한가위가 되면 재당 신라인들은 법화원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 이곳은 신라인들을 응집시키고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심 공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나라 무종이 정권을 잡으면서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 탄압 정책으로 법화원도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고 한다. 이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법화원을 1988년 중국 정부는 한·중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법화원에서 일본 스님 엔닌이 2년 9개월간 체류하며 저술한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내용을 토대로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1990년 5월에 개관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장보고기념관을 개관하고 적산 언덕에 당시 세계한민족연합회장의 주도하에 장보고기념탑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필에 의해 건립되어 있었다.

답사 여정의 마지막 날 해상왕 장보고기념관 동상 앞에서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장보고 대사를 만났다. 1,200년 전 해상왕으로서 말이다.

좀 더 눈과 귀 그리고 느낌으로 느끼고 장보고 대사의 흔적을 자세하게 만나기 위해 총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기념관 구석구석을 관람하였습니다.

장보고 대사의 어린 시절부터 입당 배경과 법화원을 건립하고 신라로 돌아가 청해진을 건설해 해상왕으로 활약하는 과정을 비롯해 염장에 의해 암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웬지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해상왕 장보고가 이룩하고자 했던 해상 무역 제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모두 가늠하기엔 너무 짧은 5박 6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장보고 대사가 꿈꾸었던 거대한 해상 무역 제국과 웅대한 해양 개척정신을 통해 삼면이 바다인 해양 민족의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동회리(2014.07.28)

답사로 피곤하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짧은 시간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용맹한 기상, 해양 강국의 열망, 개척정신 등을 생각하니 정신은 더욱 뚜렷해졌다.

학교에 돌아가 해상왕 장보고 답사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2, 제3의 해상왕 장보고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또한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수한 해양 인력 양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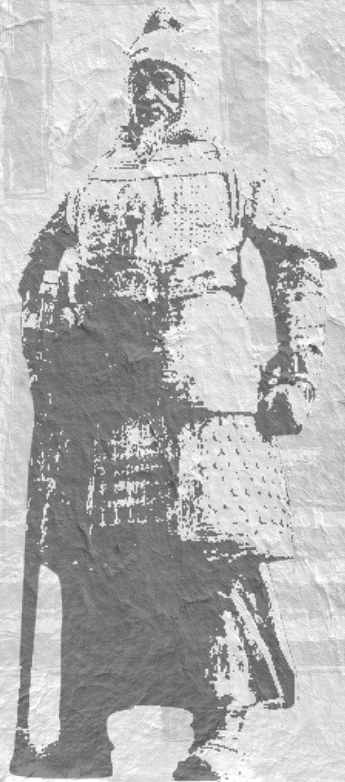
끝으로, 오늘도 석도항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좋은 기회 주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사를 드리면서 이번 답사의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21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찾아

성남초등학교 / 강순해(가작)



우리나라는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토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예로부터 일본과는 바다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잦았고, 왕건의 나주 점령 등 한반도 내의 역사를 결정짓는 순간에도 종종 바다가 등장한다. 육로보다 바다가 중국의 문화 중심지와 한반도 문화 중심지의 거리가 가깝고, 일본과의 문화 교류는 바다로만 가능했기에 한반도는 중국으로부터 땅과 바다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 이를 다시 일본에 전파하는 문화 교류의 교량 역할도 했었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바다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사람 정도를 떠올린다. 한 명은 임진왜란 때 멸망할 뻔 했던 조선을 구한 명장 이순신이다. 또 한 명은 통일신라시대에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았던 장보고이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영화, 드라마, 사극 등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하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보고는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바다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신라시대 사람이다 정도 외에는 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이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순수 한반도 영토 내에서 활동했으며 난중일기라는 장군의 일기가 남아있고, 조선왕조실록 또한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 풍부



한데 반하여, 장보고의 경우는 그 활동 영역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신라시대의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날 - 해상왕 장보고의 평가

온도는 약 30도가 넘고 습도가 80프로 이상인 날씨에 성인 남성 크기만 한 짐을 양쪽 어깨에 메고 우여곡절 끝에 바다 냄새가 잔뜩 풍기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1,200년 전 장보고가 활동하던 곳을 살펴보고, 해상왕 장보고가 보여준 개척정신과 도전정신,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배울 생각을 하니 힘든지도 모르고 가슴이 설레기만 하였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여객과 화물을 싣는 ‘화동훼리호’에 승선했다. 육지에서 선박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하나씩 오르고 선교(Bridge) 바로 아래 311호 방을 배정 받았다.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무심코 배 측면에 붙어 있는 작은 창(Scuttle)을 통해 보니 무인 등대가 보였다. 그제야 내가 중국으로 진짜 떠나는 게 실감나기 시작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긴 여정에 앞서 장보고를 생생하게 살려내야 하는 임무를 다시 한 번 새기며 다짐을 했다.

저녁 시간 배 안에서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사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민간인인 장보고(?~841년)의 이름 앞에는 흔히 해상왕 또는 무역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장보고는 ‘칭해진 대사’로 임



명됐다. 해적들을 소탕한 공으로 붙여진 이름이어서 사실상 ‘관직’은 아니었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진골 이상이어야 ‘장군’이 될 수 있었고, 관직 진출의 기회도 6두품 이상만 가능했다. 섬(전남 완도) 출신의 천민이었던 장보고는 통일신라의 관직 체계상 벼슬을 할 수 없었다. ‘대사’는 장보고를 위해 생긴 새로운 벼슬이었던 것이다. 장보고는 전남 완도인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과 신라 그리고 왜를 잇는 중개 무역을 통해 반도 남단의 작은 섬에 불과했던 청해진을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무역과 평화적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적극적인 대외진출과 세계 경영으로 동북아시아를 한민족 중심의 경제·문화 공동체로 엮어냈다. 당시 아랍에서 중국까지 이어지던 국제무역 루트를 한반도와 일본으로까지 연결시킴으로써 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하였으며,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기여한 인물이다. 장보고는 불교의 후원자로서 적산법화원을 비롯해 완도와 제주에도 법화사를 건립하는가 하면 대당 유학승을 지원해 한국 불교의 주류인 선종의 구산선문의 기초를 마련했다. 장보고는 우리 역사를 빛낸 수 많은 위인 중 민간인 신분으로 유일하게 중국, 일본 정사(正史)에 모두 기록된 인물이다. 평화와 상생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는 장보고의 일대기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바다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하루의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 바다에 안개가 끼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던 중 문득 장보고와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선이 항해하는 항로로 인천항에서 중국 석도항까지 약 400km(220마일), 서울에서 부산까지와 비슷한 거리, 화동훼리호의 최고 속도 22노트로 항해하면 약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조선 기술도 떨어졌고, 등대 기술도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 당시 배들은 지금보다 작았으며 금속이 아닌 나무로 만들어 졌었고, 레이더나 GPS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고, 도로와 다르게 길이 표시되어 있거나 현재 위치가 어딘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장보고와 우리 선조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해상 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바다를 건너고 배를 지키며 중국에서 일본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에서 무역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 이번 답사가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다.

우여 곡절 끝에 배에서 내려 본격적인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가 시작됐다. 답사한 곳은 적산법화원, 장보고기념관, 장보고전기관, 장보고기념탑(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져 있는 이 탑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세워진 외국인 기념탑이다. 1994년 7월 건립된 이 기념탑은 두 개의 기둥을 고리로 잇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친교·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한다.)을 답사했다. 적산법화원은 통일신라시기 신라원 중 대표적인 곳이다. 이 절은 장보고가 세



운 절로 장보고가 이후 무역 활동을 하는데 기반이 된 절이다. 또한 이곳은 당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의 신앙의 거점이었으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곳이었으며,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연락처 역할도 했던 곳이다. 그 당시 많은 신라인들이 이 절에 의지하였고, 대당 무역을 하는 신라인들의 정신적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아쉽게도 이 절은 장보고가 지었을 때 당시와 온전하게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다. 당나라 무종 때 불교 탄압으로 인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절은 한·중 수교가 시작된 뒤 일본 승려 엔닌의 저술을 근거로 복원되었다. 적산법화원은 우리나라 절들과 비슷하게 산기슭에 위치해 있었다. 산을 올라가니 적산법화원의 입구가 보였다. 입구에서부터 이 절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느껴졌다. 장보고 또한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갖은 인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설렘을 간직한 채 적산법화원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입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장보고 상이 보였다. 그 상이 보이자 “역시 장보고가 지은 사찰이구나!”와 “장보고가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큰 대우를 받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 산동지방 중국인들보다 장보고 및 신라인들의 후손인 내가 장보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다는 생각에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안개 속에서도 커다란 장보고 상은 마치 우리 답사대를 환영하는 것 같아 보였다. 장보고 상을 지나가니 본격적으로 절이 보이기 시작했다. 입구부터 그러하였지만 적산법화원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절과는 모습이 좀 달랐다. 우선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여서 그런지 절 건물들의 기둥들이 우리나라 절들의 기둥들보다 확





연하게 붙었으며, 붉은 리본이 절 곳곳에 묶여있었다. 절 안에는 장보고 상 말고 기념관도 있었다. 장보고기념관은 2007년 중국 정부의 공식 승인 하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더욱이 대단한 건 최초로 중국 정부에 승인된 외국인 기념관이라는 것이다. 이 기념관에는 장보고기념사업회가 기증한 150여 점의 유물과 청해진 발굴 유물 복제품, 장보고 시대의 무역선 복원 모형 등이 전시돼 있었다. 순수 중국 자본에 의해 건립된 시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각종 설명문과 해설이 중국어와 한국어 등으로 장보고의 업적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장보고가 신라인이라서 그런지 중국어 설명과 함께 한국어 설명이 붙어있다. 자존심이 대단한 중국인들이 외국인을 위해 이런 특혜성 기념관을 짓다니 해상왕 장보고의 위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셋째 날 - 태안 곡부

답사 삼일 째에는 태산과 곡부를 답사했다. 태산은 그 위치나 생김새는 몰라도 대부분 이름만큼은 아는 특이한 산이다. 우리나라 속담인 ‘티끌모아 태산’에 나오는 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산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이 속담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큰 산이기에 타국의 속담에까지 인용될까?”하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태산을 답사하며 이 궁금증은 금세 풀렸다. 태산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이었다. 태산은 태안에 위치하여 우리

숙소로부터 한참 멀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5시간 정도 이동했는데 이게 고역이었다. 우리나라만큼 도로 포장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차 주행이 매끄럽지 않았고, 너무 장시간 이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예전에 무역을 위해 돌아다니셨을 우리나라 선조들과 장보고가 떠올랐다. 그들은 무역을 위해서 이러한 길을 마차를 끌고 말을 타거나 도보로 걸어서 다녔을 것이다. 그 당시 신발은 현재와 다르게 쿠션이 좋지 못했을 것이며, 짐의 양도 거상이다 보니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새삼 그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드디어 태산에 도착했고 등산이 시작됐다. 태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으로, 중국의 다섯 명산인 오악 중 최고봉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산이다. 이렇듯 그 규모와 의미가 어마어마한 산이라 산 전체를 도보 등정한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등정했다. 산 정상에 올라 산을 내려다보니 그 풍경이 장관이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태산의 기운을 받아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유명하고 풍경이 수려한 산이니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장보고도 이 산을 한 번쯤은 올라 이 웅장한 풍경을 보며 동아시아 무역의 패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마치며 오전 일정을 마쳤다.



오후에는 곡부를 답사했다. 곡부는 춘추시대의 강국이었던 노나라의 도읍이었던 곳으로, 유교사상의 뿌리가 된 공자의 출생지로 유명한 곳이다. 공자 관련 유적인 공묘, 공부, 공림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공자는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를 국가사상으로 받아들였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이 사실상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의 도덕 및 철학의 바탕이 유교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인 공자 관련 유적인 공묘는 공자의 사당이고, 공부는 공자의 자손들이 기거했던 곳이며, 공림은 공자와 그 가족들의 묘이다. 이 세 곳의 유적 중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유적은 공묘였다. 예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사당인 종묘에 가 본적이 있다. 종묘도 상당히 크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공묘를 관람하자니 마치 내가 거인국에 온 난장이가 된 느낌이었다. 걷고 또 걸어도 공묘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세삼 공자의 대단함이 느껴졌으며,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상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자인 내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걷다보니 어느새 오후 일정이 끝났다.

넷째 날 - 제나라박물관, 순마갱, 고차박물관

4일 째에는 제나라박물관, 순마갱, 고차박물관을 답사했다. 제나라박물관은 춘추전국시대에 산둥성 일대를 지배했던 제나라의 역사 및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이다. 순마갱은 그 제나라의 어떤

지도자의 무덤 안에 말을 순장한 말의 순장묘이다. 고차박물관은 산둥지역에서 발굴된 전차들을 모아 만든 박물관이다. 제나라는 춘추전국시대에 환공이나 고사성어 관포지교의 주인공인 포숙 등이 있었던 강국이었다. 그러다보니 제나라박물관과 순마갱은 휘황찬란했다. 그 당시 말은 전쟁 및 운송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말을 순장시키는 등 중국다운 스케일이 느껴졌다. 고차박물관을 보며 이른 시기부터 보병전이 아닌 전차전을 할 정도로 뛰어났던 중국의 기술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마냥 중국의 고대 역사가 부럽지만은 않았다. 우리도 이에 못지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상왕 장보고는 이렇게 발전되고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당당히 무역을 했고 성공했다. 심지어 그는 중국 일부 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도 했다. 이렇게 당당한 우리 선조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 때와는 다르다. 장보고가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한 뒤 우리 조상들의 활동 반경은 한반도 내로 축소되었다. 근대에 들어서야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가 아닌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지금 다시 세계무대로 비약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보고의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째 날 - 유공도 | 중국 해양 역사, 치욕의 현장을 가다

답사 마지막 날에는 산동섬 위해에 속한 섬으로 산둥반도의 가

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공도에 갔다. 사실 이곳 유공도는 역사적으로 아픈 상처를 가진 섬이다

청나라 때 이홍장이 북양함대를 창설하여 위해에 군항을 설치하고 유공도에 훈련소를 두어 서양의 군사 전문가를 불러 해군을 양성했다. 유공도는 위해 항구의 입구에 위치하여 동쪽 연해를 지키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요새의 역할을 했지만 청일전쟁 때 일본 해군은 황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막강한 북양해군과의 일전은 불가피했다. 9월 17일 청국의 북양함대사령관인 정여창 제독이 이끄는 청나라와 일본 연합 함대가 압록강 하구에서 맞붙었다. 당시 청의 해군력은 군함 64척과 어뢰정 24척으로 군함 28척과 어뢰정 24척인 일본에 비해 그 수에서 훨씬 우세했다. 그 중 북양함대가 제일 강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 훈련의 부족 그리고 구입한 장비 운영의 부실 등으로 치열한 해전 끝에 청나라는 패배하고 결국 이 섬은 일본 손에 들어간다. 이는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되는 중국으로서는 치욕의 사건이다. 그 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국이 다시 유공도를 차지하여 42년 동안 조차지로 지배하게 되고 또한, 국내 통일을 시도했던 장개석과 그의 군대 곧이어 공산군이 들어오는 등 온갖 수모를 참아온 중국의 역사적인 장소이다.

갑오전쟁에서 패전한 굴욕적인 역사는 ‘낙후되면 곧 당하게 된다.’는 도리를 다시 입증하였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경각심을 잊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이 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가지고 다툰 전쟁으로 당시 조선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앞으로 삼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훈을 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대비한 해상 강철 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참여하면서 장보고의 웅장한 기개와 거대한 활동 범위를 보고 느끼며 놀랐다. 그의 영향력은 현재의 무역 강국인 대한민국의 상황에 비견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그의 업적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다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활동 범위가 단순히 자신이 태어난 동네 수준이 아니라 한 국가 전체 또는 지구 전체로 증가했음에도 해상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행기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행기의 연료비와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화물량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해외 물류의 중심 운송 수단은 선박이다. 또한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99.7%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상은 해외와의 교역 말고도 관광 자원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이 많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주요 사업의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는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또한 분단이 된 이유로 해외와의 교류가 유일하게 삼면인 바다로만 가능한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적의 공격 및 불법 이민자나, 불법적인 물류 유통 등으로부터의 국가 안보 수호에 있어서도 바다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귀중한 바다를 이용하는 데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 사람들이 바다를 자주 경험해 보아 국민들이 바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우해양조선, 현대중공업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회사를 다수 가지고 있는 조선 강국이다. 위에 서술했듯이 우리 바다에는 해상 관광을 위해 사용 가능한 아름답고 깨끗한 해안 풍경들이 즐비하다. 작년에는 해체되었던 해양수산부를 다시 부활시켜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해안 개발 정책도 다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과거 신라시대에 이미 장보고를 통하여 해양 강국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바다에 대한 유리한 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보고에 대한 연구 및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장보고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과거 그의 웅대한 기개와 해양 강국으로의 꿈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심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 강국으로 발전의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이 과거 해양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꿈만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와 같은 활동들이 더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장보고의 꿈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여 해양 강국, 세계적인 선진국 대한민국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멀지 않은 일이다.



- 참고 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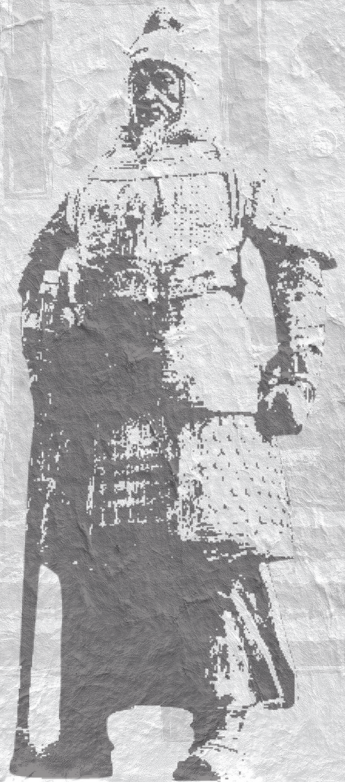
위키피디아

22

한여름의 시간 여행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후기

성덕여자중학교 / 이석민(가작)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특히 바다라는 자연은 그 변화무쌍함과 알 수 없는 신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바다란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짙물이 껴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으로 지구 표면적의 약 70.8%를 차지하는데, 이는 육지 면적의 2.43배라고 한다. 인공위성에서 보면 지구를 수구(水球)라고 표현해야 적절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육지보다 물의 구역이 많아서 물의 영역이 대륙에 의해 분리되었다기보다는 대륙이 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신비로움과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현상, 그리고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寶庫)인 바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하며,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바다를 이해하려고 그것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인간 또한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 더욱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험난한 파도와 여러 가지 험난한 역경을 헤치고 육지와 육지를 오가며 활약했던 선조들의 용기와 지혜에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2014년 여름, 동아시아중해를 지배했던 장보고 대사의 기상과 체취를 느끼려, 또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났다.



제1일

2014년 7월 30일 오후 4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는 전국에서 출발한 초·중·고 교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출국 수속을 마



치고 화동훼리에 승선한 후 드디어 중국행 답사가 시작되었다. 도착지인 석도(石島: 쓰다오)까지는 장장 14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화동훼리의 식당에서 석식 후 선상 세미나가 있었다. 답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바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강연이었다. 이 답사에 선발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그 주된 요소임을 알게 되었고 7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제2일

배는 22노트(kn),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항해한다고 했다. 갑판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낙조(落照)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끼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선박을 이용한 여행의 즐거움을 알 수 있었다. 낯선 사람들과의 무언의 대화, 간단한 몸짓 언어로 통하는 의사 표현, 그리고 인간이면 느끼는 공통된 정서를. 배는 밤새 항해하여 드디어 석도항에 가까이 접근하였다. 아침 식사 후 금세 하선할 줄 알았다.

안개. 짙은 해무(海霧)로 인해 배가 항구에 정박할 수가 없어 무려 6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있다 하여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배에서 조식만 하고 상륙한 후 먹기로 예정된 점심 식사는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선내식으로 대체되었다. 선실에서 방송만을 기

다리며 대기하는 지루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태양이 저 위에 보이는데도 안개는 쉽사리 걷히지 않았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지독한 안개였다.

배에서 점심 식사까지 하고도 한참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반가운 안내 방송이 들렸다. 하선 및 입국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실 밖으로 나가니 작은 배가 이렇게 큰 페리를 밀면서 접안하고 있었다. 맑은 날이라도 접안하는데 20여 분 걸린다는데 안개까지 끼어서 시간이 더 걸릴 듯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데 석도항은 별반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선들이 없어서인지 갈매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하선을 하고 입국 수속을 마친 후 차량을 배치 받았다. 예년에 비해 과분할 정도의 리무진 버스가 우리를 맞았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31인승, 현지에서 가장 최고급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이었다. 3호차로 배정 받고 차에 올라 현지 가이드와의 만남이 있었다.

배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한 연유로 일정이 조금 바뀌었다. 마지막 날 예정이었던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과 장보고기념관을 관람하기로 하였다. 안개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적산명신(赤山明神) 동상을 향해 소형차를 타고 이동했다. 안개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산꼭대기의 동상이 혹시 장보고의 동상이 아닐까? 기대했으나 그것은 적산명신(赤山明神) 동상으로 높이 58.8m에 달하는 해신상



으로 바다를 향해 세워져 있었다. 오른손으로 거친 풍랑을 잠재우고 왼손은 안전한 항해를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국인들은 이 동상을 통해 재물과 복을 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산에서 법화원을 찾고 장보고기념관을 찾는 목적과 달리 중국인들은 이 동상만을 보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은 통일신라 흥덕왕(826~836) 때 장보고(張保皋)가 신라인 집단 거주지였던 산둥반도 적산촌(赤山村)에 세운 사찰로서 '신라원' 중 가장 유명하였다고 한다. 장보고는 재당 시절 적산지방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당나라 무령군(武寧軍)의 소장(少將)으로 있을 때 832년 적산법화원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 사찰은 1년 수확량이 500섬이나 되는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건립된 것으로, 장보고는 이를 통해 향후 무역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산법화원의 용도는 당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신앙 거점인 동시에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예배 장소였으며, 신라와의 연락 기관 역할을 하였고, 당나라로 건너가는 신라의 승려는 물론 일본의 승려들도 이곳을 거쳐 가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승려 엔닌(圓仁)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신라 불교의 의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의 승려로서 신라의 승려를 시봉(侍奉)하여 스승으로 섬기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적산법화원은 당나라 무종(845년) 때 불교 탄압으로 파손되었으나 일본인 승려 엔닌(圓仁)의 저술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내용을 근거로 1998

년 중건되었다고 한다. 일본 승려 엔닌 일행이 머물다 돌아가 쓴 이 기록 때문에 한때 '일본의 절'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한·중 수교 이후 이를 바로잡고 적산법화원 경내에 장보고기념관을 세웠다고 한다.

장보고기념관에 들어서면 장보고 대사의 거대한 동상이 위풍당당하게 서있다. 완도에 있는 장보고기념관 앞에도 이런 규모의 동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념관 안에는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신라시대 교관선(일종의 무역선) 복원 모형이었다. 실물의 10분의 1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동쪽 파도가 오면 배는 서쪽으로 기울고, 서쪽 파도가 오면 동측으로 기울어 배 위를 씻는 물결이 셀 수가 없었다.'라는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장보고 선단의 배는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형으로 높은 파도와 센 바람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라의 뛰어난 조선술의 또 하나는 현대 선박에서도 사용되는 수밀격벽구조라 한다. 선체 일부가 파손되어도 항행이 가능했다는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갑판 아래 선체를 여러 구간으로 분할하여 특정 구역이 침수되어도 다른 구역의 물을 차단시키는 수밀격벽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당시 신라인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안개 때문에 늦어진 일정으로 인해 쉽도 없는 강행군의 시작이었다. 장보고기념관을 나와 저녁 식사를 위해 달려간 곳은 청도(靑島:

칭다오)에 있는 경복궁이란 한식집이었다. 배에서 먹던 음식의 중국 향이 덜 하긴 하였으나 한식을 흉내만 낸 듯했다. 이곳에도 개발의 열풍이 불었는지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인 곳이 즐비했다. 곳곳에 한글로 쓴 음식점 간판들이 보인다 했더니 한국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치박으로 향했다. 워낙 넓은 땅이기에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치박만호대주점(淄博万豪大酒店)에 도착하여 여정을 풀 수 있었다.

나의 취침 습관은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 새벽 5시엔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것인데 여지없이 다른 나라에 와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리하여 샤워를 한 후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다. 이른 시각인데도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일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처 시장 입구에서는 노점상이 벌여졌는데 만두나 튀김(호텔 식당에서도 볼 수 있는)을 즉석에서 만들어 팔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비닐봉지에 담아가기도 하고 좌판을 벌여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한다.

제3일


호텔에서 조식을 마치고 태산(泰山)이 있는 태안(泰安)으로 향했다. 야산 하나 보이지 않는 평원 사이로 뚫린 고속도로 양편엔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고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정말 대국(大國)임을 실감케 하였다. 지루하기만한 풍정(風情)에도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가이드의 친절한 설명과 동승한 교

수님의 여러 해설이 이번 여정이 중국 답사라는 특별한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드디어 태산 입구에 도착하여 케이블카까지 가는 버스를 탔다. 구불구불 마치 강원도 풍경과도 흡사한 길을 달려 태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매표소에 도착했다. 많은 중국인들은 걸어서 태산을 오르기도 하는데 산 정상까지 난 7,412개나 되는 돌계단을 밟으면 10년씩 젊어진다고 하여 태산 등정을 평생의 숙원으로 삼기 때문이라 한다. 케이블카를 타는 줄에서 마구 새치기를 한 중국인 노부부는 한 손에 향을 한 무더기 쥐고 있었다. 끊임없이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계속하는 노부부의 말을 일행 중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선생님이 통역을 하였는데 아주 먼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 입구까지 갔다. 수많은 인파가 1,545m 위에 있는 태산극정(泰山極頂)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여 시야가 좋지 않았으나 오히려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풍경이 더욱 아름다웠다. 태산을 오르는 도중 대관봉(大觀峰)이라는 바위에 하나 가득 글씨가 새겨진 곳이 있었는데 사자성어(四字成語)로 이루어진 다양한 내용의 글귀들이 있다. 태산에 오르는 무수한 돌계단을 오르다가 독특한 모양의 쓰레기통을 발견하였다. 난간으로 이어진 화강암 사이에 대리석 같은 돌을 사용하여 표시나지 않게 만들었는데 재치 있는 쓰레기통이었다.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쓰레기는 많이 들어있지 않았고 우리 일행의 대부분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듯하다.





무수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드디어 태산극정(泰山極頂)에 올랐다. 마당에는 무언가를 기원하기 위한 향을 놓아둔 제단과 우리 남산에서도 볼 수 있는 소원 빌기 위한 자물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역시 대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아기자기한 맛은 없고 자물통도 그 크기가 대단했다. 일정에 여유가 없는지라 세세하게 관람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으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정신 없이 하산을 하였다. 내려오는 길에 보니 다양한 먹을거리와 커피를 비롯한 음료수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여러 중국인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었다.

태산에서 내려와 태산국제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 치즈처럼 생긴 노란색의 종이 모양은 우리나라의 찜처럼 음식을 싸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옥수수 가루로 만든 듯하였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다음 우리는 곡부(曲阜)로 이동하였다. 곡부 톨게이트에는 낮익은 글귀가 쓰여 있는데 바로 논어(論語)에 있는 “유봉자원방래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이다. 공자의 고향답게 오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공묘(孔廟), 공부(孔府), 공림(孔林)을 관람하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공자와 그 일족의 묘소로 노목이 펼쳐진 묘역에 10만이 넘는 공자의 자손들의 묘비가 숲처럼 산재해 있는 단일 가문의 묘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공림(孔林)은 들어갈 수 없었다.

먼저 공묘(孔廟)를 관람하였는데 특별한 것은 출입구에서 라이터를 검색하여 압수하는 곳이 있었다. 입장권을 건네면 가방을 비

롯한 모든 소지품을 검색대에 넣고 주머니 검사까지 받아야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마 아무 곳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꾀초를 마구 버리는 중국인들의 습성으로 인한 화재 예방 때문인 것 같았다.

가이드의 여러 다양한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하였는데 사진 촬영하랴 설명 들으랴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공묘는 공자를 제사지내기 위해 건립된 공자의 사당으로 중국, 한국, 일본, 월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등 국가의 2,000여 개소 공자 사당의 규범이 되는 공자의 사당으로 공자 사후 다음 해인 기원전 478년 노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의 고택(故宅)을 개조하여 사당으로 건립하였다. 이후 역대 제왕들이 부단히 확장하였으며 청대에 이르러서는 옹정제(雍正帝)가 명을 내려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확장하여 지금의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차분하고 여유 있는 관람이 되지 못하여 아쉬웠다. 현지 관람객에게는 일대 일로 해설사가 따라붙어서 친절 한 안내를 받고 있어서 더욱 아쉬움이 더했다.

영성문(靈星門)을 비롯하여 여러 문을 통과하며 공묘(孔廟) 관람을 마치고 옆으로 이어진 공부(孔府)를 찾았다. 공씨 일가의 저택에서 사당과 묘지를 지키고 돌보던 공자의 후손들은 귀족 칭호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저택은 앞쪽의 공무 장소와 후원의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중국 건축물의 배치 구조이다. 가장 번성했던 16세기 때의 저택은 170여 채의 건물에 방이 560개나 되었으며 현재는 152채의 건물에 480개의 방이 남아 있다고 한다.

가이드의 재미있는 설명 중에 남녀가 유별한 당시 상황에서 남녀



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남자가 물을 길어다가 담 사이로 건네주는데 물을 주고받는 구멍이 있다. 물을 주는 곳과 받는 곳의 모양이 달라서 촬영하였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입장 시간이 지났기에 공림(孔林)을 구경할 수 없었다. 공림(孔林)의 입구를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우리는 다시 치박만호대주점으로 향했다.

제4일

이른 시각 습관처럼 호텔에서 나온 후 근처의 아파트를 돌아보기로 하였다. 어제 시장 입구의 노점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서민 아파트 풍경이 펼쳐졌다. 단지 안에는 이런 저런 광고 문구도 보였는데 학원 홍보와 경찰 모집 광고인 듯하였다. 특이한 것은 옛날 용달차와 비슷한 삼륜 소형 자동차보다 식수 자판기였다. 아주머니 한 분이 아파트 길 옆에 있는 커피 자판기 같은 것에 카드를 대고 무언가를 받고 있어서 처음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줄 알았다. 아주머니가 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식수를 물통에 담아가는 것이었다. 물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저렇게 식수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가 보다. 새삼 우리나라가 좋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일정은 제나라역사박물관(齊國歷史博物館)과 고차박물관(古車博物館), 그리고 순마갱(殉馬坑)을 관람하는 것이다.



제국역사박물관에는 모형, 조각, 모래로 만든 지형, 벽화, 조명, 전기장치, 음향, 영화, 텔레비전 등을 총동원하여 꾸며졌는데 선제(先齊), 서주(西周), 춘추(春秋), 전국(戰國), 진한(秦漢) 시대 전시실 등 모두 15개 전시실에 뛰어난 문화재 300여 건이 전시되어 있다. 정치, 경제, 예술, 과학, 군사, 풍습 등 제나라의 800여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한다. 삼국지를 읽었을 때의 낯익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온 중학생을 만났는데 한·중 교류의 일환으로 중국 학생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공부를 한다고 하였다. 중국 학생의 어머니와 통역을 하는 아가씨가 그 학생에게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작은 문화 교류에서 국가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느꼈다.

중국고차박물관(中國古車博物館)에는 여러 탈 것과 운송 수단인 수레 등에 전시되어 있었다. 차와 말은 고대 육상 교통의 주요 수단으로서 마차를 만드는 것은 많은 기술이 집중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고차박물관(中國古車博物館)은 춘추순차마전청(春秋殉車馬展厅)과 중국고차여례전청(中國古車陳列展厅)의 두 부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차마갱(車馬坑) - 부장품인 수레나 전거를 묻은 구덩이- 은 지하 전시실에 자리하고 있었다. 단순히 말이 끄는 수레에서부터 코끼리, 낙타 등이 끌 수 있는 수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으며 부품 하나하나에 정교하고 예술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순마갱(殉馬坑)은 ‘제경공순마갱(齊景公殉馬坑)’이라고 불리는데 말들을 두 줄로 세워 순장하였다고 한다. 살아있는 말을 어떻게 가



지런하게 눕힐 수 있는지 궁금해 하니 아마도 말을 마취하거나 독살 시킨 후 순장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하긴 사람도 순장을 하는데 전쟁에 쓰였던 말들을 묻는 것에 수공이 가면서도 웬지 모를 안타까움을 느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석도(石島)로 향했다. 무려 7시간이 소요되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을 버스는 계속 달렸다. 휴게소에 한 번 들러 용무를 본 후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어두워져서야 숙소인 석도적산대주점(石島赤山大酒店)에 도착하였고 중국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가졌다.

제5일

중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첫 날 안개로 인해 바뀌게 된 위해(威海)로 이동하여 유공도(劉公島)의 중국갑오전쟁박물관(中國甲午戰爭博物館)을 관람하였다.

위해는 다른 곳과 달리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고층 건물도 즐비하여 현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많은 중국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유공도로 가려는 수많은 인파 사이로 한참을 줄서서 기다린 후 드디어 배를 탔다. 배로 20여 분을 달려간 후 유공도에 도착하였다. 하선을 하자마자 왼쪽에 있는 전시관에 들렀다. 그리고 걸음을 재

촉하여 오른쪽에 위치한 박물관을 찾았다.

1894년 7월 25일 일본군이 선전포고 없이 조선 아산만 풍도 앞 바다에서 청나라 함선을 침몰시키면서 시작된 청일전쟁은 이듬해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었고 청일전쟁의 승패로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고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중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유공도에서의 전쟁은 1895년 2월 2일부터 16일까지 벌어졌는데 결국 청나라 함대가 포위되고 전쟁이 끝났다고 한다. 중국갑오전쟁박물관(中国甲午战争博物馆)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김옥균이었는데 수많은 관람객과 일정상 시간 부족으로 살살이 살필 수가 없었다. 한국인 관람객을 위해 여기저기 한글로 안내해 놓은 문구들 중에는 표기가 맞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흡연금지'를 '흡안금지'로 쓴 것이 있어 쓴웃음을 지었다.

중국갑오전쟁박물관(中国甲午战争博物馆)을 나오면 유공도박물관이 있는데 여기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볼 수 없어 아쉬웠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점심 식사는 한식으로 한다고 하여 위해 시내의 식당으로 향했다. 여기저기 한글 간판이 많이 보였는데 아마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는 모양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석도항으로 이동하여 출국 수속을 밟았다. 자유 시간이 조금도 없었던 답사였기에 몹시 힘든 여정이었고 비록 주마간산(走馬看山)의 관람이었지만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다.

그 옛날 바다를 주름잡으며 주변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관련



된 서적들을 찾아보며 우리 역사에 대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보고 시대의 해양 활동과 동아시아중해』라는 윤명철 교수의 책을 찾아보며 당시 장보고의 해양 활동과 국제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라의 해양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더욱 해양 쪽에 관심을 두어 바다를 통한 무한한 발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6일

승선을 하여 짧았던 중국 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갑판 위에서 점점 멀어지는 석도항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중국에서 일컫는 바다 명칭을 보니 우리의 서해를 그들은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었다. 맨 위는 발해(渤海), 그 밑은 황해(黃海), 그 아래는 동해(東海)라고 표기하였다. 우리도 일본이 일본해라고 우기는 곳에 동해의 병기(併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국동해, 한국서해, 한국남해’로 당당하게 표기하였으면 하고 생각했다. 또 장보고 대사에 대한 연구와 홍보를 위해 장보고 선단이 해상 무역을 한 곳의 유적이거나 역사적 근거를 찾아(신라인 집단 거주지, 또는 항로를 따라) 기념관 건립이나 유적지 표기 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양국의 유대가 더욱 공고하리라 여겨진다.

한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교류 차원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특히 갓 대학생이 되어 한국을 찾는다는 여학생과의 대화(나는 중국어를 못하고 그들은 한국어를 못하기에 영어로)는 이제 낱말이 발전하는 중국이 한국에 갖는 생각이 어떤지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그 옛날 자신들이 대국이라고 동쪽 끝 작은 나라인 한국을 무시하던 것이 이제는 발전의 모델로 여겨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후대전화가 터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디어 배는 한국 영해로 들어왔음을 깨닫고 귀국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서서히 섬들이 보이고 송도의 홍콩과도 같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니 무언가 몽클한 느낌마저 들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38km의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길다는, 6차로이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 교각으로 건설되었다는 인천대교 밑으로 배가 지나갈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에 부듯함도 가졌다. 14시간의 긴 항해가 끝에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인천에 발을 디디면서 2014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마쳤다.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듯이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화유산과 지혜의 전승이라 생각한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 조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 알려주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더욱 매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번 답사는 진정으로 애국심을 북



돌워주고 나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견고하게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답사에 참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여름의 시간 여행! 이번 답사는 내게 있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 여행이었다. 이 답사를 할 수 있
게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해양재단과 후원을 한 해양수산부, 그리고
답사를 위해 많은 애를 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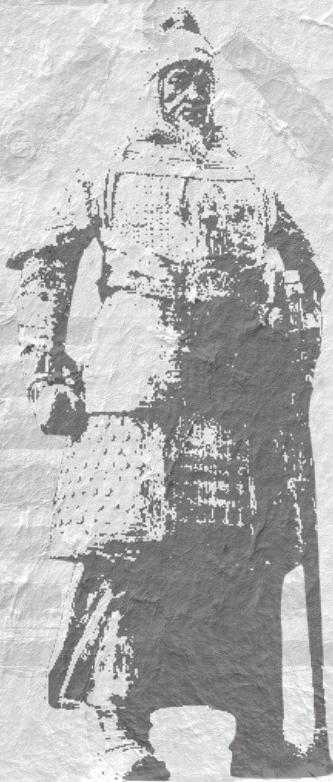


23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신계초등학교 / 최장선(가작)



들뜬 마음으로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출발했다. 생각보다 버스가 많이 밀려 집합 시간보다 10분을 넘겨서 도착했다. 거의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 같았다. 장보고 팀이라는 표식은 이름표와 모자이다.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아서 받은 책자를 뒤적이면서 4시 40분을 기다렸다.

화동훼리를 타고 갔는데 일본을 갈 때 이용했던 유람선과 비교해서 사우나도 없고 배 자체가 낡고 다소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에서의 숙소는 8인실이였다. 서울에 있는 선생님 1명과 경기 2명, 인천 2명, 부산 1명 이렇게 7명이서 같은 방에 배당 받았다.

화동훼리의 음식은 별로였다. 저녁 식사를 위해 줄 서는 곳부터 수상쩍은 냄새가 나더니 주방 가까이에 가니까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 때에는 중국식으로 밥을 준다고 해서 별 기대는 안했는데 생각대로 별로였다. 식사 후에 선상 세미나에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님과 세 분의 교수님, 전 제독님 등 해양 관련 인사들도 참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

이사장님은 중국의 속살을 들여다보자. 즉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하셨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물이 장보고이며 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에서 당, 신라, 일본, 더 나아가 아라비아, 페르시아 상인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민간 무역으로 물길을 연 선구자이면서 세계인이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장보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진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자고 하셨다. 가슴 한 쪽이 뜨거워지



는 느낌이 들었다.

둘째 날, 배가 도착한 석도에서 멀리 보이는 적산법화원을 뒤로 하고 먼저 위해로 갔다. 그곳에 있는 청일전쟁기념관(갑오전몰기념관)에서는 야외에 설치된 침몰해가는 함선과 멀리 망원경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청나라 장군의 동상이 눈에 띄었다. 청일전쟁 패전의 원인이 지배층의 부정부패 때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패장의 동상을 건립하고 기념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땅과 바다에서 시작된 청나라와의 전쟁이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의 승리 후 일본은 빠른 전쟁 종식을 위해 청나라의 본토를 공격하고 청국의 북양함대 기지였던 유공도를 습격해서 점령함으로써 전쟁을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낸다. 이로써 청나라는 독일, 러시아 등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다. 얻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와장창 깨져서 창피하기 그지없는 전쟁에 대해 기념해?

박물관을 보고 나오는데 맺음말로 적힌 글에

갑오전쟁에서 패전한 굴욕적인 역사는 ‘낙후되면 곧 당하게 된다.’
는 도리를 다시 입증하였다. 오늘 중국의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300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양 국토의 안전은 강대한 해양 방위력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대비한 해상강철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역



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적혀 있었다. 중국인들은 그 비참했던 역사의 현장에 전쟁기념관을 세우고 뼈아픈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서서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이다. 우리가 현재의 경제력과 높아진 위상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맺음말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오욕의 역사를 잊는 순간, 생각이나 조직이나 정치, 군사력이 낙후하게 되면 어느 한 순간에 비극의 역사가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섬뜩한 현실 인식이 머리를 때리고 정신이 확 들었다. 시련이 닥쳤어도 극복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충만해 있어서 실패했던 과거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다. 자신감이나 생각으로만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유공도를 나와서 청도에 도착 저녁 식사를 한 후 치박으로 향했다. 저녁 늦게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는 깔끔했다. 어제 흔들리면서 거의 자지 못했던 악몽을 보상할 만큼 맘에 들었다.

아침 일찍 잠이 깨기도 전에 일어나 후다닥 아침을 먹고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의 태산을 갔다. 태산은 중국의 5악(五岳) 중 하나로 공자가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다."하고 하면서 찬탄했던 산이다. 처음에는 무지하게 높다는 생각으로 '와~' 했는데 높이가 1,545m 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좀 실망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 한라산이 1,950m



이고 지리산이 1,915m이다. 그런데 천하의 공자가 찬탄한 산이 고작 1,545m라고? 또 우리나라 선비가 더 높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아닌 태산을 칭송하다니…….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서 공자가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다. 공자도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도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것 같지만 실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천박한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태산에 와서 공자를 만나고 또 겸손함을 배우고 간다.

태산은 황제가 태평세계의 실현을 신에게 보고하는 ‘봉신’ 의식이 거행된 곳이다. 황제를 멘 가마꾼들이 힘겹게 태산을 올랐겠지? 가벼운 차림의 사람들이 태산을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런 험한 곳에 케이블카를 놓았던 사람의 노고에 감사하며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을 올라갔다. 태산 정상에 가까워 오면서 바위에 새긴 석각들이 많이 눈에 띈다. 공자나 한 무제, 당 현종 등이 남긴 글귀를 보면서 이름 있다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는 한 마디씩 써두고 간 것이다. ‘낙서 금지’라는 글귀라도 남기고 싶은 장난기가 남의 나라 산에 와서 든다. 태산을 내려와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곡부로 향했다. 공자사당과 무덤을 거쳐 숙소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소설가 최인호의 ‘해신, 장보고’ 다큐를 보았다. 일본의 축제를 보면서 장보고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고 일본, 중국, 아라비아까지 다니면서 장보고의 위상과 역할, 영향력 등을 파헤치는 것이 흥미진진했다. 장보고가 암살당했고 역사가 다분히 승자의 기록이어서 우리나라 문헌에는 그의 업적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중국



등의 서적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인물을 외국
의 기록에서 찾아서 그의 위대성을 찾아 간다는 것이 신기하고 집
요하게 느껴졌다.

함께 가신 교수님들이 장보고 및 우리나라 해양 발전에 관한 다
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넷째 날 호텔식 아침을 맛있게 먹고 순마갱으로 향했다. 순마갱
은 제나라 군주의 묘로 추정되는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이다.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굴되어 공개하는 것은
228필의 6~7세 정도 된 수말이다. 이를 보면 이 무덤의 주인이 강
한 왕권을 지녔음을 알게 해준다. 이어서 고차박물관을 들렀다. 수
레바퀴와 말의 화석이 실감나서 진짜냐고 물었더니 순장된 것을 발
굴한 현장이란다. 화석이 되어 있어서 유리관을 씌우지 않고 공개한
점이 순마갱과 달랐다. 이 아까운 말들을 순장하다니……. 권력자
들의 사후 세계에까지 뻗친 욕심이 너무하다 싶다. 박물관의 2층에
는 다양한 수레들과 가마 등 탈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멋진 말 4
마리가 끄는 마차의 모형은 무척이나 생생하고 실감났다.

이곳 치박과 청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정기 장군이다. 그는
고구려 유민으로 신라방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 지역을 활동 무대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이정기 일가는 당 - 신라 - 발
해 - 왜를 오가는 모든 교역을 총괄하는 직책을 가졌고 그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당 황실에 협력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는 등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다. 그분의 손자인 이남이 새로운 나
라인 제나라를 건국하자 당 조정에서는 그를 진압하고자 했으며 장




보고는 진압군인 무령군의 주축이 되는 장군 중 한 분으로 제나라의 진압에 성공하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자연스럽게 당나라 군사감축이 있었고 이때 장보고 장군은 군에서 나오게 된다. 군에서 나온 장보고 장군은 상업에 종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정기 장군이 다져놓은 조직을 토대로 활발한 해상 무역을 전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날에는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적산법화원을 다녀왔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사찰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 사원(신라원)이다. 이곳은 신라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 일본 천태종 제3대 좌주인 엔닌이 지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적산법화원의 모습 및 장보고의 위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적산법화원은 당나라 무왕의 사찰 철폐령으로 훼손된 것을 1998년에 다시 세웠으며, 2007년 4월 27일에 장보고기념관이 세워지게 된다.

우뚝 솟아있는 장보고의 동상이 위엄 있어 보였다. 좀 더 올라가서 적산명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바다가 모두 보이는 명당 중 명당의 위치에 자리한 거대한 적산명신이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적산명신의 안에 들어가 보면 활이 있는데 장보고는 어렸을 때 활을 잘 쏘아서 공복, 공파로 불리었다. 바다를 다스리는 적산명신, 일본 승려 엔닌이 바다에서 보았다는 신라 명신 그가 바로 장보고가 아닐까?

교과서에는 장보고가 당나라로 건너가 당나라군의 소장이 되었고 신라인들이 인신매매 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완도에 청해





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해상왕이라는 명칭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나온다. 바로 그 역사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온 이번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서 나는 그의 큰 모습을 보았다. 골품제 사회인 신라에서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 신라인 장보고의 성공과 몰락이 아닌 세계인으로서의 장보고의 모습이다. 공공의 적이었던 해적, 그러나 내부 사정이 복잡했던 당나라로서는 어떻게 손쓸 수 없었던 바다의 길을 그가 열었던 것이다. 해적을 소탕하고 신라인뿐 아니라 당나라, 일본, 아라비아인까지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문물을 교류할 수 있는 바닷길을 열고 그 속에서 종합 무역 선단을 이끌고 신라의 국부를 창출했던 큰 사람이었다. 그의 리더십과 배짱, 사람의 마음을 사는 큰 도량을 배우고 싶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분단된 국가로서 바다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길이다. 장보고의 후예인 우리들이 소중한 바다를 지키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다. 장보고의 업적을 오늘날 우리는 이어야 하고 번영을 이뤄야 할 것이다. 개학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장보고를 뜨겁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고난의 우리 근현대사를 더욱 실감나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를 식민지배하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하고자 역사를 왜곡했던 일본. 그들의 망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신대 할머니를 부정하고 그들이 일으킨 전쟁을 미화하고자 교과서를 왜곡하고 전범들의 위패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보란 듯이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겠지만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1시에 있을 분수 쇼를 보고자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관음상으로 갔다. 분수 쇼는 약 15분간 진행되었고 불도 뿜고 관음상도 돌아가면서 시원하게 물을 내뿜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받은 자료집이며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번 답사를 계기로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완도와 일본의 유적지까지 둘러볼 장기 계획을 세웠다. 중국으로 갈 때와는 달리 돌아오는 배 안에서는 단잠을 잤다. 이런 귀한 답사의 기회를 주신 한국 해양재단에 감사하고 많은 교사들이 올바른 역사관, 미래관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역사 탐방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답사를 다녀온 나는 받았던 영감들과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귀한 인재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중국을 보고 당당하게 일본과 대응하면서 실력 있는 세계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24

장보고의 숨결을 따라

산의초등학교 / 해주봉(가작)



바쁜 일상 속에 전해진 한 줄기 희소식!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에 선정되었다는 공고를 보고 뿔 뜻이 기뻐했다. 알고 보니 몇몇 지인들도 신청하였는데 혼자만 선정되었던 것이었다. 또 재단 명칭이 바뀌기 전 추천제에 지원해서 한 번 낙선된 아픔을 맛 본 기억이 있기에……. 설레고 기쁜 마음이 가득하였다. 한 편으론 함께 선정되지 못한 지인들에게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배에서 숙박하며 여행하는 것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여행하는 것이 처음인지라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지만, 지원할 때의 초심을 유지하며 뜻 깊은 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장보고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간단한 중국어 회화와 한자 공부도 하며 나름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출발 날짜만 학수고대하였다.



여행 1일차 - 석도를 향해

드디어 출발 날이 되었다.

아내가 일정이 있어 여객터미널로 태워 주기가 힘들다고 하여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출발 전 구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정상화가 되려면 1~2시간쯤 걸린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출발하기 전부터 이동에 차질이 생겼기에 이번 여행이 고생길이 되는

건 아닌지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향했다. 다행히 약속된 시간 전에 도착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니 무척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여정을 함께 할 일행들은 쉽게 포착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여행을 함께 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모두들 즐거운 표정과 마음으로 들떠 있었으며 한참을 기다려 수속을 마치고 배에 올랐다.

배에서의 숙소는 8인 1실로 나를 포함하여 초등교사 4명, 중등교사 3명이 배정되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선상에 올라 석양의 아름다움과 멀어지는 인천항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선상 세미나를 통해 이번 답사의 의미와 동행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한 동안 잊고 있었던 장보고의 업적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여행 2일차 - 선내 대기, 그리고 드디어 적산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선실 밖으로 나가 보니 해무가 가득하여 약간 긴장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40분이면 갈 수 있는 석도항을 지척에 두고, 짙은 해무로 인해 입항 허가가 날



때까지 해상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방송이 흘러 나왔다. 한두 시간 이면 되겠지 했건만 모두가 희망한 시간이 빛나가 선내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지체되어 육지를 밟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선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함께 선실을 이용했던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행운도 얻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계획했던 일정과 마지막 날 일정을 바꾸어 진행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적산법화원으로 이동하면서 차창 밖으로 적산명신상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주차장에 도착하여 도보로 이동해야 할 것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카트를 타고 이동하였다. 적산명신상, 법화원, 장보고전기관 등을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을 하면서 장보고란 인물의 위대함에 놀랐으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장보고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적산명신상 앞에서 바라 본 풍경이 낯설지 않고 친숙함이 들었던 것은 아마 1,200여 년 전 신라인들의 열정과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이리라.

당시 최고였던 법화원의 옛 영광을 뒤로 하고, 장보고기념탑에서 답사의 상징인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 왔다. 아마 장보고 유적지 답사가 시간에 쫓겨 여유 없이 진행된 때문인 듯하다. 우리 역사의 흔적 속에서 사색에 잠길 틈도 없이 주마간산으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아쉬움이 진하다.

숙소인 치박으로 가기 위해서 무려 6시간가량 차량 이동이 있다



는 가이드의 설명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동 중간에 칭다오 부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치박으로 간다고 하였다. 긴 이동 시간동안 차내에서 교수님의 간단한 강의와 해신 장보고 관련 영상을 보면서 장보고의 명성과 영향력이 해외에서 더 조명을 받고 숭상되고 있음에 씩씩한 마음이 들었다.

여행 3일차 - 태안과 곡부에서의 하루

정확히 말하면 오늘 오전 1시 30분에 도착하여 7시에 일정이 시작되었다. 어제 오랜 차량 이동으로 인해 피곤하였는데, 오늘도 왕복으로 차량 탑승 시간이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

먼저 태산 등정을 위하여 태안으로 이동하였다. 어제 이동할 땀밤이라 바깥 풍경을 볼 수 없어 몰랐는데 이동하는 경로 좌우가 모두 평야이고 옥수수 밭 천지였다. 저절로 ‘우리도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산은 우리에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과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뾰이로다.’라는 시조에 등장함으로써 아주 친숙한 산으로 한 번 짚은 와 보고 싶었던 산이다. 더군다나 예전에 중국의 오악에 해당하는 서악인 화산과 중악인 승산을 다녀온 터라 살짝 기대가 되었다. 그리고 보니 중국의 명산인 오악 중 한 곳을 더 가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태산은 생각보다 높진 않지만 중국의 황제들이 와서 제사를 지낸 장소라 그런지 마



침 전경을 덮고 있는 안개와 함께 신비함을 가져다주었고, 정상인 옥항정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숙연함이 느껴졌다.

오후에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유교사상의 근원인 공자의 고향이자 노나라 수도인 곡부로 향했다. 곡부에서는 삼공, 즉 공묘, 공부, 공림의 관람이 예정되었다. 공묘는 공자를 기리는 사당이고 공부는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 공림은 공자와 그 자손들의 묘소로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 장의 관람권으로 세 곳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지라 가이드가 티켓을 분실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공묘의 중심인 대성전으로 가기 위해 대성문을 비롯한 7개의 문을 지나면서 그 웅장함에 압도되고 대성전 돌기둥의 화려한 용 조각을 통해 공자의 위상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공묘를 뒤로하고 공부로 향했다. 공부를 입장하기 위해서 소지품 검열을 받았다. 공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으며 정원 또한 조성이 잘 되어 있었다. 비록 공자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 후손들은 공자의 후광으로 인해 역대 왕조의 보호를 받으며 호위호식 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마지막 일정인 공림으로 갔다. 5시 30분까지 입장해야 했지만 5분이 늦어 입장을 하지 못했다. 규정에 따라 시간이 지나서 온 관람자들을 입장시키지 않는 비정함을 원망했지만 잘못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있기에 어찌하겠는가? 이 또한 중국의 문화가 아



니졌는가?

대단한 실망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석식으로 나온 공부가연을 대접 받고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어제보다는 조금 이른 11시쯤 숙소에 도착해서 간단히 샤워하고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된 정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 새벽 2시가 다 되어 잠자리에 들게 되었지만 정 선생님께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 분의 도전정신과 용기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행 4일차 - 제남, 그리고 다시 석도로

오늘 일정은 8시에 시작해서 그런지 조금 여유가 있었다. 짐을 꾸려 버스에 싣고 제나라의 수도였던 제남으로 이동했다. 제남에서는 고차박물관, 순마갱, 제나라역사박물관을 관람했다.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주변에 있었다. 박물관은 춘추전국시대 차마전시관과 중국의 고차진열관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전시된 유물은 전쟁에서 사용했던 전차와 말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진시황의 병마용 갱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 규모가 꽤 큰 편이고 특히 말이 매장되어 있는 광경을 직접 확인하니 당시 전쟁의 참상이 떠올라 뭐라 형언할 수 없었다. 고차진열관에선 여러 유적지에서 출토된 차량을 복원하여 진열하였는데, 쉽게 보기 힘든 낙타가 끄는 수레

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순마갱은 제나라 군주인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유적으로 순장된 말들의 유골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드러나 있었다. 보는 순간 '짜통의 천국' 중국의 기술로 만든 복제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지만 진품이라는 설명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물론 그 당시 이동과 전쟁의 핵심인 귀한 말을 순장하였다는 사실에 제나라의 세력과 왕권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짐작이 되었다.

제나라역사박물관의 외관은 제나라 장성을 본 따 만들어서 그런지 여느 박물관보다는 아주 특이하여 그 안에 전시된 유물에 대한 기대심을 갖게 하였다. 그 중에서 제나라의 영역을 표시한 춘추전국시대의 지도, 관포지교의 고사에 등장하는 관중의 활동상이 담긴 자료, 축구의 기원이라며 제시한 고대 축구공과 FIFA의 인증서, 손무의 손자병법 전시 자료, 학문의 전당이 된 직하학궁의 전시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제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여러 자료와 유물 등을 관람하였다. 박물관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전 지식이 없으면 박물관에 가서도 전시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제나라의 유물 또한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든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전시물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과 나의 부족한 배경 지식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평소보다 빠른 점심 식사 후 내일의 일정을 위해 쓰다오를 향해 약 7시간 정도의 차량 이동을 하는 동안 중국 CCTV에서 제작한 대국굴기라는 영상물을 시청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영국, 네덜란



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이 강대국이 되기까지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서 한때 세계를 호령한 네덜란드의 도전정신과 해상 무역이 장보고와 가장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집에서는 시간을 내서 보기 힘든 자료였지만 여행의 일부로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이번 답사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긴 이동 거리와 시간은 빼고…….

차창 밖으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대륙과 옥수수 밭의 장관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넓어지고 포용력 생기는 것 같지만, 저 많은 옥수수를 어떻게 수확할까?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해산물 뷔페에서 그동안 여행으로 누적된 피로와 회포를 푸느라 같은 조원들과의 회식자리가 다른 조보다 길게 이어졌으며 부러움을 받았다. 이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일 것이다.

여행 5일차 - 유공도를 돌아 인천을 향해

석도에서 유공도가 있는 위해로 향했다. 워낙 장시간 이동에 익숙해져서 1시간 30분 정도는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중국인들도 유공도로 가려는 인파가 많았다. 유공도를 향하는 배에서 바라본 웨이하이의 풍광은 중국의 여느 도시와는 다르게 중국적이지 않고 마치 유럽의 한 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



도로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유공도는 북양함대의 주둔지로 침략과 지배를 받은 비운의 섬으로 기억되고 있다. 새로 지은 선착장 건물은 아픈 역사를 씻고자 하는 마음에서인지 몰라도 현대적인 시설물이지만 중국다운 모습을 살리고자 하는 흔적이 엿보였다.

갑오전쟁박물관 건물은 북양함대 사령관이 쓰던 사무실을 개조한 것으로 전쟁 전후의 사진이나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 자료 설명을 한글로 해놓은 것이 딱 인상적이었는데, 잘못된 설명이나 글자도 눈에 띄었지만 중화사상이 강한 중국에서 한글 설명을 볼 수 있어 묘한 느낌이었다.

청일전쟁 아니, 중국식 표현대로 갑오전쟁에 관한 전시물 관람을 하면서 서태후의 사치로 이화원을 건립할 무렵 모래가 섞여 있는 포탄으로 싸우며 죽어간 군인들과 전쟁의 참혹함이 우리 역사와 결부되어 다가와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유공도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한식 식당에 갔는데 우리나라의 목욕탕용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였다. 귀국을 위해 석도항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가이드가 산둥반도의 결혼 풍습을 소개해주었다. 사랑보다는 경제력이나 권력을 우선시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들으며 현재 중국 젊은이들의 사고를 대변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졌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상에서의 추억!

태풍으로 인해 출항하지 못할까봐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 정상적으로 승선을 한다고 하여 안도를 하면서도 함께 한 사람들과의 이별이 다가옴에 내심 아쉬움이 조금 생겼다.

석도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하고 승선하니 17시쯤 되었다. 그런데 출항 시간이 밤 22시경이란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긴 시간 선상에서 대기해야 한다니…….

첫째 날과는 달리 함께 답사를 하면서 사귄 여러 분들과 선실에서 환담을 나눌 수 있어 즐겁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감정이 미묘하게 교차하였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든 조원들과 한국으로 출항 전 갑판 위에서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모여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한 것도 행운인데, 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는 것으로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이 또한 이번 답사의 큰 수확이자 기쁨으로 남았다.

그리고 긴 여정과 장거리 이동으로 피곤함도 있었지만 장보고 발자취를 찾는 답사를 통해 1,200여 년 전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해상 왕국을 건설한 신라인들의 노력과 위대함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고 해상 왕국의 위용을 되찾기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해양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미래의 보고인 바다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일조를 해보겠다고 다짐하며 이 글을 마친다.



25

동북아 글로벌 경제의 선구자!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삼척 임원초등학교 / 박기태(가작)



동북아 삼국의 화두! 장보고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을 위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제 10년이 조금 넘는 교사이다. 처음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알게 된 배경은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다. 그 후, 해상왕 장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보았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세우고 동북아 제해권을 장악한 후 해적의 소탕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당나라와 해상 교역을 이루어냈다. 일본과도 교역을 터서 활발한 해상 무역을 발전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자기 실력으로 해상왕이 되었다.

장보고 대사가 동북아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완도에 진을 설치하고, 황해와 남중국해 및 대한해협을 지나 일본에 이르는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신라의 국제 해상 교통 및 통상 진흥을 통하여 나라의 부강에 기여하였음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장차 도래할 중국 및 일본과의 삼각 무역을 통한 통상 발전 전망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중요한 해상 요충지로서 국제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시대의 해상왕인 장보고의 정신을 배우고, 동아시아 해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탐구하고, 개인적인 면에서 해양 민족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탐방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장보고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배우고, 학생들에게 장보고의 성공 요인을 본받아 미래 세대를 글로벌 해양인



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 교육을 해보고 싶었다.

장보고! 그 시대정신을 찾아 출발

이번 2014년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3년 동안 분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임원향이 있는 임원초등학교로 옮겨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소년단을 맡아 학생들의 해양 지도와 더불어 청소년 활동을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하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새로운 해양 교육의 교두보로 삼아 학생들의 해양 교육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정에서 장보고에 대한 책을 구입하여 장보고 대사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와 전망, 그의 일대기를 문헌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장보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특히, KBS 다큐로망 해신 장보고가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장보고의 발자취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 집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다. 인천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길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혹시 늦을지 몰라서 2시간 일찍 출발하였다. 인천터미널에 도착하여 버스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도착하였다. 중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으로 벌써 중국에 도착한 것 같은 착각



이 들었다. 명진약국 옆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더운 날씨와 오랜 여정 탓에 터미널 건너편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15시 40분 한국해양재단 직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보였다. 명찰과 식사권을 겸한 승선권을 받았다. 5조 8번, 2호차였다. 단체 비자는 5조에 8번째 순서라는 뜻이었고, 중국 현지에서 타야할 차는 2호차였다. 드디어 승선 수속을 시작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긴 S자형으로 줄이 늘어서 있다. 여러 가지 쇼핑 가방을 든 중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나 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밥솥과 전자제품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끌었다.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많이 저렴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표정에서 기쁨과 더불어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드디어 배에 승선하여 숙소를 잡았다. 8명이 한 방을 쓰는 구조였는데 생각보다 방이 넓었다. ‘진짜 사나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해군들은 정말 좁은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았는데 여객선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넓고 깨끗하였다.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경남 양산, 경기도,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초·중등 교사들이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벌써 10년이 넘게 운영해온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쉬는 시간, 갑판에 올라 서쪽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뿌연 해무 사이로 석양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같이 석양을 즐기자고 갈매기



들은 하늘을 시원하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은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것 같았다. 장보고의 여정이 자연의 모습을 닮아 편안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듯하였다.

늦은 저녁 선상 세미나가 있어 식당으로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관계자와 더불어 교수님과 임원진을 소개하였다. 이번 답사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중국의 호텔을 주점이라고 하고, 중국 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간단한 주의사항 소개가 끝나고 장보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과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200년 전 장보고는 바다를 적극적으로 경영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해상 상업 제국을 건설하고, 무역 기지를 청해진에 구축하여 신라 경제를 부흥하고 동서 교육을 활발히 하였다.

장보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 먼저, 바다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미래 자원의 보고를 활용하여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의 번영은 바다의 패권 장악에 의해 가능했으며, 바다는 미래 자원의 보고이다. 곧,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둘째로, 해외 무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좁은 내수 시장을 만회하려면 해상 무역을 통하여 생존과 번영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해상 활동을 통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장보고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 아라비아 문화까지도 접촉하였다. 이런 신라 중심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한 진정한 세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답사 2일차, 배안에서 자는 잠은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생각보다 편안하게 잠을 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뒤척뒤척 하며 한 명씩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아침 식사 방송이 들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들려왔다. 짙은 해무 때문에 접안이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 갑판에 올라보았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은 날씨가 좋다고 하던데 하면서 웃으며 다시 선실로 들어왔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접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결국 점심까지 배안에서 먹고 말았다. 이제 마음을 접고 저녁도 먹어야지 하는 순간 이제 항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방송이 나왔다. 중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준비한 만큼 많이 배우고 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도착하며 가이드는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당부한다. 시간을 지키고, 여권 분실하면 본인뿐 아니라 같은 조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주의하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또한 중국 요리는 기름에 튀기는 것이 많아 천천히 먹고, 수돗물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하였다.

중국에서 장보고의 역사를 배우다

(장보고전기관, 적산법화원)

산둥성에 도착한 첫 날, 짙게 낀 해무로 인해 우리는 배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드디어 기다리던 중국 땅에 발을 내딛었다. 맑고 갠 하늘이 우리를 밝혀주는 듯 태양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은 날씨가 좋았던데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처음 만난 가이드는 우리 여행팀이 참 운이 좋다고 한다. 우리가 여행하는 기간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이다. 비록 처음 중국 땅에 발 디디기는 어려웠지만 첫날부터 기분 좋은 출발이 되었다.

원래 마지막 날 갈 예정이었던 장보고전기관과 적산법화원을 오늘 먼저 가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장보고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을까? 장보고의 어떤 점이 중국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대한가? 우리나라의 장보고 세계관과 중국인의 장보고에 대한 세계관은 어떻게 다를까? 등 많은 궁금함을 한 아름 지고 드디어 장보고전기관과 법화원을 찾아가 보았다.

장보고전기관과 적산법화원은 중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승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올라가는 길, 우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그만 여행자 전용 전동차를 타고 장보고전기관으로 향하였다. 가장 먼저, 눈에 뜨인 것은 산위에 우뚝 솟아있는 적산명신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명신은 해신으로써 뱃사람들이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며 불공을 드리던 신이다.





법화원의 연중행사로 신라의 예를 따라 8월 15일을 전후해 3일간 축제가 있었고, 정기적으로 강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법회가 행해졌다고 한다. 적산명신 뒤편으로는 수많은 불상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옥으로 된 그림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바다와 날씨의 힘을 종교에 기대어 자신만의 평안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았다. 나도 적산명신과 많은 불상들의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건강의 소망을 빌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장보고전기관에 도착하였다. 장보고의 모습이 동상으로 우람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우리 팀은 모두들 신난 표정으로 사진도 찍고 직접 만져도 보며 장보고를 몸으로 체험하였다. 제1 전시관은 장보고 대사의 중국에서 활약, 적산법화원의 전성기, 청해진의 융성, 청해진 부침 등이 그림으로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당시 무역선의 모형, 무령군 소장의 모형, 적산법화원지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2층 전시실에는 불상 등 불교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청해진과 적산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장보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었고, 중국에서 장보고 장군의 모습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신라에서 인정받지 못해 처음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힘들었던 심정이 느껴지는 듯하였고,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오는 용기에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국땅에서 스스로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룬 장보고 장군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적산법화원에 들렀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 대사가 통일신라 흥덕왕 때 신라인 집단 거주지였던 산동반도

적산촌에 건립한 사찰로, 신라원 중 가장 유명하였다. 장보고는 재당 시절 적산 지방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적산법화원을 창건하였다. 이 절은 신라방에 세운 신라원으로 신라인의 구심점과 해외포교 활동, 본국과의 연락 기관 구실을 하였다. 법화원은 한중 일 승려들을 모아놓고 법화경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어 법화원으로 했다는 설도 있었다.

적산법화원은 일본식 정문, 한국식 탑, 중국의 문양 등 다양한 문화공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보고 장군의 문화 교류와 경제 활동으로 신라 시절 중국과 일본의 융합한 사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적산법화원은 21세기에도 삼국의 융합을 배우는 교육 장소로 유용하다.



중국의 명산! 태산을 찾아서

어제 우리 팀은 늦게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전용 버스가 리무진이라 그래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아침을 먹고 태산을 출발하는 길, 어제 저녁에는 6시간을 왔는데 또 다시 3시간 정도 가야 한다고 한다. 중국의 산동성이 우리나라의 크기의 두 배이니, 스케일이 참 큰 것 같다. 대륙의 넓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듯하다. 먼 버스 여행이지만, 창가로 비추는 자연 환경은 우리네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나무와 산들 바람은 땅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듯하고 한국의 풍경을 생각나게 해 주었다. 하지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평

야의 모습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릴 적 농사를 지으신 어머니께서는 작은 땅에서도 매일 같이 일하시며 작물을 가꾸어오셨는데 이 넓은 땅을 어머니가 보시면 참 좋아할 것 같았다. 또한 간간히 보이는 시골집의 풍경은 모두 빨간색 기와로 만든 것이다. 기와를 하나 둘 손으로 얹은 것처럼 정성스레 쌓여 있었다.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쌓아 간다니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드디어 도착한 태산, 깨끗하고 맑게 갠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는 듯하다. 태산에서 주운 돌은 신묘함과 행운을 상징하여 사람들이 돌을 판다. 빨간색 무늬를 새긴 돌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상인들은 돌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을 파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들어가는 길, 우리는 입구까지 셔틀 버스로 이동하였다. 버스를 타고 10분을 이동한 후, 케이블카를 탑승하였다. 우리 앞의 팀은 바람이 많이 불어 탑승이 어려웠다는데 어제의 해무가 우리에게 호재였던 것 같다. 케이블카를 탑승하여 바라본 산의 모습은 오악이라는 태산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듯 보였다.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산봉우리와 더불어 조금씩 흘러내려오는 물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가는 도중에 염소들이 여기 저기 돌아다닌다. 염소들은 위험한 태산에서도 여기저기 잘도 뛰어다닌다.

산을 올라가는 길, 중국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온다. 넓은 중국 땅에서 태산을 밝아 보는 것도 중국 사람들에게도 특이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태산은 중국 오악 중 으뜸이라고 하며 중국 지폐 5위안의 뒷면 배경으로 오악지존이라고 불린다고 한



다. 또한 정치, 도교, 불교의 성지로 태산을 숭상한다고 한다. 이는 역대 황제들이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의식을 행했던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봉선의식을 통하여 치세 기간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잘사는 태평성세를 바라고 하늘의 뜻을 받들기 때문이다.

위쪽으로 올라가니 도교 사원이 보였다. 도교 사원의 신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거기에서도 스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사람들에게 복과 건강을 빌어주는 것 같았다. 우리네 향과 다른 큰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에 대하여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절심함을 느낄 수 있었다.

태산에는 높은 절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진시황과 황제들이 새겨놓은 글귀라고 한다. 황제들이 봉선의식을 치르며 왔다가 감상을 적었다고 하였다. 빨간색 글씨로 새겨 놓아 더욱 선명히 눈에 띄었다. 옛 사람들의 발자취를 느끼며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다. 안개가 끼어 볼 수는 없었지만 중국 땅의 아름다움과 수려함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내려오는 길,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온 어머니가 사진사에게 사진을 찍는다. 밝게 웃으며 태산의 정기를 받아가는 듯하였다. 옷통을 벗어던진 채 올라가는 남자들, 중국남자는 근육질이 되면 인기가 많을 것 같았다. 여기 저기 남자들은 윗옷을 입지 않아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듯하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지나쳐 가면서 태산의 모습도 조금씩 사라져 간다. 다시 케이블카를 내려가는 길, 다시 배가 고프다. 어느덧 점심시



간이 된 것 같다.

국력이 국가의 미래이다

(청일갑오전쟁박물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본에게 침략 당했던 치욕의 역사가 있다. 나는 역사 시간 선생님이 한국은 ‘한의 역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소국이 그래도 현재까지 꾀꾀하게 지켜내고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런 시련을 잘 견뎌온 조상들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 때문이란 것을 안다.

중국은 예전부터 아시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역사의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조공을 바치는 등 대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은 그런 자신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자원과 사람들을 자신들의 경제 발전과 전쟁을 위해 사용하였다.

청일갑오박물관은 나라의 국력이 약화될 때 어떤 일이 초래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소인 것 같다. 먼저, 유공도가 일본에게 점령되었을 당시의 모습과 상황을 동영상과 더불어 관련 모형으로 잘 설명해 주었다. 또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난 후, 일본

의 만행을 다양한 사진 자료로 보여주고, 모형도 만들어져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사진과 내용들도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배웠던 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왜곡된 역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청일갑오전쟁박물관을 둘러보고 다시 위해로 나오는 배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부산을 연상시킬 정도로 큰 빌딩과 더불어 시원한 바다가 나의 마음을 씻겨주는 것 같았다. 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정다운 목소리, 아이와 더불어 온 아주머니의 부지런한 손길, 중국에서도 이런 사람사이의 냄새가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창의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중국고차박물관)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 강태공이 낚시를 띄웠던 호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중국고차박물관에 도착하였다. 중국고차박물관은 시안의 진시황 병마용과 비견되는 제나라 때의 대형 차마갱박물관으로 매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고차박물관은 아래층에 순장된 수레와 말이 전시되어 있고 위층에는 다양한 고대의 수레를 복원해 전시하였다. 지하의 순마갱은 전체 길이가 약 40미터이며 폭이 15미터로, 전쟁 시 사용하던 수레 10량, 말 32필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었다. 2, 3전시실에는 우차, 상차, 낙타차 등 다양한 마차들이 있



었는데 황제, 귀족들이 타던 고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수레에 장착된 기계식 활, 도끼 등 각종 무기 및 병기 등 전투에 활용되었던 많은 군사 무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제4전시실에는 중국의 수레 사용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순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니 역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제나라 시절 귀중한 재산이었을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순장하였을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제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하였다는 방증이라고 한다.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운다.

2, 3층과 4층 전시실에는 다양한 중국 전통 수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신라 시절 중국은 다양한 고차를 통하여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실제로 본 고차들은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전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의 창의력이 곧 나라를 이끌어 감을 느끼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함에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리더십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공자의 고향, 곡부)

춘추전국시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절,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

났다. 그 중에서도 단연 공자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준 우리 삶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공자의 사상을 배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곡부에 찾아간다.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 ‘유교’라는 방송을 통하여 곡부를 보았다. 사람들이 공자를 숭상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에 더욱 큰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직접 찾아간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런 마음이 들었다.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 들어가는 문, 많은 문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당시 황제들은 공자를 인정하고 친히 왕립하여 그 사상을 본받으려 했다는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 놀라웠다. 또한 공자가 살았던 곳의 지붕은 황제와 마찬가지로 노란색이라고 하니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넓은 공자의 사당에 많은 향나무와 식물들이 자라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 하나의 나무에 두 개의 다른 식물이 자라난 모습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의 전통을 이렇게 잘 지킨 공자의 후예들이 참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아끼고 지킨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았다.


다음으로 공자의 하인들이 살던 집을 찾아갔다. 예전 청나라 시절,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녹아 있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것 같은 좁은 소로, 불을 때기 위한 작은 굴뚝 등 전통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나도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청나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살던 세월의 때는 잘 잊히지 않은 것 같다. 집안 구석구석, 작은 벽돌에서 사람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옛 사람들의 이런 작은 손짓에 감사함을 느낀다.

경제를 통한 부국강병을 꿈꾸다

(제나라박물관)



제나라박물관에 와서 가장 먼저 눈에 뜨인 것은 제국산성의 사진이다. 이것이 만리장성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니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전시실 내에는 제국의 영토 지도가 있고, 제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생활 전반을 알 수 있는 벽화 형태의 그림이 걸려 있다. 그밖에 제국 유적에서 발굴된 도량형, 옥, 술, 참새 부리처럼 생긴 술잔, 토기류, 석기류, 청동기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였다. 한편 강태공 동상, 관중 동상, 제경공 동상, 제환공 동상, 안영 동상 등 이 시대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었다. 국보급 유물로는 향로인 박산훈로, 돼지 모양 술잔, 식기인 은두 등이 눈길을 끌었다.

넓은 국토를 중심으로 꾸준한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이끌어 왔던 제나라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섬세한 손길들이 유물 하나하나에 접목되어 있어 경이로운 생각이 들었다. 국가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이끈다면 나라도 더욱 살기 좋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제나라의 부국강병 정신을 배워 우리나라도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본다.

ENDING, 장보고 답사를 마치며!

점점 멀어지는 산둥성, 아쉬운 마음으로 중국을 떠난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좀 더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나간다.

‘동북아 글로벌 경제 선구자! 장보고 답사’

나는 이번 답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먼저, 청해진과 적산, 일본 등지를 돌며 글로벌 해상 무역을 했던 장보고의 위대한 도전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라 시절,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바다에 도전하여 삼국의 경제를 통합하여 무역하던 장보고의 도전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도자기 무역을 통하여 큰돈을 번 후, 스스로 도자기를 만들어 일본에 판매하였던 상인 정신은 높게 생각되어진다.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 장보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배우고 익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장보고의 정신을 배워야겠다.

두 번째로, 재당·재일 신라인들과 함께 한 장보고의 정보력이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더욱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다. 장보고는 재당·재일 신라인들과 연합하여 필요한 물건과 사람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자를 정확히 조달하였다. 이런



장보고의 정보력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정신과 더불어 사회적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만들어 낸 한 편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이런 장보고의 정보력을 배워 21세기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로, 장보고는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진출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드높였다는 점이다. 정복 전쟁이 시작된 이래 바다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수순을 밝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바다는 정말 귀한 재산이다. 이런 바다를 지키려 했고, 그 전에 멈춰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진출할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해양 정신은 우리 시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장보고에서 배운 글로벌 시대정신, 리더십, 정보력, 창의력, 해양 정신을 일선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교직 생활, 이번 답사 활동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풀어 낼 것이다. 답사 중 습득한 중요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학생들을 교육할 교수 학습 과정안을 구상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라시대 해양 제국을 건설하였던 장보고에 대하여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해양 교육에 더욱 헌신하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26

장보고를
알고 계시나요?

주천초등학교 / 이재영(가작)





우리나라의 위인 중에서 장보고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그중 주요한 원인은 재학 시절 배움이 부족했고 생각을 안 한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화된 점수를 얻는 공부의 오래가지 못하고 뜻을 세우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기본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공부해서 이루고 싶은 가치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 이루고 싶은 장래희망을 물어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매진하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장보고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목표를 넘어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는 더욱 넓은 차원의 꿈을 꾸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에서도 인식의 범위가 나에서 시작해서 국가까지 확장되지만 청소년의 경우 나와 관련된 내용에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같이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라에 힘이 되는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학생들이 꿈의 인식 범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번 답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5박 6일의 일정 중 첫날과 마지막 날은 배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장보고는 신라 원성왕 시기에 태어났고 완도의 해안 지방에서 출생했다. 당시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로 인해서 하층민의 경우 생활이 어렵고 꿈을 이루기에는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다고 한다. 신분제의 제약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넓게 펼쳐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는 소년의 가슴에 희망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넓은 바다를 나는 갈매기처럼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꿈을 이루고 싶은 이에게는 신분 차별이 비교적 적은 당나라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였을 것이다. 장보고는 작은 배를 가지고 당나라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는데 머나먼 바닷길을 건너 중국까지 가는 길이 어려웠을 것이다.

첫째 날 우리 일행은 길이가 174.50m인 화동훼리호에 승선했는데 비교적 잔잔히 보이는 바다였지만 배는 끊임없이 흔들렸다. 작은 배를 통해 당나라로 가는 길은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어렵고도 힘든 여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해가 진 어두운 바다는 깊은 수렁처럼 느껴졌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당나라로 떠나는 장보고 일행은 두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녁 식사 후 안전 교육과 강의를 있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안전 관리 규정이 강화되어서 배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과 비상시 대피에 관한 설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석연구원과 퇴역 제독의 강의를 들었다. 장보고의 서해 횡단 항로 개척과 도전정신 그리고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둘째 날 오전에 석도항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 후 우리가 탈 차를 기다렸다. 본래 한 줄에 4명씩 앉는 버스를 타지만 중국에서의 장거리 여행을 위해 특별히 우등버스를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래 중국 사람들은 성격



이 서두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이 달려 있는 부분에서는 서두르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왜 중국인이 서두르지 않는지는 여행을 통해서 점점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고 위해(威海)를 향해 이동하였다. 위해는 작은 항구 도시로 명나라 태조 때 해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 기지를 설치하면서 위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점심시간이 되어 위해시의 광명가든호텔에서 식사를 하였다. 테이블 옆에는 보물과 재물을 기원하는 포대화상이 있었다. 중국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재물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고 들었다. 예전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화교의 이야기를 들어도 대부분 단합을 잘 하고 장사 등을 하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다.

식사 후 유공도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배 안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 또한 크게 느껴졌다. 유공도는 위해와 인접하고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요새에 해당된다고 하며 유민이 개간하며 살던 곳으로 조난을 당한 어부를 도와주고 바닷가에 횃불을 놓아 어부들이 고기를 잘 잡도록 하였다고 들었다. 유공도라는 이름은 그의 선행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

배에서 내려 먼저 청일전쟁의 과정과 북양함대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갑오전쟁박물관에 들렀다.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청일전쟁 당시 사용한 무기와 건물을 보았다.

배에 있었던 어뢰와 대포 등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사와서 사용



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 전쟁을 하면 세금이 무기 구입을 위해 쓰이는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사고팔았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침입으로 인해 수탈당하고 백성이 크나큰 고통을 당했는데 중국도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려 놓았다. 용으로 상징한 중국을 외국 사람들이 부위별로 칼로 잘라서 가져가려는 모습이 그려 있었다. 왜?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없는 나라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일까? 나라의 힘이 없는 것은 그 나라에겐 정말 큰 고통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구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박물관 안의 전시물은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글 표기 중 맞춤법이 바르지 않는 글자도 있었다.

셋째 날 아침 식사 후 태산을 보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했다. 태산은 중국 5대 명산의 하나이며 황제가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도착하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있었다. 산에 오르니 절벽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석각이 무려 1,800여 군데에 남아 있다고 한다. 산을 오르려면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을 장수할 수 있다고 하며, 중국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이라고 들었다. 태산 중반에 사진을 찍으려 있으니 한 중국인 아가씨가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준다며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을 1년 정도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듣고 발음도 매우 좋았다. 한류열풍의 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계단을 오르면 주변을 살펴보니 의외



로 쓰레기가 많지 않았다. 배에서는 새치기도 하고 함부로 담배를 피워서 보기에 좋지 않았는데 성스러운 관광지에서는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내려오는 길에 예쁘게 자리 잡은 쓰레기통을 사진기에 담았다.

점심 식사 후 곡부를 향해 출발했다. 곡부는 공자의 고향으로 공묘(孔廟)와 공부(孔府), 공림(孔林)이 있다. 유적지를 보는데 파손된 비석 등이 많았는데 문화혁명시기에 파손되었다고 한다. 공자를 기리는 사당인 공묘는 한 고조 유방이 제물을 올리고 제사 지낸 이후에 전례가 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3칸의 방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곳이었으나 계속된 증축으로 인해서 매우 넓어서 관광용 차가 운행되고 있었다. 커다란 비석도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청의 강희제가 북경의 서산에서 운반해온 비석인데 무게만 65톤에 이른다고 한다. 공묘의 건물은 기와에 금색이 칠해져 있었고 왕들이 사용할만한 상상 속의 동물들이 기와를 장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물건은 황제가 머무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 공자의 위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부는 공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자의 자손이 살았던 저택 겸 관공서로 공자의 자손은 포청천에 나오는 인물과 같은 관직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저택이 매우 넓고 관광객이 많았는데 공자의 자손은 대만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공림은 공자와 그 일족의 묘소로 규모가 매우 컸는데 10만 명이 넘는 공자 자손들의 묘비가 있다고 한다. 공림은 점점 규모가 커진 묘로 여러 왕조를 거쳐 오면



서 땅과 나무 그리고 시설이 늘어났다. 공자묘에 가보았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공자묘 역시 문화혁명시기에 파괴되었다고 한다.

넷째 날은 조식 후 고차박물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중국 최고의 차마유적지로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발견 당시 대규모의 순장된 말과 마차들이 흙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박물관은 춘추차마전시관과 중국고차진열관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전차와 말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규모가 매우 크고 말 장식이 화려했다. 중국고차진열관에서는 여러 차량과 여러 고대 차량의 복원된 모형이 있었다. 제나라역사박물관에는 제나라의 여러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유명한 사상가와 여러 토기 그리고 고대 악기 등이 있었다. 특히 축구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입증하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순마갱을 들렀는데 이곳은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이다. 순마갱의 동쪽과 서쪽 길이는 각각 70m에 이르는 큰 규모였다. 두 줄로 늘어선 말들이 머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하고 누워있었는데 전쟁에 사용되는 긴장한 말로 당시 이곳을 지배하는 세력의 힘이 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섯째 날, 장보고 유적의 하이라이트인 장보고전기관과 적산법화원을 향해 출발했다. 장보고전시관 중국에서 건립한 곳인데 중국 영성시와 산동척산수산그룹이 세웠고 한국해양재단에서 전시물 등을 지원했다. 가장 먼저 둘러본 것은 장보고기념탑이다. 기념탑은 1994년에 세웠는데 장보고기념탑(張保臯紀念塔)이라는 여섯 글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설명을 들었다. 약 1시간 가까이 이곳에 있었지만 우리 일행을 제외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은 10명이 되지 않았다. 기념탑만 혼자 있었고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일부러 들리지 않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았다. 기념탑 관람 후 자유 관람 시간이 주어졌다. 전기관에는 커다란 장보고 동상이 서 있었다. 높이가 8m이다. 동상 뒤에는 장보고의 생애가 영어와 한문 그리고 한글로 적혀있는데 장보고는 분명히 신라인이라고 쓰여 있다. 장보고전기관은 모두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글 설명도 있었는데 장보고기념관의 건립 이유와 장보고의 생애와 신라도 돌아와 설치한 청해진,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보고 관련 활동을 소개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도 한글 표지판에서 오기가 발견되었다. 비록 외국에 있는 표지판이지만 바로 오기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답사는 역사 위인 1명을 알기 위한 답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역사를 알고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었다.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국경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수시로 정복하고자 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해 문제로 주변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남중국해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둘러싸인 바다인데 여기에는 석유, 천연 가스 등 천연 자원의 매장량이 많다. 일본 또한 방위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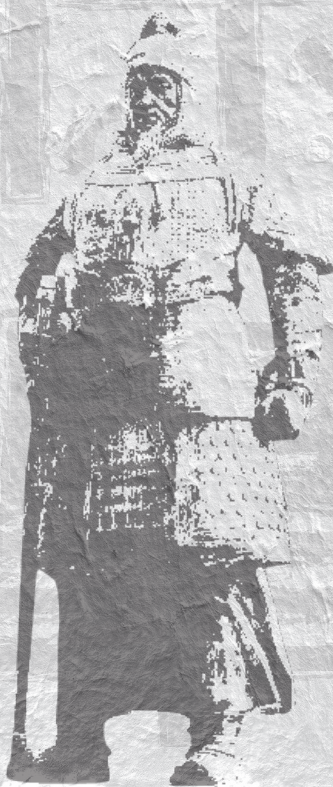
중국 등과 영토 분쟁이 있는 독도 인근 및 센카쿠 열도 지역의 방위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은 5조엔(약 49조 7000억 원)을 초과할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영해와 영토를 늘리고자 군사력을 강화하며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나라 안의 안정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해와 영토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을 마치며 같은 민족이 노예로 팔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직위를 버리고 신라로 돌아온 후 중국과 일본을 넘어 멀리 서아시아까지 교역을 했던 넓은 세계관을 지닌 장보고가 더욱 자랑스러웠고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큰 꿈을 꾸고 힘을 모아 이러한 꿈을 키워주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



27

해신 장보고의 발자취를 찾아서

서울 진관초등학교 / 김동중(가작)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후원한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1,200년 전, 동아시아 바다를 누비며 해상 무역 항로를 개척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던 해상왕 장보고 장군의 중국 유적지를 직접 답사한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집결 장소에서 등록을 하니 한국해양재단에서 모자, 휴대폰 충전지 등 푸짐한 선물을 안겨주어 황송한 마음이 들었다. 국제 웨리선 승선 절차를 마치고 화동웨리에 몸을 실었다. 배정받은 객실에 짐을 풀고 2만 톤급의 선박을 두루 살펴보았다. 갑판 위에서 인천항을 바라보니 내항과 외항이 잘 조망되었다. 연안 부두의 바깥 선착장에는 인천과 제주를 오가던 배가 늘 정박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제주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및 운송 수단이 중단된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通 卽 不痛 이요 不通 卽 痛’이라는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사방이 서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뜻이다. 신체에 큰 병이 있어도 일단 기혈이 통하게 해야 시간을 두고 차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인천항과 제주를 오가던 정기 운송 수단도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무조건 중단하고 막으면 환부는 괴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선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상 세미나를 가졌다. 선상 세미나에서 장보고 장군의 위대성과 1,200년 전의 그 기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선상 세미나를 통하여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그냥 유람이나 해외 나들이가 아니라 대한

민국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해상왕 장보고의 뛰어난 활약상과 기상 및 업적을 기리고 되새기며 그 위업을 미래에 되살리는 불씨가 될 것임을 확실히 느꼈다.

화동훼리호는 20노트 정도의 속도로 황해를 가로질러 14시간 만에 중국 산둥성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석도항에 도착하였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정해진 버스에 올랐다. 안내 가이드가 친절하게 일정을 잘 설명해 주었다. 중국에 발을 디딘 첫날, 우리 일행은 위해 유공도에 있는 갑오전쟁박물관을 답사하였다. 지금부터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일어난 갑오동학혁명을 외세로 해결하려고 조선 조정이 불러들인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력이 충남 아산 앞바다 풍도에서 맞붙은 후, 청이 대패하자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평양, 압록강 어귀, 뤼순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유공도 주변 바다에서 청나라 북양함대를 괴멸시키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뼈저린 아픔일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 굴욕을 잊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유공도에 갑오전쟁박물관을 세웠다고 한다. 이 박물관에서 눈길을 끈 것은 청나라 군함에 장착되었던 거대한 함포 2문이었는데, 청나라에서는 청일전쟁 당시 이 함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연유는 서태후가 이화원 공사를 위해 북양함대 유지 운영비를 전용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함포가 있어도 발사할 포탄을 구매하지 못하여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전쟁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가 부패하고 나라의 힘을 결집하지 못하는 국가는 큰 우환




을 막아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두 번째 날에는 태안에 있는 태산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랐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라는 시조로 널리 알려진 산이라 친근감이 더했다. 태산은 우리나라 북한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국 사람들은 태산을 오를 때마다 더 젊어지고 더 오래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중국 남녀노소가 태산을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태산 정상 부근에 절이 있었는데 향불을 마치 도자기 가마 속에 장작불을 지피듯이 피우는 것을 신기하게 보았다. 아마, 중국 사람들은 향불을 크게 피우면 커다란 행운과 재복이 오는 것으로 믿고 있는 듯 했다. 많은 계단을 올라 해발 1,545미터인 태산 정상에 이르렀다. 정상에는 사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는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태산 정상에 서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우리 학생들이 거대한 태산조차도 하늘 아래 있는 조그마한 뉘로 본 선현들처럼 큰 기상과 포부를 갖추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보았다.

태산 등정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곡부에 있는 공묘와 공부 및 공림을 답사하였다. 버스가 곡부에 들어서자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구절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유봉 자원방래 불역나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따지고 보면 옛날부터 친구 사이였다. 친구 나





라끼리 서로 자주 방문을 하면서 우의도 다지고 서로의 역사도 돌아보면서 상호 본받을 점을 찾아간다면 서로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자가 말씀하신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정신으로 장보고 장군의 일생과 업적 및 교훈을 현장 답사를 통해 기쁘게 공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인부지이불은 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의 가르침도 잊지 말고 실천해야겠다. 즉, 장보고 장군에 대한 답사를 통해 획득한 생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해양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야겠다. 이 일을 하면서 결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군자답게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여야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공묘는 공자를 기리는 사당이었는데 수없이 많은 아름답리 향나무가 깊고 깊은 역사와 유서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공부는 공자의 직계 후손들이 살아온 마을이었고 공림은 공자 및 공자 직계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묘원이었다. 공자 무덤 앞에는 공자의 애제자였던 자공이 공자 무덤 앞에서 6년간 시묘살이를 기념하는 사당이 있었다. 이를 둘러보면서 스승과 제자의 정은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뜨겁고 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의 셋째 날은 고차박물관 탐방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치박 지역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다가 수많은 마

차와 말이 문혀있는 유적이 나타났고 이를 중국 당국이 고차박물관으로 보존을 해오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황하문명의 발상지답게 중국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동근 바퀴를 이용한 수레와 마차를 만들어 산업, 경제, 군사, 생활 등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레나 마차의 바퀴를 제작하는 과정과 제작된 고차들의 완성 모습 및 다양한 고차들의 라인업을 통해 고대 중국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고대 중국에서는 오늘날의 자동차처럼 호화롭고 커다란 리무진 마차도 있었고 실용적인 마차, 전쟁 때 사용되던 전차, 소가 끄던 우마차 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상 깊게 둘러볼 수 있었다. 이렇게 운송 수단이 일찍 발달해온 중국은 오랫동안의 잠에서 깨어나 자동차 산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자체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값싸게 보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중국제 상용차들이 세계 시장으로 몰려나오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자동차 산업에서의 국제적 비교우위를 높여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고차박물관 탐방을 마치고 제나라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이 박물관에서는 산동반도에 자리 잡았던 제나라의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도자기의 본고장답게 아름답고 실용적

이며 쓰임새가 다양한 도자기 유물들을 둘러보고 그 역사성과 정교함 및 쓰임새에 많은 감탄을 하게 되었다.

제나라박물관 답사를 마치고 인근에 위치해 있는 순마갱으로 향했다. 순마갱 내에는 많은 말들이 묻혀있던 현장을 그대로 발굴하여 보전하고 있었다. 순마갱을 둘러보면서 중국에서는 고대에서부터 말을 이용하여 넓은 대륙을 이동하고 물류를 유통시키며 산업을 발전시켜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옛날 중국에서는 말이 국가, 사회, 개인의 힘과 부의 상징이요 수단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산동반도에서의 넷째 날에는 석도 적산에 있는 장보고기념탑을 답사하였다. 기념탑 앞에서 장보고의 진취성과 역사적 위대성을 살펴보는 특강이 있었다. 1,200여 년 전의 장보고 정신을 오늘에 다시 살려 대한민국의 기상과 활로를 더욱 크게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교사들이 소명 의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바다의 중요성과 가능성 및 이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와있다는 생각을 하니 두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장보고기념탑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적산법화원 내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장보고 동상, 한국해양재단에서 건립한 법화우의보정, 적산명신 거상, 장보고전기관, 적산법화원 내의 장보고 공적비 등을 두루 답사하고 사진 자료도 많이 확보하였다. 이렇게 얻은 사진을 활용하고



직접 답사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내용 및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두고두고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 및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 등을 가르치고 이끌어내도록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다.

적산법화원 부근에는 고뇌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대한 관음보살동상이 있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60도 회전을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관음상은 회전을 하면서 정병에서 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음악과 스토리텔링, 물과 불 및 연기를 이용한 분수 쇼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적산법화원 답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일행은 귀국하기 위해 화동 웨리호에 승선하였다. 갑판에서 바라보니 적산명신 거상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 적산명신은 바로 장보고 장군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조용히 수호하고 영적인 힘을 주기 위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멀리 적산명신을 우러러보며 2학기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진취적 기상과 꿈 및 희망을 듬뿍 심어주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굳게 해본다.



28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보고서

풍양중학교 / 윤순자(가작)



중국의 개요

중국의 정식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고 수도는 북경(北京: 베이징)이며 면적은 960만km²로 한반도의 44배로 세계 3위이고 인구는 약 13억 명으로 세계 1위이다.

중국은 장구한 역사와 방대한 국토를 지닌 나라인 만큼 풍부한 문화 유적과 빼어난 산수를 두루 갖추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는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명승고적들이 많이 있다.

국토가 넓고 변화가 풍부하며 기후 역시 한 나라 안에 다양하다고 한다. 여름의 기온이 35℃를 넘는 장강 연변이 있는가 하면, 겨울 기온이 -30℃까지 내려가는 동북 지방도 있다. 실크로드 지방에서는 밤낮의 기온 차가 20~30℃까지 나기도 한다.

중국은 세계 문명 발상지 중의 한 곳이며 4천 년 전에 이미 고유 문자를 발명해냈고, 나침반, 화약, 인쇄술, 제지술 등의 4대 발명품으로 유명하다. 중국의 첫 통일 국가는 진시황이 세운 진(秦)나라이다. 이후 한, 수, 당, 송, 원, 명, 청나라로 이어지는 4천여 년의 시간 동안 북쪽 오랑캐와의 전쟁을 거치면서도 한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청나라 말엽에 일어나기 시작한 근대화운동은 중국 역사에 일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중국 근대화시기를 좌우한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내전은 현대 중국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 1912년 손문(孫文)이 세운 중화민국 성립 시점을 시작으로



로 30여 년간 국공 내전의 결과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고,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나 새로이 터전을 잡고, 승리한 공산당은 대륙의 세력을 장악하여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국가 주석인 모택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문화대혁명 시기에 반대 세력과 지식인들을 숙청하여 대대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줄곧 보수주의적 공산주의를 고수하던 중국은 경제 악화, 대외 관계 불화 등을 계기로 하여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수정주의에 입각한 정치, 행정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기초로 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치권력은 당과 정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전반적인 정치, 사상, 조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는 빨간색 바탕에 5개의 별이 있다. 그 중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며, 작은 네 개의 별은 각각 노동자, 농민, 소 부루조아, 민족 브루조아를 상징한다.

중국 인구는 현재 13억 명을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막기 위해 한족(漢族)에 한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역효과로 농촌 지역에서는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아이들은 흑해자(黑孩子: 헤이하이즈)라고 불린다. 그리



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비공식적으로 최대 1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94% 이상을 한족(漢族)이 차지하고 있으며, 장족, 회족, 묘족, 만주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나머지 6%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조선족은 약 200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살고 있다.

중국인의 성격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은 만만디(慢慢的)이다. 이 말 그대로 중국인의 성격은 느긋하다 못해 느린 편이어서 특히 중국인과 사업상 만날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만만디로 인해 곤혹을 치르는 일이 허다하다. 또한 중국인은 쉽게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깊이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어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국인과 교제를 할 때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한국 표준 시차보다 1시간 늦는데 중국은 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차가 없다. 즉 동쪽 끝인 지린성과 서쪽 끝인 신강위구르 자치구의 시간은 동일하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2014.07.30~31)

2014. 07. 30(수) 12시 야는 이라고는 선정 명단에서 본 후배 1명뿐이었지만 거리낌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작고 낡은 캐리어를 들고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향해 출발!
동서울터미널에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내버스를 타고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15시 50분. 시작부터 내겐 생전 처음 가는 길이었다.

16: 20 출국 수속

19: 00 선상 석식

19: 20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석도를 향해

출발~~~

우리가 탄 화동훼리호는 2만 톤이며 길이가 175m이고 산둥까지는 14시간을 항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4년 7월 31일(목) 예정대로라면 7시 선상 조식 후 석도(石島)에 도착해야 되었으나, 석도항에 안개가 심하여 관제소에서 입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석도까지 40분 항해 거리를 남긴 해상에서 기약 없이 입항 허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예정에 없던 점심 끼니까지 선상에서 때우고 나서야 입항 허락을 받고 입국 수속을 할 수 있었다. 7월 31일 현지 시각 2시 50분에 하선, 15시 14분 우리 7조에 배정된 3호차에 탑승하였다. 예정보다 6시간 지연된 탓에 결국 원래 계획을 수정하여 첫날 일정과 마지막 날 일정을 바꿔 적산명신, 장보고기념탑, 장보고기념관, 법화원(法華院) 관광을 먼저 하게 되었다.

15시 40분 전용 버스로 석도 적산 도착. 16시 적산법화원을 시

작으로 본격적인 답사를 시작하였다. 거대한 규모의 적산신상,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장보고기념관을 바삐 돌아보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전경들은 사진 속에서 다시 보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어찌면 이번 답사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답사 코스를 후다닥 주마간산으로 답사한 듯 하여 많이 아쉬웠다.

날씨는 안개가 자욱한데다 흐리고 가끔씩 가는 비까지 내렸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힘겹게 시작되었다.

● 붉은 산의 석도

석도는 우리나라와 1시간의 시차가 있다.

석도(石島)의 옛 이름은 적산포(赤山浦)라고 하는데 설악산을 찌그러뜨려 작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 붉은 산이 석도 항구 바로 뒤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석도는 고대부터 풍경이 매우 수려하다고 알려진 곳이라고 한다. 석도는 사계절 구름과 안개가 많고 예부터 '대동선경(大同仙境)'이라고 하며 완전 돌산으로 갈대와 억새도 많다고 한다.

석도 항구는 중국 북방 최대의 항구로 교역의 중심센터인 '중국 북방어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사는 조선족은 지난 89년 두 사람에게 불과했으나 현재 40여 가구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석도에는 중국 바닷가에서 제일 먼저 해상 일출을 볼 수 있어 예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곳인 중국의 희망봉으로 일컬어진 성산두가 있다고 한다.



석도 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석도 적산(赤山)으로 가서 법화
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버스를 타고 언덕을 올라 대불인 적산
명신(赤山明神)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대불 적산명신

버스에서 내려 성덕참천(聖德參天)의 문을 지나 대불(大佛)인 적
산명신(赤山明神)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곳 주민들이
바다에 나갈 때는 여기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간다고 하였다. 대불
은 파도가 치지 말라고 손바닥을 아래로 보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불의 정면에는 ‘제세택생(濟世澤生)’, 반대편에는 ‘공덕무량(功德
無量)’이라고 쓰여 있었다.

적산명신에 있는 불상은 대불을 합하여 모두 1,000개나 된다고
하였다. 대불 앞 비문에는 저 멀리 진시황 때 이사(李斯)가 불사약
을 구하러 갔다가 병이 나자 이 적산명신에게 기도하여 ‘곧 병이 나
았다.’는 것으로 보아 적산명신은 중국 고대 선민들이 예로부터 숭
배 해 오던 신일지도 모른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동상을 만들어 두었는지 모르
겠다. 어쨌거나 작은 산 전체를 기단으로 사용하여 저렇게 큰 동상
을 만들어 둔 것을 보니 참으로 통이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적산명
신 앞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석도 시내와 바다가 적산과 어울리어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우리 7조의 화합을 위해 처음으로
단체기념촬영도 찰칵!



장보고기념관

적산명신을 내려와 장보고전기관(張保臯傳記館)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적산을 쳐다보니 적산명신의 대불 등이 보이고 산허리에는 누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면의 무령종군(武寧從軍)과 측면의 대당추몽(大唐追夢), 입당배경(入唐背景) 등을 보니 당나라 문화가 신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곳이 무역 항구로 신라인이 많이 머물렀으며 무역 선단을 따라 당나라에 와 무령군에 입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성보지(殊勝寶地)’의 내용은

적산은 기이한 돌들이 겹겹이 솟아있고 구름과 안개가 감싸고 있는 적산명신의 동천복지(洞天福地)이다. 이곳은 뒤로 산이 우뚝 솟아있고 멀리 앞으로도 산을 맞이하며 법당 중앙으로는 옥수가 흘러 이른바 “앞뒤로 높은 산이 있고 서쪽에서 동으로 물이 흐르며 동쪽은 활짝 열려 있어 자자손손 왕위에 오르고 대대로 군왕과 반려한다.”는 풍수의 보배지이다. 이러한 길지에 장보고가 법화원을 건립하여 훗날 대업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한글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다.

장보고는 시대를 앞선 해양 개척의 선구자였다. 1,200년 전 해상 왕이던 그는 해양 진출을 통한 교역이 부국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바다를 통해 세계를 제패한 해양 개척의 선구자였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역 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해상 무역의 항



로를 개척하는 등 무역은 물론 문화, 외교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긴 진정한 세계인이며 해양인 이었다고 생각한다. 높이가 8m이고 무게가 6톤이나 된다고 하는 장보고 입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장보고기념탑

장보고기념탑은 적산법화원의 북쪽이고 장보고기념관 가까이 있는데 1991년 한국 성신여대 교수, 세계한민족연합회(世界韓民族聯合會) 회장인 최민자(崔珉子) 교수가 적산법화원에 왔다가 한민족의 선각자 장보고 대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1994년 7월 24일에 준공되었으며 탑 높이는 15m, 넓이는 16m²이다.

탑의 모양은 양쪽 손바닥을 마주한 모양이며 ‘장보고기념탑(張保皋紀念塔)’이라는 여섯 글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이다. 탑의 의미는 한, 중 양국의 친선(親善)이 영원함을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신라인의 교화처 적산법화원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츠산파화위원)은 장보고 대사가 세웠다고 한다. 당시 해상 무역으로 삶을 살았던 신라인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고 신라방에 살던 신라인들의 교화처였으며 교민 사회 결속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적산법화원은 통일신라시대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 사원이었다. 이곳은 재당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교화를 담당하는 장소이며 만남의 장이었고, 교민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중심체였



으며 신라 교민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열린 장소였다고 한다.

적산법화원은 5,000m²의 부지에 건설되었는데, 당대의 건축 양식을 살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묘사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을 기대고 앉아 있는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이곳의 중요한 건축물로서 보전하고 있고 안에는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정교한 석가모니상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 불교협회의 회장인 조박초(趙朴初) 선생이 직접 쓴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는 글자가 걸려 있다.

적산법화원의 삼불보전(三佛寶殿), 대웅보전(大雄寶殿), 관음전(觀音殿),地藏전(地藏殿) 등을 두루 돌아보았다. 뜰에는 한국의 장씨대종회(張氏大宗會)에서 주관하여 건립하였다는 청해진(淸海鎭) 대사(大使) 장보고공적비(張保臯功績碑)가 있었는데 장세기(張世基)씨가 중심이 되어 29명의 공적비건립추진위원 명단이 한자로 음각되어 있었는데 ‘장보고’라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은 ‘張보고’라고 성만 한자로 하고 이름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다.

일정을 마치고 18시 20분, 숙소인 치박을 향하여 출발(6시간 거리. 중국에서는 새벽 2시부터 고속도로 통행금지라 함), 19시 04분 저녁 식사할 한국 식당 경복궁이 있는 청도(독일식 빨간 기와와 푸른 바다, 독일 점령 때 생산을 시작한 칭다오 맥주가 유명)까진 아직 150km 남았는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청도에 21시 10분 도착하여 늦은 저녁을 먹고 다음 날인 8월 1일, 00시 40분 숙소인 치박



의 만호대주점에 도착하였다.

● 이동 중 가이드로부터 전해들은 중국과 산둥성 개요

중국 인구는 13~18억 명

통계상의 편차는 산아제한정책에 의해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흑아이 때문이기도 하다. 행정 구역은 23성(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동 간격이 100m라면 중국에선 1km라 생각하고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함), 56민족으로 구성. 조선족은 50만 정도로 조선족이라기보다 재중교포라 불러주기를 원한다.

중국은 빨간 지붕의 집들이 유난히 많은데, 그 이유는 빨간색은 '복'을 의미해서란다. 빨간색은 황토를 구우면 나오는데, 과거엔 신분에 따라 황제는 노란색, 그 아래 파란색, 그 아래 부유층 빨간색, 하층민 검은색으로 지붕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들 빨간색을 선호한다. 그럼에도 도로 주변 농촌 마을엔 아직 검은색 지붕이 있다.

땅 거래는 법적으로 불가하고 70~100년 임대로 분배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둘러볼 산둥성 인구는 1억 명, 면적은 16만 평(우리나라 1.5배)이고, 옥수수(땅콩)와 밀(9월)의 이모작이 가능하다.

치박은 제나라 수도

3천 년 전 치박은 제·노나라 땅으로 제나라박물관, 고차박물관, 순마갱 등이 있는 역사의 보고이다. 공자의 고향이고 제갈량의 탄생지이며, 수호전에 나오는 양산박도 산둥성에 있다. 우리 답사팀



이들 속소인 호텔 만호대주점이 있는 곳이다.

해상왕 장보고의 발견 계기

일본 승려 엔닌의 1906년 『입당구법순례행기』(9년 7개월간의 일기. 프랑스 역사가가 꼽은 세계 3대 일기 중 하나~ 그러나 왕 오천축국전이 더 오래됨)가 일본에서 발견. 연구 과정에서 신라인의 산둥반도에서의 활동이 알려지고 장보고에 대한 발견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장보고 일생

790년경 완도 출생. 820~840년까지 해상왕으로 활동하다 50대 초반에 사망하였다. 완도는 배 만드는 곳이라 노예들이 많았다. 귀국하자마자. 청해진에서 1만 명 군사를 모아 흥덕왕에 청하여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었다. 흥덕왕 이후 왕권 쟁탈전에서 밀려난 김우징이 찾아오자 군사 5,000명을 주어 신무왕이 되게 하였다. 이후 감의군사로 봉해지고, 딸을 문성왕비로 만들려다 염장에게 살해당하였다. 이후 김제 벽골제 공사에 청해진 백성들 모두 이주시키면서 청해진은 폐진 되고, 이후 무역권은 중국(송)이 장악하게 되었다.

장보고의 성장

당에서 무령성결사대(이정기 제거 목적)에 들어가 큰 공을 세우고, 신라인이 노예로 팔리는 걸 본 후 군장을 그만두고 일본과의 무역을 시작하였다. 법화원은 그 만의 근거지로서 군사적 요지에 위치



하고 있다. 당시엔 절을 지으면 세금을 면해주고, 인근 마을(신라방)도 세금을 면해줬다고 한다. 해적(일본 신라 당)을 소탕한 이후 장보고 물건은 선물로 구매될(신용 거래함. 배 한 척에 현재 가치로 52억 상품-사치품 포함) 정도로 안정적 상품 공급이 가능해졌다. 당시 신라공예품들, 문서, 자료들이 아직까지 일본에 많이 남아있다(그에 반해 우리나라에는 없다니 아쉬울 뿐이다).

● 석도에서 치박으로 이동 중 버스 창밖 풍경

부동산 건설 붐이 확산하다. 도로가에 등장하는 마을들의 지붕은 거의 빨간색, 발전하는 중국, 빨간색을 정말 좋아하는 중국의 모습이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넓고 푸르른 평야는 ‘넓어서 넘 부럽다. 우리나라 제1의 호남평야는 귀퉁이 한 쪽 정도밖에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중국이 세계 제1경제 대국이 되긴 하겠다는 즐겁지 않은 확신을 하게 하는 그런 풍경, 원 없이 보았다.

셋째 날(8월 2일)

치박의 아침은 맑은 날씨로 시작되고, 태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이드로부터 중국 전역에서 통한다는 1~999까지 숫자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다. 중국은 국토가 광대해서 지역 사투리가 심해서 말로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나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숫자는 중국 전역에서 통한다. 오늘의 답사 장소는 태

산과 곡부!

● 태산

1,545m의 악산으로 풍광이 빼어난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자연유산이다.

신라 김인문(김춘추 둘째 왕자로 문무왕의 아버지. 당에 숙의-인질로 있었음)이 중국 황제와 함께 태산에 와서 봉선(하늘에 제사)하였다 한다. 우리는 케이블카(4만 원 정도)를 타고 정상으로 향하는 중턱에 올라 정상까진 걸어서 다녀왔다.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산인해를 이루듯 찾아왔다.

● 곡부

공자의 고향이다. 공묘(사당), 곡림(묘), 공부(공씨 마을), 당시 공씨로 태어나면 성장한 후 무조건 1품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

공묘는 7개의 문으로 이어진 공자 사당으로 다섯 번째 대성전이 중심이었다. 왕도 왔던 곳으로 시진 핑도 얼마 전 다녀갔다 한다. 수령이 600년 이상부터 2,100년이나 된 나무도 있다. 크고 오래된 그리고 '사당답군'이라는 느낌이 절로 나오는 사당스런 곳이었다. 곡부로 이동, 공자의 25대손 후손들이 살던 곳으로 중국식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다.

곡림은 17시 30분 이전에 도착해야 했으나 1~2분 늦어졌는지 우리 앞에서 문을 닫고 말았다. 사정해도 no. 그 덕에 저녁 식사를 빨리하고 이후 일정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나름 좋았다.



저녁 식사는 공부가의 귀빈 접대 메뉴였다는 공부가연. 비주어도 좋았고 맛도 담백했다. 동파 요리. 걸만 살짝 삭힌 듯 한 두부 요리. 노노 요리, 생선찜 탕수육 갓 구운 고소하고 담백한 빵 등등 코스로 나왔다. 다들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 특히 난 많이 먹으며 답사를 즐겼다.

● 답사 과정에서 느낀 역사 문제,
‘우리나라 고대 기록 문화 부재’

우리에 비해 일본은 우리의 10배에 해당하는 자료가 남아 있단다. 예를 들어 우리는 통일신라시대 역사책을 쓰지 않았지만, 일본에는 정사를 기록한 역사책(정00)이 고스란히 남아 있단다. 통일신라는 왜 역사를 쓰지 않았을까? 특별히 역사를 써서 통일신라의 정통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인솔 교수님의 설명이 있었으나 아쉬운 건 사실.

넷째 날(8월 3일)

오늘은 제나라박물관, 순마갱, 고차박물관 답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 제나라박물관

제나라는 세계 축구 발원지(돼지가죽으로 만들었음)로서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다. 수많은 청동 무기 및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 순마갱

순마갱은 치박시를 흐르는 치구하에 인접해 있는 순장 터로 인접해 있는 20여 개의 묘 가운데 제5호분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순마갱은 옥수수 들판 가운데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수십기 가운데 1기만 복원되어 공개된 제5호분에서 머리를 바깥으로 향해 두 줄로 누운 채로 매장돼 있는 229필의 순장된 말이 발견되었다. 중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의 말 무덤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고차박물관 관람

최초 마차 개발국 제나라 수도인 제남에는 산 말과 마차가 함께 묻힌 유적이 발굴되었다.

고차박물관은 누구의 무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수많은 말들이 순장된 것으로 보아 어느 시대 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말과 마차뿐만 아니라 사람이 순장되기도 했단다. 순장 유적과 함께 보너스로 고대의 마차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 공간이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양한 마차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이틀(8월 4일~8월 5일)

8월 4일 적산호텔에서 위해시 위공도로 출발

● 갑오전쟁(1894) 유적지. 박물관 관람

한때 청은 세계 4위, 아시아 1위 함대를 소유한 강국이었으나 서태후가 이화원 조성에 10년 동안 모든 재정을 탕진하면서 일본에 패배하였고, 시모노세키조약으로 30년 동안 요동·대만·평호열도 조차(빌린다는 명목으로 빼앗아가는 것). 전쟁 중 상부 명령은 후퇴하라 밖에 없었다 한다.

● 항구 도시 위해

위해(威海, 웨이하이)는 산둥반도의 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 및 중국 북방의 중요한 군항 중의 하나로 청 해군 북양함대의 군항이 있었던 곳이다. 옛 이름은 위해위(威海衛, 웨이하이웨이)였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함께 위해라고 이름이 고쳐졌으며, 1987년 시로 승격이 되었다고 한다.

원래 위해라는 이름은 홍무(洪武) 31년(1398년)에 왜구의 습격에 대비해 이곳에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잔재인 부두, 포대가 앞 바다인 유공도(劉公島) 등에 남아 있다.

1894년 중일갑오전쟁이 벌어진 장소였으며, 1898년 영국에 주권이 넘어갔다가 1930년에 다시 되찾은 역사가 있는 곳이다. 위해

시의 총 인구는 약 270만 명 정도이며 경공업, 조선업,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위해시는 중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해변을 따라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시 전체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이곳에는 유공도와 성산두(成山頭)의 국가급 명승지 외에 '바다에 있는 선산의 조상'이라 불리는 곤영산(昆嶺山)과 중국에서 제일 큰 호수인 천아호(天鵝湖) 등의 유명한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나 일일이 다 돌아보지는 못하였다.

위해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온대 해양성 기후를 보이며 연평균 기온은 12℃고 연평균 강수량은 800mm로 겨울과 여름에 그다지 춥거나 덥지 않아 사계절 여행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보니 골프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 침몰하지 않는 전함 유공도

8월 4일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유공도 앞 바다에 와 유람선을 타고 09시 50분 유공도(劉公島)의 여유마두(旅游碼頭)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붉은 시멘트 기둥의 와가 2층인데 여객 터미널이었다.

유공도(劉公島)는 동서의 길이가 4.08km, 남북의 길이 1.5km, 면적은 3.15km², 해안선 길이가 14.95km로 위해만 해안선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다. 명대(明代)에는 왜구를 막기 위한 요새로, 청대에는 해군 기지로 쓰였던 이곳은 '침몰하지 않는 전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한다.

중국 근대 역사에서 첫 번째로 청나라 북양해군의 탄생지가 되었



던 곳이며 현재도 이곳은 천연 보호벽으로서 동쪽 연해 국경의 중요한 군사적 요지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공도는 청일갑오전쟁의 유적지이자 격전지였다.

유공도는 중국 근대역사의 산물이자 축소판이며 100여 년 전 이곳은 청조(靑朝) 북양해군의 기지 및 중일갑오전쟁의 주요 전장(戰場)이었으며 42년간 영국의 조차지였다.

● 갑오전쟁박물관

중국갑오전쟁박물관(中国甲午战争纪念馆)은 위해(威海, 웨이하이) 유공도(刘公岛)는 갑오전쟁기념지의 전문 보호 관리 기구이자 중국의 유명한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이며, 전임 중공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강택민(江泽民, 장저민)이 박물관 이름을 썼다.

동원문(東轅門)으로 들어가 제1전시실부터 14전시실까지 돌아 보았다. 박물관은 역사 문물, 사진 자료 및 모래판화, 모형, 소장, 영사 등 수단으로 북양해군과 갑오전쟁의 역사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이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진귀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해저에서 인양된 중량이 20톤이 넘는 거대 함포도 포함되어 있다. 박물관 밖에도 갑오전쟁과 관련된 해군 선창과 고포대, 북양수군 총렬비 등을 볼 수 있었다. 뜰에 게시되어 있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 적어 왔는데 그 내용은 '자강불식(自強不息), 창신창업(創新創業), 해납백천(海納百川), 추구탁월(追求卓越)'이다. 서원문(西轅門)으로 나오는 것으로 유공도 탐방을 마쳤다.



답사를 마치고

석도 부두에 도착하니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갈 등 커다란 검은 가방을 끌고 다니는 보파리 장사와 더불어 한 무리의 어린 중국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으로 출발하는 중국 학생들이었다. 인천에서 석도로 떠났던 날도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 학교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중국 학생들을 만났었다. 중국 정부가 중국어를 세계 제2의 공용어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한다던데, 또 다른 목적에서도 그리하겠지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말 많은 국제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드디어 16시 출국 수속을 하고 화동훼리호에 승선하여 각자 방에서 쉬다가 뜨거운 해가 서녘으로 내려앉자 우리 7조는 갑판에 모여 못 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정말 좋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난 것 같다.

밤하늘에 초승달이 밝게 빛나고 무수히 많은 별들은 초롱거리며 반짝이고 있어 조국으로 향하는 기분을 더욱 들뜨게 했다. 하늘에 별은 우리나라 시골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중국으로 가까이 갈수록 오염이 심할 줄 알았는데 별들이 총총거리는 걸 보니 황사가 불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뱃고동 소리와 함께 배가 인천을 향해 출발하자 갑판에 있던 우리 모두는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밤이 이슬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파도에 배 멀미가 나는 듯했지만 자다 깨



다 어느덧 답사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아오며 드디어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감회가 새로웠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번 답사를 통해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학생들을 제2의 장보고로 키워야한다는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영토와 자원, 발전 속도를 체감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그것도 세계를 바라보며 진로를 개척하는 진취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또 어떠한 수업을 해야 할지 조금 더 깨닫게 된 것 같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한국해양재단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답사가 의미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에 적용해 볼 생각이다.



29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호성초등학교 / 최순(가작)



일정표

날 짜	지 역	여 행 지
제1일(2014.7.30. 수)	인천 석도	
제2일(2014.7.31. 목)	석도	장보고기념관, 적산법화원, 장보고전시관
제3일(2014.8.1. 금)	치박	태산, 곡부, 공묘
제4일(2014.8.2. 토)	치박	제나라박물관, 순마갱
제5일(2014.8.3. 일)	석도	위해 유공도, 중일갑오전쟁박물관
제6일(2014.8.4. 월)	석도 인천	

6월 초, 옆 반 선생님이 같이 신청하고 답사하자며 영겁결에 답사 신청서를 10여 분만에 써낸 후 까맣게 잊었다가 방학 모임 스케줄 조정 때문에 흠에 들어가 결과를 보게 되었다. 내가 알기에 안양에서 두 명 그것도 우리 학교에서 나 혼자라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는 요즘 전국 각지에 초중고를 망라한 많은 샘들 속에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내가 알고 있는 장보고는 통일신라시대 해상 무역을 주도하여 공무역에서 민간 무역을 주도하며 널리 이름을 떨친 해상왕! 이라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었다.

막상 답사 가는 게 결정되니 친히 같이 가자며 파일까지 보낸 옆
반 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배를 타고
가는 답사에 대한 우려를 가득 담은 쌤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학년 쌤들한테 답사되었다고 한턱 쏘았다.

틈틈이 장보고에 대해 검색을 해봐도 내가 아는 것 이외 상세하
게 나온 자료가 거의 없어 한국해양재단 자료실에 들어가 답사 자료
를 다운받아 읽어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금씩 장보고에 대한 운
곽이 서게 될 즈음에 방학을 하고 과학 동산을 마치고 바로 다음 날
답사를 떠나게 되었다.

친구들과 팀을 짜서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도 아니고 딱딱하게 짜
여 있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갖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부족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
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이 있을 뿐이다. 물론 다녀왔다 해도 그
'무엇'의 실체를 분명하게 느끼거나 찾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찌면
이런 끌림으로 답사를 가는지 모른다.

여행이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현실과 이상, 성공과 실패,
아름다움과 더러움,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의 곡선을 끊임없이
오르내리다보면 정말 정밀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볼 겨
를이 없다. 모든 일상사를 다 접어놓고 떠나는 여행의 매력은 역시
여기에 있다.

그리고 廬山(여산) 안에서 廬山(여산)의 참모습을 모른다는 옛말
처럼 자신의 처한 무대를 떠나봐야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이 이번 답사가 우리 역사 속에서의 장보고에 대한 나의 좁은 생각, 바다에 대한 시각 등 나의 이러한 의도와 목적에 부응해 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일단 가고 보는 것이다. 그래 떠나 보자!!!

1일(인천 ~ 석도항)

집에서 3시간 전에 떠났는데도 전철 갈아타는 시간, 전철 기다리는 시간 등이 더해지다 보니 인천여객터미널에는 약속 시간에 거의 맞춰 도착을 했다. 90여 명의 초중고 쌤들과 눈인사를 하고 여권 수속을 위한 조별 번호별로 서게 되니 배정된 조는 4조. 8명으로 구성되어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쌤들로 여자 4명, 남자 4명으로 결성되었다. 배 안에서는 4명이 한 조로 서로 통성명과 함께 배안 정리를 간단히 끝낸 후 갑판 위에서 서해안 일몰도 구경하고 서로 기념사진도 찍으며 청도 맥주 한 잔으로 서로의 서머한 마음을 나누었다.

저녁을 먹고 답사팀은 선상 세미나로 장보고와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어도 크게 와 닿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답사를 가는 것!!!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교사인 우리들이 한국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답사를 전해야 하는지…….


중국 화동훼리호는 우리나라 배처럼 시설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는 한참 뒤지는 편이었고 4인실 배에서는 베개나 이불에서 냄새가 났어도 새로 만난 4조 샘들과의 수다는 밤이 되도록 계속되었다.

2일(석도항 ~ 장보고기념관, 적산법화원, 장보고전기관 ~ 치박)

아침이 되어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안개가 껴서 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고 정박해 있는 것이 이상하였으나 그래도 제시간에는 도착하겠지? 하는 것은 기우였다. 지척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한 안개로 인해 석도항이 30여 분 거리에 있음에도 가지를 않고 2시 30분까지 배 안에서 안개 걷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답답해 하면서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오전 내내 안개가 빨리 걷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2시부터 배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여 3시경에 석도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곳 석도는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문등현 창녕향 적산촌으로 불렸는데 장보고의 통제를 받아 신라, 당, 일본을 연결했던 국제 무역항이자 당나라에 대표적인 장보고 근거지이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 우리가 예정한 위해 유공도 답사는 시간상 뒤로 미루고 석도항 부근에 있는 적산명신과 장보고가 세운 사찰인 법화원에 가게 되었다.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인 엔닌의 『입당구법순례기』에 기록되어 있는 장보고 선단과 왕래 사절단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신앙 기도 도량으로 엔닌에 의하면 당나라에서 구법하고 귀국하려는 신라 승려와 당, 일본 승려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 그가 귀국해서도 그 도움을 잊지 못해 일본 교토에 적산선원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적산법화원은 1972년에 터만 발견이 되어 다시 건립된 절이다. 장보고기념관에는 해양 진출,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넓은 영역의 바다에서 무역 활동 등의 위업을 알려주는 모형물과 전시물들이 있었다.

장보고기념관, 장보고전기관을 둘러보며 1,200년 전에 민간 주도로 바다를 아우르며 해상권을 장악하고 당, 일본 등에 무역을 주도하였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개척자요 선구자였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시대를 앞서가면 못사람들의 시샘과 질시 속에 삶이 불운하게 끝나버리는데 장보고 또한 부하인 염장에게 암살을 당해 뛰어난 통솔력과 용병술로 행하던 무역과 외교 활동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

4월 세월호 사건을 보며 온 국민의 마음은 바다를 향하고 있지만 선뜻 뛰어들 수도 없는 것이 바다였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초라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오열만 낼 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내선에서는 가장 큰 여객선이라는 6,800여 톤의 큰 배도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오만함을 탓하고 있었는데 또한 19,000여 톤

의 화동해리호도 안개로 인해 움짱달짝 못하고 30분 지척의 거리에서 3~4시간을 정박하고 있었는데 1,200년 전 턱없이 작은 배로 지금도 위험하다고 하는 신라에서 산동성의 직선 향로로 무역 활동을 펼쳤으며 동아시아까지 해상 무역 활동을 펼쳤다니……. 그저 놀랍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세상을 향해 무한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 나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많으나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저앉게 되고 마는데……. 가슴이 무거우면서 어깨가 짓눌려왔다.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는데 버스는 치박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예전에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중국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산동성 주위는 깨끗하고 가로수 주변이 잘 정돈되어 중국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곳곳이 한강 88도로에 가로수로 있던 회화나무와 무궁화가 가로수로 되어 있어 한국에 와 있는 듯 착각이 들 정도였다. 5~6시간 정도의 긴 여정 끝에 치박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 이곳 치박만호주점에서 이틀 머물렀다.

4인실이지만 좀 냄새나고 맘대로 씻기 힘든 배안에 있다가 2인 호텔에서 오니 맘껏 샤워하고 고실고실한 침대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 룸메이트와 상큼한 기분으로 잠들었다.



3일(태안 ~ 곡부)

호텔에서 간단하게 조식을 하고 태산을 향해 버스는 1시간 30분정도 달렸다

태산은 1,500여 미터의 우리나라의 태백산 정도의 높이이지만 중국의 지형이 서고동저(西高東低)로 중국에서의 태산은 황제가 자신의 즉위를 하늘에 알리던 곳으로 중국 사람들은 '만물의 시작이고 음양의 교대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믿음으로 죽기 전 반드시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곳이란 다. 차안에서 우리 팀 샘들과 양사언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겠지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하더라.'를 한 번씩 읊조리며 그 산이 이 산이냐며 그 산에 우리가 오른다며 희희낙락하는 가운데 어느덧 태산에 도착하였다. 케이블카로 15분 정도 오르다보니 산안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과 골짜기 곳곳에 피어있는 산꽃들이 정겨웠다. 막상 케이블카가 정상에 와 닿으니 다른 정문 쪽의 케이블카로 올라온 중국인들로 길 헤매기 딱 좋을 만큼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우리 팀 깃발만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도 금한 채 앞 선생님의 모자만 바라보며 옥황정에 다다랐다. 그곳을 기념하는 사진 한 컷과 황제들이 올 때마다 기념으로 써놓은 웅장한 비문 앞에서 룸메이트와 한 장 찰칵!

옥황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오며 계단 밑을 내려다보니 산을 타고 올라오는 구름이 눈에 들어왔다 절경이었다. 이것을 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또 내려갔구나!!!

한 무제는 이곳에 와서 할 말을 잃어 비문도 새기지 않고 그냥 비석만 세운 곳이란다. 나도 그 심정!

공자가 먹었다던 메뉴로 짠 점심을 얼른 먹고 곡부를 향해 고고!! 이곳은 공산국가라 5시 30분 이전에 곡부, 공립, 곡묘에 도착해야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문을 닫게 된다고 하여 부지런히 곡부를 향해 가면서 차 안에서는 최인호의 다큐 로망 '해신 장보고'를 보며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일찍이 아시아의 바다를 재패했던 한국판 포세이돈 장보고!! 일본 전국시대의 영웅 '다께다 신겐 가문의 수호신'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 추적과 함께 주일 미국대사였던 라이샤워. 일본 천태종의 증시조 엔닌을 통해 밝혀지는 9세기 아시아 해양에서의 장보고 파워.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 적산명신으로 신격화된 장보고를 해부하였다. 또한 한반도 서남단 작은 섬 완도 청해진의 번영을 통해 한, 중, 일 3각 무역을 독점하고 해양 차이나로드의 동쪽을 장악한 장보고. 9세기 최첨단 상품인 도자기의 국제적 유통과 직접 생산을 통해, 무역왕에 이르는 장보고의 야망.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신박드의 고향 아라비아해의 오만에까지 9세기 당시 세계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간 세계인 장보고를 재해석하였다. 오히려 책과 강의를 통한 장보고가 아닌 도전자 개척자 장보고였던 것이다. 현재 우리 시대의 장보고는 누구일까? 또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장보고 같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곡부에 도착하였다.



논어는 내가 커서 유일하게 몇 편의 해석을 달리하여 본 유일한 책이다. 물론 한동안 나의 세상 지침서 역할을 했던 책이다. 공자의 제자들이 편찬한 그 책의 주인공이신 공자의 사당인 공묘, 공자 자손이 살았던 공부, 공자의 묘가 있는 공림을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한때 중국의 근대화 이후 공산화를 거치면서 금지가 수치로, 성인이 청산 대상으로 뒤바뀌는 기막힌 세월을 경험하기도 했던 이곳. 특히 반공자 운동이 절정에 달한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홍위병에 의해 공자의 묘비가 훼손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나마 80년대 개방정책 이후 중국 전통문화가 재조명되면서 공자와 유학도 어느 정도는 복권된 상황이었다. 오늘날엔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소프트파워를 떨치기 위해 가장 앞에 내놓는 첩병이 되어있었다.

공자는 잘 알려진 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자신이 생각한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실천에 옮길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아니 될 줄 알면서도 애써 행하려던 이상주의자였으며 사상가로 교육가로 몸소 실천하던 행동가였다. 내가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공자의 제자였다면 자하였을까? 안회였을까?

성격이 곧고 급하며 괄괄해 대처럼 구부러지고 구리처럼 휘는 위인인 동시에 남에게 지기를 싫어해 곧잘 아는 체 하다가 꾸중을 듣기도 했던 인간적인 자로가 훨씬 내 맘속에 더 와 닿는다.



황제들이 올 때마다 세워진 여러 분들을 지나 청나라 강희제가 북경에서 운반해 온 비석, 대성전에 황궁에만 쓸 수 있었다던 황색 유리기와 정면의 돌기둥에 새겨진 화려한 용 조각 등은 공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공자의 후손이 살았다던 공부를 돌아보며 우리 4조 쌤들과 열심히 사진 증거물(?)을 남겼다. 그리고 전체 일행이 급히 발걸음을 모아 공림으로 향하였으나 5시 32분에 도착하는 바람에 문이 닫혀 공림 문만 보고 돌아와야 했다. 정말 화나고 말도 안 되지만 공산주의 국가 체제가 그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시 오기 정말 힘든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 지금 생각해도 아쉽다.

4일(치박 ~ 고차박물관, 제나라박물관, 순마갱)

치박으로 가는 도중 차안에서는 EBS 특별 기획 강대국의 조건 ‘대국굴기’를 보여주었다.

강대국 9개 나라를 보며 강대국의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여행에서 보여준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틸틈이 각 나라별 성장 과정과 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또한 교육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열심히 비디오에 열중하는 동안 고차박물관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고속도로 공사하던 중에 대규모 순장 마차를 발견하여 박물관



을 건립하였는데 신기한 것은 위로는 고속도로가 지하에는 2,8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였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명한 수레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서 수레 밑에 톱니바퀴를 달아 수레가 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인형이 북을 치도록 하는 수레가 가장 흥미로웠다. 또한 여러 동물이 이끄는 수레, 황제가 타는 수레 등을 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

제나라박물관에서는 춘추전국시대에서 제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을 볼 수 있었다. 무기 모양의 화폐, 세 발굽 모양의 여러 가지 도기, 제나라의 사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 물소 모양의 청동 술잔, 그 시대에 가축(말, 소떼)을 이용한 전쟁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특히 소떼 꼬리에 불을 붙이거나 등에 기름 먹인 가죽에 불을 붙여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소떼 모습이 상상이 되어 사진으로 모습을 담았다. 또한 그 시대에 동물 가죽을 이어 붙여 축구를 하는 모습도 재미있었다. 축구공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축구 원조 나라라고 해설사가 말해 폭소가 일기도 하였다.

순마갱은 제나라 경공의 묘지 안에 순장한 말의 묘로 두 줄로 늘어서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채로 매장되어 대규모 말 무덤이었다. 그 시대에 춘추전국시대의 세력의 규모를 볼 수 있는 유적으로 기병전의 핵심인 말을 순장할 정도로 강한 왕권을 알 수 있었다.



순마개를 보고 석도로 오는 내내 EBS 특별 기획 강대국의 조건 ‘대국굴기’를 보여주었다.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21세기 대국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인 것 같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과 스페인, 독일,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소련.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독일과 일본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실시했던 전 국민의 의무 교육이었다. 독일은 결석할 때마다 부모가 벌금을 내도록 하여 기본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또한 메이지유신 때 남자는 98%, 여자는 97%의 의무 교육 실시로 시대의 흐름을 알고 부국강병이 강대국의 지름길임을 실천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현재 우리는 미래를 위해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 지……. 또한 나 자신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고 도전의식을 얼마나 넣어주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이것을 얻고자 함이 아닐 런지…….

가까이 있으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본 편에서는 서양 물질문명의 우수성을 인정한 빠른 판단력, 적응력, 위로부터의 개혁 실천 등은 본받을 만 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조선이 일본처럼 발 빠르게 나갔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일본이 서양 각국을 둘러보며 발달된 문명을 보고 와서 외부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을 연마하는 쪽이 아니라 내부의 성장에 주력했다면 동아시아의 불행한 과거사는 없지 않았을



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아주 짧은 동안 일
어났다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사들의 나아갈 길에 대해 여
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되풀이 되는 역사에서 앞
으로 일본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설정해
나아가야 할지…….

저녁, 석도 적산대주점에 돌아와 이번 여행 마지막 조별 환송회
를 하였다. 그간 많은 얘기를 나눈 덕인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이
번 장보고 답사를 통해 알게 된 점, 또 배우게 된 것, 소통하게 된 여
러 가지 등……. 각 선생님 한 명 한 명 건배사를 하면서 다른 조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중국 산둥
반도 쪽으로 온다는 태풍으로 배가 출발을 안 했으면……. 하는 바
람을 내뱉기도 하였다.

5일(석도 ~ 유공도 청일갑오전쟁박물관)

일요일이라 위해에서 유공도가 가는 길마다 꼭 막힌 도로와 도로를
가득 채운 인파로 휴일임을 직감했다. 거리마다 유공도로 가려는 인
파와 배 안에서도 서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자 뒤만 쫓아
다니는 행세로 간신히 유공도로 와보니 올해로 청일갑오전쟁이 일
어난 지 꼭 120년이 되는 해다. 이 유공도는 청나라 북양함대가 격
전을 벌인 곳으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1894년 헨진조약이 필미
가 되어 청일 양국 간 대결로 확대된 청일전쟁은 일본의 연합함대가

중국 북양함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일본이 전쟁에 이겨 제해권을 확립하여 일본의 위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 패한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남겨 그날의 치욕을 국민들과 함께 느끼고 다시는 이런 치욕의 역사를 안 겪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치부를 가리기 위해 급급하고 치워버리는 꼴인데…….

마무리

일찍이 유교에서 공자는 논어 학이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배우고 또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뜻한 바가 같은 사람이 먼 곳에서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그런데 곡부에서 점심 먹을 때 식당 벽 위에 ‘有朋自遠方來하면 不亦樂乎아?’라고 쓰여 있기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먼 곳에서 찾아와 점심을 먹고 있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해석을 하며 파안대소를 하던 생각이 난다.

이제 장보고 답사를 마치며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1,200여 년 전의 장보고 해상 행로를 추적해가며 장보고가 가졌던 웅대한 개혁 정신과 해양 민족의 기상을 교실에 가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심각



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취향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들 교육자적인 양식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됨이 역시 다행스럽다.



30

중국 속
한국을 건다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

화곡고등학교 / 정광진(가작)



사랑하는 나의 제자 현준아!

어제는 집사람과 요사이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임금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입니다.”를 절규하던 이순신의 모습 속에서 이번에 중국 여행을 하면서 들었던 바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현준아, 지난해 8월 김좌진함 진수식 때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내주어 사진을 보며 감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난다. 잠수함 함장이 되어 대통령 옆에서 늠름하게 서 있던 너의 모습이 무척 대견했고, 그런 제자를 키워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단다. 나는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네가 지키는 서해 바다를 건너 장보고 유적지를 보기 위해 중국을 갔다 왔단다. 중국에 갔다 오면서 바다를 지키는 네가 생각나서 이 편지를 쓴단다.

네가 졸업을 한 것도 1992년이니 네 나이가 벌써 몇이더냐? 내 나이 먹는 것만 알았지 제자 나이 먹는 것도 잊고 살았구나! 현준아, 아이들도 잘 크지? 너를 닮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할 것 같다. 현준아 나는 지금부터 이번 방학에 다녀온 중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매년 한 번씩 한국해양재단에서 교사들에게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시켜준단다. 올해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공문을 받았을 때 왠지 가슴이 뛰었다. 몇 년 전 연구부장 시절 장보고 유



적지 답사 공문을 받았을 때 역사과 교사에 국한하여 모집한다는 단서가 발목을 잡아서 참가 신청서조차 낼 수 없었던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교과외의 제한이 없다는 말에 희망이 생긴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해상왕 장보고의 개척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서해안을 따라 장보고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로 기뻐다. 나는 정성스럽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더니 선발되었다는 통보가 왔단다. 나는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맛본 것 같았다. 현준아, 너도 대학교의 합격의 기쁨을 통지받았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알고 있지 않더냐?

장보고와의 만날 꿈을 안고

인천항에 오후 4시까지 집합하라는 안내 사항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왔다. 도착을 하니 아직 3시 30분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여러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나만큼이나 가슴 설레며 기다렸던 것 같다. 4시가 가까워지자 출석을 체크하고세면 용품과 모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모두들 같은 모자를 쓰니 이미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배에 오르자 방이 배치되었고 우리 방은 301호실이었다. 우리 방은 충이고등학교 정홍채 선생님과 연세대학교 다니는 연세춘추의 기자 출신인 남혁진 군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중국 사람들과 함께 타니 중국어의 억양이 시





끝박적인 시장판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잠시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 저녁 식사는 한식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식사 시간에 줄서기부터 중국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였다. 새치기를 당연한 것처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십 년 전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잠시 과거의 부끄러움을 떠올려 보았다. 선진국이 되는 것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식사 후 가장 먼저 선내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세월호'로 다시 새로운 국가의 패러다임을 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귀찮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던가? 아직도 시신조차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유가족들의 몸부림을 보아서인지 안전 교육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재단 총괄팀장님의 인사가 있었고, 그 다음 김창겸 교수의 선상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장보고의 탄생부터 활동을 간략하면서 짜임새 있는 설명을 하여 장보고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신라와 당나라 일본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동남아시아와의 교역도 주도하여 해상 왕국을 건설하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한 가운데 뜨거운 감동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장보고가 역적으로 의심을 받아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눈시울이 뜨거웠다. 다음은 김혁수 제독의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에서 해양 강국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은 다시 한 번 우리들 모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현준아, 나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무엇보다 바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자 물류의 중심 통로인 바다를 소홀히 한 민족은 세계를 주름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일깨우며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 배는 석도항을 향하고 있었다. 배에서 내리자 우리는 중국인들의 만만디(manmandi, 慢慢的) 정신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여행사에서 리무진 버스를 준비하였는데 기사들이 서틀러 버스가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탓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이런 자투리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기가 아까웠는지 조별로 각자 소개가 있었다. 우리 조는 8조로 가장 마지막 조였는데, 잠실고등학교 이환우 선생님, 광양고등학교 전보현 선생님, 창원문성고등학교 정효창 선생님, 세교고등학교 임영희 선생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허영심 선생님, 정의여자고등학교 정명희 선생님이 같은 조였다. 해양 교육에 관심이 많아 해양 관련 활동을 많이 하여 선발되었다는 선생님부터 경제인연합회에서 보내주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오신 선생님도 계셨다. 모두 이번 여행에 기대가 부풀어 있었다.

오랜 시간 후 리무진 버스가 도착하자 우리들은 위해(威海)에 있는 유공도(劉公島)의 중일갑오전쟁박물관(中日甲午戰爭博物館)을 찾아 떠났다. 유공도는 유민이라는 사람이 황무지를 개간하며 살





다가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다가 조난당한 어부를 구하여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준 후 바람이 불 때마다 불을 놓아 어부들이 고기를 잘 잡도록 도와주어 후세 사람들이 유민을 기리기 위해 유공도(劉公島)라 불렀다는 이 섬의 전설이 무척 정겨웠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항구가 근세에 치욕의 역사를 안고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 근세에 청나라 때 이홍장(李鴻章)은 북양함대를 창설하여 영국과 독일의 군사 전문가까지 불러들여 해군을 양성하여 '침몰하지 않는 전함'을 이곳에서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랑만 앞섰지 구체적인 준비가 없이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였기에 해군은 훈련이 허술하였고, 구입한 장비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 청일전쟁 때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鄭汝昌)은 사력을 다하여 싸웠지만 크게 패하여 유공도가 위해와 함께 일본에 점령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고 한다. 동양을 지배하였던 중국의 역사가 이를 계기로 일본에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마저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 중일갑오전쟁박물관(中日甲午戰爭博物館)과 영조위해위역사관(英租威海衛歷史博物館)을 짓고 후세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존아, 아무리 훌륭한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이 태만하거나 방심하면 그 장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철저한 준비를 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사는 것 같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느냐고 방심하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군

을 책임지는 너만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국토를 튼튼히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

공자님의 품 안에서

셋째 날 우리의 일정은 태산을 오르고, 곡부를 찾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태산(泰山)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태산이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도 아니고, 단지 중국의 다섯 명산인 오악 가운데 하나인데 예부터 신령한 산으로 여겨져 왔던 것은 진시 황제나 전한 무제, 후한 광무제 등이 천하가 평정되었음을 정식으로 하늘에 알리는 봉선의 의식을 거행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교의 주요 성지 중 하나이기도 하고,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산을 좋아하는 나는 이번 여행을 출발하면서 태산의 정상을 밟아보고 싶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비가 오락가락하여 올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혼자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태산 입구에 도착하자 오락가락하던 비도 그쳐 우리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공자님의 고장이어서인지 우리를 반기는 문구도 이색적이었다. ‘유봉자원방래하니 불역낙호아(有朋自遠方來하니 不亦樂乎아)’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이 얼마 만에 보는 문구인가? 벗이 있어 멀리로부터 찾아오니 이 또한 반갑지 아니한가? 이는 우리를 멀리서 온 친구로 대해주는 것 같아 중국인들의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서





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가 산을 오르면서 굽이를 돌 때마다 마음은 이미 산봉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버스에서 내려 케이블카를 타는 곳으로 신명나게 올라갔다. 그러나 태산의 케이블카가 우리를 외면했다. 케이블카를 타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닫혀 있었고 안내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세어서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태산의 높이가 만만치 않으니 정상부에서 케이블카가 흔들려 안전에 문제가 있어 못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아 혹시나 하고 여러 번 다시 묻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인지 그 곳을 뜰 수 없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고 판단하여 도보로 오르는 길을 선택하여 오르기로 하였다. 시간상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아 30여 분간 걸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와야만 했다. 산을 좋아하는 나는 다른 여정을 모두 포기하고서라도 태산 등정을 하고 싶었으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하더라’는 남구만의 시조만 외면서 내려와야 했다. 공자께서 ‘등동산이소노(孔子登東山而小魯), 등태산이소천하(登太山而小天下)’라고 하지 않았던가? ‘공자는 동산에 올라서 노나라가 작다고 여기고 태산에 오른 뒤에 천하가 작다고 여겼다.’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태산에서 나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워보고 싶었으나 산 중턱까지도 오르지 못하고 우리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관어해자난위수(觀於海者難爲水), 유어성인지문자난위언(遊於
聖人之門者難爲言)”

‘드넓은 바다를 본 사람은 웬만한 물은 물로 보지 않고, 성인의 문하를 거닌 사람은 웬만한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를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모토가 되는 공자님을 뵙기 위해 곡부로 발을 옮겨야 했다.

곡부(曲阜)는 공자님의 고향으로 공자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당인 공묘(孔廟), 공자의 무덤인 공림(孔林), 공자의 옛집 유적인 공부(孔府)가 있는 곳이다. 먼저 찾은 곳은 공묘(孔廟)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공자의 모습과 달리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공자님이 중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가이드가 한나라 고조 유방이 기원전 205년 공묘에 제물을 올리고 공자를 위한 제례를 올린 이후 황제 즉위나 전승(戰勝) 등 중요한 때에 곡부를 방문하여 정치인들이 공묘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반공자운동(反孔子運動)이 절정에 달했던 문화혁명시기에는 공자는 봉건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파괴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 때는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곳의 한적함이 고개가 끄덕여졌다. 금성옥진방(金聲玉振坊)을 지나 영성문, 성시문, 홍도문, 대중문, 동문문을 지나니 공묘에서 가





장 큰 문인 대성문(大成門)이 나오고 이를 지나자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수했다는 행단(杏壇)이 나왔다. 나는 이곳에 앉아 공자님의 강의라도 듣고 싶었다. 공자님은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라고 강의를 시작하며 배움을 소홀히 하는 우리들을 호통을 칠 것만 같았다. 행단 북쪽에는 공묘(孔廟)의 정전(正殿)인 대성전(大成殿)이 나왔는데 지붕은 황궁(皇宮)에만 사용할 수 있는 황색 유리 기와로 장식되어 있고, 화려한 용무늬로 조각되어 있어 공자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대성전 뒤쪽의 침전(寢殿)은 공자의 부인인 미궁(薇宮)씨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공묘의 3대 건축물 중의 하나라고 한다.

공부(孔府)는 공자의 자손들이 살았던 저택 겸 관공서였다고 한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자 76대손 공덕성(孔德成)이 대만으로 옮겨 살면서 지금은 일반에 공개되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한다. 송나라의 인종이 46대손 공종원을 연성공(衍聖公)에 봉한 이후부터 중화민국이 성립할 때까지 공가(孔家)에게 세습되어 전해졌다고 한다. 현존아, 공부(孔府)는 정원과 후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공자님이 잠시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건물의 위세로 보아 아직도 중국을 지배하는 사상의 근거가 공자임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공림(孔林)은 공자와 그 일족의 묘소로 노송이 펼쳐진 묘역에 10만 명이 넘는 공자의 자손들의 묘비가 숲처럼 산재해 있었다. 현재의 공자묘는 반구형의 언덕이며,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이 파괴한 흔적이 남아 있다. 공자의 후손들은 ‘연성공(衍聖公)’의 칭호를 받

고 황족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무덤의 상당수는 고관의 상징이 되어 남아 있다고 한다.

현준아, 한 인물이 한 가문을 융성하게 한 사례를 이곳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공자는 공자의 아버지가 노년에 정식으로 혼인도 하지 않은 아내 사이에 태어나 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25세에 어머니까지 여의고 매우 빈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학문을 이룬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자신이 이룬 성과가 자신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후손에게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적선지가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즉 선행을 쌓으면 그 경사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는 말을 나는 교단에서 잘 사용한다. 너도 그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한 번 새겨 보고 살면 좋지 않을까? 한다.



중국인의 역지를 생각하다

넷째 날 일정은 순마갱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순마갱은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景公)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를 말한다. 갑(甲)자형을 이루고 있는 5호분은 묘실의 남북 길이가 26m, 동서 너비가 23m나 되어 제법 규모가 크더구나. 나는 여기서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말을 순장한 것을 통해 중국인들의 역지를 여기서 보는 것 같았다.

우리 고담에서 널리 알려진 강태공(姜太公)과 그 아내 마씨 부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제나라박물관을 찾았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요녀 달기에게 홀려서 정사를 외면하고 호사(豪奢)와 포학(暴虐)을 일삼고 있던 난세에 강태공은 실의에 빠져 세상에 나아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매일 글을 읽고 낚시로 소일하였다. 그의 부인 마씨가 매일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틈만 나면 품을 팔았다. 어느 날, 마씨 부인이 명석에다 피를 넣어놓고 들일을 하는 동안 소나기가 와서 넣어놓은 피 명석이 다 떠내려가고 말았다. 마씨 부인이 들에서 돌아와 보니 강태공은 이것도 모르고 방안에서 책만 읽고 있었다고 한다. 마씨 부인은 이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하고 말았다. 그 후 긴 세월이 지나갔다. 주나라 문왕이 강태공을 국사로 봉하여 주나라는 드디어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통일에 성공한다. 여기에 공이 컸던 강태공을 제나라의 후(侯)로 삼았다. 강태공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황금 마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마침 저자거리에서 강태공을 알아본 마씨 부인은 수레 쫓무니를 따라가며 다시 강태공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강태공은 그 부인더러 물을 한 바가지 떠오라 했다. 그리고는 물을 땅에 붓고 나서 되 담아 보라고 하였다. 한번 엮지른 물은 쓸어 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매정하게 떠나가 버렸다고 한다. 현준아, 나는 점점 갈수록 참을성이 없어 가는 세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메모해 두었다. 우리 모두 ‘엮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을 꼭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국역사박물관(齊國歷史博物館)이었다. 제

나라역사박물관은 만리장성보다 먼저 건립된 제나라 장성을 본떠 옛 성의 큰 성벽과 작은 성벽을 이은 모양으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제나라의 형성과 발전,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과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제나라박물관 마지막 코너에 마련된 축구와 관련된 유물을 보면서 웃음을 금치 못했다. 누구나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축구공과 같은 전시물을 전시해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중국 사람들의 역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말로 역사 왜곡을 일삼는 저들의 내일의 모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일정은 중국고차박물관 방문이었다. 이는 임치에서 제남을 거쳐 청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공사하다가 대규모의 순장 마차들이 있는 흙으로 된 봉분을 발견하여 발굴한 것이라고 한다. 이 박물관은 임치 주변에서 벌어진 전차전의 모습과 함께 중국 고차의 다양한 모습을 한 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제일의 고차박물관이라고 한다.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은 중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이 여행의 진수가 담겨 있는 장보고의 유적지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다. 나는 이곳이야말로 천여 년 전에 중국 속에 대한민국의 땅이었다고 생각한다. 적산





풍경명승구는 적산법화원이 자리한 일대를 'AAAA'급 관광 명승지로 개발한 특별 구역이다. 적산법화원은 1972년 터가 발견된 뒤 1989년 다시 지어졌다고 한다.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이 적산명신상이란다. 법화원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낮은 언덕에는 1994년에 건립한 장보고기념탑이 서 있고, 그 너머에는 2007년 개관한 장보고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주전각인 '대웅보전(大雄寶殿)'이 있고 대웅보전 오른쪽에 '청해진 대사장보고공적비'가 서 있었고, 대웅보전 왼쪽으로 분수가 설치된 '청동관음보살상(靑銅觀音菩薩像)'이 위치해 있었다. 장보고 대사의 동상이 너무나 웅장하여 중국의 기운을 누르고도 남을 기세였다. 전시실에는 꿈을 좇아 당나라로 와서 무령군 소장에 이르는 과정과 적산과의 인연, 청해진의 부침(浮沈), 한국과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보고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실이 5개로 나뉘어져 전시되어 있었다. 1,000여 년 전에 장보고 대사가 호령하던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고요한 아침이면 한반도의 닭 울음소리가 들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절을 찾았던 신라인들의 애뜻한 마음을 달래주던 법화원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했다. 법화원은 당나라에 있던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주던 곳으로 나는 이곳에 아직도 장보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곳에 연간 500석의 알곡을 수확하는 장전을 갖추어 주었다고 하니 그 규모는 짐작이 가능할 것 같다.

다시 일상 속으로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장보고의 유적을 찾아 장보고의 흔적을 찾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품고 다시 배를 올랐다. 우리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학교에서 갑작스레 우리 학교에 결핵 환자가 생겨 결핵 검사를 하기 위해 피부 반응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여행 중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야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 요사이 결핵 환자가 가끔 나타나 골치가 아픈 경우가 다른 학교에도 있다고 했다. 어떤 선생님은 자신의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3학년 때 자신이 결핵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말을 하면 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 진학에 방해가 될까 하여 숨기고 알리지 않고, 수능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털어 놓아 학교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 놓은 선생님도 있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서 의대에 진학을 했다는 말을 듣고 모두다 혀를 차며 요즘 아이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통탄했다. 우리 모두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인천항에 도착하여 5박 6일의 길지 않은 시간에 정이 들었는지 헤어질 때는 모두들 헤어지기 섭섭해 하였다.

현준아, 나는 이번 여행을 마감하면서 나의 후배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치려고 한다.

첫째, 남에게 베푸는 장보고 대사의 나눔의 정신을 가르치려고



한다. 자신이 이룬 성과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법화원을 세우고 노예로 팔려 가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썼던 장보고 대사의 나눔을 가르치려고 한다.

둘째, 현실에 대한 불평보다 도전하는 장보고 대사의 도전정신을 가르치려 한다. 장보고가 그 당시 평민의 신분으로 태어나 신라에서 세상만 한탄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민족의 영웅 장보고 대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낯선 곳을 찾아 자신의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장보고 대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니?

셋째, 오늘날은 이미 낡은 어휘가 되어버린 세계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을 가르치려 한다. 장보고 시대에 이미 세계 물류 유통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현했던 장보고 대사의 높은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바로 세계 물류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준아, 연일 군부대의 사고에 대해 시끄럽구나! 구타 문제 때문에 지휘관으로 생활하는 너의 고충이 짐작된다.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강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아이들이 기강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구나! 기강이 바로 설 때 군대가 다시 거듭나리라고 생각한다. 부대원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부대원들을 대하여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기를 부탁하며 이만 글을 접으려고 한다. 그럼 잘 지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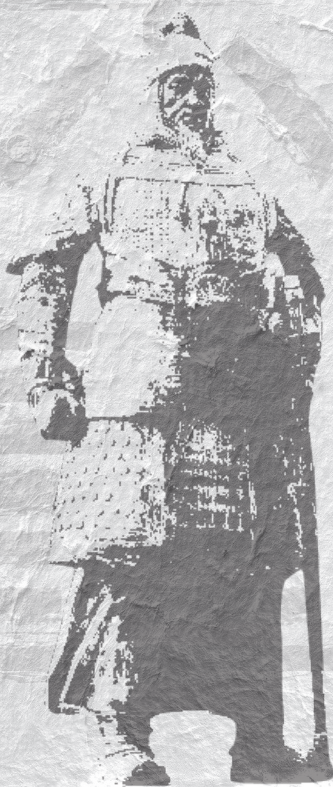
2014년 8월 하순에 사부(師父)가




31

해양 강대국으로 가는 길,
해양 위인 장보고와
마주하기

숙지고등학교 / 김라미(가작)



첫째 날(7월 30일) - 화동 페리 디렉스 룸 302호



2014년 7월 30일, 오후 4시까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모이라는 전날의 문자 메시지를 두 번, 세 번 확인하며 행여 늦을까 도로 공사로 인해 짝 막힌 교통을 탓하며 노심초사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1층에 들어가니 우리 답사 팀 스텝들이 반갑게 맞아주며 이름표와 모자, 답사 안내 책자를 나눠주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해양재단과 현대아산에서 나온 어여쁜 스텝들은 가는 곳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챙기느라 동분서주하고 높은 웨지 힐을 신고도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중국말도 너무 잘하는 재원들이었다. 모자는 왜 줄까? 했더니 답사 도중에 우리 일행을 구분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식이 되었다. 40분의 여유 시간이 있어 환전도 하고, 태산에 갔더니 너무 더워 온 얼굴에 조금 꽃이 피더라는 친구의 말이 기억나 약국에서 마스크도 샀다. 결국 마스크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서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올라간 날은 약간 흐리고 산 밑으로 안개가 자욱한 날씨였기 때문이다.

우째 이런 일이! 내가 8조 조장이 되어 뭘 할 때마다 맨 앞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어떻게 알고 매번 이러나 싶었다. 전공이 지리과라고 무슨 행사, 답사가 있을 때마다 어느 모임에서건 앞장서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 동고동락을 같이 할 8조 멤버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의사항을 들은 뒤 5시, 드디어 탑승 수속이 시작되었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벌써 보따리를 든 중국인들에게 포위되어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중국말에 벌써 중국에 도착한 느낌이었다. 저들

은 도대체 뭘 저리 바리바리 사가지고 갈까? 궁금해졌다.

화동명주라는 이름의 배는 14시간 동안 400km 넘는 서해 바닷길을 건너 우리를 석도항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6시 30분 드디어 웨리가 출항을 하고 우리는 302호에 짐을 풀었다. 나중에 밖으로 나가보니 멀리 송도 국제도시의 마천루가 보이고 남동공단의 불빛들도 아련히 보이는데 갈매기가 계속 따라온다. 한 무리 중국 아이들이 과자를 계속 던져주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연안의 갈매기들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만 쉽게 먹어서 기형이 생긴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났다. 배 안에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었고 단체로 여행을 왔다 돌아가는 중국 학생들과 보호자로 가득했으며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많았다. 힐끗 본 2층의 중국인들 숙소 앞에는 줄에 빨래가 잔뜩 걸려 있었다.

배 안에서의 첫 식사를 마친 후 국방대학교 한영태 교수님과 전 한국해양대학교 조학제 제독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한 교수님은 장보고의 일대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뒤 수도 없이 듣게 되는 일본 스님 '엔닌', 하버드대 교수 '라이샤워' 등의 이름을 처음 거명하셨다. 장보고의 일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장보고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부쩍 흥미가 일었다. 한 교수님은 20세기가 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바다의 시대이니 제2의 영토, 삶의 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인식하고 해양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조선술, 항해술, 군사력이 갖춰져야 하며 국외로, 바다로 직업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열강을 하셨다. 조 제독님 역시 부국강병의 원천은 엄청난 자원을 품고 있



는 바다이며 우리나라는 섬 아닌 섬이 되어 해양 물동량이 99.7%에 달해 일주일만 해로가 막혀도 먹고 살수가 없다고 하시며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세요.”라고 역설하셨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다.’ 등의 바다 예찬론이 기억에 남는다. 새삼 우리는 좁은 국토에 갇혀 온갖 경쟁을 다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해외로, 바다로 아이들의 눈을 돌리고 직업의 지평을 더 넓혀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7월 31일) - 안개, 적산에서 장보고를 보다

아침에 눈을 뜨니 선창 밖으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감싸고 있었고 예정대로라면 8시 30분쯤 접안하여 9시에 하선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항구까지 40분 거리의 앞 바다에서 기상이 좋아지길 기다리며 5시간을 지루하게 대기했다. 이 또한 하늘이 주시는 장보고의 바닷길 체험이구나 싶었다. 1,200년 전 장보고가 지났을 이 바다에 안개로 인해 정상적 항해가 힘든 적이 한두 번이었겠는가? 계획에 없던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중국인들이 인해 전술로 마구 새치기를 한다. 어른이 본을 보이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것 같은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앞세우고 새치기를 한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새치기는 돌아오는 날까지 화장실, 케이블카 등 줄이 서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때까지는 ‘중국 아직 멀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아직 중국의 실체



를 보기 전이었으므로.

식사 후 재미하 교수님에게 '적산명신', '엔닌'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듣고 드디어 2시 30분 석도항에 도착하여 3시 20분 출국 수속을 완료하고 석도 출입국관리소 건물을 떠났는데 처음 만난 그 관리소의 화장실 문이 닫히질 않고 계속 열렸다.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중국의 화장실 문들이 정말 하나 같이 그랬다.

안개로 일정이 바뀌어 마지막 날 가기로 되어 있던 장보고전기관과 적산법화원에 먼저 갔는데 시간이 지체된 탓에 우린 전기차로 랄라를루 올라갔다. 후우~ 걸어서 올라갔으면 약 먹고 있는 무릎이 답사 내내 아플 뻔 했는데 이런 걸 '새옹지마'라고 해야 하나보다. 맨 먼저 간 곳이 적산명신인데 크기가 좀 클 뿐 우리나라의 3면 바다를 지키는 낙산사, 보문사, 보리암에 있는 해수관음상과 같은 것이었다. 그 곳에서 내려다보니 저 멀리 바다에 떠있는 배들도 보이고 육지 쪽에는 중국 특유의 붉고 긴 굴뚝이 여러 개인 긴 지붕의 집들이 자리하고 있다. 옛날엔 저곳에 신라인들의 거주지가 있었을 것이고 신라로 오가는 배들이 저 적산 포구로 드나들었을 것이다.

장보고전기관에는 장보고의 젊은 시절과 정년의 모습, 표준 영정, 웅장한 동상, 무령군 소장일 때 모습, 당시 적산포 전경, 복원된 배,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는 각종 포즈를 취하고 있는 중국 여인상, 도자기와 같은 무역품 물품들, 엔닌의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비록 새로 복원된 사찰이지만 장보고가 원래 건립했다는 법화원 대웅전과 그 뒤에 최근 새로 지어진 삼불전 불상 앞에서 거금 10원을 시주하며 부처님께 간절히 딸아이의 대학 합격을 빌었다. 초파일



에 우리나라 강릉 보현사에서 했고 지난겨울 일본 다자이후 텐만구에서도 빌었으므로 3개국 신한테 다 기원한 셈이다. 정말 한중일은 기복문화 하나로 대동단결된다. 어디서나 기원하고, 빌고, 기도하는데 일본은 널려있는 신사 어딜 가도 부적을 팔고 소원지를 매달고, 중국은 웬만한 기도처는 빨간 소원띠와 향으로 넘쳐난다. 태산에서는 향을 피우지도 않고 그냥들 바치는데 나도 한 번 사보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비싸서 포기했다.

5시경 법화원을 떠나 3호차 인솔자인 동북아역사재단 연민수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치박까지의 예닐곱 시간이 걸린다는 400km 대장정에 올랐다. 우리가 탔던 버스가 30명 조금 넘게 타는 고급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거리 운행에 너무도 배고프고 지쳐 9시쯤 되어서야 청도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청도는 30년 동안 독일 지배를 받았던 티라 맥주가 맛있다고 모두들 얘기해서 한 모금 맛을 보았지만 술맛을 모르는 나는 그게 그거였다. 8조 조원님들이 소주를 청했는데 80원을 내란다. 여기는 중국이니까, 부르는 대로 다 주면 바보니까 나는 깎아서 70원을 냈다. 웬지 흐뭇했다. 청도는 중국 10대 경제 도시로 500개 이상의 한국 기업과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했으나 최근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본국으로 철수하고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식당 앞에서 과일들도 사고 다시 출발한 뒤 가이드가 대국굴기 네덜란드 편 CD를 틀었는데 17세기 해양을 재패했던 '작은 나라 네덜란드 세계를 움직이다.'라는 것이었다. 아는 내용들이라 흘러가며 즐며 보았고 정말 몸이 뒤틀릴 지경이 다된 밤 1시쯤에야 치



박 숙소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룸메이트와 ‘호텔이 정말 좋다.’ 등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감했다.

셋째 날(8월 1일) - 태산에 오르고, 공자님을 보다

태산! 말만 들어도 웬지 영험하고 학생일 때 배웠던 ‘태산이 높다 하되’로 시작하는 시조 덕분에 꽤 친숙한 느낌도 드는 산이다. 정확히 7시 20분 숙소를 출발하여 태안으로 가는 도중 펼쳐진 농경지의 작목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저 멀리 산들은 굉장히 악산이고 나무가 별로 없어 우리의 울창한 삼림과 비교되었으나 길가에 무궁화가 자주 보여 반가웠다. 10시쯤 태산 아래 셔틀버스 승차장에 도착했다.

나중에 가이드가 정문 쪽은 인파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설명해 줄 때 알았지만 우리가 올라간 이 코스는 태산의 여러 등정 코스 중 가장 쉽게, 가장 빨리 태산에 올라가는 방법이었다. 남들은 남쪽 정문에서 6~7시간 걸려 7,412개 계단으로 오르거나 북쪽에서 등반하다가 후석오삭도를 짧게 이용하는데 비해 우리는 버스와 긴 케이블카(도화원삭도)로 태산 코밑까지 가서 아주 잠깐 마지막 남은 계단을 올라 정상인 옥황정에 도착할 수 있었다. 태산의 규모에 비해 잠깐이지만 무릎이 안 좋은 나에게도 그것도 꽤 먼 길이였고 힘들었다. 12시 30분까지 내려오라는 약속 때문에 그 온 산에 널려 있는 석각과 건축물들을 차분히 보질 못하고 우리는 종종걸음 치기





바봤는데 그에 비해 중국인들은 너무도 여유로웠다.

황제들이 올라 제를 지냈고 또 태산 등정이 영생을 준다고 여겨져 중국인들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신령스러운 산이란다. 어쩐지 중국인들이 너무 많았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와 같은 등산복이나 간편 복장이 아니고 치마를 입거나 일상복을 입고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1년을 힘들게 일하고 휴가를 태산으로 와서 하루를 온전히 태산에 머물다 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태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생각했었는데 다 평생소원인 태산 등정을 온 사람들이었고 비싼 태산 입장료 등 본전을 뽑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태산에 머문 시간이 한 시간 남짓인데 7만 원의 비용이 매우 아까웠다. 천가를 걷다 보면 태산 여신을 모신 벽화사가 나오고, 끝인가 싶은 곳에 어느 황제가 썼다는 금빛 석각이 있는 대관봉이 있었다. 이○○ 조원님의 도움을 받으며 마지막 계단을 올라 드디어 옥황대제를 만날 수 있었다. 감격! 감격! 감격! 내가 드디어 태산에 올랐어요. 역시 거금 10원으로 공양을 바치고 모두의 무사안녕을 빌고 내려왔다.

태안에서 곡부까지는 1시간 거리인데 평원으로 산이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별로 높지도 않은 태산이 그렇게 오악독존! 최고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라진 미루나무들이 눈에 띈다. 우리는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공묘와 후손들의 거주지였던 공부, 그리고 공자의 무덤이 있는 공림을 돌아볼 예정이었으나 5시 30분 마감 시간에서 단 3분이 늦어 공림에는 입장하

지 못했다.

공묘는 중국의 3대 전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성전이 웅장하고 용으로 장식된 기둥들도 화려했으며 들어가는 입구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 7개의 문이 있었다. 역대 황제들이 내린 비석과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 뭔가 학문적 영감을 줄 것도 같은 장소이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너무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그 특유의 쟁쟁 울리는 옆 가이드 말에 우리의 설명이 묻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사실 가는 곳마다 실정은 비슷해서 너무나 어렵게 온 중국 답사를 좀 찬찬히 못 보고 후딱 지나갈 때마다 안타까웠다.

공부는 공자의 후손이 거주하던 집인 동시에 사무를 보던 관청도 겸한 곳인데 당시 공씨 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곡부를 다스리는 관직을 세습 받고 아주 호화롭게 살았던 듯하다. 가마가 여자용, 남자용이 따로 있어 오늘날로 치면 엄마용 롤스로이스, 아빠용 벤츠 뭐 그런 식이란다.

들어가지 못해 모두 아쉬워하며 공림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찍고 돌아가는데 노점에서 사고 싶었던 논어 죽간이 눈에 띈다. 근데 뭐라고 말을 꺼내질 못해 못 사고 다음날 박물관에 가면 있겠지 했는데 결국 없어서 내내 살 걸 하고 후회하였다. 다음 차수에 아는 분이 있으면 부탁하려고 열심히 뒤졌으나 없어서 포기했다. 저녁은 공자 가문의 식사라는 공부가연을 먹었는데 굉장히 화려했으며 남자분들은 공자 가문의 술인 공부가주도 사셨다는데 우린 구경도 못했다. 저녁 식사를 한 장소에는 북경대학농집단(회사인가?) 부인들과 아이들이 캠프를 와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중국에서 유학한



재단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한류에 대해 물어보니 ‘김수현’, ‘엑소’를 안다고 하며 우리 버스가 갈 때까지 예쁜 아이들이 손을 흔들 어준다. 4시간 걸려 치박 숙소에 도착하니 11시 10분, 1시 무렵 잠 이 들었다.

넷째 날(8월 2일)

- 박물관 3곳, 그리고 가도 가도 끝없는 옥수수 밭

비교적 여유 있는 8시 출발이었다. 그런데 20분을 지체했는데 이유인즉 일행이 침구류를 오염시켰다고 호텔에서 배상을 요구해서 그걸 해결하느라 늦어진 것이었다. 한국해양재단 배 과장님이 중국 은 간혹 그런 일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알려준다.

치박은 과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수도로서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박물관이 많았다. 처음으로 간 곳은 고차박물관으로 과거 우마차부터 오늘날 최신 교통수단까지 조각 되어 있는 입구부터 인상적이었고 소나 말만 수레를 끌었던 것이 아니고 낙타, 코끼리가 끄는 차도 있고 투석기 등 바퀴가 달린 각종 기물들이 전시되어 고대 중국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다. 도로 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순마갱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말 무덤에는 말들이 화석이 되어 나란히 누워 있었고 마지막 몇 마리는 입에 재갈이 씌워져 있는데 먹는 걸 밝혀서라고 한다. 아무리 술로 마취를 하고 매장을 했다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말들을 질서 있게 매

장했는지 궁금했다. 두 번째 제국고성유적박물관은 입구의 큰 제나라 지도와 고성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만리장성과 관계있냐고 묻자 제국 고성은 현재 없어지고 장성과 관계가 없다고 답해준다. 지금은 박물관 건물 모양으로나마 흔적이 남아 있다. 2호차 가이드에게 만리장성의 동쪽 끝, 산해관을 짚어 달라고 하니 잘 알지 못했다. 전시물 중에는 관포지교의 관중이나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자의 동상, 세발 달린 토기와 청동 잔(이것은 순마갱에서 명도전 모형과 함께 구매하여 몹시 흐뭇하였음), 구멍이 있고 배식 도구라고 쓰여 있는 옥돌 받침, 최고로 오래되었다고 세계협회가 인증했다는 축구공 등이 있었다. 세 번째 순마갱은 강태공의 25대손이라는 제국 군주 경공의 무덤으로 600여 필의 말을 함께 순장한 것인데 현재 발견된 것은 228마리이고 그 절반 정도에 유리를 씌워 일반에 공개하고 있었다. 유력자일수록 묻는 말의 수가 많았다고 하니 경공의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말의 숫자만 많을 뿐 고차박물관에서 본 것과 별로 다른 게 없고 유리가 있어 자세히 보기는 더 어려웠다.

12시 30분에 치박을 출발하여 잠깐씩 휴게소에 내리는 시간 포함 석도까지 장장 7시간을 가야하는 대장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올 때는 밤에 와서 잘 몰랐는데 갈 때는 낮이라 정말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그 길 주변에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었다. 군데군데 배추나 수박 밭도 있지만 옥수수가 정말 치천이었고 우리네 시골에서도 왜 그리 중국산을 많이 팔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우리와는 다른 한 쪽이 흙으로 덮인 모양의 비닐하우스



가 인상적이었다. 가는 내내 ‘장보고’ 역사 스페셜도 보고, 한 명씩 답사 소감도 발표하고 해양재단의 여러 사업에 관한 안내도 듣다보니 비교적 지루하지 않게 도착했다.

석도 숙소에서 화려한 해물 뷔페로 저녁을 먹고 일행들과 해변을 어슬렁거리며 산책도하고 중국에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유로운 밤 시간을 보냈다.

다섯째 날(8월 3일) - 위해에 반하고, 유공도에 상륙하다

8시 20분에 출발하여 세계 100대 깨끗한 도시에 뽑혔다는 1시간 거리 위해로 향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확장되었다는 위해는 어느 선진국 도시 못지않게 위용이 대단하여 홍콩이나 상해를 연상시킨다. 인구는 60만 명이지만 13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아파트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북경 등의 부자들이 집을 사서 휴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교적 시민들의 문화 의식이 높아 교통 신호도 타 지역에 비하면 잘 지키고 롯데백화점, 마트 등이 들어가 성업을 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유공도에서 돌아오면서 바다 위에서 보았던 위해의 스카이라인은 중국의 미래였다. 아! 내가 중국을 설블리 화장실 문이나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싶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작은 도시 하나가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이 맘만 먹는다면 정말 무섭게 성장하겠다. 중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



나라와 일본 사람뿐이라는데 시끄럽고 냄새난다고만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삼 다른 모습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과 헛갈릴 만큼 세련된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백 개가 넘어 보이는 큰 컨테이너 박스가 배에 실리느라 2시간여 출항이 지연되는 것을 보니 중국 물품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 언젠가 실크로드를 여행하고 오신 동료 분들이 중국, ‘발전 무섭더라.’ 우루무치 근처 신 실크로드 4차선 고속도로에 물자를 실은 화물차들이 뺑뺑이 서역을 오고 가더라는 말씀이 새삼 기억났다. 학교로 돌아가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리고 중국이 언제까지나 시끄럽고 냄새나는 중국이 절대 아님을, 5,000년 탄탄한 문명과 광대한 땅과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그들의 물건과 문화로 덮어 버릴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가짐부터 저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공도는 1895년 청일전쟁의 현장인데 중국에서는 갑오전쟁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먼 곳인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청과 일본이 한 판 전쟁을 벌여 결국 일본이 승리한 곳, 일제강점기의 초석이 다져진 곳,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치욕의 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박물관을 지어 온 국민에게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었다. 과거 북양함대의 사무실이 해군공소 간판을 붙인 채 박물관이 되어 대포와 어뢰, 포탄 등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독일 자문관을 비롯한 북양수사 제독 정여창의 모습 등이 실물 크기로 재현되어 있었다. 새로 지어진 큰 박물관에는 일본에 의해 풍도에서





북양함대가 기습당하여 전력 면에서는 청이 우세했으나 함대 운영 비가 서태후의 이화원을 건립하는데 전용되는 부패한 정권 때문에 완패 당하는 과정, 당시 해군의 근무 모습, 위해와 대만을 일본에 내주게 되는 수치스런 시모노세키조약의 모습, 중국이 갈가리 찢겨 서구 열강들의 반식민지 신세로 떨어지는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위해의 한식당 목욕탕 의자에 앉아 점심을 먹고 석도로 돌아와 출국 수속을 마치고 구멍가게 같은 면세점에서 동료들에게 줄 짓가락도 사고 4시 30분 승선을 완료했다. 배가 한국에서 출항할 때는 딱 제 시간을 지켰지만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 정말 긴 시간 지체되었다. 우리만 왜 출항이 지연되는지 궁금해 할 뿐 중국인 아줌마들은 갑판에서 부채춤도 추고 3층에선 에어로빅도 하면서 참 여유롭다. 늦어도 7시 경에는 떠나야 할 배가 9시 20분이 되어서야 큰 기적을 울리며 출항한다. 중국 사람들의 만만디는 어디에나 있었다. 우리 조는 밤늦도록 화동궐리 갑판에 앉아 7080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쏟아질 듯 아름다운 별들을 실컷 감상하였다.

여섯째 날(8월 4일) - 귀국은 언제나 즐겁다

누군가 산에 왜 올라 가냐고 하니 산이 거기 있어서라고 했다지만 나는 국외 여행을 가는 목적이 돌아올 내 나라, 내 땅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인 것 같다. 암만 좋은 곳이라도 언제나 돌아올 때가 가장 즐거웠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느니, 전

날 인천항이 봉쇄됐다느니 하는 뉴스에 한국에 제때 못 올까 걱정했으나 우리는 출발한지 13시간만인 10시 40분에 인천항에 입항했다. 아! 마음이 푸근해졌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먼 창원으로 가야하는 김○○ 선생님과 인천종합터미널로 향했다. 터미널 화장실에 들어가니 일단 깨끗하고, 한 아이가 내 뒤에 와 줄을 딱 선다. 흐뭇하여 “너 몇 살이니?”라고 물어보니 여덟 살, 초등학교 1학년이다. 우리나라는 되는 나라이다. 아니 잘 될 나라이다. 며칠 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는 마치 대형 건물 주차장처럼 각 문마다 큰 표시등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 있으면 빨간불, 비어 있으면 초록불이 켜지는 아주 쾌적한 화장실 시스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선진국이다.

돌아와 내가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단에 지원했던 신청서를 다시 읽어 보았다. 모든 교사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특히 지리나, 역사 교사만큼은 답사를 통해 많이 보고 듣고, 본만큼 풍부하고 살아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적혀 있다. 또한 지리 교과에서는 독도를 포함한 해양에 관한 교육 과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미 1,200년 전 바다를 주름잡았던 해양 위인 ‘장보고’에 관한 재조명과 바닷길 답사 체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싶다고도 적어 놓았다. 앞으로 바다 자원의 활용 및 주변국과의 영토 논란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필요한 해양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고, 짧은 답사로 전문가 수준까지 가지는 못해도 학생들로 하여금 해양을 생각하는 계기, 관심을 가지는 계기, 해보고 싶은 평생의 업으로 바다를 1순위로 넣는 약간의 생각 올림



은 충분히 제공해주고 싶다고 적었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풀어 놓을지 나의 고민이 깊어진다. 나의 학생들을 ‘독도는 우리 땅이다.’이라는 말에 누가 ‘왜’라고 물으면 그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키우고 싶고, 중국이 저렇게 무섭게 성장해가고 있음에 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싶고, 일본이 시멘트를 들이 부어 암초를 섬으로 만들고, 영해를 늘려갈 때 우리 영해를 지켜낼 인재들로 키우고 싶고, 해양 관련 학문들을 전공하여 장차 영토 수호, 해양학, 해양 자원, 바다 물류 수송, 국제 통상 등의 전문가이자 제2, 제3의 ‘장보고’로 성장할 꿈을 갖게 하고 싶다.

‘장보고’는 이미 1,200년 전에 우리나라를 해양의 물류 중심지로 올려놓았던 선구자이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장보고’의 발자취를 내 눈으로 보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번 답사는 나에게 지식보다는 오히려 많은 영감을 주었다. 예전에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함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풍요로움을 보았을 때는 마냥 부럽기만 했었는데, 이번 답사는 중국 그 광대함을 넘어 대양으로 눈을 돌려 섬 같은 우리 땅을 세계의 허브로 만들 생각, 좁은 땅에서 경쟁하기보다 저 무한한 바다가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샘솟고 있다.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인솔 교수 명단

No	차수	성명	학교명	메일 주소
1	1차	김덕원	명지대학교 사학과	saryun84@hanmail.net
2		김창겸	한국학중앙연구원	kimck0301@hanmail.net
3		이유진	송실대학교 사학과	yilee002@hanmail.net
4		김혁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admkimhs@hanmail.net
5	2차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mayeon21@nahf.or.kr
6		채미하	경희대학교 사학과	mhchai@korea.kr
7		한영태	재향군인회	navyflag@hanmail.net
8		조학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hakjecho@hotmail.com
9	3차	김희만	동국대학교 사학과	sillasa@hanmail.net
10		박남수	국사편찬위원회	panama11@moe.go.kr
11		조이옥	이화여자대학교	joyok82@daum.net
12		류지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hallwe7788@naver.com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1차 참가자 명단

No	성명	초·중·고	학교명	비고
1	고영실	초등	창진초등학교	·
2	공선미	고등	부명고등학교	·
3	구미진	초등	노산초등학교	·
4	구수옥	중등	초은중학교	·
5	권오신	고등	광동고등학교	·
6	김경수	고등	선인고등학교	·
7	김계순	고등	정의여자고등학교	·
8	김다희	초등	미봉초등학교	·
9	김면철	고등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
10	김영해	중등	교문중학교	·
11	김은자	고등	구로고등학교	·
12	김지혜	고등	연천고등학교	·
13	김차명	초등	정왕초등학교	·
14	류주현	중등	호남삼육학교	·

15	박남기	중등	공주중학교	.
16	박태연	고등	한양공업고등학교	.
17	백종송	초등	감정초등학교	.
18	변훈숙	중등	가림중학교	.
19	소현숙	중등	서전주중학교	.
20	신홍경	중등	중랑중학교	.
21	심승섭	중등	상지여자중학교	.
22	양성우	중등	강원중학교	.
23	오형문	초등	무주초등학교	.
24	왕택근	중등	금명중학교	.
25	유희선	고등	상계고등학교	.
26	윤병남	고등	서울공업고등학교	.
27	이경미	중등	용남중학교	.
28	이계복	고등	낙생고등학교	.
29	이관영	고등	원주삼육고등학교	.
30	이규현	초등	서울동교초등학교	.
31	이기순	중등	동인천중학교	.
32	이동섭	고등	상주공업고등학교	.
33	이상훈	고등	전주고등학교	.
34	이응총	중등	호원중학교	.
35	이재영	초등	주천초등학교	.
36	이형우	중등	화흥중학교	.
37	이환우	고등	잠실고등학교	.
38	임영희	고등	세교고등학교	.
39	임위시	중등	봉래중학교	.
40	임호순	중등	예일여자중학교	.
41	장성욱	중등	대영중학교	.
42	장원기	초등	덕신초등학교	.
43	전보현	고등	광양고등학교	.
44	전효창	고등	창원문성고등학교	.
45	정경자	고등	영광공업고등학교	.
46	정광진	고등	화곡고등학교	.
47	정명희	고등	정의여자고등학교	.
48	정미숙	중등	동현중학교	.
49	정은은	중등	김녕중학교	.
50	정재희	초등	구미초등학교	.
51	정현권	초등	장목초등학교	.
52	정홍채	고등	이충고등학교	.
53	최명숙	중등	대방중학교	.
54	하승석	중등	법동중학교	.
55	허영심	고등	제주외국어고등학교	.

56	홍현옥	중등	매호중학교	·
57	황인선	중등	도담중학교	·
58	황희정	고등	신도고등학교	·
인솔 교수				
59	김덕원	인솔 교수	명지대학교 사학과	·
60	김창겸	인솔 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역사관광학과	·
61	이유진	인솔 교수	승실대학교사학과	·
해양수산부 기자단				
62	김예란	해양수산부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
63	남혁진	해양수산부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
해양수산부				
64	김재겸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65	김태균	해양수산부	해양영도과	·
66	안종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67	이원재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	·
해양 관련 인사				
68	김혁수	해양 관련 인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69	김명기	해양 관련 인사	해항회	·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2차 참가자 명단

No	성명	초·중·고	학교명	비고
70	강순해	초등	성남초등학교	·
71	강지혜	초등	태평초등학교	·
72	김미정	초등	서귀중앙초	·
73	김지연	초등	운중초등학교	·
74	김향정	초등	문화초등학교	·
75	김효수	초등	인천학산초	·
76	김범	초등	여주초등학교	·
77	김세종	초등	전주한들초	·
78	박명숙	초등	서울등촌초	·
79	박화순	초등	안양귀인초등학교	·
80	성혜숙	초등	주석초등학교	·
81	손수진	초등	푸른초등학교	·
82	염윤숙	초등	총무초등학교	·
83	변귀숙	초등	아산복수초	·
84	김종완	초등	서울송례초	·
85	박경태	초등	절영초등학교	·

86	오윤숙	초등	서울수암초	
87	이미송	초등	유안초등학교	
88	이영애	초등	단대초등학교	
89	장미영	초등	서울지향초	
90	정명숙	초등	운송초등학교	
91	박종완	초등	송정서초등학교	
92	양정모	초등	고양한내초등학교	
93	원유중	초등	차등초등학교	
94	조민자	초등	인천새말초	
95	주현숙	초등	검바위초등학교	
96	최순	초등	호성초등학교	
97	허미경	초등	서울 문덕초	
98	정정훈	초등	장락초등학교	
99	조세현	초등	서울미아초	
100	최기웅	초등	서울강일초	
101	하주봉	초등	산의초등학교	
102	최미정	초등	인천사리울초	
103	박선영	초등	명촌초등학교	
104	황은미	초등	회명초등학교	
105	장형주	초등	안산호원초등학교	
106	이신영	초등	서릉초등학교	
107	주인숙	초등	인천동막초	
108	고장현	초등	성산초등학교	
109	박기태	초등	임원초등학교	
110	경혜숙	중등	거창여자중학교	
111	박근양	중등	회천중학교	
112	박순영	중등	삼성중학교	
113	심경애	중등	신일중학교	
114	김범중	중등	인왕중학교	
115	김현겸	중등	봉영여자중학교	
116	박남규	중등	용문중학교	
117	양성봉	중등	전주해성중학교	
118	안애자	중등	광일중학교	
119	양효주	중등	귀래중학교	
120	윤순자	중등	풍양중학교	
121	이미선	중등	귀인중학교	
122	이석민	중등	성덕여자중학교	
123	전돈수	중등	경덕중학교	
124	조남윤	중등	성덕여자중학교	
125	이대영	중등	봉담중학교	
126	김라미	고등	속지고등학교	
127	김연심	고등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128	김현숙	고등	경남관광고등학교	

129	홍은민	고등	상일고등학교	·
130	김동완	고등	석정여자고등학교	·
131	박종일	고등	밀양여고	·
132	오충남	고등	송덕고등학교	·
133	이범철	고등	청주외국어고등학교	·
134	이성춘	고등	경북고등학교	·
135	안효숙	고등	지현고등학교	·
136	차정미	고등	서운고등학교	·
137	채금주	고등	신봉고등학교	·
138	김세원	고등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
139	이세호	고등	동원고등학교	·
140	임홍주	고등	대덕여자고등학교	·
141	전완식	고등	전완식(동해광희고)	·
142	정재훈	고등	서울대사범대부설고	·
143	조동현	고등	송파공업고등학교	·
144	홍성현	고등	인천인명여자고등학교	·
인솔 교수				
147	연민수	인솔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
148	채미하	인솔 교수	경희대학교 사학과	·
149	한영태	인솔 교수	재향군인회	·
해양수산부				
150	손서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 담당관	·
151	이은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152	장수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153	조상수	해양수산부		·
해양 관련 인사				
145	이보연	해양 관련 인사	동북아역사재단	·
146	이영승	해양 관련 인사	교육부 교과서 기획과	·
154	조학제	해양 관련 인사	한국해양대학교	·
155	윤정건	해양 관련 인사	해항회	·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3차 참가자 명단

No	성명	초·중·고	학교명	비고
156	김경숙	초등	김해외동초등학교	·
157	김영	초등	성라초등학교	·
158	김영지	초등	경남창원성주초	·
159	김정연	초등	관평초등학교	·
160	김지은	초등	본오초등학교	·

161	남경숙	초등	가평초등학교	
162	김동위	초등	인천남동초	
163	김동중	초등	서울진관초	
164	백동기	초등	인천마전초	
165	남혜진	초등	한재초등학교	
166	민선경	초등	서울당중초	
167	박미옥	초등	서울영도초	
168	이경옥	초등	대구종로초등학교	
169	이소영	초등	고양가좌초등학교	
170	이용인	초등	반포초등학교	
171	송기팔	초등	송산초등학교	
172	심재윤	초등	회동초등학교	
173	양동근	초등	은계초등학교	
174	임혜숙	초등	용인한빛초	
175	정진영	초등	안성초등학교	
176	최수영	초등	조치원대동초	
177	최은주	초등	화홍초등학교	
178	오숙경	초등	서울대림초	
179	이경희	초등	대구동호초	
180	최장선	초등	서울신계초	
181	이남형	초등	군서초등학교	
182	이하림	초등	서울창신초	
183	오숙자	초등	서울미양초	
184	김유림	초등	군산아리울초	
185	박경빈	초등	동인초등학교	
186	박명자	초등	금정초등학교	
187	조성례	초등	왜관초등학교	
188	이창원	초등	수원 호매실초등학교	
189	임상직	초등	대구월성초	
190	강성경	중등	화곡중학교	
191	박경숙	중등	양산중학교	
192	박세옥	중등	대평중학교	
193	민경훈	중등	태성중학교	
194	박병규	중등	등명중학교	
195	서수용	중등	영흥중학교	
196	안상기	중등	진안중학교	
197	손현정	중등	봉명중학교	
198	이경희	중등	신동중학교	
199	이미화	중등	서울 자양 중학교	
200	이선경	중등	양오중학교	
201	우종열	중등	선덕중학교	
202	이민수	중등	장평중학교	
203	이응수	중등	구갈중학교	

204	임현석	중등	동아여자중학교	
205	이승희	중등	청주여자중학교	
206	정미선	중등	윤림중학교	
207	박찬주	중등	신림중학교	
208	전재훈	중등	덕수중학교	
209	현영진	중등	고성동해중학교	
210	황영은	중등	광풍중학교	
211	임채삼	중등	동구여자중학교	
212	강면숙	고등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213	장위숙	고등	홍천고등학교	
214	정남희	고등	칠보고등학교	
215	구복희	고등	신갈고등학교	
216	권혁용	고등	제물포고등학교	
217	김익수	고등	송도고등학교	
218	김정기	고등	대전도인고등학교	
219	김정호	고등	안면고등학교	
220	성홍주	고등	진성고등학교	
221	정미숙	고등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222	박경혜	고등	풍산고등학교	
223	송영성	고등	성문고등학교	
224	유두호	고등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225	유선태	고등	강경고등학교	
226	옥성일	고등	대영고등학교	
227	이종무	고등	홍명고등학교	
228	최영	고등	운영여자고등학교	
229	박홍섭	고등	가락고등학교	
230	배영식	고등	창원명곡고등학교	
인솔 교수				
231	김희만	인솔 교수	동국대학교 사학과	
232	박남수	인솔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233	조이옥	인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해양수산부 대학생 기자단				
234	김성훈	해양수산부 대학생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235	안정모	해양수산부 대학생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해양수산부				
236	강미라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237	박재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238	우봉출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239	황현태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	
해양 관련 인사				
240	류지현	해양 관련 인사	네비웍스(주)	
241	이상억	해양 관련 인사	해항회	



INDEX

● ㄱ

갑신정변	15
갑오농민전쟁	13
갑오전쟁전시관	104
갑오중일전쟁	13
강태공	80
결초보은(結草報恩)	172
경술국치일	131
계백 장군	10
고사기(古事記)	10
곡부(曲阜)	108
근륜산	17
공묘(公墓)	23
공물(貢物)	182
공부(孔府)	22
공부가연	54
공산주의	224
공자의 묘	100
관동별곡	18
관저	169
관포지교	26
구당신라소	84
국공내전(國共內戰)	115
국수주의(國粹主義)	41
궁파(弓巴)	30
금성옥진	101
금은착양감동존	227
기태산명비	51, 221
길림성(吉林省)	250
김옥균	15

● ㄴ ~ ㄷ

나당연합군	10
내물왕(奈勿王)	31
녹조현상	69

다도해(多島海)	36
대관봉(大觀峰)	397
대국굴기	77
대문 구문화(大文口文化)	326
대성지 성문선왕묘	116
대승경전	48
대웅보전(大雄寶殿)	267
당사오핑	22
도교사원	113
도덕정치	223
도래인(渡來人)	10
동북아 해상 무역	317
동북아역사재단	520
동서냉전	41
동악(東岳)	98
동주순마갱(東周殉馬坑)	118
동학농민운동	60
두보	38

● ㄹ ~ ㅂ

뤼순 대학살	16
류공다오(劉公島)	71
맹자	17
묘오족(苗族)	11
명신(明臣)	175
무령군 소장	44
무령소장	278
무령종군(武寧從軍)	28
무자비(無字碑)	18
문헌통고(文獻通考)	237
문화대혁명	22
민애왕	31
반공자운동(反孔子運動)	5 07
번진의 난	37

번천문집(樊川文集)	38	순장제도	172
법화경	48	시모노세키조약	13
법화우의보정	353	시황제	99
베를린 장벽	41	신라대명신	167
벽골군	213	신라명신	34
벽하사(碧霞祠)	113	신라방(新羅坊)	36
병인양요	12	신라선신당	34
보국안민	60	신무왕조	30
봉건주의	507	신미양요	12
봉선의식	18		
북경대학농집단	523	● ○	
북양해군제독처	15	아규정전	295
북양해군총사령관	70	아편전쟁	14
빅토르 위고	14	아포리즘	11
		양무운동	149
● 人		양사언	51
사찰 철폐령	32	양쯔강	56
산동성	10	에머슨	11
삼강오륜(三綱五倫)	175	엔닌(圓仁)	32
삼국교역	315	여유마두(旅游碼頭)	479
삼국사기	29	여유묘오광(麗幽妙奧曠)	370
삼국유사	30	연성공(衍聖公)	22
삼황오제(三皇五帝)	258	연성공부(衍聖公府)	115
상업제국	37	연해개방도시	276
서태후	14	영성문(靈星門)	399
석도	10	오대부(五大夫)	99
석도시(石島市)	95	오성홍기(五星紅旗)	464
석도항	67	오송정(五松亭)	99
석존대제	23	오악(五岳)	98
성덕참천(聖德參天)	468	옥황정(玉皇頂)	239
성선설(性善說)	24	외규장각	12
센카쿠 열도	272	용마루	96
소수민족	11	운룡석주(雲龍石柱)	115
소정방	10	웨이하이시	173
수구(水球)	391	위진남북조시대	79
수성보지(殊胜寶地)	469	위하이	13
순례자	98	유가사상	275
순마(殉馬)	27	유공도박람회	104
순마갱	57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6
순장	57	유복렬	12

음악(Music)의 언덕	254
임차 지구	336
임치(臨淄)	118
입당구법순례기행기	49

● ㄷ~ㄸ

장보고기념탑	315
장보고전기관	49
장안	11
재당(在唐)	198
적산 풍경명승구	96
적산대주점	27
적산촌(赤山村)	141
점파국(태국)	38
정만적산(情滿赤山)	28
정사(正史)	236
제국주의	174
제나라역사박물관	66
제도대주점	81
제독(提督)	112
조공 무역	93
조령(祖靈)	14
조선 의궤	12
조차지	81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	108
중국고차박물관	117
중화인민공화국	53
중화해단(中華海壇)	246
지성림(至聖林)	23
차마유적(車馬遺蹟)	242
천진(天津)	109
천청자결	20
철기문화	26
청도(靑島)	112
청말민국(清末民國)	121
청일전쟁	13
청해진대사	216
춘추시대	25
치박	25

● ㅋ~ㅎ

케이블카	19
크루프 대포	105
클러스터	160
태산극정(泰山極頂)	253
태화전(太和殿)	113
텐진 조약	13
통일신라시대	95
파사국(페르시아)	38
팔왕의 난	32
한고조 유방	53
한국학중앙연구원	68
한국해양재단	62
한무제	18
한비아	104
함지(陷地)	10
해군공부	15
해도인(海島人)	39
해무리굽 도자기	142
해상교통권	45
해신	35
해양수산부	87
현대아산	62
호연지기(浩然之氣)	506
홍위병	100
화동횬리	10
화우진	56
황하	10
황해	10
후이치마깡	226
휴머니스트	85

201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단체사진

2014
장보고 중국 유적지
1차 답사단



2014
장보고 중국 유적지
2차 답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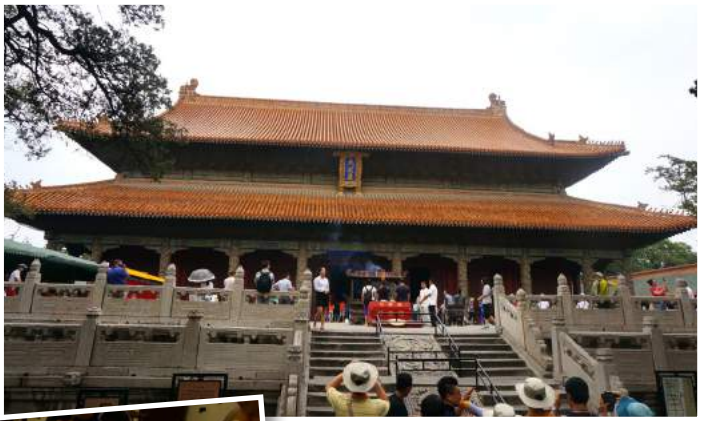
2014
장보고 중국 유적지
3차 답사단

곡부



곡부 거리

대성전



공부가연



태산



태산 입구



태산





고차박물관



고차박물관



고차박물관
(고속도로 공사 중 발견된 순장마차)

고차박물관에 복원 전시된
고대의 마차





제경공순마갱





제경공순마갱



제나라역사박물관







장보고전기관



장보고전기관 전경





장보고전기관



적산법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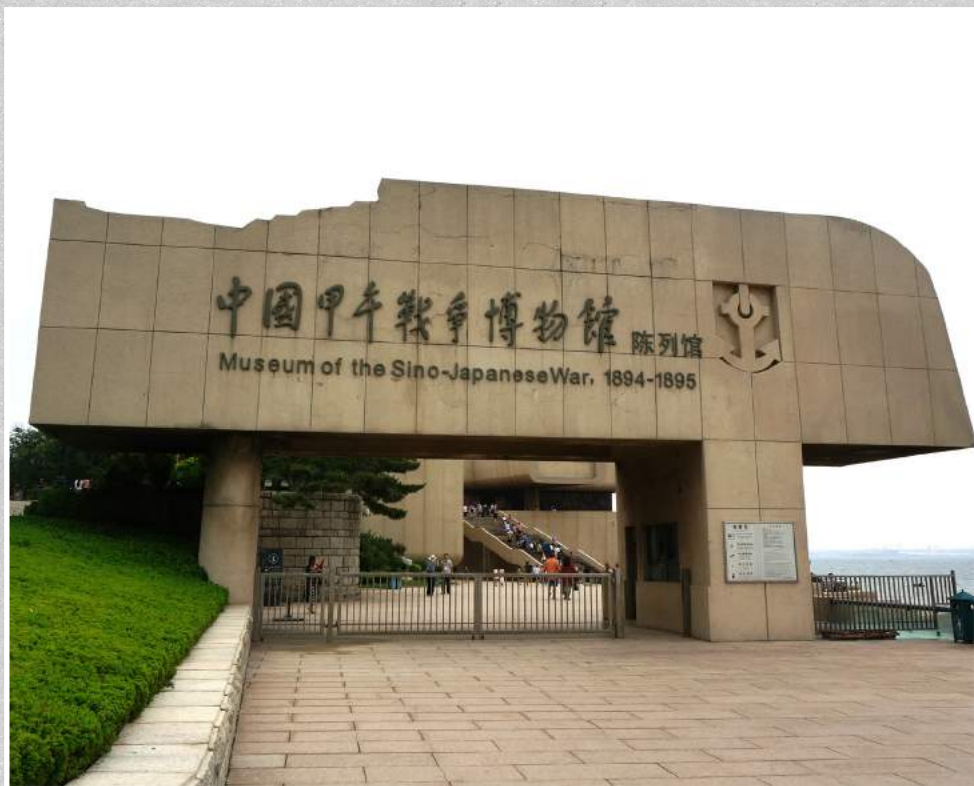
적산법회원 입구



적산풍경명승구 입구



중국갑오전쟁박물관



중국갑오전쟁박물관





만화로 배우는 바다 교과서 시리즈



신비한 바다 어드벤처 1

해양산업 · 경제 편

산업과 경제의 토양,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물이 묻혀 있는 신비한 바닷속의 해양산업 이야기!



신비한 바다 어드벤처 2

해양과학 · 기술 편

인류의 보물 창고인 바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간다.



신비한 바다 어드벤처 3

해양의 역사와 인물 편

해양개척의 역사를 찾아가면서 인간문명을 발전시킨 위대한 해양인물들을 만난다.



신비한 바다 어드벤처 4

해양경찰 편

우리의 바다!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용감한 바다 이야기.



신비한 바다 어드벤처 5

선박과 조선 편

세계 곳곳을 누비는 선박들의 이야기와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의 세계를 체험해 보자.



신비한 바다 어드벤처 6

해양안전 편

신나는 바다! 즐거운 바다!
바다 즐기기의 첫걸음
해양안전 이야기.

『당나라에서의 엔닌 여행기』에서는
상업 제국(Commercial Empire)을 건설하였던
장보고 대사를 일러
위대한 무역왕(Merchant Prince)
이라 칭송하고 있다

『당나라에서의 엔닌 여행기』에서는 장보고 대사를 일러
‘상업 제국(Commercial Empire)을 건설하였던
위대한 무역왕(Merchant Prince)’이라 칭송하고 있다.

신라 본국을 왕래하면서 중국, 일본, 점파국(태국),
파사국(페르시아), 아랍에 이르기까지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위대한 선조 장보고!

신라 본국을 왕래하면서 중국, 일본, 점파국(태국),
파사국(페르시아), 아랍에 이르기까지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위대한 선조 장보고!



비매품
03910
9 791195 418909
ISBN 979-11-954189-0-9